

海州 崔氏

宗誌

第3輯 2001年

人間五福과 人間崔冲
무신란과 구재(九齋)의 변천



海州崔氏大宗會刊

건축자재



- 점토벽돌(적벽돌)
- 보도 바닥 벽돌
- 테라조 타일(바닥재)
- 뉴스톤(인조대리석바닥재)

미장 · 환원 · 백토 · 무늬
 미장 · 환원 · 백토
 400×400×32mm
 400×400×17mm

점토벽돌



미장벽돌, 환원벽돌, 무늬벽돌

점토벽돌



미장벽돌, 환원벽돌, 무늬벽돌

일신뉴스톤



NR(400×400×17mm)

일신뉴스톤



NG(400×400×17mm)

일신 NEW STONE 특징

- 강도 : 900ton 초고압 프레스로 생산함에 따라 강도와 마모도가 대리석과 같다.
- 색상 : 외국산(중국)색상 자연석과 국산 자연석을 사용 생산함에 따라 영구적으로 색상 변화가 없다.
- 품질 · 규격 : 14단 연마로 광택이 뛰어나고 챔퍼링(모서리 각처리)으로 시공후 영구적으로 모서리 파손이 발생되지 않는 품질보장이 된다.
- 운반 · 시공 : 두께 17mm로 중량이 가벼워서 건축구조에 적합하며, 운반비가 절감되고, 시공이 용이하다.



崔 廣 洙
 (해능군 31대손)



日新産業株式會社
 ILSHIN INDUSTRIAL CO., LTD.

서울 · 본사 : 서울 · 강남구 신사동570-4(일신빌딩)
 驪州점토벽돌工場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연양리 159
 天安점토벽돌工場 : 충남 천안시 성환읍 수향리 171
 驪州테라조타일工場 :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상구리 148-3
<http://www.isind.co.kr> E-mail : isind@isind.co.kr

TEL:(0 2)540-0633(대)
 TEL:(031)885-5477-8
 TEL:(041)581-3094,5720
 TEL:(031)884-7722(대)

FAX:(0 2)546-9882
 FAX:(031)885-5479
 FAX:(041)582-6111
 FAX:(031)883-1462

目次 (제 3집)

發刊辭	大宗會長 吉埭 / 7
編纂辭	宗誌委員長 愚 / 13
賀 序	崔冲記念事業會長 朴性鳳 / 15
祝刊辭	成均館大學校教授 崔根德 / 17

人間五福과 人間崔冲

..... 金忠烈 / 19

무신란과 구재(九齋)의 변천 박찬수 / 31

“유학사상 최충의 위상”

학술토론회 발표회 참가기 龍 水 / 54

「유학사상 최충의 위상」을 읽고 장 근 / 60

자랑스러운 우리 조상

..... 昌 浩 / 66

高麗統一大殿에 모셔질 우리

海州崔氏 先祖 在 襄 / 76

忠毅公 崔慶會將軍의

爲國忠節의 빛나는生涯 (全南支會) / 81

효와 사랑과 충절의 꽃을 피운

논개(論介)의 발자취를 찾아서 운 식 / 102

조상의 마음을 자손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손의 마음을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 수 영 / 111

名門 海州崔氏 後裔로서의 矜持와 自負를 永 哲 / 118

섬세한 혼의 귀적 申定玉 / 128

- 최재서의 세익스피어 예술론 -

삶의 이야기 창 섭 / 147

뿌리공원 조형품의 건립과
해주최씨의 공지 承 泰 / 153

고죽 선생과 홍량 이야기 이상보 / 156

고향에 두고 온 산하 吉 竣 / 160

인천을 새로운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仁川廣域市長 箕善宗親이 밝혀 乙 善 / 167

文德齋에 崔子와 崔忠憲 康 勳 / 171

숙원인 “長山齋”를 건립하다 형 일 / 174

중후한 품격을 지닌
신념에 찬 현대적 리더 원식고문 愚 / 182

교리공파의 문헌복지장학회 운영 만 기 / 188

“노동서원”기(魯東書院記) 承 綬 / 193

“明谷書院”記 順 炫 / 198

進士公(諱垠)

“五百年 宿願을 完遂한 後裔들”
判書公(諱淑孫) 墓域 復元 道 植 / 202

大寧君派 乃村宗會 및 淸寶齋	載圭 / 210
海觀公(해관공) 永慕齋	泰峯 / 212
崔文憲과 「華海師全」	康勳 / 216
監察公派 후손 世居地 晉州	貳洙 / 219
在北先祖 設壇碑設立 除幕式	倣鉉 / 221
치악산 원운곡(元耘谷) 암단 탐방기	重讚 / 223
우리나라 성(姓)씨에 대한 고찰	愚 / 232
崔氏 姓을 가려 본다	榮根 / 237
대종회 임원연수와 집성촌 탐방기	澄植 / 242
영열공 휘 윤의 선조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인쇄	崔一齋 / 248
大宗會와 家族 共同體	문기 / 251
송조상문(崇祖尙門)하는 것이 생활의 전부인 在新宗친 ...	愚 / 256
나의 아버지	형성 / 258
생활속의 磁石(자석)	석봉 / 261
補化院 孝行賞받은 孝婦 朴一仙女史	(嶺南支會) / 266
내 삶의 시지프스	승욱 / 268
望 鄉	熙燮 / 269
大宗會報 總覽	/ 270
創立以後 現在까지 重要事項	
대종회 임원 및 운영위원 명단	/ 285

祝

宗誌第3輯 發刊

進士公派 宗親會

顧問：道植

名譽會長：宗植

會長：炯一

副會長：鶴九, 珠在

總務：冲在(副會長 겸)



進士公(垠)派祖 山所

전화 02-572-7819

Sung Ji **성지애드컴**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49번지 지산빌딩 413호
TEL : 02)2275-1939 FAX : 02)2265-0621



Brochure
Newspaper advertising
Magazine advertising
Pamphlet
Catalogue
Poster
Sign system
Package design
P.O.P / C.I.P
Illustration



학술회의 개최 발표 교수 및 임원들(1998. 11. 18)



학술강연을 경청하는 종인들



최충과 한국유학 논문집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집필교수들과 기념촬영



문헌서원을 견학하는 학생들(각급학교에서 계속해서 견학하고 있다)



문헌서원대제 헌관들과 집사들



정기총회에서 축하패 감사패 및 공로패 표창패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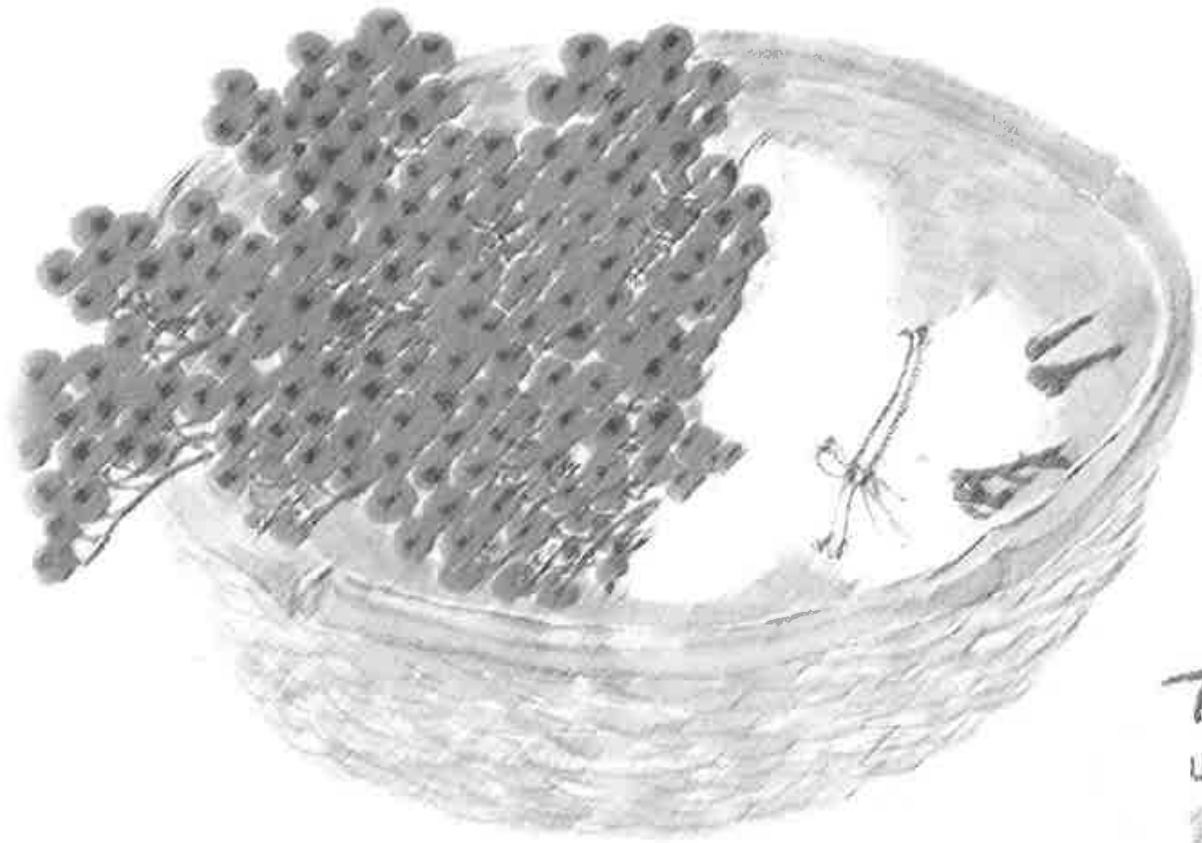
해동사 향사를 마치고



울릉도 문중낙향조 최재응선생비 앞에서
(2000년 10월 대종회 임원 연수중)

海州崔氏宗誌

第3輯 2001年



海州崔氏大宗會刊

문중의 역사와 종인들의 금수문장을 담은 문화유산으로써의 “종지”



길 준

대종회장 (34세손)

모든 국가가 자기 나라의 역사를 소상하게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듯이 대종회에서 가문의 역사를 기록 보존해 나가는 것은 대종회의 중요한 사업이며 책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중의 역사지에 그 시대를 살고 간 종인들의 금수 문장을 함께 실어나가면 종지는 문중의 역사지요. 문예지로서 문중의 귀중한 문화 유산으로 축적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 때문에 대종회가 새롭게 발족한 후 종지 발행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하고 1986년 4월에 창간호를 발행하고 그 후 1992년 7월에 제 2집을 발행한 후 다소 시일이 지연되긴 하였으나 이번에 이와같이 훌륭한 제 3집을 발

행하게 된 것을 전 종친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82년에 대종회가 새롭게 발족된 후 문중에서 일찍이 시도해 본 일이 없던 많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나 이 사업들은 문중역사에 길이 기록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임으로 종지 제 3집을 발간하면서 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한 앞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업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대종회의 새로운 발족

1957년에 해주최씨 역사상 처음으로 대종회를 결성하여 서울 은평구에 문헌영당을 건립하고 대동보(辛丑

譜)를 발간하는 등 나름대로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그후 대종회 내부의 불협화와 종친들의 외면으로 그 존립을 유지하지 못하였으며 그후 몇몇 뜻있는 종친들의 발기로 1982년에 대종회가 새롭게 발족된 후 문헌공 탄신 1000주년 기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해주최씨 1000년 역사상 일찍이 시도해 본 일이 없던 대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매년 4월의 문헌대제에는 수천을 헤아리는 전국 종친들이 구름같이 참집하는 등 참으로 격세의 감을 느낄 정도로 대종회가 크게 발전한 것입니다.

이는 대종회의 최고의결기관인 운영위원회에 뜻있는 종친들이 많이 참석하여 대종회의 운영방향을 의결하고 또한 감사하며 그리고 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등 아낌없는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신됩니다.

앞으로도 대종회가 영구히 발전해 나가도록 전 종친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 문헌공 연구논총 발행과 학술세미나 개최

문헌공 탄신 1000주년 기념사업

의 일환으로 유학계, 역사학계, 철학계 등 저명한 학자님에게 연구논문을 위촉하여 이를 집대성한 호화 대작의 논문집 「문헌공 연구논총」을 1984년 11월에 발간하고 뒤이어 동년 12월 1일에 이 논문집에 대한 학술연구 발표회를 학계와 전국 종친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논문집은 역사에 큰 업적과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신 문헌공의 일생을 1000년의 세월이 지난후에 처음으로 다룬 학술 논문집으로 학계는 물론 우리 문중의 역사적인 귀중한 재산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문헌공 탄신 1000주년 기념 대동보(경오보)발행

문헌공 탄신 1000주년이 되는 1986년 (고려통사와 대동보의 기록은 2년의 차이가 있음)에 편찬에 착수하여 1990년(경오년)에 전8권으로 발간된 이 기념보는 통상 일곱번째의 대동보가 되는 것이며 불가피하게 남한에 거주하는 종친에 국한할 수 밖에 없었으나 우리 보서 발행 사상 최대 인원이 수단에 참여 하였으며 최초로 가장(家藏)과 문헌(文獻)을 우리말로

완역을 하였고 기재내용도 현대 사조에 맞도록 그 내용을 많이 개정하였으며 보서의 체재와 외양 및 지질을 엄선하여 호화대작으로 꾸밈으로써 각 가정에서 장기간 보유와 진열에 적합하도록 하여 이후 타 문중에서 발행하는 보서의 모델이 되는 등 해주최씨 1000년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는 기념보를 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서 발행에서 많은 잉여금을 발생케 하여 이를 기금으로 문헌서원 건립이 추진된 것은 참으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문헌서원 창건

문헌공을 모시는 서원으로서 해주 최씨의 요람지라고 할 수 있는 해수에 유서깊은 문헌서원이 있고 남한에는 강원도 홍천의 노동서원과 전남 강진의 명곡서원이 있으나 장소가 협소할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전국 종친이 모이기에는 매우 부적합 함으로 대종회에서는 문헌공 탄신 10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근교에 해주의 문헌서원을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서원을 새로 신축하기로 하고 오산시 내삼미동에 좌랑공파 참판공(參判公)문중의 협조로 3,700평

의 부지를 마련하고 1992년 8월에 총공사비 10억 7천만원이 소요된 참으로 넓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문헌서원을 신축하였으며 여기서 매년 4월에 수천을 헤아리는 전국 종친이 운집한 가운데 문헌대제와 대종회 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문헌서원 건립과 4월의 문헌대제는 참으로 해주최씨 역사상 처음인 대공사요, 대행사로서 문중최고의 백미라고 아 니할 수 없습니다.

(5) 논문집 「유학사상 최충의 위상」 발간

문헌공께서는 치사(致仕)후 우리나라 최초의 사학인 구재(九齋)를 개설하여 많은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고려유학의 중흥지조(中興之祖)로 존경을 받고 계시며 또한 구재학당의 명칭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리학을 제기함으로써 공자 맹자를 도통으로 하는 공맹유학의 조종(祖宗)으로써 그 학맥이 김양감, 안향 등으로 이어져 해동공자로 추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조 중기이후 성리학이 조선조의 전통적 위치를 차지한 후 주자학이 전래되기 이전의 학문을

모두 한당학풍의 학문으로 치부함으로써 우리나라 유학사가 크게 굴절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 유학계의 많은 저명한 학자님들이 문헌공의 유학사상 위상을 재 조명함으로써 우리나라 유학사를 재 정립하여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우리나라 유학사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1998년 11월 8일 서울 세종로에 있는 신문회관에서 저명한 학자님과 관련 학계의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전국 종친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학술논문 발표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고 이 논문집과 토론내용 및 부속자료를 통합한 「유학사상 최충의 위상」을 발간하여 1999년에 전국 도서관과 종친 7,000여 세대에 일제히 배포한바 있습니다.

이 논문집은 유학계는 물론 우리 가문의 귀중한 재산으로써 우리나라 유학이 문헌공으로부터 공맹유학의 도통을 이어 나간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중에서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유학사가 완전히 재정립되도록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6) 종지 발행의 정례화 정착

이번 종지 제 3집 발행으로 문중의 역사지이며 또한 그 시대를 살고 간 종인들의 금수문장이 실린 종중문예지로써의 종지가 5년에 한번씩 꼭 발행되어 나가는 것이 대종회의 훌륭한 전통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같이 많은 종친들이 참여하는 종지가 계속적으로 발행되어 나가면 자연히 종지는 종중의 구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종중의 발전과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이 종지를 각 가정에서 영구히 보존해 나가는 것이 종중의 아름다운 관습으로 정착되면 계속해서 각 가정에서 쌓여가는 종지는 종중의 문화유산으로써 큰 빛을 발할 것이라고 확신됩니다.

이상과 같이 대종회 발족 후 우리 해주씨 1000년 역사에서 일찍이 시도한 일이 없었던 그야말로 문중의 역사적인 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음은 우리나라 유수의 명문인 해취(海崔)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한 처사로 생각되어 참으로 다함께 후손으로써의 기쁨과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종중장학회라도 창설이 되면 종중의 핵심적인 3대 사업으로 4월의 문헌대제와 종지발행 및 장학회

사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면 대중회는 살아 숨쉬듯 영원히 발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됩니다.

새로운 1000년이 시작되는 2000년 6월 15일에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지구촌 최후의 냉전지대로 뽕뽕 얼어붙어있던 우리 한반도에도 해빙의 물결이 일게되어 아직도 긴 세월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남북통일을 가시적으로 내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망의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면 종중의 단합된 힘을 결집시켜 다음 사업들이 반듯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7) 해주의 문헌서원 성역화 사업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조 시대의 대 학자이신 퇴계 선생의 도산 서원과 율곡 선생의 묘소가 국가지원으로 대대적인 개 보수를 하여 성역화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문헌공께서는 두분 선생보다 5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학인 구제를 개설하여 고려유학을 크게 일으키시고 우리나라 공맹유학의 조종으로써 해동공자로 추존을 받으신 분임으로 당연히 국가에서 응분의 지원을 하

고 중중에서도 큰 협조를 함으로써 해주 문헌서원의 성역화가 반듯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8) 구재 유희지(九齋 遺墟地)의 공원화 사업

개성 송학산 남록의 자하동(紫霞洞)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학인 구재가 개설되어 있었던 곳으로 현재 구재 유희지가 남아 있는 유서깊은 유적지인 것입니다. 이곳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사학의 역사관 및 문헌공의 동산등을 건립하여 우리나라 사학의 발상지를 영구히 보존되도록 하는 것은 문교 행정상으로도 지방자치 단체의 역사 유적지 보존상으로 보아 참으로 뜻 있는 사업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는 하나 가능하면 이곳에 구재대학을 세워 다시 한번 학문의 꽃을 피우게 하면 이에서 더 훌륭한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9) 통일 기념 대동보 발행

1990년에 발행된 문헌공 탄신 1000주년 기념 대동보에는 어쩔 수 없이 남한에 거주하는 종친들만이 참여할 수 밖에 없었으나 대망의 통일

이 이루어지면 남·북한의 전 종친이 다함께 참여함은 물론 외국에 거주하는 종친까지도 전부 참여하는 대동보가 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세가지 사업은 선조님의 현창(顯彰)사업으로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사업이며 문중 역사에 길이 빛날 사업임으로 후세 종인들이 반듯이 단합된 힘으로 이루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전통사업은 어버이에 대한 존경과 조상숭배를 이념으로 하는 효(孝)사상이 기본개념이 되고 이에서 친족과 이웃사랑 그리고 사회와 나라사랑으로 이어져 충효(忠孝)사상이 가장 으뜸가는 윤리덕목으로 숭상되고 실천되어 온 것입니다. 때문에 대종회에서는 효 사상의 실천이며 후손을 옳게 교육시키고 선도할 수 있는 이러한 조상에 대한 현장사업에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지 제 3집 발행에 즈음하여 그간에 대종회에서 이룩한 대 사업들과 앞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업들을 생각해 보았으나 이러한 사업들을 훌륭하게 완수함으로써 우리 가문에 영원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다함께 다시한번 기원하면서 발간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종지 발간에 많은 애를 써주신 우(愚)편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종지 편찬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편찬 업무에 수고를 하여주신 형식 사무국장님과 지호 종친 및 종지 편찬에 물심양면으로 큰 지원을 해주신 종친 여러 어른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문중 정서융합의 구심체



우

(종지편집위원장)

1992년에 「해주최씨종지」 제2집을 펴내고 만9년만에 제3집을 펴내는 감회는 무척 깊을 수 밖에 없다. 시간적으로는 만에 일이지만, 그동안 세상은 놀라운 변화속에서 기존의 가치관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다. 특히 문자문화를 지탱해오는데 있어서 중핵(中核)이었던 문학이나 사상등 인간의 삶의 방법이나 당위(當爲)에 관한 것들이 빛을 상실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매스미디어로서의 서적(잡지류를 포함해서)의 역할이 멀티미디어에 의해 해체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종합지(綜合誌)적 성격의 「종지」를 엮어낸다고 하는 일은 「종지」가 지니는 특수성을 감안한

다 하더라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계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잡지의 세계에선 이른바 종합잡지는 가속도적으로 쇠퇴를 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띤 정보지(情報誌)적인 잡지와 취미의 세계에서 활활한 정보를 게재하는 잡지만이 아직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기야 「종지」는 어차피 상품성을 띠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자(종중인)들의 컨센서스에 의한 편집방향의 설정에 앞서 어떤 관념적 정형(定型)대로 꾸미는 것임으로 굳이 시대조류를 의식할 필요는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시대조류의 민감한 문중의 청·장년층으로 부터는 저항도 있

우리라고 믿지만 종친회의 성격을 심분 이해하고 이번에 펴내는 「종지」를 긍정적으로 평가 해주길 바란다.

한편, 「종지」 제3집을 엮어 내는데 있어서 금상첨화(錦上添花)가 된 것은 무관심 할줄로만 알았던 문중 젊은 세대들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기고(寄稿)건수는 비록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의의는 매우 크며 대종회로서는 무척 고무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해주최씨 문중에는 그런 젊은이가 없을 줄 알지만, 많은 일반 젊은이들 가운데는 종친회 활동을 고무한 생각의 발로라고 폄하(貶下)시키고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많은 문중이 장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지하는 바대로 종친회란, 종인들 각자의 이익적 관심에 의거해서 결합된 조직체가 아니고, 종인들 상호간 감정적으로 융합하는 혈연관계의 결합이며 결코 어떤 낡은 개념에서의 조직사회가 아니다. 하기야 많은 자산으로 하여 분류가 있는 종친회도 있고, 정치세력에 의해서 갈라지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해최문중에서만은 영원히 불미스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에서 문중 젊은 세대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 변변치 못한 「종지」가 문중의 건설적인 활발한 언표(言表)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또한 간절하다.

사족이지만, 조상님을 숭배하고 일가의 무사안온(安穩)을 기원하고 문중의 발전을 위하는 일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적어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존귀한 모습이기도 한것이다. 물론 사물의 가치관이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마음의 산물(產物)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숭조상문(崇祖尙門) 사상만은 영원히 변할수 없는 것이라고 믿는바이다.

끝으로 우리들의 「종지」가 다음 제4집부터는 시대의 진운에 따라 그 모습을 잃고 이른바 전자(電子)책으로 탈바꿈할지도 모른다. CD-ROM이 되든 현재와 같은 문자책이 되든 우리 「해주최씨종지」는 문중 정서융합의 구심체로서 영원히 그 명맥이 유지 될것을 믿고 바라는 바다.

바쁘신 가운데 옥고(玉稿)를 집필 해주신 석학여러분과 문중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하서



朴性鳳

文憲公崔冲先生 記念事業會 會長
(慶北大學校 석좌초빙교수)

해주 최씨 집안의 전통 깊은 『종지』가 또 발간되게 되어 축하의 서문을 쓰려니 우선 감개가 적지 않다. 해동공자 최 문헌공과의 본격적 만남이 이제 50년이 다 되는데 그 동안 관련 논문의 단골 필자로서만이 아니라, 선생 기념사업회의 부회장·회장으로서 『최충 연구논총』(1984), 『최충의 유학사상 위상』(1999) 등 대 연구 출판사업을 주관한 터이므로 잘잘못 간에 할말이 어찌 한둘이겠는가? 그 중 84년 간본은 이미 다루어진 바 있으므로 당연히 99년 신간본이 주 대상이 되겠는데 풍채가 그럴듯 한 중후한 단행본으로 다시 출간케 된 것은 아무래도 현 회장이하 임원진이 애써 사업을 추진하고 집념으

로 이룬 보람이라 생각되어 치하해마지않는다.

그런데 한편 질적으로 시일의 축적과 더불어 점점 수준 높고 야무진 책으로 되어 나와야 하는 면에서 욕심을 부리자면 솔직히 마음에 덜 찬 구석이 많이 보인다. 무엇보다 연구교수들의 성과는 향상된 것 같았지만 제작되어 나온 책은 전번보다 나아진 것이 별로 없는 듯하여 주관자로서 관계제위에게 미안하고 서운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사실 조판도 세련미가 더 했으면 싶고 계획했던 가장·문헌의 자료분석도 여전히 미완성을 면치 못했으며, ‘문헌공실기’ 같은 자료는 좀 더 검증을 거쳐 실었어야 했던 것이 아닐까. 더욱 오자, 탈자,

기타 정돈이 미흡한 것이 못내 안타깝기만 하다. 본인이 대구에 내려와 인쇄소에 들락거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울 뿐이다. 그런 경위와는 별개의 사정에서 밝혀져 나온 것이겠지만 발행처가 대종회로 되고 제작 총괄도 후손이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어찌면 책임을 떠넘기기에 알맞는 형국이 간기에 명시되었다. 하지만 문화 학술사업의 생리는 사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책이 한번 만들어져 나오면 시간, 공간을 뚫고 한없이 영향작용을 하며 포퓰이 계속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너 내의 탓이 아닌 나름의 합당한 성의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선후책이나마 책을 받은 즉시, 전권 정오표를 정밀하게 만들어 배본시 그 표를 넣어 보내라고 한 바 있지만, 어쨌든 문중사업과 학문성과가 따로 따로인 점이 노출된 것은 크게 반성할 일임에 틀림없겠다.

늘 강조해온 터이지만 최충선생 연

구사업은 흔히 문중사학으로 폄하되는 조상의 흠 메우기 같은 차원의 것일 수 없는 것이다. 정치·경제의 성공에 문화적 승화를 이룬 그야말로 해동공자인 최문헌공은 최씨 문중의 현조일 뿐 아니라 전 국민적인, 앞으로는 전시대적인 전통지도자임을 명심하고 가능한 최선을 다하여 객관화시키고 후손은 성심성의 그런 분위기 조성과 성과 확대에 허심탄회하게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전국적 규모의 최충 기념 연구기금을 조성하여 최충의 날, 최충의 달(문화인물 등), 최충의 거리, 최충의 동상, 쉬운 전기 영상물 제작 등등을 서둘러서 길게 보고 옹기 띄우려 할 줄 안다.

새 종지의 출간에 즈음하여 고언만 늘어놓고 치하의 말이 너무 적어 미안하게 되었지만 우리 함께 노력하자는 노 학구의 성의로 사주기 바란 마음 간절하여 몇 자 적는 것이다.

가는 千年의 전통

- 宗誌3輯 發刊에 즈음한 提言 -



崔 根 德

(成均館大學校 教授)

요즘 「가는 千年 오는 千年」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서력(西曆)으로 200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해서 만들어진 말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서력을 쓰고 있기에 우리도 합류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긴 해도 사실 우리의 유구(悠久)한 역사를 일깨워주는 檀紀를 공식으로 쓰지 않고 서양의 紀元에 꺾대를 맞추는 것이 여간 아쉽지 않다. 檀紀는 금년이 4333년인데 마음에 새기는 사람도 입밖에 내는 사람도 드물다. 특히 젊은 世代는 열에 아홉이 모를 뿐 아니라 아예 관심도 없다. 한 민족의 傳統이 바로 그 민족의 後裔에 의해 이토록 無視당해도 괜찮은가. 하늘을 우러러 물어 볼 일이다. 전통을 아랑곳하지 않는 민족이 어찌 내일을 말할 수 있겠

는가. 어제가 있어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평범한 진리가 아닌가. 어제야말로 전통이고 그 어제의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現代라는 太陽이 떠오른 것이다. 어제를 모른다면 오늘도 모르게 된다. 어제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어찌 오늘을 안다고 할 수 있으며 내일에 대해 얘기할 수 있겠는가. 「가는 千年」이라 되뇌이고 있지만 과연 가는 천년, 말하자면 어제에 대해 얼마만큼이나 알고 있는가. 그저 남의 일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땅, 이 겨레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서 「오는 千年」을 맞이 하겠다는 것인가.

海州 崔氏라고 하면 바로 傳統을 되새기게 된다. 전통중에도 私學의 전통, 儒敎의 전통이다. 文憲公 崔冲 선생은 이 나라 私學의 전통을 일군 분이시다. 말하자면 學校敎育의 軌道를 마련한 것이다. 先生께서 갈아 놓으신 그 길(道)에 따라 우리 「千年의 가르침」과 「千年의 배움」이 이어져 왔다. 敎育이야말로 文化의 밑거름이고 역사 바로 그것이 아닌가. 그리고 선생께서는 一世의 儒宗일뿐 아니라 繼繼承承 자손들 또한 儒賢을 배출했

다. 海東孔子란 일컬음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

海州崔氏大宗會에서는 오랜 세월을 두고 先代 儒賢의 업적을 顯彰하고 傳統을 계승 발전하는 사업을 중단 없이 벌여왔다. 쉬운 일이 아니다. 設頭하시는 여러분께 심심한 敬意를表하는 바이다.

庚辰 至日에 孰若齋에서 崔根德 識之

祝

宗誌 第3輯 發刊

마 포 한 의 원

院長 韓醫學博士 崔大善

(大宗會 副會長)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 183-6

電話 : 712-1191

712-1191 番

人間五福과 人間崔冲



金 忠 烈

(高麗大名譽教授 · 中天齋主人)

1. 生命의 順境과 逆境, 그리고 優生劣敗의 敎訓

세상은 고르지 못하다고 한다. 기후도 고르지 못하고 禍福도 고르지 못하고, 역사의 흐름과 活亂도 고르지 못하며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산다는것도 고르지 못하다. 그래서 '하늘에는 헤아릴 수 없는 비 바람이 있고 사람에게에는 종 잡을 수 없는 화와 복이 있다'고 한 것일게다(天有不測風雨. 人有朝夕禍福). 모든 것에 達觀했다고하는 莊子도 "세상 만물이 고르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만물의 속성이요 오히려 자연스런면이라"고 하였으니(物之不齊 物之情也). 고르지 못하다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은 아직 세상을 익히 경험하고 달관하지

못한 心思다. 옛날부터 대개의 사람들은 살다가 살다가 괴로움에 지치고 의기소침해지면 으레히 신세타령 팔자타령하며 아예 締念하고 살아간다. 한을 되 씹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한만은 이세상……]이라는 노래도 있게 된 것일게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고르지 못하고 예측불가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사가 많기에 사람들은 쉽게 運命論에 빠져든다. 자기 생애의 모든 것이 이미 무엇에 의해 안배되고 결정지어져 있다는 宿命論·定命論도 그래서 나온 것 일게다. 하기가 맹자가 말 했듯이 평화와 전쟁, 난세와 치세가 늘 뒤 바뀌어 이어져가는(天下之生久矣. 一治一亂) 역사의 흐름속에서 유한한 생명, 어찌보면 잠깐 왔

다가는 생명들이 자기 의사 선택이 허락되지 않아, 그저 被投的으로 세상에 던져지는 생명에서 볼 때 治와 吉의 세상을 용케도 만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運命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사실상 治와 吉의 짝고 禍와 亂이 길고보면 태평성세에 태어나서 마음껏 생을 구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따질수도 없는 일이지만 極少數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설사 그 어려운 세상을 어렵게 만나지는 시대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생명 자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총명예지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외부의 충격으로 요절하거나 장애를 받을 수도 있으니, 태평성세를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생명이 있고, 난세를 타고 났기에 그다지 善良한 생명은 아니지만 뜻밖에도 성공해서 생을 뽑내며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니 세월탓이지 자기탓 아니라고 책임을 자기 외적인 주어진 여건(與件)에 넘기는 것도 무리라고 할 수는 없을게다. 흔히들 사람은 역사 문화의 상속을 받고 태어난다고 한다. 그저 알몸으로 세상에 던져지는 생명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그 나라 민족, 조상, 부모에 의해 형성되고 축적된

역사 문화 개인의 명예와 지위 재력과 사업 등 인간세에서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요건(要件)들을 상속받으며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는 그 고르지 못하다는 것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世上에 대한 遇不遇, 人生與件의 運不運, 生存要件의 利不利가 있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富貴하여도 교만하지 말 것이며, 貧賤하더라도 頹喪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부귀한 자는 더욱 검소하고 근면할 것이며, 빈천한자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운명을 타개해서 성공할 것을 권한다. 말하자면 後天的인 인간생명 자신의 힘으로 주어진 삶의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고 타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게하고 인간생명의 힘의 위대함을 환기시켜 준다는 것이다. 하기야 역사 문화라는 것, 개인적인 부와 명예 축적된 삶의 바탕 모든 인간세에 속한 것들은 인간생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니까, 세상이 고르지 못하다. 不遇, 不運, 不利하다고만 탓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기에 생명은 모험을 걸고 도전해 보고 그래서 생명의 창조적 힘 또는 모든 난관을 이겨내는 승리의 쾌감, 성취감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명의 가장 큰 특성은 세월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자연은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데 크게는 順境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작게는 생명 자체의 삶에 대해서 모두 逆境으로 나타나 있다. 유한한 생명, 늘 위협한 주위에 노출되어 있는 생명, 배고프고 덥고 춥고 불안 긴장 모두가 逆境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이 逆境을 順境으로 되돌려놓고 거기서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신장하고 생명력을 제고해서 인간세, 즉 역사 문화를 창조해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順境에서만 자란 생명은 나약하고 역경에서 자란 생명은 강건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 생명은 본능적으로 優生을 추구한다. 그것은 逆境에서 살아 남기 위한 생명의 피치 못할 길이기 때문이다.

2. 人間의 五福과 六極

생명은 확일적으로 와서 확일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일률적으로 살다가 일률적으로 죽는 것도 아니다. 그저 참치부제라는 말처럼 들쭉날쭉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富貴貧賤, 壽夭長短, 吉凶禍福, 快樂痛苦. 모두가 제각각 천태만상이다. 그러나 생명의 특성과 생명의지 욕구 그리고

생명의 안상과 위안이라는 이상적 바람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대개는 五福은 인간생명이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六極은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피하거나 그를 만나면 빨리 거기에서 떠나는 길을 모색하는데 삶의 전부, 있는 지혜와 가능성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그러면 五福은 무엇이고 六極은 또 무엇인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壽),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만큼 재산을 모으는 것(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가 꼭 필요하고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를 점하는 것(貴), 남에게 은혜와 공덕을 베풀어 많은 이들의 생존에 보탬이 되는 착한 품성과 능력을 갖추는 것(好德), 건강하게 살아서 큰 병이나 고통없이 天壽를 다하고 자손들 앞에서 편안히 눈을 감는 것(考終命) 이 다섯가지가 五福이다. 六極은 이와 반대되는 것으로 알면된다. 오래 못 살고 어려서 죽는 것(夭折),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병이들어 아무일도 못하고 남의 신세만 지는 것(疾病), 겉으로 보기에 돈도 있고 지위도 있는 것 같지만 실재 속으로는 늘 불안 긴장에 쌓여있고 근심걱정이 끊임 없이 없는 것(憂患), 건강하다 하더라도

도 늘 가난에 쪼들려 의식주행 등 기본적인 삶도 제대로 갖추거나 행할 수 없는 것(貧寒),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고 좋게 되도록 노력하지 아니하고 남을 해치고 남의 일을 방해하고 사회의 기능에 역기능을 가하는 못된 행위(罪惡), 건강 지혜 능력 어느 하나 갖춘 것 없고 의지가 박약하여 자기 삶은 물론 사회 영위에 아무런 힘이 못되는 기생충 같은 삶(懦弱)이 여섯가지가 六殛이다.

이 다섯가지 福과 여섯가지 殛은 오늘날 말하는 행복과不幸의 기준이나 구체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여러 행태의 삶을 크게 幸, 不幸, 福과 殛(禍)으로 나누어 보려한다. 잘 산다, 못 산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하는 판단이나 평가의 기준이 바로 幸福, 不幸이요 그 실질적인 내용을 옛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과 내용이 오늘에도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는 중국에서 이미 삼천여년전에 그 시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의식했던 것이고 수천년 동안 그렇게 알아서 판단하고 평가해온 그야말로 전통적인 생각이다.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箕子가 周武王에게 전해 주었다는 이른바 洪範九疇, (아홉가지 기본적인 삶의 본보기 또는 정치행위의 강령)

마지막 항목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는 작게 보면 개개인의 삶의 문제 같지만 여기서는 특히 정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지금은 기술, 경제를 제일로 삼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국력이나 정치득실을 판단하는 기준을 물질적 수치에 따르고 있지만 진정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치라면 앞에서 말한 五福과 六殛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나아가서 한 국가, 한 정권의 정치득실을 따지는데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저 허울 좋게 꾸며진 외형, 물질적 수치, 어느 특수계층의 생존환경이나 그에 따른 평가기준에만 의존할 때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外華內貧과 같은 거짓 삶 속에서 醉生夢死와 같은 자기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닌 남의 눈과 입을 위해 생명을 맞추어가는 연극적 삶을 꾸며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인생의 연극적 삶의 무대에서 주연급 연기를 펼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帝王, 妣嬪, 王公貴族, 權勢家, 大商들, 그들은 일시적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은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거의 공식화 되어 있는 것도 잘못된 평가기준에 놀아났기 때문이다.

멀리 볼 것까지도 없이 우리가 살아온 현재 우리의 주변을 보면 하나 같이 속세적 기준에서 호화찬란하고 의기양양하고 못하는 것이 없이 동물적 생을 즐겼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六殛에 떨어지고 말았다. 자손이 끊긴 이도 있고, 제명에 못 죽은 이도 있고, 영어의 신세를 진 이도 있고, 명청이 소리를 듣는 이도 있고, 빗뎀이에 치어 쓰러진 이도 있고, 욕되게 사는 이도 있고, 모두가 극에서 극을 달려 中庸을 잃은 인생을 살았음이 바로 그 생애 속에서 應報를 받았다. 그렇다면 五福을 갖추고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이 들일까? 그는 꼭 세속적 부귀공명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보편적 삶 속에서 찾아야 발견할 수가 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五福을 갖춘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없지 않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삶을 누리는 것일까? 여기서는 海東孔子라는 美稱을 듣는 최충의 人間속에서 五福의 실재를 찾아볼가 한다.

3. 海東孔子 최충의 면모와 위상

孔子는 聖人이다. 聖人을 人間평

가 속에 포함시키는 것도 不敬이지만 특히 孔子의 경우 그는 不遇와 不運과 不利 속에서 하발치 인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최고의 경지에 이르렀고 그래서 人生의 진정한 스승이 되었다는 데서 오히려 누구도 추종 못할 위대한 人間成就를 한 분이다. 孔子를 ‘大成至聖先師’라고 부르는 것도 그러한 過程을 거쳐서 聖人の 경지에 이른 그야말로 逆境人生을 順境人生으로 전환시킨 너무나도 인간적이기 때문이다. 孔子는 다른 宗教敎主처럼 人間世外的인 영역에서 평가되고 존송되는 분이 아니라 바로 人間세속에서 인간 삶 자체를 통해서 신앙이 아닌 가르침을 주고 인간과 다른 차원에서 존송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실지 삶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숭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를 神이니 기타 인간과 격이 다른 존재로 부르지 않고 스승(師)이라 부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최충을 海東孔子라고 불렀다는 기록은 高麗史列傳에 나오는 것이 처음이지만 그 기록에 의하면 그가 살아있었을 당시 또는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 사람들은 그저 자연스럽게 海東孔子라고 불렀다는 것이니 그의 人間成就는 가히 五福기준을 넘어 선 것으

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충을 海東孔子라고 부르게 된 것은 孔子의 全貌를 모두 갖추었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孔子에게는 여러 면모와 성취가 있고 그 학문 내용에 있어서도 分科가 있다. 그래서 孔子의 도를 통해 제자가 72인이나 된다고 하지만 이들이 모두 孔子學全에 능통한 것이 아니고 孔門四科라 하여 德行, 言語, 政事, 文學(論語, 先進)으로 분류, 德行에는 顏淵, 閔子騫, 冉伯牛, 仲弓, 言語에 宰我, 子貢, 政事に 冉有, 季路, 文學에 子游, 子夏를 꼽는다. 물론 이는 孔子가 陳蔡간에 따라갔던 제자들을 말한 것으로 특히 曾子和 같은 傳道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孔子의 여러 면모를 나누어 본 것은 틀림없다.

이에 따르면 崔冲을 海東孔子라고 부른 데에는 孔子의 全貌가 아니라 孔子의 중요한 업적의 일면을 생각한 말이라는 것은 짐작 가능하다. 중국의 교육사상에서 볼 때 공자의 지대한 업적중 하나는 종래 특수계층 귀족들에게만 국한시켰던 교육제도 범위 즉 공적국가기관에서만 특정인을 상대로 실시하던 교육을 사람이면 누구나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고 또 교육해야 할 책

무가 기성지식인 또는 부모 어린이에게 있다는 것을 일깨워(有教無類), 스스로 사사로운 교육집단을 만들고 교육하는 스승이 되었다는데 있다. 오늘날로 하면 처음으로 사립학교 교육기관을 만들어 교육을 받겠다고 오는 이면 무슨 이유로도 거부하지 않고 가르치는 진정한 교육자의 상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특기할 것은 그 교육내용을 인간이 수 천년 살아오면서 축적한 삶의 경험과 지혜 역사 문화 속에서 찾아내어 교재를 편찬하고 교육과정을 제정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공자의 중국교육사에서 점하는 특기할 만한 위상과 공헌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에 비견할 업적을 남긴 이로는 단연 최충이 꼽힐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최충 이전에 학자도 있었고 교육기관도 있었지만 정식으로 사립교육기관인 학교를 세우고 공립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내용은 달리 상당히 다른 내용의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것은 최충부터이기 때문이다. 대개 국가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물론 인간 일반에 대한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거기에는 국가가 요구하거나 위정자 쪽

의 필요나 방편에 맞추도록 교육하는 비중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 그와는 달리 나름대로의 입교정신과 교육이념을 세워서 그에 맞추도록 교육하는데 사립학교 존재목적에 있는 것이다. 최충의 교육내용이 특히 人文精神을 교양시키고 인간의 심성도덕, 나아가서 도덕적 형이상학까지도 즉 윤리학 범위를 넘어서서 철학적 범위까지 확대 향상한데에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송원성리학이 형성되기 이전에 고려에서는 앞서서 최충에 의해 성리학의 영역이 개척되었다는 것도 이러한 교육내용의 특수성 때문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최충을 海東孔子라고 일컫는 것은 바로 그가 우리 역사에서는 사립학교를 세우고 국립, 공립학교와는 다른 교육내용을 가르침으로서 이것이 처음으로 곧 공자가 有教無類를 내걸고 皆民教育, 政治目的보다는 人間の 根本문제 즉 人性教育과 藝能教育 그리고 實用教育을 並重해서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 업적은 아무리 시대 변천에 따른 인물 평가가 달라지고 역사관의 동요에 따라 역사 평가가 달라진다 해도 움직일 수 없는 고귀한 역사 문화의 本流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永久不滅

의 三不朽가 아닐 수 없다. 흔히 충신이니 역적이니 하는 것도 그것이 국가나 정권편에서 내린 판단일 경우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최충의 이 教育상의 업적은 상대적으로 영원할 수 있는것도 인간 본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4. 人間최충의 人生典範—五福을 모두 갖춘 祥瑞로운 人間

인물에 대한 존숭과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공자에 대한 평가도 예외는 아니며 아마도 聖人の 존칭을 받는 이 처 놓고 공자만큼 역사상 때로 폄억되고 비판받은 이도 드물 것이다. 중국 근대 신문화운동 때 공자의 점포를 때려부시자(打倒孔子店)는 구호가 있었는가 하면 얼마 전 우리 나라에서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할 만치 비판을 받을 정도니까 어디에 聖人을 이렇게 불경하는 예가 또 있단 말인가? 이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유교를 국교로 신봉하고 모든 것의 근본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조에 있어서도 소위 유교의 교주요 개산조라고 할 만치 유교에 있어서는 절대적 위치에 있는 공

자보다 더 존중을 받은 이가 있었으니 朱子가 바로 그분이다. 한때 어떤 이는 공자는 비판할 수 있어도 朱子를 비판하면 斯文亂賊에 물려죽는다고 까지 했으니 상대적으로 공자는 평가 절하된 셈이 아닌가?

그러므로 최충이 海東孔子라는 존칭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孔子의 평가가 절상하거나 절하함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진다고도 보아야 한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최충의 문묘배향이 번번히 기각된 데에는 孔子보다도 朱子の 권위가 더 컸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마도 어떤 학자를 海東朱子라고 했다면 그를 문묘에 배향시키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로 치부될 것이지만 孔子를 모신 문묘에 海東孔子라는 미칭을 받은 이를 배향시키지 않은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진 것은 누가 생각해봐도 석연치 않은 일이다. 조선조 선비들이 孔子보다는 朱子를 더 권위있게 여겼다는 증거는 다음 사건(?)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寒岡선생이 東岡선생이 서거하자 지은 挽詩중에 [退陶正脈終天慕, 山海高風特地欽]이라는 대구가 있는데 正脈이 높으나 高風이 높으나 하는 가벼운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高風은 孔子의 首弟子顏淵의 學風을 말한

것으로 孔子의 氣象을 상징한 것이고 正脈은 朱子學의 嫡統을 말하는 것이므로 原始儒學이나 오늘의 儒敎界에서 보면 단연 高風이 正脈보다 높이 평가되어야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다.

필자가 생각 하기로는 최충선생에 대한 평가를 꼭 孔子에 의지해서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야 뭐니 뭐니 해도 일시적으로 공자가 평가절하되거나 비판과 배척을 받기는 했지만 공자는 영원히 공자요 그 누가 그를 영원히 죽이거나 폄역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최충이 海東孔子칭호를 받는 것은 그 나름대로 영광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지만 최충에 있어서도 孔子와는 다른 인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최충선생을 표방 선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다. 그것은 바로 五福, 六殞의 기준으로 최충선생을 평가해 보자는 것이다. 사실 앞에서도 말한바 있지만 五福, 六殞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孔子는 최충만큼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했다. 70세나 된 늙은 아버지와 15세 어린 어머니사이에서 野合所生으로 태어난 공자는 오늘의 평가로도 잘 타고 났다고는 볼 수 없다.

不遇, 不運, 不幸하게 태어나서 아무런 유산 없이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느라 천한 일을 하며 자랐고 늦게 서야 공부의 길에 들어간 만학도 고학생이었다. 타고난 팔자로 말한다면 기구하다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壽는 했다고는 하지만 자식을 앞세웠으니 요새말로하면 자식 앞세운 험한 팔자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孔子의 命運에 비한다면 최충은 五福을 고루 갖춘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고 간 보기 드문 幸運의 소유자였다. 우선 壽를 보자 최충은 984년에 태어나서 1068년에 세상을 떴으니 85세를 산 셈이다. 공자보다도 12세나 더 살았고 장수하는 사람이 흔히 겪는 자식을 앞세운 참 척을 당한 일이 없으며 70에 致仕한 뒤에도 계속 국가의 대사를 자문받았고 그의 최대 업적인 구재학당의 교육사업도 말년에 전개된 것이고 보면 건강도 좋았을 것이다. 오복의 으뜸인 壽에 있어서 최충은 上壽에 속한다. 다음 富를 보자 최충의 先代는 海州의 鄉吏였다. 鄉吏는 대개 그 地方의 土豪로서 中央의 高官大爵은 아니지만 재력과 인맥을 갖추어 그 지방을 지배하는 중심인물로 임명되며 세습적인 예가 많다. 海州崔氏가 高麗시대 제일의 문

벌이 된 것은 최충이라는 間世의 人物이 나고서 부터이나, 최충이 평탄하게 공부를 하여 재주를 키워 벼슬에 나아가고 人臣의 極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출중한 재능과 인품에 의한 것이지만 그의 家門이 여러 대 내려오면서 축적해 놓은 財力에 힘 입은 바도 배제할 수 없을 만큼 富裕하였다. 그가 오랜 벼슬을 그만두고 和學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傳來되는 家産이 豊富하였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평생 벼슬길에만 있었던 사람이 직접 私學을 세우고 경영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충의 富는 자기 자신이 모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재산의 소유자로서 마음껏 쓸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학자나 벼슬아치로서는 선망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셋째는 貴다 최충의 貴福은 명실상부한 것이었다. 흔히들 貴를 벼슬이 높은 것을 말하는데 벼슬이 높다고 모두 貴한 것은 아니다. 권세에 놀려서 존송하는 이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王이 갖은 예를 다 갖추어 국가 원로로서 준존하고 높은 벼슬아치들을 비롯해서 士類와 백성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경의를 표하는 한시대의 大老였고 보면 그 貴는 그의 地位보

다도 더 고귀한 것이었다. 그에게는 아홉 개의 功臣號가 있으니 國家에 대한 功德은 물론 王이 [累代儒宗, 三韓耆德]이라는 尊稱을 命名할 정도였으니 學德에 있어서도 단연 당대의 큰 스승이었음이 틀림없다. 여기 한 가지 논의해 둘 것은 어떤 이는 累代儒宗이라는 문구를 최종 가문이 최종 이전 누대를 거쳐 학문을 家業으로 해온 것으로 풀이하는데 그것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 王이 累代라고 쓴 것은 王의 여러 대를 말한 것이지 개인 가문의 누대를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넷째는 好德인데 德은 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三韓耆德이라고 한 것을 보면 최종의 貴는 자신의 지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學德을 갖추어 자신이 가진 것을 고스란히 국가와 많은 사람을 위해 베풀었다는데 더욱 高貴해지고 그것이 德行으로 발현되어 나온 것이다. 그 德중에 가장 존송받는 것은 학교를 세워 사람들을 가르쳐 人材로 成就시킨 功德이다.

다섯째는 마지막으로 考終命이다.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절대적인 문제다. 그래서 命은 하늘에 달

린 것(人名在天)이라하여 定命的인 것으로 돌린다. 밖에 나가서 죽는 客死, 불의의 사고로 죽지않을 것이 어이없게 죽어가는 非命橫死, 끔찍한 極刑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絞首, 斬首, 총살 등 罪殛 이렇게 死에는 많은 형태가 있다. 生한 자가 死하는 것은 天地分內事지만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 것인가?

옛사람들은 늙어 天壽를 다하고 깨끗이 늙어서(치매나 기타 질병없이) 죽기전 약 열흘간 쯤 안방에서 앓다가(그래야 자손들이 모여와 병간호를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다) 자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유언을 하고 눈을 감는 것, 이것을 考終命이라하고, 살만큼살다 자손친지들 만인의 애도하에 送葬되면 이것을 哀榮이라 한다.

최중에 대한 死와 葬의 직접 기록은 없으나, 죽기 1년전(1067. 문종 21)왕이 특별히 최중을 위해 베푼 어연에 나갔을때의 광경을 적은 詩가 전하고 있어 老景의 幸福으로 考終命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높은 벼슬 화려한 의대가 아들 손자에까지 미치니 함께 나랏님이 내린 지팡이를 잡고 황은에 취해있네, 상서령은 중서령을 시중 들고 을장원은 갑장원을 부축한다. 희대에 오직 네사람이 조

정에 썼다는 말은 들었지만 오늘 한 가문에 두 재상이 있는 것을 보는구나. 한 집안에서 재상을 전해가며 하는 것도 드물거니와 세습적으로 문과에 장원한다는 것은 더욱 존경스럽네, 며칠을 두고 사대부들의 칭송이 자자하더니 오늘 아침엔 온 거리가 감탄으로 떠들썩하다, 연이어 이룩한 공업이 푸른역사에 살아 움직일 것이니 천개의 붓을 몽당붓으로 만들어도 형언하기에 부족하리]. 이한수의 詩를 통해 최충이 五福을 모두 갖춘 보기도문 完人이었음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이 잘 산 것인가? 그 典範을 최충의 生涯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5. 최충의 後光—祖上의 遺德과 子孫의 榮達

한사람의 생명은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儒敎에서는 無後(자식을 못낳서 대가 끊어지는 것)를 제일 큰 不孝로 칠만큼 생명이 어어져가고 번식 번영하는 것을 인생 최대의 염원으로 삼는다. 그래서 조상의 생명과 유업은 자손을 통해서 榮光이 더해지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한다. 설사 어

떤 이가 당대에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자손이 못나면 한미해지게 마련이고, 역적이나 不良者가 나오면 아예 멸망하기도 한다. 가문에 家訓을 세우고 자손을 훈계하는 이유도 자신 당대뿐 아니라 자손만대토록 가문의 명맥과 영광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기 때문이다. 최충은 자신의 修身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잘 나서 착하게 기르고 훌륭한 사람으로 세상에 서게 했으니 그 자식들에 의해 그의 人格은 더욱 빛난 것이며, 家門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자손들이 계속해서 門楣에 꽃을 피운것도 알고보면 최충이 家門의 長久之計를 세워 자손들을 訓戒하고 자손들은 그 훈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다음의 戒二子詩. 五律 두 수는 앞에 것은 두 아들에게 준 것이고 다음 것은 가문과 자손들에게 준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내 오늘 두 아들을 훈계하며/또한 우리집에서 보배로 삼는 것을 주노라/청렴하고 검소함을 몸에 세기고/문장과 도덕이 온몸에서 풍겨나오게하라/ 이는 家門에 전할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교화가 되어 國寶가 되게 할지니/ 대대로 이어가며 나라를 돕는 사직의 신하가 되어라/ 외형만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배우

지 말라/ 꽃은 본 한 때 잠깐뿐 열흘
 붉은 꽃이 없다고들 하지 않더
 나……) [우리집에는 대대로 전해오
 는 대단한 물건은 없으나/ 오직 전해
 오는 한가지 지극한 보물이 있으니/
 그것은 文章으로 錦繡를 삼고, 德行
 으로 珪璋을 삼는 것이다/ 오늘 너희
 들에게 간곡히 당부하노니/ 내가 죽
 은 뒤에도 결코 잊지 말아라/ 좋은
 재목으로 자라 나라를 떠 받치는데
 쓰일 것이며/ 대대손손 더욱 번창하
 도록 노력할 지어다].

이러한 훈계는 잘 지켜져서 '門閥
 之盛, 一時無比'라고 할 만치 高麗제
 일의 門閥이 되어 세상의 羨望과 模
 範이 되었다. 儒敎에서의 人間(君子)

成就과정은 正心→誠意→修身→齊家
 →治→平天下이다. 최종의 人間成就
 는 이 과정중 마지막 平天下의 段落
 을 제외한 모든 과정을 성취시킨 君
 子이다. 이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며
 말이나 文字로 떠드는 것을 떠나 실
 지로 人間 역사상 실현시킨 實地人間
 이 몇이나 되겠는가?

아마도 최종만큼 五福을 모두 갖추
 고 人生의 실질적인 요망을 유감없이
 실현시키고 그것을 향유한 인물은 드
 물 것으로 본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
 간답고 이상적 인간상인가? 하는 모
 범 전형을 찾는다면 한번쯤 人間 최
 종의 人生完成을 다시 더듬어 宣揚해
 볼만하다고 여겨진다.

祝

宗誌 第3輯 發刊

利川 輕金屬(株)

代表理事 崔 昌 燮

(大宗會 事業幹事)

職場 : 서울 · 九老區 開峯洞 353-30

電話 : 02-685-4445~6, 2612-6556

自宅 : 서울 · 江南區 淸潭洞 65 진흥아파트 6동 501호

電話 : 02-517-4007

무신란과 구제(九齋)의 변천



박 찬 수

(민족문화추진위 사무국장)

1. 무신정권의 성립
 - (1) 毅宗과 문신의 放縱
 - (2) 무신란의 勃發
 - (3) 武人들의 권력 爭霸
2. 高麗文運의 沈滯와 九齋
 - (1) 文運의 沈滯
 - (2) 무신정권하의 九齋
3. 武臣亂과 海州崔氏
 - (1) 文行으로 문벌귀족이 된 해주 최씨
 - (2) 무신란과 해주 최씨

1. 무신정권의 성립

(1) 의종(毅宗)과 문신의 방종(放縱)

문종(文宗) 때에 융성을 자랑하던 고려(高麗)도 그후 40여 년이 경과한 인종조(仁宗朝)에 이르면 여러 가지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오랫동안

계속된 승평(昇平) 분위기는 군신들의 마음을 해이하게 만들었고 따라서 각종 부작용도 노정(露呈)되었기 때문이다. 그 첫 조짐이 인종 4년(1126)에 발생한 이자겸(李資謙)의 난이었다 그러나 인종은 그 묘호(廟號)가 말해 주듯 학문을 좋아하는 어진 임금으로서 난(亂)을 잘 수습하고 24년 간의 재위를 무리 없이 마칠 수 있었다. 문제는 그 뒤를 이은 의종(毅宗)이었다.

의종은 이미 태자로 있을 때부터 경조부박(輕佻浮薄)하다는 평이 있어 이를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부왕(父王) 인종은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고, 생모인 공예태후(恭睿太后) 임씨(任氏)까지도 이를 염려하여 둘째 아들인 대녕후(大寧侯) 경(暲)을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태자의 스승으로 있던 정습명(鄭襲明)이 인종에게 간곡하게 권했다. 장자로 왕위를 계승케 해야 차서(次序)에 순하는 것이며, 부족한 인품은 자신이 책임지고 보필하겠노라고 설득했다. 그리하여 의종은 부왕과 모후, 모두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렵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당시 추밀원지주사(樞密院知奏事)로 있던 정습명은 선왕(先王) 인종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종의 잘못을 보면 간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마마 불사(佛事)를 삼가십시오 마마의 일거일동을 만백성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선왕께서 승하하신 지 몇해 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유훈(遺訓)을 잊으셨단 말입니까? 위에 계신 태후께서 근심하시느라 근일에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신다 하옵니다.”

의종이 정사에는 뜻이 없고 매일 절이나 명승지로 나다니기에만 여념이 없자 이렇게 간(諫)한 것이다. 그러면 의종(毅宗)은 반성은커녕 전일에 태후가 동생 경을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점에 불만을 품고 태후에게 불손한 말까지 하였다. 그러자 태후

는 맨발로 마당에 내려가 하늘을 향해 절하며 부르짖었다.

“왕이 아직도 내 마음을 믿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선왕이시여, 속히 이 미망인을 데려 가소서”.

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며 비가 쏟아지니, 모후를 부축하러 섬돌 아래로 내려섰던 왕은 엉겁결에 태후의 치마 밑으로 들어갔고, 바로 그때 벼락이 궁궐의 기둥을 때렸다. 이것을 계기로 왕이 누우쳐 모자의 정이 얼마간 회복되었다.

정습명이 번번이 의종의 잘못을 간하자 왕도 정습명을 기피하게 된 데다가 왕의 유모의 남편으로 측근에서 모시는 환관 정함(鄭誠)과 문신 김존중(金存中)은 기회만 있으면 정습명을 헐뜯으니 이제는 왕의 잘못을 간할 기회마저 잃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정습명은 왕에게 냉각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 병이 들었다는 것을 핑계로 휴가를 신청했다. 그러자 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습명의 자리에 김존중을 앉혔다. 이같은 왕의 본심을 안 정습명은 선왕의 유훈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죄책감에 약을 쓰지 않고 앓다가 죽고 말았다.

정습명이 죽은 뒤에는 왕의 행동에

대해 별로 간섭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환관에게 합문지후라는 문관 요직을 제수하는가 하면,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개국 이래 없었던 일이라고 반대한 지문하성사 신숙(申淑)에게는 좌천의 명을 내리는 등 거리낄 것이 없었다.

의종은 놀이에 정신이 팔려 매일매일 하루해가 모자랄 지경이었다. 궁중에서 격구놀이에 정신을 팔다가 그것도 싫증이 나면 시간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궁궐 밖으로 행차를 떠났다. 몇몇 총애하는 문신을 거느리고 무장들의 호위를 받으며 가다가 흥이 오르면 문신들에게 시를 짓게 하며, 경치 좋은 곳이 있으면 갑자기 정자를 세우라는 명을 내리기도 하였다. 백성이 굶주리건 농사철이건 아랑곳하지 않았다. 부역 나온 일꾼들은 품삯은 고사하고 자기의 점심까지 싸가지고 와서 일을 해야 했으므로 점심을 굶으면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당시 백성들의 고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중미정(衆美亭)이란 정자를 지을 때, 아내가 자신의 머리털을 베어 팔아 지아비의 점심밥을 마련해 왔다는 눈물겨운 이야기도 그러한 사례 중의 하나이다.

고생은 백성들만의 것이 아니었으니 시도 때도 없이 나다니는 의종을 호위하는 무신들의 고통도 나올 것이 없었다. 의종은 측근 문신들과 연락(宴樂)을 즐기다가 술에 취하면 자기 멋대로 발길을 돌리는 바람에 시종하던 이들도 왕의 행방을 모를 뿐 아니라, 호위 군사들은 왕이 혹 어떻게 되 지나 앓을까 하는 우려에 밤새도록 허둥대며 찾는 일이 예사였다. 그러면서 의종은 왕 18년(1164) 7월, 이러한 조서(詔書)를 내렸다.

“근자에 들으니 관리가 직무에 태만하면서 녹봉만 받는다 하니 실로 일을 맡겨 책임 지운 뜻에 현저히 어긋난다. 담당 관원은 그 근만(勤慢)을 살펴 게으른 자는 파면하고 부지런한 자는 승진시키도록 하라.”

자신은 밤낮 놀이에 빠져 있으면서 관리들의 태만을 꾸짖으니 자가당착의 극치라 모두들 뒤돌아서서 비웃을 뿐이었다. 국왕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사에 몰두해야 한다는 것이 유교 정치의 기본 이념이었고, 만기(萬機)를 총괄해야 하는 임금의 자리로서는 밤을 낮삼아 정사를 보살피는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그런데, 의종은 임금은 놀기만 해도 되는 자리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종은 한술 더 떠 24년(1170) 정월 초하룻날 만조 백관의 하례를 받는 자리에서 자신이 지은 하표(賀表)를 지어 내렸다. 하표란 본디 신하가 임금의 덕을 칭탄(稱嘆)하여 지어 올리는 것인데, 거꾸로 왕 자신이 직접 자기의 덕을 자찬하여 지은 것이다.

“삼양절(三陽節)을 맞이하여 만물이 새로워졌고, 옥같은 궁전에 봄이 돌아오니 용안(龍眼)에 기쁨이 가득하시도다. 생각하옵건대 대왕께서는 요(堯) 임금의 배나 되는 성철(聖哲)과 순(舜) 임금의 갑절 가는 총명으로 온갖 복이 모여들어 새롭고 새로움이 몇지 않고, 하늘이 내린 수명 더욱 길어져 한정이 없나이다. 인(仁)이 흠족하고 도(道)가 풍성하여 한 물건도 제자리를 얻지 못한 것이 없사옵습니다. 문(文)을 닦고 전쟁을 쉬게 하는 것은 실로 만세에 그지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이렇게 의종은 자신을 요·순보다 훌륭한 성군으로 태평호문지왕(太平好文之王)으로 자찬했다.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 밤낮으로 전전공공해도 만기를 총람하는 임금자리는 지키기 어려운 것인데 스스로 자만하고 있었으니 정치는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으며 자신의 왕

위 자리도 그 해를 넘기지 못하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었다.

왕과 시종하는 문신들이 밤낮없이 승경지(勝景地)를 찾아다니며 시 읊고 술 마시느라 환궁할 줄 모르는 사이, 왕의 행차를 호종하는 무장(武將)들은 놀이에 끼어 들지도 못하고 변변히 얻어먹지도 못하고 주린 배를 참으며 따라다니자니 울화가 치미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러던 어느날 멀찌감치서 왕과 문신들의 창화(唱話)하는 소리를 듣고 있던 무장의 총수 격인 대장군 정중부(鄭仲夫)가 소변을 보기 위해 후미진 곳으로 갔다. 이를 본 견룡행수(牽龍行首) 이의방(李義方)과 이고(李高)가 뒤따라가 사방을 잘 살피면서 정중부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요즈음 젊은 문신들의 꼬락서니를 보자면 눈이 시어서 두 눈뜨고는 차마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만 진탕 마시며 흥겹게 노는데 우리들은 배를 굶주리며 따라다니자니 어찌 견디겠습니까?”

“그대들의 심정 모르는 바 아니오, 그러나 좀 참읍시다.”

정중부(鄭仲夫)는 동지를 얻은 것이 한결 기뻐지만 일단 진정시켰다. 사실 정중부는 문신이라면 이가 갈리

도록 미워하는 사람이었다. 과거 김부식(金富軾)의 아들 김돈중(金敦中)에게 수염을 그을린 원한이 있었던 것이다. 정중부가 한창 젊은 때인 인종 11년(1133) 선달 그믐날 밤, 연례 행사로 궁중에서 마귀와 악신(惡神)을 쫓는 나례(儺禮)라는 의식을 거행할 때, 구렛나루를 기른 젊은 무인 정중부가 지연(紙鳶)을 인도하고 들어오니 늙름한 그 모습에 왕 이하 모든 관리와 구경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한 연소문사(年少文士)가 있었으니, 이름이 김돈중으로 당시 일세를 압도하던 김부식의 아들이었다. 젊은 무인인 주제에 수염까지 기르고 여러 사람의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 꼬왔던 것이다.

그때 마침 강한 바람이 불어 모든 등불이 일시에 꺼져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김돈중은 새로 가지고 온 촛불을 정중부의 턱수염에 갖다대었다. 무심코서 있던 정중부는 번쩍하는 불빛에 부지각 소리와 함께 턱밑이 화끈하자 기겁을 했다.

“앗 뜨거 어느 놈이냐?”

황급히 수염에 붙은 불을 손으로 비벼 꺾다. 그런데 불을 지른 김돈중

이 옆에서 놀리는 게 아닌가.

“무부(武夫)의 수염은 무쇠라더니 그것도 타기는 타는구나 머리털도 새까만 무인 주제에 건방지게 수염은 무슨 수염이람.”

대답이 이렇게 나오자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것은 당연한 일. 정중부는 억센 손으로 김돈중의 멱살을 잡고 따귀를 때리고는 발길로 걷어찼다. 누가 보아도 김돈중의 잘못이었지만 당시 상황을 정중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천한 무인이 당대 제일의 세도가인 김부식의 아들을 구타한 것이 문제가 되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정중부는 뒷날 의종이 된 태자의 후원으로 가까스로 처벌을 면할 수가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중부는 의종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한뢰(韓賴)·이복기(李復基) 등 경박한 문신들의 방자한 꼴을 보고서도 지금껏 참는 것은 이런 인연 때문이었다. 이런 연유로 이의방·이고 등 젊은 무장들의 의견에 심정적으로 동조는 하면서도 시기를 기다리자는 신중론을 펼 것이다.

(2) 무신란의 발발(勃發)

무신들의 이러한 쿠데타 음모가 무르익어 가는 줄도 모르고 의종의 방종은 그침이 없었다. 왕 24년, 8월이

가까워오니 가을도 어언 깊어갔다. 한 여름 강과 호수를 즐겨 찾던 의종은 이제 막 단풍이 무르익은 경치 좋은 산사(山寺)로 놀이장소를 옮겼다. 이렇듯 임금의 놀이벽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었다. 연복정(延福亭)에서의 하루놀이를 끝낸 의종은 보현원(普賢院)으로 옮겨가려 하고 있었다. 이날 정중부(鄭仲夫)는 이의방(李義方) 이고(李高)를 불러 은밀히 지시했다.

“지금이야 거사할 때이다. 만약에 왕이 여기서 보현원(普賢院)으로 옮겨가거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음모가 있는 줄을 까맣게 모르는 왕의 행차는 다시 보현원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러면서도 평소 무신들의 불평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의종은 가는 도중에 행차를 멈추고 명을 내렸다.

“홀륭하구나 산하여! 이곳은 장소가 널찍하니 무술을 익힐 만하구나”

무신들에게 술 등 음식을 내리고 오병수박희(五兵手搏戲) 시합을 하게 하였다. 의종은 이 기회에 무신들에게 후한 상을 주어 불만을 무마하려 했던 것인데, 이것이 도리어 화를 재촉하는 원인이 되었다. 50세가 넘은 대장군 이소응(李紹膺)이 한창 때

의 기분으로 덤벼들었다가 젊은 무사에게 패한 것이다. 가뜩이나 임금 앞에서 지고는 풀이 죽어 물러 나오는 이소응에게 젊은 문신 한뢰(韓賴)가 따라가 조롱을 하며 따귀를 때리니 이소응은 비틀거리다 넘어지고 말았다. 이를 본 의종과 문신들은 박장대소하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무신들의 눈에는 불꽃이 튀었다. 한동안 긴장이 감돌았다. 무신들은 극도의 흥분과 격앙된 감정을 참는 듯하였다. 이때 무신의 원로(元老) 격인 정중부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하였고, 같이 있던 무신들도 안색을 바꾸며 서로 눈짓을 하였다. 정중부가 한뢰를 향해 꾸짖었다.

“아무리 무인이라 하더라도 소응은 벼슬이 3품인데, 어찌 그리 심하게 대하는가?”

이전 같으면 한 마디쯤 대꾸할 문신들도 움찔하여 말이 없고, 한뢰는 예상하지 못한 반격에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사태가 악화될 것을 직감한 의종은 자리에서 내려와 정중부의 손을 잡으며 말리었다.

“장군 진정하오. 무인들을 위해 하루를 즐겁게 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소”.

왕에게 손을 잡힌 정중부가 뒤를

돌아보니, 이의방·이고 등이 칼자루에 손을 대고 눈짓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왕이 면전에서 화해를 시키니 정중부는 꼭 참을 수밖에 없었다. 제자리로 돌아온 정중부는 좀더 기회를 보아 거사하는 것이 완전한 승리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타일러 일촉즉발의 위기는 가라앉았으나 어두운 그림자가 일행을 휩쌌다. 무신들을 위로하려던 놀이가 도리어 그들의 격분을 샀던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었으니 곧바로 환궁했으면 좋았으련만 의종은 보현원으로 가는 행차를 멈추지 않았다. 앞에는 전위(前衛)가 서고, 가운데는 임금의 연(輦), 그 뒤를 문신이 따르고 이들을 감시라도 하듯 무신들이 바짝 쫓고 있었다. 보현원까지는 상당한 거리였다. 뒤따라가던 정중부가 이고와 이의방에게 지시했다.

“그대들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행차가 보현원에 도착하는 즉시 거행하시오”.

지시를 받은 이들은 사잇길로 먼저 달려 왕의 명이라 속이고 순검군을 불러모았다. 왕이 도착하여 안으로 들어가고 문신들이 물러 나오려 할 때, 무사가 날쌔게 달려 들어 임종식

(林宗植)과 이복기(李復基)를 살해

하는 데 성공하였다. 겁에 질린 한뢰가 왕의 침상 밑으로 숨자 정중부가 따라 들어가 협박조로 말했다.

“화의 근원인 한뢰가 아직 마마의 곁에 있으니 내보내어 죽이기를 청합니다.”

이제는 왕도 어쩔 수 없었다. 한뢰를 보호하려다가는 자신마저 해를 당할 살벌한 분위기였다. 한뢰는 왕의 옷을 잡고 매달리며 나오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으나 이고가 칼을 빼어들고 호통을 치자, 벌벌 떨며 기어나와 살려달라고 애걸했지만 한칼에 베임을 당하고 말았다. 이어 왕을 호종하던 문신과 환관들을 거의 다 죽이니 시체가 언덕을 이루었다.

처음 정중부 등이 거사할 때 모두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복두(幘頭)를 벗어서 표지(標識)를 삼았기 때문에 무신 중에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 역시 많이 피살되었다. 이때 시체를 근처 호수 속에 던져 버렸으므로 후 이 호수를 사람들이 조정침(朝廷沈)이라 부르게 되었으니 이는 온 조정 신하들이 모두 물속에 잠겼다는 뜻이다.

보현원에서의 거사를 일단 성공시킨 무사들은 말을 몰아 도성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문관(文冠)을 쓴 자는

서리(胥吏)라도 모두 죽여 씨를 남기지 말라.’고 하면서 살륙을 자행하니, 군졸들도 평소 자기들과 감정이 있는 자들을 마구 죽여 이때에 화를 당한 사람이 60여 명에 이르렀다. 정중부 등이 죽인 문신들의 집을 헐어버리려 하자 같은 무신 중에도 어떤 이들은 만류했다.

“우리가 원망한 자들은 4~5인에 불과한데, 지금 무고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다. 그리고 그들의 집을 모조리 헐어버린다면 그 처자식들은 어디에서 살겠는가?”

그러나 이의방 등은 듣지 않고 군사를 풀어 헐어버리니, 이것이 구실이 되어 그 후부터는 원수가 지면 으레 그 집을 헐어버리는 것이 상습화되었다.

9월에 들어서서 의종은 환관들과 함께 무신들을 토벌할 모의를 하다가 왕위에서 쫓겨나고, 대신 동생 혼(昕)이 즉위하니 이가 명종(明宗)이다.

정중부 등은 명종을 세운 뒤 형식상으로는 문신 임극충(任克忠)을 재상에 앉히고 자신은 그 다음 지위인 참지정사(參知政事)가 되어 무신들의 합의기구(合議機構)인 중방(重房)에서 모든 정책을 결정하였다. 중방이란 목종(穆宗) 때 2군(軍) 6위(衛)

의 대장군들이 모여 군사에 관한 일을 처리하던 기관이었는데, 이제는 국정을 좌우하는 최고 권력기구로 변해 그 세력이 대단했다.

이뿐이 아니었다. 전에 의종이 경치 좋은 곳에 민가를 헐고 사제(私第) 셋을 지었는데 관북택(館北宅), 천동택(泉洞宅), 광정동택(藿井東宅)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정중부·이의방·이고가 하나씩 차지하고 갑자기 왕이나 된 듯한 기분으로 배를 슬슬 쓰다듬으며 호사스런 생활을 하였다.

일단 권력을 잡으면 독차지하려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다. 이의방 등이 조정 신하들을 멋대로 죽인다고 비판한 한순(韓順) 등 장군들은 죽임을 당했고, 딸을 태자비(太子妃)로 들이려던 이고는 이의방의 살해를 음모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멸족되었다.

이렇게 무신들이 중앙에서 권력 독점의 다툼이 격화되는 사이 각지에서 무신 타도의 기치를 내걸고 군사가 일어났다. 명종 3년에는 동북면 병마사(東北面兵馬使) 김보당(金甫當)이 역적을 토벌하고 의종을 복위시킨다는 명분을 내걸고 반기를 들었고, 그 이듬해에는 서경유수(西京留守) 조위충(趙位寵)이 이의방 타도를 외치

며 군사를 일으켰다. 그러나 김보당이 한 달 만에 사로잡혀 죽을 적에 '문신치고 이 모의에 가담하지 않은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했기 때문에 먼저 번 난을 피했던 문신들마저 대량 화를 입게 되었고, 거제도(巨濟島)로 귀양가 있던 의종의 목숨을 재촉하는 결과만 가져 왔을 뿐이다. 이러한 반기들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무신들 사이에 지나친 살륙을 중지해야 한다는 반성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3) 무인(武人)들의 권력 쟁패(爭霸)

권력은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 철리(哲理)라든가. 일단 권력을 잡고 난 무신들은 그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잇달아 살륙이 일어났다. 먼저 이의방이 이고를 죽이고 권력을 잡자 정중부의 아들 정균(鄭筠)은 이것이 못마땅 하였다. 정균은 제 아버가 정변을 총지휘했으니 저도 당연히 권력을 휘두를 줄 알았는데 이의방(李義方) 때문에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잘못했다가는 자기 집안마저 화를 입게 되거나 앓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방을 없애기로 마음을 굳히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의방·이준의(李俊義) 형제와 그 일당을 제거하였다. 이제 정중부와 그 아들 정균, 그리고 사위 송유인(宋有仁)의 세상이 된 것이다.

송유인은 덕이 있고 청렴하여 무신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아오던 추밀원사(樞密院使) 문극겸(文克謙)과 부사(副使) 한문준(韓文俊)을 사소한 이유로 탄핵하여 좌천시키는가 하면, 정균은 태후가 살던 집을 구입한다는 핑계로 빼앗고 한술 더 떠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이려고까지 하였다. 이렇듯이 방자한 행동에 왕 이하 여러 사람들이 모두 이들을 호랑이나 이리처럼 여겼지만 그대로 구경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때 청년 장군 경대승(慶大升)이 이들을 제거하였다. 경대승은 어려서부터 뜻이 커서 자기 아버지가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은 토지를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등 치산(治産)에는 별 관심이 없는 청렴한 무신이었다. 경대성은 거사에 성공하고는 곧이어 벼슬을 사퇴하고 집에 물러나 있었지만 왕 이하 조정 관리들은 경대성의 눈치를 살필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신란 이후 권력의 맛을 본 무신들, 특히 정

중부 등의 은혜를 입은 무신들은 경대승 등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저도 무인이면서 제 마음대로 정(鄭)과 송(宋)을 죽인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그 원수를 갚아 주어야 한다.”

이러한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자 같은 무인이면서도 경대승은 무인들의 공동의 적(敵)이 된 셈이다. 이렇게 되자 경대승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결사대 1백여 명을 모아 두고 침식을 함께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니 이것이 이른바 도방(都房)으로서 최충헌(崔忠獻) 집권 때에는 무신정권(武臣政權)의 중심 기구가 되었다.

경대승은 정중부를 제거한 지 4년 뒤 갑자기 병이 들어 3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니 많은 사람들은 무인이면서도 무인들의 발호를 억누르는 데 공이 많았던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겼다.

경대승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가 두려워 고향인 경주(慶州)로 피신해 있던 이의민(李義旼)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명종은 이의민이 지방에 있으면서 난리를 일으킬까 염려하여 여러 번 불렀으나 경대승이 두려워 상경하지 못하다가 그가 죽고 나자 은밀히 사람을 보내 명종이 자신

을 부르도록 주선하여 서울에 올라와 공부 상서(工部尙書)에 임명되었다.

무신정권 시절, 무신들의 직책은 명색이 재상이었으나 예의도 없고, 눈이 있어도 글을 읽지 못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하여 서로들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서로 꾸짖고 비방하여 죽이기를 꺼리지 않으니 같은 반열(班列)에 있는 문신들은 모두 목을 움츠렸다.

특히 이의민과 두경승(杜景升)은 같이 중서성(中書省)에 있으면서 용력(勇力)을 지나치게 자랑하여 이의민이 주먹으로 기둥을 치면 서까래가 흔들렸고, 두경승이 벽을 치면 주먹이 벽을 뚫고 나갔다. 이들이 다들 때면 두 마리의 용이나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는 것과 같았다. 이를 보고 당시 사람들은 시를 지어 비웃었다.

두려운 이의민과 두경승

우뚝 하게 참으로 재상감이네

재상으로 있는 지 삼사년에

주먹질만 만고에 떨치누나

이의민은 두경승이 자기 윗자리에 있는 것이 항상 못마땅하여 ‘네가 무슨 공이 있어 나보다 지위가 높으냐’고 불평하면 두경승은 웃기만 할 뿐이었다. 두경승은 글은 잘하지 못했지만 무던했던 인품으로 뒷날 명종이

최충헌(崔忠獻)에게 쫓겨 날 때는 손수 말고삐를 잡고 모시고 갈 정도로 충직한 인물이었다.

이에 비해 이의민은 탐욕스러운 무인으로 악명이 높았다. 자신이 경주의 천민 출신임도 망각하고 청도(淸道) 지방에서 민란이 일어나자 '십팔자(十八子(李))가 왕이 된다.'는 도참설에 현혹되어 이들과 기맥(氣脈)을 통해 나라를 전복시킬 음모를 꿈꾸기도 하였다. 그가 권좌에 있으면서 그 아들 지영(至榮)·지광(至光) 등과 함께 저지른 해악(害惡)은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 백성의 집과 토지를 빼앗는 일은 예사였고 사람이건 물건이건 그들이 일단 탐하면 빼앗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러한 행패가 이의민 일가의 종말을 재촉했음은 물론이다.

그 발단은 이지영(李至榮)의 집 중이 최충수의 집비둘기를 빼앗은 데서 시작되었다. 비둘기를 찾으러 갔다가 봉변을 당한 최충수(崔忠粹)는 형 최충헌, 생질 박진재(朴晉材)와 함께 별다른 호위병도 없이 별장에서 쉬고 나오는 이의민을 척살하니 때는 명종 26년(1196) 4월 8일이었다. 이로써 최충헌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최충헌은 같은 무인이지만 이전의

무신집권자들과는 달랐다. 의종 24년(1170) 무신이 일어난 이래 불과 30년도 안 되는 동안, 한때는 권력을 잡았지만 부귀만 탐하다가 추풍낙엽처럼 목이 달아난 선배 무인들의 운명을 익히 보아온 최충헌은 전철(前轍)을 밟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장기 집권 구축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최충헌은 정권을 장악한 후 명종에게 봉사십조(封事十條)를 올려 누적된 폐정(弊政)의 개혁을 요구하였고, 이의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를 붙여 명종을 폐하고 신종(神宗)을 세웠다. 이때 동생 충수가 자기 딸을 태자비(太子妃)로 들이려 하자 박진재(朴晉材)와 함께 충수를 토벌하여 죽였고, 그 10년 뒤에는 박진재 마저 각근(脚筋)을 끊고 귀양보내 죽게 하였다.

최충헌은 선배들이 어떻게 패망하는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대비책을 철저히 하였다. 도방(都房)을 6교대로 나누어 교대로 자기 신변을 보호하게 하는가 하면, 자신에게 반하는 어떤 저항 세력도 무자비하게 그 싹을 잘라버렸다. 그 단적인 예가 함께 일을 한 동생과 생질을 죽였고, 세 임금(明宗·神宗·熙宗)을 폐하고 네 임금(神宗·熙宗·康宗·高宗)을 세운 데서 잘 알 수 있다. 집권에 장

애가 된다면 국왕을 폐하고 세우는 것도 거리낄 것이 없었다. 이른바 명실상부한 KING MAKER 였다.

최충헌은 무인이었지만 문인들을 다루는 방법도 알았다. 문관직(文官職)의 무신 참여로 과거(科擧)에 급제하고도 관직을 얻지 못하는 많은 문신들에게 이른바 ‘문장도 능하고 행정 사무도 잘 하는〔能文能吏〕’ 것을 인재 선발의 기준으로 삼아 문신을 선별적으로 포섭함으로써 권력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최씨정권 4대 60여년이란 드문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그후 무신정권은 김인준(金仁俊)·임연(林衍)·임유무(林惟茂)로 이어지다가 원종 11년(1270) 꼭 1백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는데, 이 무신정권은 우리 역사상 유래가 없는 대 변혁이었다. 일자무식(一字無識)의 일개 졸오(卒伍)도 宰相의 지위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자 왕후장상(王侯將相)이 어디 종자가 따로 있느냐는 풍조(風潮)가 팽배하게 되어 양인(良人)·천인(賤人)의 난이 각처에서 일어났다. 애써 공부하지 않아도 출세의 길이 보장되고,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한다 해도 일평생 벼슬 한번 못하고 백수(白首)로 늙어가

는 상황에서 문운(文運)이 쇠퇴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게다가 30여 년에 걸친 대몽항쟁(對蒙抗爭)은 고려의 국토와 민심을 더욱 황폐화시켰다.

2.고려 문운(高麗文運)의 침체(沈滯)와 구재(九齋)

(1) 문운(文運)의 침체(沈滯)

의종(毅宗) 24년(1170)에 일어난 무신 정변은 고려 일대(高麗一代)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상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정치적 변혁이었다. 그리하여 고려 후기(高麗後期)라는 전기(前期)와는 다른 정치·사회 체제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문교정책(文教政策)에 대한 그 영향은 직접적이었다. 이 당시의 교육 상황은 충선왕(忠宣王)의 물음에 답한 이제현(李齊賢)의 다음 한 마디 말로 요약된다.

“광종(光宗) 이후에 교육사업을 더욱 정비하여 중앙에 국학(國學)을, 지방에 향교(鄕校)를 세우고 마을마다 상(庠)과 서(序)를 보급시켜 글읽는 소리가 가는 곳마다 들렸으니 우리나라 문물(文物)이 중국(中國)에 비견된다는 말이 지나친 것이 아니었습

니다. 그러나 불행 하게도 의왕(毅王) 말년에 무인들이 사변을 일으켜 옳고 그르고 간에 모조리 죽인 관계로 그 위험에서 빠져나간 자들은 깊은 산골로 도망하여 관복(官服)을 승복(僧服)으로 갈아입고 여생을 마쳤습니다. 신준(神俊)·오생(吾生)과 같은 이들이 모두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충선왕이 ‘우리 나라의 문물이 중국에 비길 만하다고 했는데, 지금 배우는 이들이 모두들 중을 따라 장구(章句)나 익히는 까닭이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한 물음의 대답이다. 여기에서 광종의 과거제도 실시와 성종대의 국자감(國子監) 창건, 문종대 이후 일어난 최충(崔冲)의 사학(私學) 등 일련의 숭문 정책(崇文政策)으로 중국에 비견되던 우리의 문교(文教)가 무신란으로 극도로 침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무신란에는 ‘문관(文冠)을 쓴 자는 서리(胥吏)라도 모조리 죽여라.’ 고 했다는 기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기록들이 무신 정권을 혐오한 문신들의 비판 일변도에서 나온 혹평임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문신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으며, 문교의 위축이 어떠했을 것인가는 충분히 짐작이 간다.

권력을 잡은 무인들은 손에 들어온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그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실시한 무신 임용 우대정책들은 문신들의 희망을 좌절시키고 문교를 위축하게 만들었다. 즉 무신 정변이 일어난 3년 뒤인 명종 3년(1173)의 ‘삼경(三京), 사도호(四都護)·팔목(八牧)으로부터 군(郡)·현(縣)·관(館)·역(驛)의 관직에 이르기까지 무인을 병용한’ 문무교차법(文武交差法)은 종래 문신이 독점하던 관직에 이르기까지 무신을 병용케 함으로써 문신의 출사(出仕)길을 반감시켰다. 그뿐 만이 아니라 실제 운용에도 부단한 간섭과 압력을 가하였고, 실권을 잡은 무신들은 전일에 자신들이 소원했던 대로 고위 문반 관직을 차지하고, 문신으로서만 할 수 있는 사관(史官)과 근시직(近侍職)인 내시(內侍)·다방(茶房)까지 차지하였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신들의 출사 범위는 반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과거 응시자들의 숫자에도 확연히 드러난다. 즉 예종대(睿宗代)에는 예부시(禮部試) 응시자가 6백여 인이던 것이 무신란 직후인 명종 5년의 백룡섭 방(白龍變榜)에서는 겨우 3백여 인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무신난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가를 말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과거 응시자의 수는 반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급제자 수는 매회 평균 30여 명의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된 배경은 대략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으니, 하나는 아무리 무신정권이라 하더라도 문신의 협조 없이는 그 정권의 유지가 불가능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인 집권자들로서는 과거 급제자들을 정상적으로 배출시키면서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글도 잘 하고 행정 사무에도 밝은 문인들을 선별해 등용시킴으로써 그들끼리의 경쟁을 촉발하게 만들었다. 이는 불만에 찬 문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 급제자들 중에는 무신 집권자에게 아첨하여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백수(白首)로 늙어 가는 이들도 상당히 많았다. 어쨌든 과거제가 그대로 시행되고 이를 통해 대부분은 출사도 보장되는 한 각종 교육 기관의 명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다만 급제자의 진로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교육이 상당히 침체되고 교육의 수준이나 질이 상당히 저하되었을 것임을

앞서 본 과거 응시자 수의 반감에서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2) 무신정권하의 구재(九齋)

고려 전기 한때 국자감(國子監)을 능가하던 사학십이도(私學十二徒)는 설립자의 사후 얼마 안 되어 대부분 절멸(絶滅)되고, 단지 최충(崔冲)의 문헌공도(文憲公徒)를 비롯한 몇몇도만이 그 명성과 전통을 이어 오게 되었다. 이처럼 문헌공도 즉 구재가 고려의 대표적 사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운영의 주체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후손과 구재 출신 동창들의 적극적인 후원하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학(私學)의 속성이다. 그러나 이 구재도 예종(睿宗)의 국자감(國子監) 개혁으로 중앙 교육의 주도권이 국자감으로 옮겨오면서 동요가 일어났고 이는 무신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가속화되었다.

고려 후기에 오면 사학의 명칭이 '십이도=구재'로 혼칭이 되는데, 주지하다시피 십이도는 전기 사학의 총칭이고, 구재는 이 십이도 중의 하나인 문헌공도(文憲公徒)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혼칭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십이도'는 사학이라는 인식

만 사람들 뇌리에 남아 있고 당시에 실존했던 것은 문헌공도 최충이 세운 구재뿐이었기 때문에 십이도=구재라는 개념이 자연스레 자리잡게 된 결과이다. 고려 후기에 나타나는 십이도는 문헌공도의 몇몇 재와 임득후(林得侯)란 자가 자신의 출신 도(徒)의 공자묘(孔子廟)를 사매(私賣)하려다가 처벌받고 벌금을 물었다는 기록과 함께 나오는 홍문공도(弘文公徒)의 존재만 보일 뿐이다.

이상과 같이 다른 십이도는 국자감의 개혁으로 활동이 위축되고, 다른 도와의 경쟁에서 탈락하고 유능한 후계자의 단절로 전통이 끊어지는 등등의 이유로 하나 둘 절멸되었다. 그러나 문헌공도 즉 구재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해동공자(海東孔子)로 추앙받는 문헌공 최충이 세웠고 유능한 후계자들이 잘 계승하여 사학의 대표자라는 위치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과거에 뜻을 둔 우수한 인재들이 모두 이리로 모여들게 되고 여기에 한 때 적(籍)을 두었던 인물들이 조정의 요직을 차지하게 되어 앞에서 끌어 주고 뒤에서 후원하니 계속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구재의 모든 재가 나란히 함께 융성했던 것은 아니었다. 다음

구재 출신 인물을 통해 고려 후기의 구재를 이해해 보자.

① 이동민(李棟民) : 경산(京山; 星州)인으로 일찍이 개경에 유학하여 예종 17년(1122) 8월에 급제, 벼슬이 6품인 감찰어사에 이르렀다. 재주와 학식이 뛰어나 촉망받았으나, 일찍 죽었다. 솔성재(率性齋)에서 공부했다.

② 이승장(李勝章) : 이동민(李棟民)의 아들이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주선으로 개경에 와서 아버지의 수학처였던 솔성재에 적을 두었다가 국자감에 진학, 의종(毅宗) 22년(1144) 3월 31세로 급제한 후 관성현감(管城縣監)·사문태학박사(四門太學博士)를 거쳐 감찰어사로 죽었다.

③ 함순(咸淳) : 청렴하기로 유명한 공부 판서 함유일(咸有一)의 아들이다. 이규보(李奎報)가 명종 12년(1182) 14세의 나이로 성명재(誠明齋) 하과(夏課)에서 1등을 했는데, 함순은 이때 성명재의 선배 급제자로서 시원(試員)이었다. 뒤에 5품인 형부 낭중을 역임하였다.

④ 이담지(李湛之) · ⑤ 옥화(玉和) : 모두 ③의 함순과 함께 당시 시명(詩名)을 날리던 이들인데, 이들 세

사람은 귀법사(歸法寺) 계곡에서 성명재 관동(冠童)들을 데리고 하과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도 성명재 출신임이 분명하다.

이규보(李奎報) : 명종 20년(1190) 급제한 후 여러 벼슬을 거쳐 정2품 평장사(平章事)에까지 이른 고려 후기의 대표적 문호(文豪)이다. 14세 때(1181, 명종12) 처음으로 문헌공도 성명재에 적을 두고 15세까지 2년 동안 재학했는데, 하과 때마다 번번이 1등을 하자 함순 등 선배들이 칭찬했다.

김창(金敞; 金孝恭) : 희종 2년(1206)에 급제한 여러 벼슬을 두루 거치고 정2품 평장사에 이르렀다. 이규보의 성명재 후배로 상서직에 있으면서, 몽고란으로 한때 중단되었던 성명재의 하과를 피난지 서울인 강도(江都)에서 복구하여 선배 이규보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다.

이수(李需; 李宗胄) : 문헌공도 조도재 출신으로 고종조에 급제한 후 예부 시랑으로서 김창이 주최한 성명재의 하과 개최를 부러워하면서 이규보에게 자신 출신도인 조도재는 부진한 착잡한 심정을 토로한 시를 보내고 있다. 그 얼마 후 강화(江華) 연미정(燕尾亭)에서 구재 하과(九齋夏課,

이수의 출신재인 造道齋 夏課가 아님)를 주관하고 있다.

하천단(河千旦) : 강종(康宗) 원년(1214)에 급제한 후 정3품인 판위위사(判衛尉事)를 지냈다. 성명재 출신으로 김창의 하과 복구를 축하하는 시를 지어 기리고 있다.

이상이 고려 후기 구재 출신 인물의 이력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전부이고 그것도 12c말에서 13c초에 걸친 단기간 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문헌공도 구재 중, 솔성·성명 조도 세 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9인의 소속을 보면, 이승장 부자는 솔성재 이수가 조도재 출신일 뿐, 나머지 6명은 성명재 출신이다. 제한된 자료이긴 하지만 이를 통해 고려 후기 구재의 일반적인 상황을 유추해 보는 것도 부질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첫째, 구재 중 12~13c까지 존재한 재는 솔성·조도·성명 세 재뿐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묘지명을 비롯한 모든 기록을 조사해 보아도 후기에는 이외에 다른 재의 흔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각 재는 같은 문헌공도라는 동일한 도(徒)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횡적인 동류 의식이 없이 각각 독자적 전통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사실이다. 종래에는 이 구재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었다. 어떤 학자는 구재는 진학의 단계로서 문헌공도의 전 과정을 마치자면 1년에 한 재씩 수료하여 9년이 걸린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어느 누구도 한 재에서 다른 재로 진학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구재 상호간에 상하·선후의 진학 과정상 서열이 있었다면 재와 재 사이에는 선후배의 차이는 있지만 동창적 유대 의식이 있어야 할 터인데, 매우 폐쇄적이라는 사실이다. 이규보·김창·이수·하천단 네 사람 중 앞의 세 사람은 성명재 출신이고, 이수는 조도재 출신이다. 김창이 그동안 중단 되었던 성명재의 하과를 실시하자 같은 재 출신인 이규보와 하천단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시를 지어 하례하지만, 조도재 출신인 이수는 자기 재의 하과를 복구하지 못하는 데 대한 착잡한 심정을 ‘성명재는 다시 융성하는데 조도재는 쇠미하니, 나에게서는 슬픔이나 공에게는 기쁨이로다.’라고 술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규보는 ‘뼈아프게 슬픈 마음 그대 재 뿐이런가 십이도 모두가 눈

물을 뿌렸으리’라고 하여 이수를 위로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명이나 조도는 처음에는 같은 문헌공도내의 한 재였지만 이제는 다른 12도와 동격으로 인식될 정도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강도(江都)로 피란 오기 전 개경에 있을 때는 성명재와 조도재는 각기 독립적으로 교육은 실시했지만 본디 같은 도였기 때문에(誠明造道本一徒) 하과는 한 곳에 모여서 하는 것이 전통이었다.(夏課所安還一地) 이 하과가 각 재간의 유대를 맺어 주는 유일한 장치였던 것이다.

셋째, 후기의 구재는 고려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려 전기에는 과거에 응시하려는 자들이 모두 이리로 모여들어 국자감이 유명무실할 정도였지만, 예종이 국자감을 개혁하여 칠재를 설치하고 국자감생에게 과거 제도상에도 여러 가지 특혜를 주자 중앙교육의 중심이 국자감으로 이동하고 구재는 청소년들이 수학하는 국자감 입학의 전 단계 교육 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담지·옥화·함순 등이 성명재의 선배로서 관동((冠童; 관(冠)은 성인, 동(童)은 아이들의 의미이다)을 데리고 귀법사

의 계곡에서 하과를 실시하고 있어 새생들 중에는 성인도 있었겠지만 주류는 동자, 즉 국자감 입학 이전의 동자들이었을 것이다. 이승장은 경산(京山)에서 개경으로 올라와 솔성재에 적을 두었다가 국자감에 진학하여 8년간 수학한 후 31세에 급제하고 있으며, 이규보는 14세에서 15세까지 성명재에 적을 두었는데 하과 때마다 1등을 하였으므로 선배들의 칭찬을 들었다. 이규보가 그후 국자감에 진학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구재는 국자감에 입학하기 전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주로 수학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해 두고자 하는 것은 고려 전기의 사학이던 구재(九齋; 十二徒)가 후기에는 관학화(官學化)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관학화(官學化)의 직접적인 원인은 몽고 침략으로 보인다. 즉 구재는 설립자의 후손과 구재 출신 유력 인사들의 후원으로 무신정권 초기까지도 사학의 전통이 계승될 수 있었지만 몽고 침략으로 사정이 달라졌다. 한동안 국교를 단절했던 몽고가 고종 18년(1231) 대군을 몰아 고려에 침입하자 당시 집권자였던 최우(崔瑀)는 이듬해 도읍을 강화도(江都)로 옮기고 장기 항

전 태세에 들어갔다. 이후 30년간 가까이 계속된 항몽(抗蒙) 기간은 모든 통치 체제가 뿌리째 흐트러진 상황이니 교육 체계 또한 정상일리 없었다. 국자감도 강화향교(江華鄉校) 건물을 빌려 임시 교사를 마련할 정도였으니 사학인 구재의 활동이 중단될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강화천도 7~8년 뒤 성명재 하과가 성명재 출신 상서(尙書) 김창(金敞)에 의해 복구되고, 그리고 이후 3~4년 뒤인 고종 31년(1240)에는 구재 중 조도재(造道齋) 출신의 예부 시랑(禮部侍郎) 이수(李需; 李宗胄)가 국가 주관으로 연미정(燕尾亭)에서 구재 전체의 하과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이 구재가 관학화(官學化)하는 시발이다. 그 후 조정에서는 과거 급제자를 구재 교도(九齋敎道)에 임명하기도 하고 도관(道官; 십이도의 행정사무를 맡은 관원)을 지방에 보내 구재 생도의 식량을 구해 오기도 하는 등 인적 물적 뒷받침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이색(李穡)은 '학당(學堂)과 향교(鄉校)에서 십이도(구재)로 올리고 십이도에서는 성균관(成均館)으로 진학시켜 성균관생(成均館生)이 아니면 과거에 응시할 수

없게 하자'는 교육·과거 제도상의 일대 개혁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관학 체계 속에 편입된 구재는 고려말까지 중등 교육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 국립 교육 기관으로서 나름대로의 교학(敎學) 기능을 담당해 오다가 공양왕(恭讓王) 3년, 이성계(李成桂) 일파의 신왕조(新王朝) 개창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교육 개혁에 의해 혁파되어 300여년 간의 전통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3. 무신란(武臣亂)과 해주 최씨(海州崔氏)

(1) 문행(文行)으로 문벌 귀족이 된 해주 최씨

흔히들 고려시대를 문벌 귀족 사회(門閥貴族社會)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근거는 관인(官人)의 자손은 부조(父祖)의 음덕(蔭德)으로 관직에 나갈 수 있었고, 특히 명문가의 후예들은 대를 이어 좋은 관직을 독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에는 과거제가 일찍부터 실시되어 관료 선발의 영예로운 관문이 되기는 했으나 과거에 급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환(仕宦)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

선시대와 같이 과거 급제가 사환의 절대적인 필수 조건은 아니었다.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개인의 학문적인 능력보다는 어떤 문벌 출신이나에 따라 그 장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를 이어 영화를 누리려면 문벌 귀족의 대열에 드는 것이 관건이었다. 문벌 귀족이 되는 길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첫째 최고 가문인 왕실(王室)과 혼인 관계를 맺어 척신(戚臣)이 되는 것이며, 그 다음은 출중한 인물이 발신(發身)하여 3대 이상 대를 이어 재추(宰樞)의 지위를 계승함으로써 가문의 위상을 높인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로는 현종비(顯宗妃)를 배출한 안산 김씨(安山金氏), 문종비(文宗妃) 이후 인종(仁宗) 때까지 누대를 연혼(連婚)한 경원 이씨(慶源李氏)가 있고, 후자로는 해주 최씨를 그 첫손가락에 꼽을 수 있다. 알다시피 해주 최씨를 중앙 관계로 등장시킨 주인공은 문헌공 최충이고, 최충의 부친은 온(溫)으로 해주의 향리(鄕吏)라고 기록은 전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향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흔히들 향리라고 하면 조선시대 향리에 대한 선입관에서 '양반이 아닌 중인'

혹은 '조선 시대의 아전(衙前)' 과 동격이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선시대 향리란 조선이 건국하면서 지방 세력의 통제, 지방 행정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각 고을 읍치(邑治)에 사는 유력 씨족들에게 역(役)을 부과하고 이를 고정시켜 신분 상승의 길을 봉쇄한 데서 탄생한 '중인 계층'을 말한다. 물론 이때 조선 왕조 개창에 비협조적이었던 씨족들이 강제로 향리로 편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향리에 대한 개념은 조선시대와 고려시대가 다르고, 같은 고려시대라도 후기나 전기냐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하며, 고려 초기의 그것은 더더욱 다른 것이었다. 왕건 태조(王建太祖)가 신라를 항복 받고 후백제를 멸하여 후삼국을 통일하기는 했지만 내용적으로 호족연합정권(豪族聯合政權)에 불과했다. 이러한 사정이었으므로 왕권이 불안정하여 태조가 죽은 후에는 왕위 찬탈 음모가 잇달아 일어나 정국이 불안하였고 광종(光宗)대에 어느정도 안정 되었다가 건국 후 60여년이 지난 성종(成宗)대에 와서야 겨우 10목(牧)에 지방관을 파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일

부 호족들 중에는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중앙 관료로 진출한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의연히 그 지방 토호(土豪, 지방 유력자)로서 상당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것이 성종대의 중앙 집권화 과정과 더불어 지방 행정 조직으로 편입되었고 세대가 흐르면서 역(役)으로 고정되었다.

해주 최씨는 이러한 해주의 토호 씨족이었다. 이러한 토호 씨족에서 최충(崔冲)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문벌 귀족 가문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해주 최씨는 최충이 목종(穆宗) 8년(1005) 4월, 수석으로 급제하여 관계에 진출한 이래, 150년 동안 그 자손으로 재상의 지위에 오른 자가 수십 인이었다. 이리하여 그의 손자 사추(思誡)의 열전에서는 '문벌의 성함이 당대에 건줄 자가 없었다'고 평할 정도였다. 해주 최씨가 이러한 번성을 누린 배경은 최충이 아들에게 경계한 말 가운데서 잘 드러난다.

"사(士)가 세력으로써 진출하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일이 드물고 문행(文行)으로 나아가야 경사가 있는 법이다. 나는 다행히 문행으로 현달해 청검(淸儉)·근신(勤愼)을 마음에

다저 세상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즉 학문과 행실을 닦아 청렴 검소하고 삼가고 조심하는 자세를 일관되게 실천함으로써 일생을 잘 마칠 수 있었다는 최충의 교훈은 최씨 가문의 가훈(家訓)이 되었다.

한때 왕실을 능가하던 경원 이씨가 이자겸(李資謙)의 몰락과 더불어 급전직하 문벌 귀족의 대열에서 탈락한 것에 비해, 해주 최씨는 최충 개인만 선종(善終)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무신란 직전까지 4대에 걸쳐 과거 급제자와 재보(宰輔)가 잇달아 배출되어 명문의 지위를 누린 것과 크게 대비된다.

(2) 무신란과 해주 최씨

이러한 문풍(門風)을 계승하여 번성하던 해주 최씨도 무신란을 당하자 그 위축은 어쩔 수 없었다. 물론 무신란에 해주 최씨로 직접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한두 예만 사책(史冊)에 전해 오기 때문에 그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전체적인 분위기나, 당시 상황을 참작할 때 침체의 원인을 무신란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사책에 드러난 무신란 피해자는 최충의 증손이요 최유선(崔惟善)의 손자인 용(湧)의 계통이다. 최용은 명문가인 강릉 김씨(江陵金氏) 김상기

(金上琦)의 딸에게 장가들어 5남 2녀를 두었는데 대부소경(大府少卿)으로 있던 막내아들 윤서(尹誥)가 1차 무신란인 경인년(1170) 난리에 피살되었다. 그리고 그 3년 뒤 동북면병마사 김보당(金甫當)의 성언(聲言)으로 촉발된 계사난(1173)에 김보당이 잡혀 죽으면서 ‘문신으로 가담하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다.’고 공언함으로써 많은 문신들이 또 화를 당했는데 최용의 3남인 윤의(允儀)의 사위가 김지당(金至當)이고, 김지당은 바로 김보당의 동생이었으니 그 화가 해주 최씨에게도 미쳤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두 아들 관(寬)과 겸(謙)이 사책에 이름은 나오나 별다른 활동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다. 이들은 가문의 배경이나 부·조(父祖)의 관직으로 보아 상당한 관직에 오를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또한 무신란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충의 증손인 윤인(允仁)이 한림학사·국자궐주(國子祭酒)를 지낸 권적(權迪)의 딸에게 장가들어 6남 2녀를 두었는데 그는 시전중내급사(試殿中內給事)를 역임하고 의종(毅宗) 15년(1161) 비교적 젊은

나이인 50세에 일생을 마쳤다. 6남 2녀 중 정사(正思)·문열(文悅)·도추(道樞) 세 아들은 모두 중이 되고 남은 세 아들과 두 딸은 어려서 어머니를 따라 갔다고 했으므로 이들이 외가인 안동 권씨 집안에서 자랐는지 혹은, 권씨가 개가했다면 개가한 의부(義父)에게서 자랐는지 알 길이 없다.— 조선시대에는 개가녀 자손은 금고당해 출세를 못하게 했으므로 개가 자체를 가문의 수치로 여겼으나, 고려시대에는 이와 달리 개가가 자연스러웠고, 또 데리고 개가한 자식의 이름이 새 남편 집안의 족보에 실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어쨌든 문행(文行)을 가풍으로 삼는 가문에서 3형제가 모두 사문(寺門)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신란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사실 윤인의 처가인 권적의 가문은 무신 정권과는 화합할 수 없는 처지였던 것 같다. 이러한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권적의 아들이요, 윤인의 처남인 권돈례(權敦禮)가 상당한 학문적 소양으로 선비들로부터 존송을 받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난을 피해 끝내 출사(出仕)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일생을 마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해주 최씨로서 직접 화를 당한 인물은 한두 사례에 불과하나 무신란 전까지 고려 전기 150여년 동안에 수상 4명 재신(宰臣) 6명을 비롯하여 수많은 고위 공직자를 배출한 해주 최씨가, 후손이 배가(倍加)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무신란 직후 30여년 동안 적막하다고 할 정도로 활동이 없는 것은 피해가 심대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실제로 명종(明宗) 원년부터 동왕 27년까지에 밝혀진 70여 명의 급제자 중 해주 최씨로는 명종 7년 4월에 시행한 과거에서 최충의 장남인 유선(惟善)의 증손인 홍윤(洪胤;基靜) 한 명의 급제자가 보일 뿐이다.

혼란을 거듭하던 초기의 무신 정권이 최충헌(崔忠獻)의 등장으로 안정기를 맞게 되는데, 최씨 정권은 자기 권력의 강화를 위해 글도 잘하고 행정 능력도 있는(能文能吏) 문인들을 선별적으로 포섭, 등용하는 정책을 쓰게 되자 초기와 같은 살륙의 공포는 어느정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 즈음에 등장한 인물이 최약(崔瀾) 계열의 최자(崔滋; 宗裕)였다. 보한집(補閑集)의 저자로 더 잘 알려진 최자는 당대 제일의 문장가였다. 윤인

(允仁)의 손자이기도 한 그는 무신정권의 혼란이 극도에 달했던 명종 18년(1188)에 출생하여 강종(康宗) 원년(1212) 3종조(三從祖)인 홍윤(기정)이 정당문학(政堂文學)으로서 과거를 주관할 때 급제하였다. 그리하여 상주 사록(尙州司錄)·국학 학유(國學學諭) 등의 관직을 역임했지만 처음에는 그 능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여 10여년 간을 한직(閑職)에서 맴도는 불운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그의 시가 당시 문병(文柄)을 잡고 있던 이규보(李奎報)의 주목을 끌게 되고 결국 그의 후임으로 추천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 집권자 최우(崔瑀; 怡)는 그대로 발탁하지 않고 이재(吏才)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 거기서도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자 드디어 중용하기 시작하여 이로부터 평탄한 출세의 길을 걷게 되었다. 두 번이나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고종(高宗) 34~45년 경에는 재상직에 오르며 그 10여년 후에는 평장사·판이부사로서 총재(冢宰)의 지위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최자가 해주 최씨 중흥의 단서를 열게 되어 고려말까지 그 후손으로 재상의 반열에 오른 이들만 10여 명에 이르렀다. 한편 홍윤의 후손도 음서(蔭叙)와 급제가 연면히 이어져 해주 최씨가 고려 후기에도 문벌 귀족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일조를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벌의 성함이 당대에 견줄 자가 없었다.[門閥之盛 一時無比]'라는 칭송을 듣던 해주 최씨는 무신란이 발발한 초기 30여년 간은 일시 쇠퇴했으나 홍기·자·춘명(椿命) 등 걸출한 인물들이 잇달아 배출됨으로써 전기만은 못하지만 후기에도 역시 문벌 귀족으로서의 지위는 계속 확보할 수 있었다.

“유학사상 최충의 위상”

학술토론 발표회 참가기



龍 水

(中共中央黨校 教授)

1998년 11월 8일 문헌공최충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유학사상 최충의 위상” 학술토론 발표회가 서울 한국신문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 유학사상 최충 위상의 재정립을 위한 제2차 학술대회는 문헌공최충선생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최우선생이 사회를 보고, 문헌공최충선생기념사업회 회장 박성봉교수께서 개회사를 하였으며,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며 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이신 류승국선생이 축사를 드렸고, 전 고려대학 교수 김충렬선생이 기조강연을 하였으며, 한중철학회 회장 유명종교수 등 권위교수 8명이 철학, 역사학, 문학 등 여러방면에서 심도 있는 학술논문을 발표하였고, 서울대학 이남영교수 등 7명 교수와 학자들

이 논평을 하였다.

그리고 박성봉선생이 폐회사를 하였고 해주최씨대종회 회장 최길준선생이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나는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초청으로 서울에 가서 3개월 동안 한국유학사를 연구하면서 이번 학술토론회에 영광스럽게 참가하게 되었다. 문헌공의 후손이며 중국에서 동양철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자로서 여러 종친들을 만나게 되니 기뻐고 한국의 권위학자들이 문헌공에 대한 새로운 연구성과를 직접 받아들이게 되니 즐거워던 것이다.

한국 학계의 원로이신 류승국선생은 축사에서 문헌자료가 불충분하여 고려시대의 학술문화를 연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고

려사” 등의 각종 문헌이 있긴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고려조를 부정하고 세워진 조선조에 의해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료에 있어서 두찬(杜撰)으로 된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고려조의 충신들은 대부분 혹독한 화를 당하였고 그들에 관한 문헌들은 거의 불태워졌으나 다행히 [화해사전(華海師全)]만은 비장(秘藏)되어 오다가 조선말에 발견되었다. 그 책에는 문헌공이 고려조 도통에 있어서 최초이고 다음은 문안공 김양감이고 후에는 문선공 안양이 이어진다고 하였다. 류선생은 문헌공의 학문을 평가하여 최종선생은 고려조 5대 조정에서 국정 전반에 걸친 경세치용지학의 역량이 남달랐으며, 문장지학 뿐만 아니라 의이지학에도 밝은 그야말로 고려조 유학중흥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학자였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번 발표회가 비단 최종선생의 업적에 관한 재조명일 뿐만 아니라 한국유학사를 새롭게 재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하였다.

고려 유학사를 깊이 연구하여 많은 성과를 이룩한 김충렬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신라로부터 고려에 내려온 유학발전사를 상세히 고찰하면서 문헌

공의 유학사상 업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최충은 학문의 깊이, 인격의 성숙도, 정치관료로서의 자질 등을 고루 갖춘 인재였고, 도덕군자를 길러내는 성공한 교육자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한 가문을 유도의 모범으로 가꾸어, 자손 모두가 유학자로 영달하여 그 풍범(風範)을 조야에 널리 드리우는 등, 최고의 성취를 보여준 인물이다. 요컨대 유교가 동방에 들어 온 이래, 최종이야말로 처음으로 나온 유교의 석과(碩果)라고 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그를 ‘해동공자’라고 칭송한 것은, 그가 사학을 열어서 많은 제자를 길러냈기 때문만은 아니고, 유학전반에 걸쳐서 완인의 경지에 이른 유학자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려조 유현들이 문묘종사에서 너무 소략하고 불균형하게 이루어진 것을 지적하면서 고려조 유현 최언위, 쌍기, 최승로, 최충, 김부식, 이재현, 이색, 길재 등을 문묘에 배향할 것을 제의하였다.

폭 넓게 한국유학사를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학견을 내놓은 유명종 노교수는 고려초기의 주공유학을 고찰하고 문헌공의 유학사상과 당나라, 송나라 초의 공맹유학을 비교하면서 “우리 나라의 공맹유학은 최종선생으

로부터 시작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공자처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사학을 창설한 까닭에 ‘해동공자’라고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류승국선생의 축사, 김충렬선생의 기조강연과 유명종 등 여러 교수들의 발표와 논평을 들으면서 가장 깊이 느낀 것을 추리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문헌공에 관한 역사문헌에 대한 재인식. 고려조를 부정하고 조선조에 의해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만들어진 ‘고려사’는 고려조를 낮추어 보는 것이 있었지만 문헌공의 업적을 기록한 내용이 다소나마 보존되어 있었다. 그것을 보면 고려 조정에서는 문헌공의 역사적 업적을 표창하여 추충(推忠), 찬도(贊道), 협모(協謨), 동덕(同德), 윤리(允理), 홍문(弘文), 의유(懿儒), 보정(保定), 강제(康濟) 등 공신 칭호를 하사하였으며 “여러대의 유종이며, 삼한의 기덕(耆德)”이라고 칭송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문헌공은 고려의 개국 이래 최대의 존경과 예우를 받았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헌공의 홍학육재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여 “충의 무리가 가장 번성하여 학교가 일

어난 것이 충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해동공자라고 불렀다”고 적혀 있었다. 문헌공을 유학의 창립자인 공자에 비긴다는 것은 한국의 유학사에서 둘도 없는 최고의 평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문헌공은 덕재를 겸비한 고려조의 원로 대신으로서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한 훌륭한 정치가였고, 해동에서 사학을 처음으로 창설하여 유학을 진흥시키고 많은 인재를 양성한 성공적인 대교육가였으며, 유학사상 유학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한 탁월한 사상가였음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헌공이 도통을 이은 계보. ‘화해사전’의 ‘동방연원록(東方淵源錄)’과 동방도통도(東方道統圖)에는 단군—기자—설총—최충—김양감—안향—우탁—신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고려조 도통은 문헌공이 최초이고, 김양감이 문헌공의 도통을 이었고, 그 후에 안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향은 문헌공을 높이 평가하여 “문물제도의 창설과 시책이 광범함과 온화하고 우아한 용모와 지조는 중유(仲由)나 염구(莛求)보다 훨씬 뛰어났다”라고 하였다. 신현은 “최자(충)가 설자(충)에

못지 않게 심오하였다”라고 하였다.

정몽주와 이색은 함께 “문헌공께서 시설한 학교와 후진을 위해 계획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모은 문장의 뜻으로 미루어 생각하며 상상하니 주자와 정자등 옛 노사에 뒤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김충렬교수는 고려조의 학술문화는 신라의 것을 계승하였다고 보면서 장지연, 이병도, 현상윤 등 학자들이 연구성과를 검토하면서 신라 말과 고려초의 계보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즉 신라 말은 강수—설총—최치원, 고려 초는 최언휘—쌍기—최승로—최충이다. 그리고 문헌공은 유교가 동방에 들어 온 이래 처음으로 나온 유교의 석과이고, 유학 번반에 걸쳐 완인의 경지에 이른 유학자라고 지적하여 고려조 도통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강조하였다.

셋째, 문헌공 구재학당 명칭의 출처와 내용에 대한 고증. 문헌공 구재학당의 명칭인 낙성, 대중, 성명, 경업, 조도, 술성, 진덕, 태화, 대빙은 고려 초 관학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었다.

그런 단어의 어원을 따지거나 어의를 분석하면 틀림없이 ‘중용’ ‘대학’ ‘주역’ 등 유학경전에서 나온 것이며

인성 도덕의 수양을 강조한 것이다. 조준하교수는 유학이 한국에 전래하여 수용되는 과정을 상세히 고찰하면서 “구재의 이름은 ‘중용’과 ‘역경’ 같은 경전에서 형이상학의 뜻을 취하여 이름한 것으로, 분명히 송나라 성리학보다 먼저 성리학적인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성리학의 선구자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유명종교수는 “최문헌이 시설한 구재이름으로 미루면 삼국, 신라, 고려초기의 주공(周公), 공자의 유교와 달리 공자, 맹자를 도통으로 하는 공맹유학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문헌공은 고려초 관학이 쇠퇴되어 가는 사회환경에서 처음으로 사학을 일으켜 교과 내용과 과정을 새롭게 설정하고 덕재겸비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한 교육적 선구자였으며, 송나라 학자들보다 앞서 공맹유학의 진의를 깨닫고 인성, 도덕의 수양에 주의를 돌린 학문적 선각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문묘 종사기준에 대한 반성. 고려 성종 11년(992)에 국자감이 설치되고 문묘가 처음 세워지고 거기에 유현들을 종사시키게 되었다. 역대

유현을 문묘에 종사시키는 문제는 기준의 차이로 처음부터 논란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다. 신라 말기 저명한 유현은 강수, 설총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최치원만 현종 1년(1020)에 문묘에 종사시키게 되었다.

학자들은 최치원을 제일 먼저 문묘에 종사시키게 된 원인은 그의 글이 고려 태조의 창업을 찬양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생활 연대가 앞선 설총은 2년이 지난 현종 13년(1022)에 드디어 문묘에 종사시키게 되었으나 강수는 계속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김충렬교수는 “문묘 배향은 처음부터 개관성을 잃고 정권적 배려에서 이루어진 듯 하다”고 보았다. 그후 정중부의 난과 무신정권의 발효 때문에 문묘 종사문제는 소홀이 되었다가 300년이 지나 고려 충숙 6년(1319)에 안향만이 문묘에 종사시키게 되었다. 조선조에 들어서면서도 역시 고려 초기처럼 창업을 도운 학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러 배려에서 세종 원년(1419)에 조정에서 권근이 문묘 종사문제를 의논해 보라는 명을 내렸다. 그 때에 문헌공이 첫 번째로 제기되었지만 조정에서는 그 제의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이듬해 세종 2년(1420)에 다시 의논하게 되어 고려

조의 쌍기, 문헌공 최충, 문충공 이재현, 문충공 정몽주와 조선조의 문충공 권근 등이 제기되었다. 그렇게 되자 그 때에는 어느 누구도 문묘에 종사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성종 20년(1489) 황해도 관찰사 안처량이 해주향교에 문헌공을 배향한 것을 보고 조정에 보고하게 되었다. 그것은 성균관 문묘에 종사시키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 문묘문제가 다시 거론될 때 재론되지 않았다.

성리학이 조선조의 정통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문헌공에 대한 평가는 날로 절하게 되었다.

당시 성리학자들은 배불논을 앞세우면서 “문헌공의 가르침은 과거시험 공부이거나 중들이 비문이나 쓰다”라고 비난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문헌공은 문헌서원에서 퇴철받을 처지에 이르렀고 심지어 최충의 묘사마저 공자의 묘사로 개용되어 결방살이를 하게 되었다.

김충렬교수는 이런 성리학적 기준의 편파성을 지적하여 “이것은 최충한 사람의 수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선 중기 유학계의 부끄러운 처사라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여러 학자들의 발표와 논평은 객관적 입장에 서서 역사문헌

을 엄밀히 고증하고, 유학사를 비교하고 분석하며, 문헌공의 역사적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유학사상의 위상을 밝혔던 것이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유학사상 문헌공의 위상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그 업적을 재조명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고 한국유학사를 새롭게 조립하는데도 기여를 하였다.

나는 이번 학술토론회에 참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 해주최씨 종친 여러분이 제2대 선조 문헌공의 역사적 업적을 빛내우려는 노력에 감동되었고 한국 석학 여러분이 심도있고 설득력 있는 좋은 발표와 논평을 하여주셔서 고마웠던 것이다.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도 떠 올랐던 것이다. 부끄러운 것은 문헌공의 후손이며 동양철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자로서 선조의 역사적

업적을 깊이 연구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심도있는 논문을 발표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 나는 북경대학 철학학부에서 공부할 때 중국에서 명망이 높은 풍우란(馮友蘭)교수의 직접적 지도하에서 공자에 관한 졸업논문을 쓰면서 동양철학사 연구 전공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중국에서 개혁, 개방하면서 국내외 국제학술에도 많이 참가하게 되고 퇴계, 율곡 등 한국 성리학자들에 관한 논문도 많이 발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문헌공에 관한 학술토론회에 참가하기는 처음이며 심도있는 논문을 써내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다. 앞으로는 한국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잘 받아들이 문헌공선생의 업적과 사상을 더 깊이 연구하는 동시에 중국 학계에 널리 소개하여 중·한 두나라 사이의 문화교류에 이바지 할 결심이다.

「유학사상 최충의 위상」을 읽고

장 근

(법학박사 대구대학교 동양어문학부 겸임교수)

물론 저의 학업 부족 탓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선조가 고려의 충신 문헌공 최충이라는 것만 알았지,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아니, 별로 관심이 없었기에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요즘 이런 혈족에 대한 무관심은 비단 나뿐이 아니고, 최근 우리사회의 한 경향이다.

사실 이번에 대중회에서 간행한 『유학사상 최충의 위상』(문헌공최충 선생기념사업회편)을 읽고, 새삼 종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사회에 많은 성씨들 중에서 해주 최씨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았고, 선조 최충의 후손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후손으로서 훌륭한 해주 최씨의 위업을 계승해야한다는 의무감마저 들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새롭게 밝혀진 선조 최충의 위상은 가히 경탄할 만했다. 그럼, 먼저 최충 선조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하여 새겨 보도록 하자.

“해동공자로 추존되는 문헌공 최충(984-1068)은 지금부터 일 천년전의 시대를 살았던 고려시대의 사상가이자 교육자다. (중략) 이 분(최충)과 그 문인들이 남겨준 유교적 교화와 그 정신은 오늘날 우리 한국이 동아시아의 유교문화 국가 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인 살아있는 전통으로 계승해오고 있다.”(서울대학교 이남영 교수)

“최충은 고려유학사상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큰 학자다.”(전북대학교 김기현 교수)

“고려시대 유학사상의 전개에 있어서 최충의 역할은 고려 전체를 통하여 어느 누구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매우 특출한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유학사상 전개와 함께 그가 역사적으로 해동공자라는 존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유학사상의 교육적 역할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최충은 고려의 유학 사상을 정립하여 사회 구성원의 도덕성 회복과 인재 양성의 기반을 수립하는데 큰 공헌을 이룩한 인물로 높이 평가되어 왔다.”(강원대학교 조남국 교수)

“최충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려가 건국한 지 1세기를 지날 무렵 순수한 고려인의 유학을 창의적으로 개척하면서 고매한 학문과 인격으로 치세와 교육에서 큰 획을 그어 사후에 해동공자라고 추송 받은 위대한 인물이다.”(전남대학교 안진오 명예교수)

“고려시대에 민간인 자격으로 이 땅의 일반인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교육을 시작한 사학의 창시자는 바로 문헌공인 것이다. 그러므로 후세에 해동공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동덕여자대학교 조준하 교수)

“오늘날 서양의 사상, 문화, 철학, 종교에 영향을 받아 우리의 사회가 흥미한 것이, 마치 문헌공시대의 불교, 도교의 영향으로 흥미하였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제2, 제3의 문헌공이 출현하여 새로운 신유학을 이루어야 할 시대라고 나는 생각한다.”(동덕여자대학교 조준하 교수)

이처럼, 고려시대의 최고의 사상가이자, 학자로서 한국이 가장 실질적이고 살아있는 유교국가로 남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선조 최충의 유교사상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그뿐인가? 민간인 자격으로 만인에게 누구나 차별 없는 교육을 시작한 사학의 창시자로서 후세에는 한국의 ‘공자’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요즘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현실을 한탄하면서 제2의 최충이 나타나야 한다고 까지 역설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선조 최충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이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더욱 더 분명히 선조 최충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첫째, 최충의 자는 호연이고, 해주 대녕 사람으로 품모가 건장하고 성격이 건실하였다.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고 문장에 능숙하였으며, 고려

의 새로운 학제를 따라 공부하여 목종 8년(1005)에는 갑과 장원으로 뽑힌 과거제도를 통한 정규관료학자였다.

더욱이 최충은 학문의 깊이, 인격의 성숙도, 정치 행정관료로서의 자질 등을 고루 갖춘 인재였고, 도덕 군자(임금)를 길러내는 성공한 교육가로서 목종, 현종, 덕종, 정종, 문종 등 다섯 임금을 자문한 국가 원로였다.

선조 최충은 고려 개국 이후 최대의 예우와 존경을 받았던 분이다. 1053년 선조 최충은 일흔 나이가 되어 벼슬을 사양했는데, 당시 임금 문종은 특별히 교서를 내려, “시종 최충은 여러 대를 거친 유학의 종주요, 삼한의 기덕이다. 이제 비록 늙어서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간청하나, 차마 이를 허락할 수 없다. 마땅히 고전을 살피어 안석과 지팡이를 내리고 계속해서 나라 일을 돌보도록 할 것이다”라고 칭송했다.

둘째, 한 가문을 유학의 도를 모범적으로 가꾸어, 자손 모두가 유학자로 영달하여 그 풍모가 조야에 널리 알려졌다. 최충에겐 최유선과 최유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최유선은 현종 22년(1031) 을과에 장원하였고, 벼슬은 중서령을 지냈으며, 문화공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최유길은 수사

공섭상서령(守司空攝尙書令)을 지냈다. 최충의 자손 중에는 문과에 올라 벼슬이 재보(宰輔 : 차관급)에 오른 사람만 해도 수 십 명에 달했다.

선조 최충이 자식교육을 어떻게 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자손들에게 훈시한 한편의 시에서 짐작할 수 있다.

“우리가문에 값진 물건이라곤 없다만, 오직 지극한 보장(寶藏)이 있어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문장으로 부귀로 삼고, 덕행으로 공명을 이루어라. 오늘 당부하는 이 교훈을 오래오래 간직하여 잊지 마라. 국가의 좋은 재목으로 쓰여서 대대로 가문을 일으키고 빛낼지어다.”

라고 하시어, 재물보다는 학문을 쌓고, 덕행을 몸으로 실천하여 국가를 위해 힘쓸 것을 당부했던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후손들에게 그 영향을 주어 많은 후손들이 학문을 행하여 국가에 공헌했던 것이다.

또, 1067년 문종 임금이 최충을 위하여 연화를 베풀었는데, 이때 선조 최충이 두 아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연회장에 들어오는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이를 보고 있던 당시 한림학자 김

행경은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높은 벼슬과 공명을 이룬 자손들이 함께 기로(耆老)를 부축하고 들어오니 황은에 취하는도다. 상서령은 중서령을 시중들고, 을 장원은 갑 장원을 부축했네. 세상에 드물게 사입두(송나라의 4대 벼슬)에 이른다든 말을 듣기는 했지만, 한 가문에 정승이 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네. 한 집안에 재상이 줄줄이 나는 것도 드물거니와, 대를 이어 문과에 장원한다는 것은 더욱 존경스럽네. 날마다 선비들의 칭송이 자자하더니, 오늘에는 온 거리가 떠들썩하네. 연이어 공업(功業)을 세워 청사에 빛나니, 천 자루 붓이 다 닳도록 써도 형용하기 부족하네.”

이 시구만 보더라도 선조 최충은 유교적인 모범 가문으로써 후손들을 교육시켰으며, 또 많은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에 공헌한 공덕이 당시 얼마나 지대했던 가는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으로 받았던 것으로부터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정도이다.

고려유학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 세 분을 꼽는다면, 성종 임금(982-997), 최승로(927-

989), 최충(984-1068)을 들 수 있다. 성종 임금은 최승로의 자문으로 유교국가를 다스린 것이지만, 최충 할아버지는 고려유학을 정착시키는 주춧돌 역할을 한 최승로의 뒤를 이어, 실질적으로 유교를 학문적 차원으로 고양시켰던 것이다.

선조 최충은 72세 되던 해, 1055년 9월 15일 자하동에 구재학당을 설치하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사학을 창설하였고, 교과 내용과 과정을 설치하여 정규학교의 체제를 세워 교육을 확장했다. 여기서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맹자」사상을 가르쳤고, 삼국사기 50권을 편찬(1145년)한 김부식과 그의 형 부일, 아우 부의 모두 문과에 급제했는데, 이들 모두 구재에 입학한 최충의 제자였다.

선조 최충은 사후 해동공자라고 불리어졌는데, 이 칭호는 중국역사상 처음 개인신분으로 사학을 개설하고, 6경을 통하여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성인의 학문을 가르쳐 많은 제자를 양성했던 공자처럼, 한국 역사상 처음 개인신분으로 사학을 창설하고, 9경을 통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 배출시킨 교육자였다는 점에서 붙여진 것이다.

당시 관학은 관리를 뽑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신분에 따라 교육하던

국가 교육기관이었으므로 일반인들은 아무리 총명하여도 입학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선조 최충은 부득이 사학을 설치하여 귀족이나 일반 대중에게도 차별 없이 학문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조 최충의 이 위대한 업적과 정신은 한국 사상사나 한국교육사에서 가장 고귀한 전통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 최충의 위업이 실질적으로 평가 절하된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현재 성균관의 문묘에는 공자를 주벽으로 안자, 증자, 자사, 맹자 등 사성과 공문 10철(孔門十哲), 6조 6현(六朝六賢), 동방 18현(東方十八賢) 등이 모셔져 있다. 동방 18현 중 신라 유현이 두 분, 고려 유현 단 한 분(정몽주 포함 2명), 다른 열 다섯 분은 모두 조선조에서 승무시킨 분이다.

여기서, 유교국가 조선을 세우는데는 고려조 유현들의 공업(功業)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조 유현 15명에 비해 고려조 2명은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을 간단히 알 수 있다. 그 이유인 즉, 우선은 정중부 난(1170

년)과 무신정권이 계속되어, 조선초기는 조선창업을 도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거론되었던 것이다.

유현의 문묘는 최치원과 설총이 배향된 이후 300년간 문묘 종사가 없었다. 그러다가, 1319년에 안향만이 배향되었다. 안향이 배향된 100년 후, 1411년 조선창업을 도운 권근, 태종을 도운 하륜, 그리고 최충도 사학 구재의 업적과 교육의 지속성을 인정받아 사간원의 상소로 건의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성종과 중종 때에 와서는 성리학이 점점 유학의 정통으로 자리 매김하기 시작하면서 공자보다 오히려 주자가 권위를 지니게 되어 선조 최충의 위상은 평가되지 못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전고려대 교수 김충렬 선생님은 “고려의 유학이 불교 국가 속에서 위상을 정립하고 인재를 기르고 국가정치를 유교 이념과 윤리로 다스리고 교육을 일으켜 마침내 조선이라는 유교 국가를 탄생하게 한 공덕으로 볼 때, 문묘종사가 너무 소략하고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고려의 유현 중에 최충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최언위, 쌍기, 최승로, 김부식, 이제현, 이색, 길재 등 8명을 더 문묘에 배향하여 안향과 정몽주를 합쳐서

10현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대학교 안진호 명예교수는 “최충과 같은 이상적인 인간상 형성을 위한 유학교육을 현대적으로 변형시켜 우리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대안으로 추구하거나, 또 그러한 인간 형성 교육이 과학 기술 문명 일변도로 치닫는 현대사회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진지한 탐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교는 애당초 종법제도의 봉건시대의 절대적인 통치질서나 윤리규범으로 정착되어 왔으므로, 그러한 유교이념이 현대사회의 가정윤리와 시민윤리 내지 사회윤리로 정책 되려면 유교자체에 과감한 변혁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학문적 작업은 오늘의 유학 연구의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또 다가올 21세기에는 더욱 더 인성교육이나 인간교육을 갈망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현실 역시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바야흐로 교육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최충의 유학교육에서 추구하고 실행했던 것과 같은 도덕적 인간 형성 교육과 그러한 일을 담당할 학덕을 겸비한 교육자의 양성 등 우리의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이남영 교수는

“천년 전 「해동공자」의 사학 건립정신을 되살려 중창할 의의와 가치는 없는 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선조 최충은 역사상, 한국 최초로 구재학당이라는 사학을 설립하여 계층을 초월한 모든 이에게 학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문의 발전과 인재 양성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여 ‘해동의 공자’라고 불리어졌을 정도였으니까, 그 위업은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러므로 당연히 정당한 평가를 받아 고려 유현으로서 성균관의 문묘에 배향되어야 함이 지극히 마땅하다. 그리고 기술과학문명 일변도의 발달로 가정윤리, 시민윤리, 사회윤리의 결핍을 고려할 때, 유교를 현대에 맞게 개혁하여 도덕적 인간성 형성에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매우 바람직한 지적임에 틀림없다. 특히 21세기는 동양의 세기라고 불릴만큼 도덕적 인간성 형성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남영 교수가 제안한 역사상 한국 최초의 사학인 구재학당을 중창하는 일은 지극히 바람직한 지적이다. 이는 동시에 우리 해주 최씨 대중회의 과제임과 동시에 국가적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자랑스러운 우리 조상



昌 浩

(대중회 고문, 집의공파 33세, 건국대학 명예교수)

I. 韓國의 姓氏(성씨)와 崔氏의 各本(본)

우리 나라에서 예로부터 일반국민들을 '백성' (百姓)이라고 하여 사람들의 성(姓)이 백개 정도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 수가 늘어 1990년에는 258개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에 필자가 서울시의 전화번호부를 직접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것이 실제로는 328개나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가 2000년도 성남시의 전화번호부를 조사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5대 성은 김(金)씨(21.27%), 이(李)씨(15.66%), 박(朴)씨(9.98%), 최(崔)씨(4.27%), 정(鄭)씨

(4.58%)이었다.

'최' (崔)씨의 실제 인구수는, 위의 2000년도 성남시 전화번호부 조사결과(최씨 4.27%)를 토대로 계산해 보건대, 남한(인구 4,800만)에 220만명, 남·북한(총인구 7,000만) 전체에서 330만명 정도될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씨 성(姓)의 각 본(本)을 한국어사전편찬회(편) 한국어대사전(현암사, 1976)의 부록 '세계 인명사전'에서 조사하여 보았던 바 29개였고, 또한 다른 기록에 5개가 더 있으며 족보발간사인 回想社의 기록에는 126개로 기록되어 있다.

〈崔氏(최씨)의 각 본(本)〉

강릉(江陵), 강화(江華), 경주(慶州), 공주(公州), 괴산(槐山), 나주

(羅州), 무주(茂州), 밀양(密陽), 삭령(朔寧), 수원(水原), 양주(楊州), 양천(陽川), 영암(靈岩), 영주(永州), 영흥(英興), 완산(完山), 용주(龍州), 우봉(牛峰), 원주(原州), 전의(全儀), 전주(全州), 죽산(竹山), 직산(稷山), 진주(晉州), 창원(昌原), 철원(鐵原), 초계(草溪), 충주(忠州), 탐진(耽津), 통천(通川), 해주(海州), 화순(和順), 황주(黃州), 흥해(興海)··· 등 총 126 본이다. (가, 나, 다 순)

위의 '세계 인명사전'에 실린 최씨 인물의 본관들을 기준으로 최씨의 7대 본을 찾아보았던 바, 그것은 전주(全州), 해주(海州), 경주(慶州), 삭령(朔寧), 창원(昌原), 강릉(江陵), 수원(水原)이었다.

'해주' (海州) 최씨의 인구수는, 위의 세계인명사전에 실린 최씨인물들의 각본관 비율(해주최씨 16.75%)을 기준으로 계산해 볼 때, 남한에 37만명, 남·북한 전체에서 55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II. 海州崔氏 歷代人物 紀錄 (역대인물 기록)

지금까지의 각종 기록에 나타나는 해주 최씨의 역대 인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1. 高麗史(고려사):고려조 명신 9인

조선조 초기(1396년)에 정인지(鄭麟趾) 등에 의하여 편찬된 고려사에는 고려조의 명신으로서 다음과 같은 9인의 해주최씨 인물이 실려 있다.

卞(충, 2세), 惟善(유선, 3세), 思齊(사제, 4세), 思諒(사랑, 4세), 思諷(사추, 4세), 淪(약, 5세), 允儀(윤의, 6세), 滋(자, 8세), 有滄(유엄, 9세)

2. 輿地勝覽(여지승람):해주인물 13인

조선조 성종조에 노사신(盧思愼) 등에 의하여 편찬된 여지승람에는 다음과 같은 13인의 해주인물이 실려 있다.

卞(충, 2세), 惟善(유선, 3세), 思齊(사제, 4세), 思諒(사랑, 4세), 思諷(사추, 4세), 함(誠, 5세), 淪(약, 5세), 允儀(윤의, 6세), 洪胤(홍윤, 6세), 滋(자, 8세), 椿命(춘명, 8세), 有滄(유엄, 9세), 萬理(만리, 14세)

3. 世界人名辭典(인명사전):역사인물 31인

1976년에 한국어사전편찬회에 의

하여 편찬된 한국어대사전의 부록 '세계인명사전'에는 세계 각국의 많은 역사인물 중 해주최씨의 역사인물로서 다음과 같은 31인이 실려 있다.

冲(충, 2세), 惟善(유선, 3세), 思齊(사제, 4세), 思諒(사랑, 4세), 思諛(사추, 4세), 함(誠, 5세), 淪(약, 5세), 湊(주, 5세), 允儀(윤의, 6세), 允仁(윤인, 6세), 洪胤(홍윤, 6세), 滋(자, 8세), 椿命(춘명, 8세), 有滄(유엄, 9세), 鄆(단, 12세), 永祉(영지, 12세), 關(관, 13세), 萬理(만리, 14세), 慶會(경회, 17세), 汝舟(여주, 18세), 滉(황, 19세), 澗(전, 19세), 慶昌(경창, 19세), 有源(유원), 沂(기, 19세), 有海(유해, 20세), 有淵(유연), 愼(신), 奎瑞(규서, 23세), 璜(황), 致倫(치윤, 26세)

4. 海州崔氏 大同譜(대동보):공신·충신등 96인

해주최씨 대동보에는 다음과 같이 훌륭한 해주인물 96인(연인원)이 실려 있다.

가) 海州後裔(해주후예) 33인

冲(충, 2세), 惟善(유선, 3세), 惟吉(유길, 3세), 思齊(사제, 4세), 思諒(사랑, 4세), 思諛(사추, 4세), 滋(자, 8세), 有滄(유엄, 9세), 濬(준,

16세), 汝舟(여주, 18세), 滉(황, 19세), 潛(서, 19세), 澳(오, 19세), 澗(전, 19세), 洛(낙), 沂(기, 19세), 有源(유원), 有泳(유영), 有海(유해, 20세), 植(식), 胄海(주해), 世進(세진, 22세), 世慶(세경, 22세), 碩儒(석유, 22세), 碩英(석영, 22세), 愼(신), 沈(침), 潮(조), 弘輯(홍집), 弘臣(홍신), 弘規(홍규), 一華(일화), 一河(일하)

나) 功臣(공신) 9인

(충, 2세), 惟善(유선, 3세), 思諛(사추, 4세), 有滄(유엄, 9세), 鄆(단, 12세), 賓(빈, 17세), 應洙(응수), 滉(황, 19세), 山輝(산휘)

다) 麗末自靖(충신) 2인

安澤(안택, 12세), 仁富(인부, 12세)

라) 清白吏(청백리) 1인

萬里(만리, 14세)

마) 秀出三賢(수출3현) 1인

璘(인, 15세)

바) 典文衡(전문형) 2인

思諛(사추, 4세), 奎瑞(규서, 23세)

사) 壬辰義士(임진의사) 6인

慶雲(경운, 17세), 慶長(경장, 17세), 慶會(경회, 17세), 弘宇(홍우, 18세), 弘載(홍재, 18세), 弘器(홍

기, 18세)

아) 丙辰海禍(병진해화) 5인

沂(기, 19세), 有涵(유함, 20세), 有泳(유영, 20세), 有石(유석, 20세), 植(직, 21세)

자) 禮葬(예장) 5인

思諒(사랑, 4세), 思諷(사추, 4세), 滉(황, 19세), 沂(기, 19세), 奎瑞(규서, 23세)

차) 賜弔(사조) 7인

冲(충, 2세), 思諒(사랑, 4세), 思諷(사추, 4세), 慶會(경회, 17세), 滉(황, 19세), 有海(유해, 20세), 奎瑞(규서, 23세)

카) 廟廷配享(묘정배향) 5인

冲(충, 2세), 惟善(유선, 3세), 思諷(사추, 4세), 允儀(윤의, 6세), 奎瑞(규서, 23세)

타) 院祠配享(원사배향) 23인

冲(충, 2세), 惟善(유선, 3세), 惟吉(유길, 3세), 思諒(사랑, 4세), 思諷(사추, 4세), 椿命(춘명, 8세), 有(유엄, 9세), 萬理(만리, 14세), 慶雲(경운, 17세), 慶長(경장, 17세), 慶會(경회, 17세), 有源(유원), 沂(기, 19세), 慶昌(경창, 19세), 滉(황, 19세), 遇(우, 19세), 有涵(유함, 20세), 有泳(유영, 20세), 植(직, 21세), 景候(경후), 景憲(경헌), 彥英

(언영), 彥亮(언량)

5. 高麗忠義 統一大殿 配享(통일대전 배향) 6인

최근 고려숭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려충의 통일대전 건립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해주최씨 6인이 배향되고 있다(2000년).

공 신: 冲(충, 2세), 惟善(유선, 3세), 思諷(사추, 4세), 允儀(윤의, 6세)

충 신: 安澤(안택, 12세)

문화인: 滋(자, 8세)

Ⅲ. 海州崔氏 家門의 勳績(훈적)

해주최씨 가문은 고려조 이래 국가 원로를 다수 배출한 명문으로서, 충국(忠國)과 절의(節義)가 강하고, 학·덕(學·德)을 겸비한 석학(碩學)이 많았으며, 청렴(淸廉)·강직(剛直)성이 높은 것이 그 특징이다. 이하에서는 그 대표적인 인물만을 예시하기로 한다.

1. 國家 元老·名臣·功臣(원로·명신·공신)

가) 宰相(재상)

冲(충, 2세, 984-1068, 고려 현종

문종조)…현종·덕종·정종·문종 4대에 걸쳐 출장·입상하며 문하시중(門下侍中) 등 국가 주요직을 맡아 고려조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래의 ‘명신’·‘공신’ 부분 및 ‘학덕’ 부분 참조.

惟善(유선, 3세, -1076, 고려 선종조)…수태위중서령(守太尉中書令). 아래의 ‘명신’·‘공신’ 부분 참조.

惟吉(유길, 3세, -1077, 고려 문종조)…수사공섭상사령(守司空攝尙書令).

思齊(사제, 4세, -1091, 고려 선종조)…상주국(上柱國). 아래의 ‘명신’ 부분 참조.

思諒(사량, 5세, -1092, 고려 선종조)…참지정사(參知政事) 등 중요직. 퇴직후 왕이 애석히 여겨 봉급 반액을 급여하였다. 아래의 ‘명신’ 부분 및 ‘학덕’ 부분 참조.

思諛(사추, 4세, 1034-1115, 고려 예종조)…문하시중(門下侍中). 아래의 ‘명신’·‘공신’ 부분 참조.

誠(함, 5세, 1094-1160, 고려 의종조)…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뒤의 ‘절의’ 부분 참조.

淪(약, 5세, 고려 예종조)…예부상서(禮部尙書). 아래의 ‘명신’ 부분 및

‘강직’ 부분 참조.

湊(주, 5세, 고려 인종조)…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允儀(윤의, 6세, 1102-1162, 고려 의종조)…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洪胤(홍윤, 6세, -1229, 고려 고종조)…평장사(平章事).

滋(자, 9세, 1186-1260, 고려 고종조)…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 아래의 ‘명신’ 부분 및 ‘저술’ 부분 참조.

有滄(유업, 9세, 1239-1331, 고려 충숙왕조)…정승(政丞). 아래의 ‘명신’·‘공신’ 부분 참조.

滉(황, 19세, 1529-1603, 조선 선조조)…영의정(領議政) 추증.뒤의 ‘공신’ 부분 및 ‘절의’ 부분 참조.

奎瑞(규서, 23세, 1650-1735, 조선 숙종조)…50년간 국가 중요직 거쳐 영의정(領議政)에 이름.뒤의 ‘충국’ 부분 참조.

나) 名臣(명신)

冲(충, 2세, 984-1068, 고려 현종·문종조)…위 ‘재상’ 부분 및 아래의 ‘공신’ 부분과 ‘학덕’ 부분 참조.

惟善(유선, 3세, -1076, 고려 선종조)…위 ‘재상’ 부분 및 아래의 ‘공신’ 부분 참조.

思齊(사제, 4세, -1091, 고려 선종조)…위 '재상' 부분 참조.

思諒(사량, 4세, -1092, 고려 선종조)…위 '재상' 부분 및 뒤의 '학덕' 부분 참조.

思誨(사추, 4세, 1034-1115, 고려 예종조)…위 '재상' 부분 및 아래의 '공신' 부분 참조.

淪(약, 5세, 고려 예종조)…위 '재상' 부분 및 뒤의 '강직' 부분 참조.

允儀(윤의, 6세, 1186-1260, 고려 고종조)…위 '재상' 부분 및 뒤의 '저술' 부분 참조.

滋(자, 8세, 1186-1260, 고려 고종조)…위 '재상' 부분 및 뒤의 '저술' 부분 참조.

有淪(유엄, 9세, 1239-1331, 고려 충숙왕조)…위 '재상' 부분 및 아래의 '공신' 부분 참조.

다) 功臣(공신)

(충, 2세, 984-1068, 고려 현종-문종조)…앞의 '재상' · '공신' 부분 및 뒤의 '학덕' 부분 참조.

惟善(유선, 3세, -1076, 고려 선종조)…앞의 '재상' · '명신' 부분 참조.

思誨(사추, 4세, 1034-1115, 고려 예종조)…고문개(高文蓋) 역모를 진압하였다. 앞의 '재상' · '명신' 부분 참조.

椿命(춘명, 8세, -1250, 고려 고종조)…몽고 침입에 30년 항쟁 끝에 조정은 이미 강화했으나, 자주성(慈州城)을 끝까지 고수, 사형직전에 그 충국심에 감탄한 적장의 요청으로 구명되었다. 뒤의 '충국' 부분 참조.

惟滄(유엄, 9세, 1239-1331, 고려 충숙왕조)…원의 고려흡수 책동을 막았다. 앞의 '재상' 부분 참조.

鄆(단, 12세, 조선 태조조)…위화도 회군과 상주(尙州) 왜구 격파로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이 되었다.

應洙(응수, 조선 인종조)…진무공신(振武功臣).

賓(빈, 17세, 1539-, 조선 선조조)…오위도총관(五衛都摠官). 임진 피난시 왕을 업고 5주·야를 향하여 의주에 도착하였다. 뒤의 '절의' 부분 참조.

滉(황, 19세, 1529-1630, 조선 선조조) · 검찰사(檢察事) · 찬성사(贊成事). 임진 피난시 왕비와 세자빈 모시고 희천(熙川)에 도착. 뒤에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다. 앞의 '재상' 부분 및 뒤의 '절의' 부분 참조.

山輝(산휘, 조선 인조조) · 사첨사주

부(司瞻寺主簿). 유효림(柳孝立) 역모를 막았다.

2. 忠國·節義(충국·절의)

가) 忠國(충국)

允仁(윤인, 6세, 1113-1161, 고려 의종조)…성주통판(成州通判)·지홍주사(知洪州事)·감찰어사(監察御使) 등을 두루 거쳤으며, 충국심이 매우 깊었다.

椿命(춘명, 8세, -1250, 고려 고종조)…위의 ‘공신’ 부분 참조.

仁富(인부, 12세, -1361, 공민왕조)…친어대호군(親御大護軍)으로 28세로 홍건족 항쟁때 순절하였다.

安澤(안택, 12세, 1368-1436, 고려 공민왕조)…고려말 후령랑장(後領郎將). 조선이 건국되자 은퇴하였다.

慶會(경회, 17세, 1532-1593, 조선 선조조)…임진 의사(壬辰義士), 임난시 의병일으켰으며, 경상우병사로 진주성을 사수하였다. 논개가 그의 부실(副室)이다.

慶長(경장, 17세, 조선 선조조)…임진 의사, 임진 의사, 임난시 의병일으켜 용감히 싸웠다. (경회의 형).

慶雲(경운, 17세, 조선 선조조)…임진 의사, 임난시 의병일으켜 오성산성(五城山城)을 사수하였다(경회

의 형).

弘載(홍재, 18세, 조선 선조조)…임진 의사, 임난시 부친 경운(慶雲)의 뜻을 따랐다.

弘宇(홍우, 18세, 조선 선조조)…임진 의사, 임난시 계부 경회(慶會)의 뜻을 따랐다.

弘器(홍기, 18세, 조선 선조조)…임진 의사, 임난시 방량관(放糧官)으로 큰 공을 세웠다(경회의 자).

奎瑞(규서, 23세, 1560-1735, 조선 숙종조)…이인좌(李麟佐) 반란을 방지하였다. 앞의 ‘재상’ 부분 참조.

致倫(치륜, 조선 선조조)…홍경래난시 난동지역을 탈환하고 진압하였다. 나주영장(營將), 희천(熙川)군수.

나) 節義(절의)

誠(함, 5세, 1094-1160, 고려 의종조)…이자겸(李資謙)난시 국새를 지켰다. 앞의 ‘재상’ 부분 참조.

賓(빈, 17세, 1539-, 조선 선조조)…앞의 ‘공신’ 부분 참조.

滉(황, 19세, 1529-1603, 조선 선조조)…앞의 ‘재상’·‘공신’ 부분 참조.

3. 學德·碩學(학덕·석학)

가) 學德(학덕)

冲(충, 2세, 984-1068, 고려 현종-문종조)…관직퇴임 후 70고령으로

구재학당(九齋學堂:사학)을 개설하여 후진양성에 힘썼다. 성리학을 중국보다 먼저 정립하여 유학을 개척하였으며, 해동공자(海東孔子)라 추앙받았다. 앞의 '재상' · '명신' · '공신' 부분 참조.

思諒(사랑, 4세, -1092, 고려 선조)…문장이 탁월하고 당시(唐詩)에 능하였다. 앞의 '재상' · '명신' 부분 참조.

璘(인, 15세, 조선 연산군조)…수출삼현(秀出三賢)의 한사람. 성균관 재학시 명나라 사신과 시(詩)로 대결하였다.

汝舟(여주, 18세, -1567, 조선 명종)…문장과 글씨가 뛰어나, 당대의 명사들과 겨루었다.

慶昌(경창, 19세, 1539-1583, 조선 선조)…청백리 시인. 종성부사(鍾城府使). 영암 해변에서 파리를 구성지게 붙여 해적들의 향수를 자극해 침화(侵禍)를 면하였다. 뒤의 '청렴' 부분 참조.

潛(서, 조선 선조)…효우(孝友)가 출천(出天)하고, 문장에 이름났다.

濬(준, 조선 선조)…충원군자(忠原君子)라 불리었다.

澳(오, 선조)…학문이 매우 깊었다.

洛(낙, 조선 선조)…실제공부를 하

여 사림(士林)들에게 명망이 높았다.

有海(유해, 20세, 1587-1641, 조선 광해군조)…안동부사, 당쟁의 희생으로 사직되었다. 재주가 있어 의약·복점·천지리에 밝았다.

植(식, 조선 광해군조)…학문이 넓고 깊었으며, 기상의 위엄이 있었다.

碩儒(석유, 22세, 조선 광해군조)…문인으로, 예학에 빼어났다.

碩英(석영, 22세, 조선 광해군조)…문인으로, 학행이 거듭 사존(師存)의 눈에 띄었다.

世進(세진, 22세, 조선 인조)…문인으로, 도의를 강론하여 세인의 추앙을 받았다.

世慶(세경, 22세, 조선 인조)…문인으로, 학문을 참되게 함을 본으로 삼고 이치를 궁구하는데 힘썼다.

有淵(유연, 1568-, 조선 인조)…당대에 문명이 높았다.

胄海(주해, 조선 효종)…문인으로, 학식이 고명하였다.

沈(침)…문인으로, 학문이 정밀하고 깊었다.

潮(조)…문인으로, 문장이 넓고 깊었다.

弘輯(홍집)…문인으로, 문예필법이 세상의 추앙을 받았다.

弘臣(홍신)…문인으로, 자태가 관후

하고 문장이 넉넉하였다.

弘規(홍규)…문인으로, 효우(孝友)가 뛰어나고 문학이 세상에 이름났다.

一華(일화)…문인이었다.

一河(일하)…문인으로, 분이 분명하고 문학이 뛰어났다.

나) 著述(저술)

滋(자, 8세, 1186-1260, 고려 고종조)…유명한 보한집(보한집)을 저술하였다. 앞의 '재상' · '명신' 부분 참조.

澗(전, 19세, 1567-1588, 조선 선조조)…진사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요절. 시문에 뛰어나고, 서예 · 그림에 출중하였으며, 시문유집(詩文遺集) · 양포유고(揚浦遺稿)를 저술하였다.

愼(신, 1642-1708, 조선 인조조)…회인(懷仁)현감. 학암집(鶴庵集)을 지었다.

璜(황, 1783-1874, 조선 정조조)…경사(經史)에 밝고 시문에 능하며, 구암부목(苟岩副墨)(16권), 제자초략(諸子抄略)(12권), 시총(詩叢)(6권), 이례초록(易禮抄錄) 등 총 35권을 저술하였다.

4. 清廉 · 剛直(청렴 · 강직)

가) 清廉(청백리)

萬理(만리, 14세, -1445, 조선 세종조)…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 강원감사(江原監事). 훈민정음의 제정과 관리의 사모착용에 극력 반대하였으며, 후에 청백리로 뽑혔다.

慶昌(경창, 19세, 1539-1583, 조선 선조조) · 앞의 '학덕' 부분 참조. 사후에 청백리로 뽑혔다.

나) 剛直(강직)

淪(약, 5세, 고려 예종조)…왕의 계속되는 연유(宴遊)탐닉을 만류하여, 좌천되었다가 왕의 뉘우침으로 복직되었다. 앞의 '재상' · '명신' 부분 참조.

永祉(영지, 12세, 1331-1403, 조선 태조조)…평양부윤(平壤府尹)으로 평양성 수축시 부하의 어느 선대묘비 발굴이 문제되어 부하대신 사직하였다. 천성이 강직하여 세도에 굴하지 않았다.

關(관, 13세, -1424, 조선 세종조)…대제학(大提學). 성품이 강직하여 유배와 복직을 반복하였다.

有源(유원, 1561-1614, 조선 광해군조)…광해군의 인목대비 폐비 반대로 삭직되었으며, 사후에 표창을 받았다.

沂(기, 19세, 1553-1616, 조선 광해군조)…해주목사(海州牧師). 이이

침(李爾瞻)의 무고로 잡혀 회유를 물리치고 문초받다 옥사(병진화해). 사후에 참시되었다.

有涵(유학, 20세, 조선 광해군조)...

병진화해로 옥중사. 기(沂)의 질.

有泳(유영, 20세, 조선 광해군조)...

병진화해로 옥중사. 유함의 제.

有石(유석, 20세, 조선 광해군조)...

병진화해. 기(沂)의 자.

植(직, 21세, 조선 광해군조)...

병진화해로 옥중사. 유영의 자.

IV. 名家門 後孫(후손)의 矜持(긍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해주최씨는 고려 초기 冲(충, 문헌공) 선조를 시작으로 하여 1천여년간 명문으로 그 맥을 이어왔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대를 이어 재상·명현·석학을 배출하여 원나라의 압력과 무신의 횡포를 막아냄으로써, 고려 역사가 곧 해주최씨의 역사라 할 만큼 우리 해주최씨 가문은 국가의 주추적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해주최씨는 각 방면에서 많은 활약으로써 국가에 공헌하였으며, 특히 사색당쟁 속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오직 선비의 지조를 지

켜 충국·애족을 다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해주최씨의 조손들이 해동공자인 문헌공 冲(충) 선조의 인품과 교훈을 바탕으로 부단히 자기도야에 힘씀으로써, 것처럼 불의와 타협함이 없이 깨끗하게 살 수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되며,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마른다고 하는 진리가 바로 우리 해주최씨 가문에서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은 나의 근본을 아는 데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훌륭한 선조들로 이어져 온 1천년의 귀중한 역사를 재인식하고, 우월한 혈통과 역량을 자닌 명문·거족의 후예로서, 자기에 게 성(誠)으로써 최선을 다하고, 사회에 덕(德)으로써 봉사하여, 우리 민족의 커다란 귀감(龜鑑)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 해주최씨 가문의 후예들은 우리 민족의 흥성에 주축이 되어 온 훌륭한 선조들에게 경건히 머리숙여 감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삶을 다짐한다.

첫째로, 조상에 부끄럼 없이 살자.

둘째로, 역사에 부끄럼 없이 살자.

셋째로, 하늘에 부끄럼 없이 살자.

高麗統一大殿에 모셔질 우리 海州崔氏 先祖

在 襄

(承旨公派)



忠·功臣閣·守僕房 全景

一. 高麗統一大殿이란

1993년 서울에 社團法人高麗崇義會가 設立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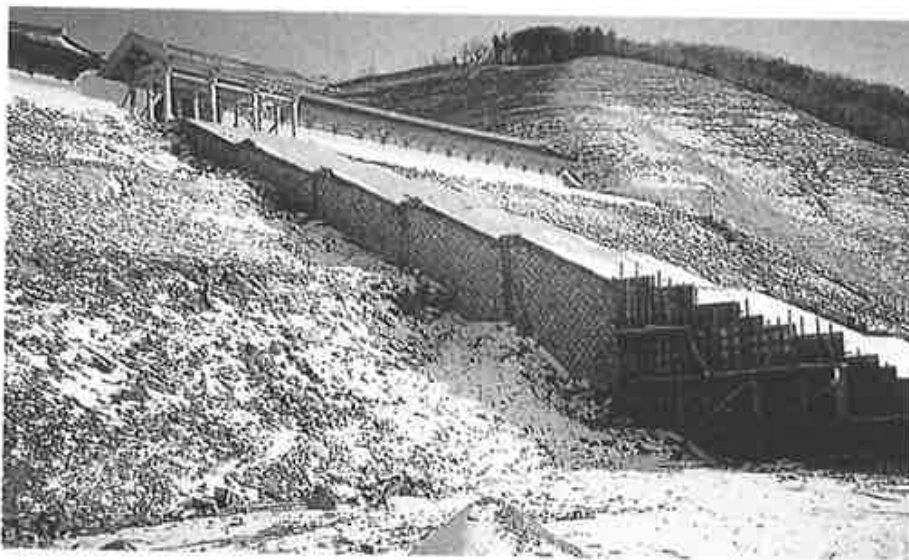
이 단체는 民族的 斷切된 脈을 잇고 民族의 精氣를 恢復하기 이해 國

家와 民族을 위하여 현저하고 偉大한 功을 세운 韓民族의 國脈을 永重케 한 高麗時代의 聖王과 忠臣, 功臣, 節臣 諸賢의 德業을 宣揚하여 民族의 빛나는 傳統的 精神文化를 育成發展과 그리고 高麗史의 偉大性을 宣揚하

는데 目的을 두고

1. 고려시대 민족문화 유산의 개발 傳承과 聖忠偉功諸賢의 德業宣揚 및 顯彰에 관한 사업
2. 국민의 民族精神宣揚上 必要的 圖書의 刊行 및 學術講演關係
3. 其他 必要的 附帶事業一切의 사업을 하기로 한 단체이다.

이 高麗崇義會는 이러한 歷史的 인식아래 歷史的 正統性, 政治的 主體性, 文化的 創造性確立과 祖國統一의 方向제시에 目的을 두고 거국적인 아주 거창한 高麗統一大殿을 設立하게 된 것이다. 이 統一大殿의 配殿인 功臣閣과 忠臣閣工事は 지난 1999년 12월 23일 着工하여 現在 施工中에 있는데 불원간 준공할 예정으로서 그 位置는 京畿道 坡州市 炭縣面 城洞里 산72번지 통일동산 中央公園 內이다.



高麗統一大殿 高麗歷史文化博物館 建立概要

▶ 位置

京畿道 坡州市 炭縣面 城洞里 산 72番地(統一동산 中央公園 內)

▶ 面積

敷地面積 : 41,200m²(12,463坪)

建築面積 : 7,111m²(2,151建坪)

▶ 建築內容(名稱은 假稱, 配享은 斯界 學者에 委囑하여 審議決定)

▶ 高麗統一大殿(291建坪)

後三國을 統一한 高麗太祖를 비롯한 歷代四聖王을 奉享하여 民族統一 및 國民和合의 歷史的 意義를 높이 宣揚하여 恒久的 民族意志로 承繼發展

▶ 功臣閣(102建坪)

國難克服에 功이 큰 歷代名臣, 名將 등 配享

高麗末期 杜門洞 七十二賢 配享

▶ 忠臣閣(140建坪)

學問, 藝術, 科學 등 文化振興에 크게 寄與한 人物配享

▶ 高麗歷史文化



中央階段 全景

博物館(1,494建坪)

高麗史에 對한 各種 歷史, 文獻, 遺物 및 展示施設 映寫, 電算施設을 갖춘 主體的 教育道場으로 活用

- 1) 第1 展示室 : 高麗의 建國과 發展
- 2) 第2 展示室 : 高麗의 思想과 體系
- 3) 第3 展示室 : 高麗文化 및 藝術, 科學(技術)

歷史觀의 設計 및 運營體系는 最新 電算시스템化

南北間 非政治的 文化交流 및 學術 討論場으로 活用

▶ 其他(124建坪)

講堂 등 其他附帶施設

建築設計 : 高麗建築 樣式

事業其間 :
1999. 9~2005.
9.

所要豫算 :
450億원

▶ 配享對象 :
政治人物 - 宗廟,
崇義殿 配享
功臣

統合功臣 - 三韓
統合功臣 1, 2等

護國人物 - 舊疆을 回復하고 外
侵을 擊退한 名將

文化人物 - 文運을 興盛한 名儒
또는 名僧, 名筆

科學技術을 發展시킨 科學
者 및 藝術分野 名匠

社會生活을 改善한 名臣

麗末忠臣 - 高麗社稷을 衛護하다
가 殉節한 忠臣

革命을 反對하고 復位를 圖
謀하다 被適된 抗節臣

朝鮮朝에 出仕를 拒否하고
抗節한 表節臣

高麗의 亡國臣을 自處하고
隱居自靖한 靖節臣

杜門洞書院과 杜門洞七十二
賢錄에 오른 義節臣

二. 高麗統一大殿에 配享될 우리 先祖

우리 海州崔氏는 高麗時代에 貴族家門으로 歷代人物이 많이 배출되셨다.

高麗崇義會에서 決定된 高麗功臣忠賢錄에 의하면

1. 宗廟配享位는

靖宗廟에 文憲公 諱 : 冲

文宗廟에 文和公 諱 : 惟善

肅宗廟에 忠景公 諱 : 思諏

毅宗廟에 英烈公 諱 : 允儀 字 이시다.

2. 功臣閣에는 文淸公 諱 : 滋 字 이시며

3. 忠臣閣에는 領郎將 諱 : 安澤 公이시다.

以上 6位中에서 文憲公, 文和公, 忠景公, 英烈公, 文淸公께서는 너무나도 有名하시어 그 事實이 수 많은 文獻에 알려지신 분으로서 여기에서는 다시 소개말씀을 드릴 必要가 없다고 여겨져서 省略하고 다만 널리 알려지지 않은 祖上으로 湖南에 落南하시어 隱遁自靖하신 領郎將 安澤公 事實만을 記錄에 의해서 소개해 드릴까 한다.

三. 忠臣閣에 모셔질 落南先祖 領郎公 安澤公

公은 始祖(휘 : 溫) 할아버지로부터 12世孫이시며 高祖는 文淸公(諱 : 滋). 曾祖는 忠憲公(諱 : 有滄), 祖는 大護軍公(諱 : 繼通), 考는 監令公(諱 : 珙)이요 妣는 沃溝宋氏夫人이시다. 公의 初諱는 仲澤이었는데 安澤 字로 고쳤다. 1368년(高麗恭愍王 16年 戊申)에 태어나시고 開城 東部 上楊堤에서 사시다가 北部觀光坊으로 이사가셨다.

여러차례 벼슬을 옮겨 內侍 修義校尉 神武侍衛司 후에 領郎將을 지내셨다.

高麗社稷이 망하고 朝鮮이 開國되자 高麗의 世臣子孫으로 李氏朝鮮에 벼슬하지 않았다. 우리 朝鮮王朝가 天命을 받은 뒤에 비록 代代로 거두어 쓰겠다는 恩典을 내렸지만 公이 스스로 옛 王朝의 信任을 받던 집안 出身으로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몸가짐을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뜻을 같이한 여러 어진분들과 함께 남쪽을 향해 내려오셔 시골로 자취를 감추셨다.

짐작컨데 다른 분들의 사례와 같이 西海바다로 배를 타시고 南向하셔서

全北 沃溝 地方에
上陸 轉轉하시다
가 아드님(諱 :
淇)代에 全南 現
長城郡 森溪에 定
着하신 것으로 보
아진다.

當時 世上에서는
사람들이 九逸民
의 한 분으로 칭송
하였으니 그 芳名이 [勝國名流標榜
錄]에 실려 있다.

配位는 淑人 川寧崔氏이시고, 父는
川寧府院君天儉, 祖는 追封 上護軍
漢, 外祖는 保勝 郎將車之普요 本은
海南이다. 아드님은 長에 淇字, 次에
洪字瀾字이시며 兄은 安海公, 弟는
安德 仲濕公이시다. 忠毅公 慶會將軍
은 公의 6世孫이시다.

公은 1368년에 出生하시고 1441
년(世宗23년 辛酉)에 돌아가셨으니
壽는 74세이시었다. 墓는 죄송스럽
게도 失傳되시고 1984년 우리 落南
海州崔氏 集成村인 和順郡 和順邑 茶
智里 감나무실 都先山에 設壇하고 每
年 陽4월 5일 수많은 後孫들이 모여
정성껏 時祭를 지낸다. 後孫은 全國



西門

的으로 모두 4천여 世帶가 된다.

특히 公께서 돌아가신 지 564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묻혀있던 그 거
룩한 節義精神이 世上에 빛을 보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高麗의 亡國臣
으로 自處하시고 隱居子靖한 靖節臣
으로 즉 麗末忠臣으로 온 國民이 推
仰하여 坡州의 高麗統一大殿 忠臣閣
에 神位를 奉安하게 되었으니 어찌
우리 後孫들의 榮光이요 限量없는 기
쁨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榮光스러운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 崇祖精神의 昂揚과 宗族間
和睦團結, 그리고 日益繁榮에 加一層
合心努力할 것을 다짐하자는 苦言을
禁치 못하는 바이다.

略傳

忠毅公 崔慶會將軍의 爲國忠節의 빛나는生涯

(해주최씨대종회 전남지회)

1. 남도화순(南道和順)에 뿌리를 내린다.
 - ① 출생지와 입향연유(入鄉緣由)
 - ② 어려서부터 한시(漢詩) 짓고, 장수(將帥) 기상
 - ③ 아버지(崔天符)의 가르침
 - ④ 당대일문(當代一門) 육과합격(六科合格)과 장원급제(壯元及第)
2. 20餘年동안의 벼슬길
 - ① 성균관 전적(典籍)을 첫 관직(官職)으로
 - ② 가는 곳마다 선정비(善政碑)
3. 임란(壬亂)을 당하여 일족(一族)이 분기(憤起)
 - ① 향리(鄉里) 삼천리(三千里)에 의병청(義兵廳)을 설치(設置)
 - ② 환갑 나이에 의병장(義兵將)이 되어
 - ③ 장수(長水)땅 도장평(道莊坪)에 장대(將臺)를(1592년 8월)
 - ④ 적상산성(赤裳山城)에 진(陣)을 치고
 - ⑤ 금산성(錦山城) 싸움
 - ⑥ 무주대첩(茂朱大捷)을 거두다

- ⑦ 영남(嶺南)도 우리 땅이다.
- ⑧ 제1차 진주성(晉州城)싸움
- ⑨ 성주성(星州城)의 승첩(勝捷)
- ⑩ 제2차 진주성(晉州城) 혈전(血戰)
- ⑪ 조카 홍우(弘宇)에게 보검(寶劍)을 주며
- ⑫ 축석루중(矗石樓中) 최후의 그날
- ⑬ 중형(慶長)이 분기(憤起)해서 의병대장(義兵大將)으로
- ⑭ 만형(慶雲)까지도 오성산성(烏城山城)에서 순절(殉節)
- ⑮ 일문(一門) 10인이 충절(忠節)을 바치다

1. 남도화순(南道和順)에 뿌리를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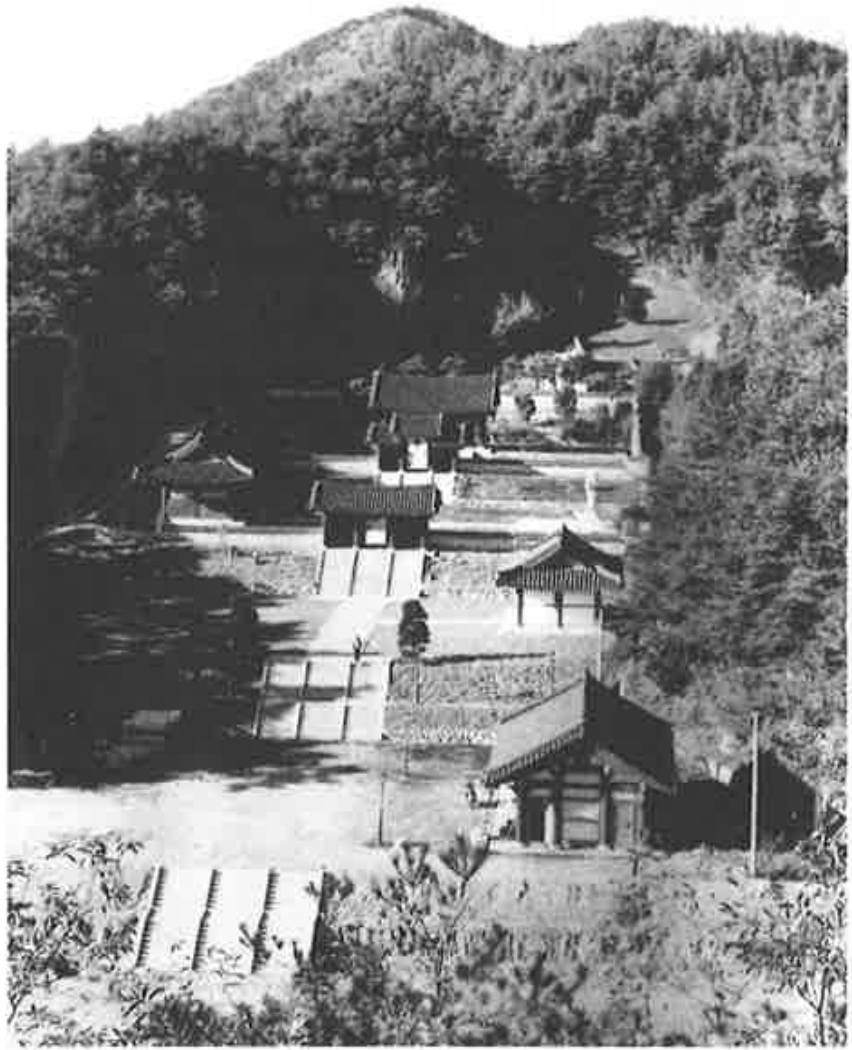
- ① 출생지와 입향연유(入鄉緣由)
공(公:慶會)의 자(字)는 선우(善遇) 호(號)는 삼계(三溪), 또는 일휴

당(日休堂). 문헌공(文憲公)의 16대손이며 의정공 천부(議政公 天符)의 셋째아들로 조선조 11대 중종 27년(1532) 11월 22일 화순 삼천리(三川里) 상삼(上三) 마을에서 태어났다.

공(公)의 아버지(天符)는 연산조(燕山朝) 8년(1502)에 태어나고 중종(中宗) 중엽(中葉) 15세경에 영광(靈光) 삼계(森溪)(현재는 장성군)에서 화순으로 와 살기 시작하였다. 그 연유는 아버지 천부(天符)

가 화순 한골(현재는 大里)에서 사는 임철공(林鐵恭) 진사댁에 할아버지(尹範)의 심부름을 다니곤 했는데 하루는 임진사(林進士)가 천부의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기만 하더니 그의 눈에 들어서 임진사 댁 사랑방에서 묵게하며 글공부를 하도록 하였다.

임철공 진사는 관상(觀相)에 능했는지라, 최천부의 상을 보니 정승 재목이라 탐을 내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아버지 천부는 다음해 16세때 두살



충의공 최경희 장군 유적사당

아래인 임진사의 맏딸 순창(淳昌) 임씨와 혼례를 치르게까지 되고 말았다.

결혼식 날이었다. 장인인 진사는 장차 정승이 될 사윗감을 고른 흐뭇함에 혼자 속으로 웃음을 짓다가 사모관대를 스고 입장하는 신랑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코!」 몇번이고 두 눈을 씻고 다시 보았다. 사람은 최천부가 틀림없는데 사모관대를 씌워 놓고 보니 정승감이 아니었다. 낙담실망한 임진사는 잠시 후 또 한번 놀랐다. 이번엔 뒤로 돌아서서 뒷 모습을

보니 과연 정승감이 아닌가!

「음... 사후(死後) 정승이로구나!」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임진사는
마음을 가라앉혔다.

공(慶會)의 아버지 천부는 뒷날 3
남 3녀를 두었는데 아들 3형제(慶雲,
慶長, 慶會)와 손자(弘載, 弘宇, 弘器,
弘受, 弘積)들이 진충보국한 공로로
나라에서 증직(贈職) 벼슬을 대광보
국승록대부의정부영의정직(大匡補國
崇錄大夫議政府領議政職)을 내렸다.

임진사의 관상예언은 틀림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해주 최씨(海州崔氏)가
화순땅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
이다.

② 어려서부터 한시(漢詩) 짓고, 장수(將帥) 기상

공(公:慶會)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
들과 활쏘기나 전쟁놀이 같은 것을
하고 놀때에도 꼭 대장노릇을 했으
며, 장대한 기골에 늠름한 기상과 위
용이 있어 한 두살 많은 아이들마저
그의 말을 따랐다. 오성산에 올라 전
쟁놀이를 할때도 대장노릇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아이는 예사
아이가 아니라 장차 큰 인물이 될 것
이라고들 점치기도 하였다.

공(公)이 아홉 살 되던 해에 겨울철

어느 날이었다. 그는 두 형들과 함께
화롯가에 앉아 밤을 구워 먹으며 글공
부를 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소리
가 세쳤다. 문풍지를 울리며 방 안으
로 새어 들어온 바람에 가물거리던 등
잔불이 꺼져버렸다. 숯불을 입으로 불
어서 다시 등잔 심지에 불을 붙이고
난 만형(慶雲)이 글짓기를 제안했다.
시제는 등잔불로 정하자 이에 모두 동
의했다. 그러자 셋은 각자 등지고 앉
아 머리를 짜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한참 후, 다 된 시(詩)를 큰형(慶
雲)이 먼저 읽었다.

「등잔불이 방 안으로 들어오니 어
둠이 밖으로 밀려 났구나.(燈入房中
暗出外)」이어서 작은형 경장(慶長)의
차례다.

「백룡이 꽃을 입에 물고 강을 건너
는 듯 하구나.(白龍含花 渡江來)」이
는 등잔기름 가운데 잠겨있는 하얀
심지를 두고 한말이었다. 마지막으로
막내인 경회(慶會)의 차례가 되었다.

「백제성(白帝城) 가에 붉은 깃발이
서 있는 듯하다.(白帝城邊 建赤幟)」
형들은 놀란 표정으로 경회를 쳐다보
았다. 셋중 가장 나이 어린 그가 이처럼
고사(故事)를 인용해 이토록 대담한
생각을 해낼 줄 미처 몰랐기 때문이었
다. 경회의 글이 가장 장수다운 기상이

있다고 만형은 심사평을 내렸다.

③ 아버지(崔天符)의 가르침

아버지의 자(字)는 응운(應運), 호는 서양거사(瑞陽居士), 경학(經學)에 통달하고 장사랑훈도(將仕郎訓導)에 추천되었으나 사양하고 옛 선현들을 연구하며 덕을 쌓았다. 그는 효제충신예의염치(孝悌忠信禮儀廉恥) 여덟 자를 평생의 좌우명으로 하여 가훈(家訓)으로 전했다.

집안에 서당을 차려 아들, 손자들을 가르치심은 물론이고, 원근 마을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니, 문하(門下)에서 과거에 합격자가 10여명이나 되어 이름을 떨쳤다.

공(公)은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글을 배웠으니 글도 잘할 수 밖에 없었다.

공(公:慶會)이 16살 되던 해 가을에 교수 김원(金遠)의 딸인 나주김씨(羅州金氏)와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한지 채 1년도 못된 이듬해 봄에 부인의 곁을 떠나게 되었다.

「나는 이제 너를 더 가르치기가 벅차다. 네가 배우던 책을 모두 싸가지고 오너라. 내가 소개장을 써 줄 터이니 그 선생을 찾아가 글을 더 익히도록 하여라.」 아버지의 명령이었다. 공(公)은 그날로 아버지의 소개장과

책보따리를 짊어지고 3형제는 나주(羅州) 박매골에 사는 송천(松川) 양응정(梁應鼎)선생을 찾아갔다.

양선생은 대사성(大司成)까지 지낸 학자로서 선조(宣祖)때 8문장의 한 분으로 이름을 떨친 백광훈(白光勳)같은 인재를 배출한 분이였다. 또, 알고 보면 양응정은 남도 아닌 학포(學圃)의 아드님으로 공(公)의 내재종(內再從) 뺨이 되기도 한다.

양송천에게서 공(公)은 3년간 학문을 닦았다. 집을 떠나온 지 1년뒤 공(公)은 중형(慶長)이 진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열중했다.

송천(松川) 양선생은 공(公)의 총명과 사람됨을 살펴보고 나서

「그릇이 크고 성품이 강직해서 장래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굽히지 않을 위인이로다.」 이렇게 혼자 생각했다.

④ 당대일문(當代一門) 육과합격(六科合格)과 장원급제(壯元及第)

아버지 천부는 많지도 않은 51세의 나이에 신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공(公)의 나이 21세 때였다. 공은 효성도 지극하여 3년동안이나 묘소 옆에 움막을 쳐놓고 애통해 하니, 고

을 사람들이 그의 효행을 높이 칭찬했다. 3년상을 마친 공은 3형제가 같이 광산(光山)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선생 문하에 들어가 사사(師事)했다. 고봉선생 역시 대사성, 대사간 등을 지낸 분으로 이율곡과 이기론(理氣論) 논쟁을 벌인 대(大)학자였다. 고봉선생 역시 「의지가 강하니 오래지 않아 큰 유학자가 되겠구나」 하였다. 여기에서 공은 학자로서 한번 크게 성공해보리라는 뜻을 확고히 다졌다. 그러한 보람으로 나이 서른에 생원(生員)시험에 2위, 진사(進士)시험에 3위로 잇달아 합격하고 6년 뒤인 36세에는 드디어 문과(文科) 과거에 1위로 합격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해에 명종임금이 승하하니 공은 3형제 등과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여 3년을 눈물로 지새웠다. 훗날 공(公)의 큰 아들(弘器)은 진사, 작은 아들(弘積)은 무과(武科), 조카(弘載)도 문과에 각각 합격해 한 집에서 당대에 6명이 등과하니 조야(朝野)가 떠들썩했다.

중형(慶長)은 3년전에 문과에 합격했으며, 만형(慶雲)은 좀 늦었으나 진사 시험에 합격했다. 장원 급제한 다음날 그는 등과한 여러 동료들과 더불어 사정(射亭)에 나가 활쏘기 시합을 했다.

그때의 활숨씨가 월등하게 뛰어나 구경하던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고향 화순골에서는 공의 장원급제 소식에 온통 축제 분위기였었다.

2. 20餘年동안의 벼슬길

① 성균관 전적(典籍)을 첫 관직(官職)으로

문과 장원 급제한 공(慶會)은 바로 성균관 전적(典籍:정6품)직에 첫 번째의 관직으로 임명되었고,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형조좌랑(刑曹左郎)의 내직을 거쳐 외직인 전라옥구현감(全羅沃溝縣監)으로 나갔다가 장수(長水)와 무장(茂長)현감으로 갔다. 여기에서 근무할 때 우리나라 해안에는 간간히 왜적이 들락거리 노략질하니, 공(公)은 항상 이를 심상치 않게 여기고 관내의 주위 경계(警戒)에 관심을 가졌다. 정사(政事)에 틈틈이 병서(兵書)를 읽고, 병(兵)을 훈련시키고 공(公)자신도 치마습사(馳馬習射) 등 무술을 익히는데 노력했다. 또 주민에게 선정(善政)을 베풀었고, 장수(長水)하면 그 일대기(一代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암(義岩:論介)과 첫 인연을 가진 고을이다.

② 가는 곳마다 선정비(善政碑)

그 동안의 치적(治績)이 우수하여 조정에서는 공(公)을 특진시켜 영암(靈巖)군수(郡守:종4품)로 배명되었다. 그때 나이 51세가 되던 해다. 공은 영암에서 1582년부터 1584년까지 재직했다. 그 후 호조정랑(戶曹正郎), 형조정랑(刑曹正郎)을 거쳐 영해부사(寧海府使:종3품)를 3년동안 지냈다. 영해에서도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이 지방은 그칠 사이 없이 왜구가 침입하여 백성들을 심히 괴롭혔던 곳인데 공(公)이 부사로 부임하여서는 왜구(倭寇)가 일썩도 못하게 하였으니 백성들이 감동하고 그 공적을 잊지 않기 위하여 생사당(生祠堂)을 짓고 부사인 공(公:慶會)의 영정(影幀)을 그려 모셨다 (현재는 6·25를 전후해서 없어지고 알 길이 없다).

내직(內職)인 사도사(司導寺) 정(正)(정3품)을 거쳐 1587년 담양(潭陽) 부사에 전임되었다. 공(公)은 이상 여섯군데의 지방수령(地方守令)을 지냈는데 가는 곳마다 선정비(善政碑)가 세워져 지금까지도 그 지방마다 보존되어 오고 있다.

당시 우의정(右議政), 사암(思庵), 박순(朴淳)이 최부사는 문무(文武)가 겸전하여 나라의 재목으로 쓰일 훌륭한

한 인물이라고 상감에게 천거하여, 시사용루(試射龍樓)에 벼슬을 더 내렸으나, 때마침 어머니님이 세상을 떠나자 벼슬을 그만두고 1590년 고향에 돌아와서 상중(喪中)의 몸으로 있었다.

3. 임란(壬亂)을 당하여 일족(一族)이 분기(憤起)

① 향리(鄉里) 삼천리(三千里)에 의병청(義兵廳)을 설치(設置)

1592년(壬辰) 왜적이 대륙침략의 야욕을 품고 기회만 노리고 있던 때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당쟁만 일삼고 국정은 부패하고 국력은 쇠퇴 일로에 있었다. 왜(倭)는 이 틈을 놓칠세라 수십만 대군을 동원하여 마침내 4월 13일 부산 동래에 침입하고 파죽지세(破竹之勢)로 북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선조대왕(宣祖大王)은 우리나라 최북변인 의주(義州)까지 피난가게 되고, 국내의 백성들과 관(官)에서는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피난을 가는등 어쩔 줄 몰라하였다. 신무기(新武器)도 무기려니와 국민은 분열되고 관(官)은 부패 무력해서 있으나마나하기 때문이었다.

때에 공(公)께서는 다년간의 관직을 사임하고 향리인 화순(和順)에서

어머니 순창임씨(林氏)의 상을 당하여 상중의 몸으로 있었다. 당시 상인(喪人)이 군사행동에 나서면 유림(儒林)의 비난을 받게 되고 상을 당하면 공직을 사임해야 하리만큼 부모 공경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다.

그러나, 나라의 위기를 그대로 보고 앉아 있을 수 만은 없었다. 경운(慶雲)·경장(慶長)·경회(慶會) 3 형제는 모여 앉아

「우리 형제가 한 가지로 국은(國恩)을 입었으니, 나라가 위태로움에 처하여 마땅히 죽음을 각오하고 일어나야 한다.」

하면서 고경명(高敬命)과 박광옥(朴光玉) 동지에게 글을 보내고, 원근(遠近) 여러 고을에 격문을 보냈다. 그리고 향리인 삼천리에 의병청을 설치하고, 집안에 있는 곡식을 군량(軍糧)으로 마련하였다.

그 휘하에 수천의 의병(義兵)과 수백필의 전마(戰馬)가 모여들었는데, 큰형님 경운(慶雲)의 장자 홍재(弘載)로 하여금 우선 정병(精兵) 5백을 주어 고경명장군 막하 금산(錦山)지구에 출전시켰다.

② 환갑 나이에 의병장(義兵將)이 되어

광산(光山)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고경명(高敬命)장군이 금산(錦山)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그해 1592년 7월이었다. 공(公)은 고공(高公)의 전사 소식에 불승강개(不勝慷慨)하던 중, 금산에서 패한 능주(綾州)출신 문홍헌(文弘獻)등 의병들이 달려와 의병대장으로 추대하니, 쾌히 승낙하고 당장 출전 준비를 위한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출전 부대를 편성했다. 전부장(前副將)판관(判官)송대창(宋大昌) 좌부장(左副將)군수(郡守)고득뇌(高得賚), 후부장(後副將)현감(懸監)허일(許諡), 우부장(右副將)권극평(權克平), 막좌(幕左)는공의 아들 홍기(弘器)·홍적(弘績), 큰 형(慶雲)의 맏아들 홍재(弘載), 중형(慶長)의 맏아들 홍우(弘宇), 참모(參謀)에는 진사 문홍헌(공의 사돈)이었다. 상(喪) 중에도 불구하고 최씨(崔氏) 일문(一門)이 일어난 것이다. 부대를 상징하는 표지기(標識旗)는 골(鶻)자였다. 공은 상복을 입은 채 등단 북향재배하고 말에 올라 앉아 칼을 뽑으니 5천 의병은 물론 그 가족과 운집한 군중이 모두 벅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전의(戰意)를 가다듬고 그 무운(武運)을 빌었으며

가는 이나 고향땅에 남는 이나 한결 같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나라를 위해 한사(限死)고 죽기를 맹서(盟誓)했다.

「가자! 백성(百姓)과 나라를 위해서!」

큰 함성이 화순 고을에 진동했다. 드디어 화순 지방 5천여 백성의 의병이 전 부사(前府使) 최경회(崔慶會) 장군을 진두(陣頭)로 구국(救國) 대열의 거보(巨步)를 내디딘 것이다. 공(崔慶會)은 곧 바로 경기도(京畿道) 방면으로 나아가 대가(大駕)를 따라 적을 무찌르려 했으나, 때마침 금산(錦山), 무주(茂朱)의 왜적이 전주(全州)와 남원(南原)등에 남하하는 부대를 물리치며, 10여년전 목민(牧民)하였던 정든 땅 장수(長水)를 향해 진격해 갔다.

③ 장수(長水)땅 도장평(道莊坪)에 장대(將臺)를(1592년 8월)

공(公)이 장수 현감때 거사비(去思碑)를 세워 그의 선정(善政)을 기리던 장수의 군민들은 최경회 의병장을 맞아 구세주를 맞은 듯이 소를 잡고 술을 내어 크게 환영하였다.

최경회 의병군은 장수현(長水縣)

계내면(溪內面) 월강리(月岡里) 도장평(道莊坪)에 주둔 장대를 설치하고 의병을 훈련시켰다. 장수(長水)를 비롯한 무주(茂州)·진안(鎭安)·용담(龍潭)·남원(南原)·임실(任實)·무장(茂長)등에 격문을 보내니 수많은 병사들이 모여들었다. 공(慶會義兵將)은 인근에 출현하는 적을 소탕하는 한편 직접 8백여 의병을 인솔하여 남원에 나아가고 또 전주 등지에 나아가서 적을 물리쳤다.

④ 적상산성(赤裳山城)에 진(陣)을 치고

공(公)은 훈련 도중에도 의병들을 이끌고 무주로 진격, 적상산성(赤裳山城)에 진(陣)을 치고 금산(錦山)에서 싸웠다. 이때에 진안(鎭安)에서 거병(擧兵)한 함양(咸陽)사람 오비(吳玘)가 천여명의 의병을 이끌고 합류하여 부장(副將)이 되었다. 한층 힘을 얻은 공(崔慶會軍)은 금산(錦山)·무주(茂朱) 일대에 출몰하는 왜적을 괴롭히면서 1개월전 7월 10일에 고경명(高敬命)장군이 전사한 금산성(錦山城)에 자주 나아가 싸웠다. 금산성은 적상산성(赤裳山城)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다. 문무(文武)를 겸전(兼全)한 공(公)은 용병에 탁월한 수

완을 보였다. 충청의병장(忠淸義兵將) 조헌(朝憲)이 고경명에 이어 두 번째로 금산성 공격을 시도하다가 7백의사와 함께 순절(殉節)한 며칠 뒤인 임진년(壬辰年) 8월 20일 밤, 공(公)은 적을 무찌르기 위한 야간작전회의(夜間作戰會議)를 열었다.

⑤ 금산성(錦山城) 싸움

그날 밤은 달빛이 밝았다. 그러나 안개가 짙게 끼어 앞을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공(公)은 전군(全軍)에게 야간기습(奇襲)의 준비를 시키고, 기마병(騎馬兵)으로 하여금 짚다발을 안고 말에 타게 하되, 진군하지 말고 장고를 쳐서 대군(大軍)으로 진격하고 있는 것같이 적이 느끼게만 하고 절대로 화살이나 조총(鳥銃)을 쏘지 말라고 엄명했다.

그날 밤 피아(彼我)가 대치(對峙)했으나 서로 분간할 수가 없었다. 최경회군(崔慶會軍)은 계속 장고를 쳐서 진격하는 시늉만 냈다. 그러자 놀란 적은 계속 조총(鳥銃)을 쏘아댔다. 왜적의 총소리가 뜰해지면 이쪽은 다시 팽가리와 장고를 쳐서 진격하는 척 했다. 그러면 왜적은 또 다시 미친 듯 안개 속에다 화살과 조총을 쏘아댔다. 이것은 새벽까지 되풀이되

었으며 적은 지칠대로 지치고 탄환이 떨어졌다.

날이 밝아오고 안개가 차츰 걷히니 기마병(騎馬兵)의 짚다발에는 화살이 헤아릴 수 없이 꽂혀 있었다. 그러나, 사람은 한 사람도 상한 이가 없었다.

드디어 진격 명령이 내려졌다. 최경회군은 터진 노도(怒濤)와 같이 달려나갔다. 탄환이 다 떨어진 왜적은 성안으로 달아났다. 적의 시체가 성문 앞까지 즐비하게 나뒹굴었다. 죽고 죽으며 성안으로 쫓겨든 왜적은 성문을 닫고 꼼짝을 안했다. 이 때부터 왜적은 골「鶻」자 기(旗)만 보면 겁이 나서 달아났으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8월의 어느날 왜적은 밤을 타서 달아나고 금산성(錦山城) 안에서 까마귀 소리만 들렸다.

⑥ 무주대첩(茂朱大捷)을 거두다

적장 고바야가와(小早川隆景)는 다찌바나(立花宗茂) 등과 더불어 그들의 군사를 성주(星州)·선산(善山)·금산(金山)등에 주둔시키고 도요도미(豊臣秀吉)의 분지지계(分地之計)에 따라 전라도에 들어오려고 넘보는 때였다.

성을 비우고 달아나던 적의 뒤를

쫓아 공(公)은 날랜 기마(騎馬)를 골라 추격했다. 그러나 적의 선봉은 이미 우지치(牛旨峙)를 넘어 전주(全州)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공(公)은 추격을 멈추고 막장(幕將)들에게 작전을 지시했다.

「우리가 적의 주력(主力)을 저지할 곳은 우지치(牛旨峙) 뿐이다. 이 고개는 길이 좁고 양편의 산 언덕이 깎이지른 듯하니 적은 반드시 장사진(長蛇陣)으로 올 것이다」

이러한 공(慶會)의 지시에 따라 전군(全軍)이 양쪽 산기슭에 매복했다. 예상대로 적은 개미떼처럼 장사진을 이루고 좁은 고개 길에 들어섰다. 산정(山頂)에서 망을 보던 병사의 신호가 있자 양편의 복병(伏兵)은 적의 군열(軍列)이 고개 마루에 이르렀을 즈음 일제히 화살을 퍼붓고 바위들을 굴러 내렸다. 그러자 허리를 잘린 적의 장사진이 흔들려 놀란 적이 후퇴를 외치며 달아나려 했다. 이때 도 한 무리의 우리 군사가 적의 앞 뒤에서 내달아 적의 퇴로(退路)를 차단하고 육박전을 전개했다.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적군의 시체가 협곡(峽谷)을 매웠다. 그것은 흡사 아비규환의 지옥도(地獄圖)였는데 이 한 복판에 10여기의 호위

를 받으며 혈로(血路)를 뚫고자 애쓰는 왜장이 있었다. 산위 높은 곳에서 이 전투의 상황을 굽어보며 작전을 지휘하고 있던 공(公)은 활을 1개 빼들고 살을 걸었다. 백마를 탄 왜장은 긴 칼을 휘두르며 분전(奮戰)하고 있었다.

「이놈!」

공(公)의 입에서 열화(熱火)같은 분통이 터지자 각지손에서 떠난 화살은 쇠바람을 내며 허공을 날라 적장의 목에 꽂혔다. 그 거리는 2백보, 백마가 한번 뛰고 왜장은 곤두박지르듯 당에 떨어졌다.

「가서 잡아라!」

공(公)의 일성(一聲)에 산 위의 장졸이 달려 내려갔다. 장수를 잃은 적병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니 왜적은 산더미 같은 시체를 고개마루에 남겨 놓고 지례현(知禮縣)쪽으로 달아나고 만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무주대첩(茂朱大捷)이다. 그 적장의 품에서는 고려 공민왕이 그린 청산백운도(靑山白雲圖)가 나왔다. 적장이 지닌 칼은 당시 일본에 있었던 유명한 자웅검의 하나인 언월도(偃月刀)로 모리미찌(盛道)의 작(作)이었다. 이 그림과 칼은 공(公)이 진주성에서 순절한 다음에 [그의

중형(仲兄:慶長)에게 전해져 기병(起兵)을 유도(誘導)하게 된다.] 공(慶會軍)은 지례현(知禮縣)에 몰려나 패군(敗軍)을 수습정비하던 고바야가와(小早川)군을 덮쳤다. 고바야가와(小早川)는 여기서 또 한차례 참패 당하고 금천 방면으로 물러났다.

이 두차례의 싸움은 우리 의병에게도 물론 손실(損失)을 주었다. 그러나 “명장 최경희”의 이름은 이때부터 피아간(彼我間)에 널리 알려졌고 왜병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⑦ 영남(嶺南)도 우리 땅이다.

공(公)은 적상산(赤裳山)으로 돌아와 군사를 점검하고 재출정(再出征)의 준비를 서둘렀다. 명장 최경희의 용명(勇名)을 듣고 사방에서 의병이 구름 같이 모여들어 공(公)의 진(陣)에는 일만여명의 의병으로 의기가 충천했다.

그해 임진년(壬辰年) 9월 중순, 김해성 안에 있던 왜장 가토 미쓰야스(加藤光泰), 나가오가 다다오끼(長岡忠興), 하세가와 · 히대가즈(長谷川秀一), 기무라시게찌(木村重茲) 등은 작전회의를 열고 사천성(泗川城) · 고성(固城) · 창원성(昌原城)을 잇달아 빼앗긴 대책으로서 경상우도병마(慶尙右道兵馬)의 주력이 주둔한 진

주성을 먼저 쳐서 뿌리를 뽑아버리면 자연 다른 지방으로 조선군(朝鮮軍)이 흩어지게 되리라는 작전을 세우게 되었다.

당시 진주목사는 김시민(金時敏)이었으며 성안의 병력은 모두 3천 8백명에 지나지 않았다. 김시민은 제1차 진주성 싸움이 있기 두달 전인 8월 7일에 진주목사를 배수(排受)하고 진주고수책(晋州固守策)을 마련하고 있었다.

왜적은 10명의 장수가 거느리는 2만의 병력으로 김해성(金海城)을 출발 10월 3일에 진주성을 완전히 포위하였다. 경상우순찰사(慶尙右巡察使)의 원병(援兵) 요청을 받은 공(公)은 정병(精兵) 5천을 뽑아 남원(南原), 운봉(雲峰), 함양(咸陽), 거창(居昌), 산청(山淸) 등을 거쳐 위급을 고(告)하는 진주성으로 달려갔다. 공(公)이 진주성 지원을 결정하자 일부에서는 호남(湖南)을 버리고 머나먼 영남(嶺南)땅을 구하러 가는 일이 옳지 못함을 지적하는 이가 있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호남도 우리 땅이요, 영남도 우리 땅인데, 의(義)로서 일어난 사람들이 어찌 원근(遠近)을 가린단 말인가.」

이렇게 일축한 공(公)은 들판에서

는 조운학익진(鳥雲鶴翼陣)을 골짜기에서는 장사어관진(長蛇魚貫陣)을 그리고, 밥을 해먹은 다음에는 거짓으로 밥지은 자리를 많이 만들게 하는 용의(用意)를 보이며 진군해 나갔다.

⑧ 제1차 진주성(晉州城)싸움

진주성 제1차 싸움은 10월 10일부터 개시(開始)되었다. 김시민(金時敏)장군은 성문을 굳게 닫고 성중(城中)의 노인과 부녀자까지 남장(男裝)을 시켜 장정처럼 위장시켰다. 성 밖의 원병(援兵)들은 밤이 되면 인근 산에 올라 횃불을 울리며 호각을 불어 적과 신경전을 벌렸다. 임계영(任啓英)도 2천여명을 인솔하고 와서 공(公)의 군과 합세했으며 곽재우(郭再祐)장군은 진주성 북쪽 비봉산(飛鳳山)에 진을 쳤다. 또한 의병장 최강과 이달, 고성현령 조의도등은 남강 건너편 두골평(頭骨坪)에 진을 치고 적을 뒤에서 위협했으며, 정유경(鄭惟敬), 정기룡(鄭起龍), 조경형(曹敬亨) 등도 밖에서 적을 유인하거나 견제했다. 합천 의병장 김준민(金俊民軍)도 사천(泗川)쪽에서 응원했다. 공(崔慶會軍)은 어숙영(魚束嶺)에서 맹공을 가했다. 몇십 차례 씩이나 기습전을 감행해 왜적을 수 없이 살상

시켜 진주성 대첩(大捷)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적은 성을 공격하라 밖의 원군을 상대하라 정신이 없었다. 이 싸움은 5일동안 계속되었다. 적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수 많은 시체를 남긴 채 패주(敗走)했다.

이것이 임란3대첩(壬亂三大捷)의 하나이다. 그러나 적의 유탄(流彈)에 이마를 맞은 김시민은 적이 물러간 며칠뒤에 전복(顛服)을 입은 채 북쪽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숨을 거두었다. 김시민의 나이 39세였다. 성민(城民)들은 1년동안 흰옷을 입고 초식(草食)하여 슬퍼했다고 전한다.

승첩(勝捷)을 듣고 경상감사 김성일(金誠一)이 달려왔다. 남인(南人)에 속한 김성민이었지만 서인(西人)에 가까운 공(崔慶會)의 전공을 선조(宣祖)에게 장계(狀啓)하여 <이번 진주대첩은 모두 최경희가 밖에서 지원한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⑨ 성주성(星州城)의 승첩(勝捷)

제1차 진주성 싸움이 일대승첩(一大勝捷)을 거둔 뒤 공(公)은 단성(丹城)과 안음(安陰)등지에 유진(留陣)하며 적을 소탕하던 중 경상도 의병장 김면에게서 성주성(星州城)을 치

자는 편지를 받았다. 성주성은 왜장 가쓰라 모도쓰나(桂元綱)가 지키고 있었는데, 김면은 8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공격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공(公)은 5천여명을 이끌고 개령(開寧) 방면에서 참전했으며 임계영(任啓英)도 고령(高靈) 방면에서 또 합세했다.

제3차 성주성 싸움은 임진년도 다저물어 가는 12월 7일에 시작되어 14일에 끝났다. 각처에서 모여든 의병이 연합전선을 펴고 공격하니, 적은 전의(戰意)를 잃고 원군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그러나, “최경회군”의 견제를 받아 왜군은 성주성에 원군을 넣을 수가 없었다. 드디어 계사(癸巳)년 1월 15일 왜군은 성을 내어놓고 물러났다. 교전(交戰) 7일간, 수성(守城) 1개월만에 패주(敗走)한 것이다. 그해(1593년) 4월 조정으로부터 최경회에게 경상우도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의 직함과 인(印)이 내려졌다.

⑩ 제2차 진주성(晉州城) 혈전(血戰)

일본의 도요도미(豊臣秀吉)는 임진년 10월에 벌인 1차 진주성 싸움에서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회만

있으면 대병력을 투입하여 땅에 떨어진 위신을 되찾고 원한을 풀겠다고 버르고 있었다.

계사년 3월 도요도미는 전 왜군에게 철퇴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4월 18일에는 한성(漢城)의 왜군이 철수를 개시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동료들의 보복전으로 제2차 진주성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전 초전(前哨戰)으로서 6월 15일부터 행동을 개시하여 함안(咸安)을 점령하고 6일에는 단성(丹城)을 점령한 뒤에 18일에는 정진(鼎津) 부근에서 낙동강을 건너 의령(宜寧)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이 당시 우리 관군과 의병은 대부분 함안(咸安)과 그 서쪽에 머물러 있었는데 공(公)은 의병장 김천일(金千鎰)과 같이 진양(晋陽)은 호남의 인후(咽喉)이니 진주성을 사수(死守)하자고 했으나 그 의견이 하나로 뭉치지 못했다. 의병장 곽재우(郭再祐)는

「차라리 성 밖에서 싸우다 죽는 편이 낫지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모하다」고 하고 순변사(巡邊使) 이빈과 함께 단성현을 거쳐 서쪽 산음(山陰)으로 들어가 버렸으며, 의병장 임계영(任啓英)도 서천현(泗川縣)에서 호남으로 들어갔으며, 홍계남(洪季

男) 선거이(宣居怡)등 그밖의 여러 장수도 많이 흩어져 버렸다.

다만 전라우의병장(全羅右義兵將) 이던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최경회(崔慶會), 충청병사(忠淸兵使) 황진(黃進), 거제현령(巨濟縣令) 김준민(金俊民), 해미현감(海美縣監) 장윤(張潤), 복수의병장(復讐義兵將) · 고종후(高從厚)와 그의 부장(副將) 오유(吳宥), 기타 모든 장수들이 병력을 이끌고 김천일장군과 함께 진주성에 들어갔다.

왜적은 일본에 있는 도요도미의 명에 따라 9만 3천의 대병력을 투입 66월 18일 조그만 진주성(晋州城)을 겹겹이 포위해 버렸다. 이에 비교해서 아군의 병력은 3천 4백명, 성중(城中)의 인구는 노유(老幼)와 부녀자를 합해서 7만이었다. 도요도미 히데요시는 계속 악랄하고 미친기서린 작전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가 4월 17일에 가또기요마사(加藤清正)에게 내린 지시를 보면 <① 진주성을 공격하여 모조리 토멸(討滅)하고 그 후에 전라도와 경상도를 정복해서 성을 쌓아라. ② 한성에 집결한 병력은 인수하여 진주성을 공격 포위하고 축산(築山)으로 압축하여 한 사람이라도 남기지 말고 도살할

것이며 서로 상의하여 실수 없도록 하라>고 되어 있다.

도요도미의 명령은 <계속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도륙(屠戮)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속에서 공(公)은 진주성을 사수(死守)함으로써 그들이 전라도 땅을 유린할 기회를 막고 어디나 내 나라 내 땅인 조국(祖國)을 지켜낼 결전(決戰)을 각오한 것이다. 공(公)은 이 싸움의 도절제(都節制)를 하였다.

왜군이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한 것은 6월 21일 오전 10시께부터였다. 이날부터 9일 동안 피아간(彼我間) 밤낮이 없는 공방전이 시작되었다. 이 9일간은 피아(彼我)가 다 있는대로의 지략과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한 대혈전이었다. 그러나, 함양(咸陽)에서도 상주(尙州)의 명군(明軍)도 와서 이 싸움을 돕지 않는 가운데 장마비마저 내렸다. 고군분투(孤軍奮鬪) 9일, 이제 진주성 최후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다. 생우피(生牛皮)를 씌운 적의 구갑차(龜甲車) 세대가 동문쪽 성벽 밑에 접근하는데 성공하고 만 것이다. 적의 구갑차가 진주성 동문쪽 성벽 밑에 접근하는데 성공한 것은 6월 29일이었다. 공(公)은 이날 아침 진주목사 서예원(徐禮

元)을 순성장(巡城將)에 임명했다. 황진이 전날 시체 더미 속에 숨어 있던 적이 쏜 조총탄에 맞아 전사했기 때문이었다. 서예원은 겁을 먹고 전립(戰笠)을 벗은 채 말을 타고 물러갔다. 이 비겁한 위인을 배이려던 공(公)은 막장(幕將)들의 만류로 서예원 대신 사천현감(泗川縣監)인 장윤(張潤)으로 진주목사를 맡게 했다. 장윤은 이날 순성(巡城) 도중에 적탄에 맞아 전사했다.

29일 정오, 구갑차 속에서 기어나온 적들이 성벽밑의 큰 돌을 빼어내기 시작했다. 서북문쪽도 같았다. 성 안에서는 돌을 굴러내리고 불화살을 쏘아댔다. 그러나 생우피를 덮었기 때문에 구갑차는 불에 따지 않았다. 왜군은 사력(死力)을 다해서 성벽의 기초를 뽑아냈다. 성 안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다. 그러나 이날 밤 10시경 줄기차게 내리는 빗 속에서 기어히 동문쪽 성벽이 먼저 무너져 내렸다. 적의 주력부대(主力部隊)가 이 무너진 성벽을 타고 성안으로 진입했다. 서문쪽에서도 적이 들이닥쳤다. 중과부적(衆寡不敵)인 의병과 관군은 차츰 물리기 시작했다. 싸움에서 후퇴하면서 전복(戰服)을 벌겍게 피로 물들인 의병과

관군은 축석루로 몰렸다. 화살도 다 하고 칼과 창은 날이 떨어졌다. 적은 장수들이 모두 축석루에 몰린 것을 알고 포위망을 압축했다. 누군가가 공(公)에게 말했다.

「성을 탈출해서 후일을 도모하자」고 그러나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이성을 맡았으니 성이 없으면 나 또한 있을 수 없다」(城存我存 城亡我亡) 이렇게 말한 공(公)은 조카 홍우(弘宇)를 불러 말했다.

⑪ 조카 홍우(弘宇)에게 보검(寶劍)을 주며

「홍우야! 너는 반드시 살아 남아서 이 언월도(偃月刀)와 청산백운도(靑山白雲圖), 그리고 이 조복(朝服)을 네 아버지(慶長)에게 전하여라. 내가 죽은 줄 알면 아버지께서 틀림없이 기병(起兵)할 것이니 이것으로 증표를 삼아라」하니 홍우는 흐느끼며 숙부 경회(慶會)가 내리는 유품을 받아 말 안장에 매달았다. 조카 홍우(弘宇)는 구사일생으로 성을 탈출하여 고향으로 달려갔다.

⑫ 축석루중(矗石樓中) 최후의 그날

적이 가까이 왔다. 강희열(姜希

悅)·오유(吳有)·이잠(李潛)등 10여명의 장수가 군병을 격려하여 닥치는 대로 적을 베다가 장렬하게 죽어갔다. 이종인(李宗仁)은 싸우고 싸우며 강변으로 몰렸다. 그는 적병을 닥치는 대로 베었으며 그중 2명을 거드랑에 끼고 크게 외쳤다.

「김해부사(金海府使) 이종인(李宗仁) 여기서 죽는다.」 그는 적병을 꺼안은채 강물에 뛰어 들었다.

최후의 시각이 다가오는 것을 안 공(公)은 김천일(金千鎰)·고종후(高從厚)와 함께 축석루에 올라갔다. 세 사람은 후일 삼장사(三壯士)라 불리웠고 전라도 동향인(同鄉人)이기도 했다.

장마비가 내리는 칠흠 같은 밤이었다. 공(公) 최경희 장군은 피맺힌 목소리로 서사시(敘事詩)를 읊기 시작했다.

〈축석루 가운데 세 장사는 한잔 술잔을 들어 웃으며 저 강물을 가리키노라. 저 긴 강물은 도도히 흘러 가노니 저 물이 흐르고 있는 한 내 혼 역시 죽지 않으리.〉 (矗石樓中 三壯士一杯笑指長江水 長江之水 流滔滔 波不渴兮魂不死).

다 읊고 나자 그는 북향사배(北向四拜)하고 경상우도병마절도사인(慶

尙右道兵馬節度使印)을 가슴에 안고 강물에 뛰어 들었다. 이어 김천일(金千鎰)·고종후(高從厚)·문홍헌(文弘獻)을 비롯한 수 많은 장수들이 차례로 물에 몸을 던졌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스스로 택한 구원(久遠)의 길, 구국순절(救國殉節)의 대의(大義)를 안고 남강(南江)의 충혼(忠魂)이 되었다. 공(公)은 용병(用兵)의 신장(神將)으로 2년간 곳곳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62세의 고령에 진주성을 사수(死守)하여 호남의 화를 막으려다 이렇게 순절한 것이다.

조정에 진주성 함락의 소식이 전해진 것은 1593년 7월 16일이었다. 선조(宣祖)는 21일 전사자에 대한 애통한 교서(敎書)를 내리고 공(최경희)에 대해서 〈명장(明將)이 칭찬하고 왜구가 두려워하니 가히 이름이 3국에 떨쳤다〉하였다. 공(公)에게 동년(同年) 8월 17일에 이조판서 겸대제학(吏曹判書大提學)이 증직(贈職)되었으며, 선조(宣祖) 28년(1595) 진주 창열사(彰烈祠)에 최초(金千鎰, 崔慶會, 黃進)부터 제향(祭享)하였다. 인조(仁祖) 5년에(1627) 좌찬성(左贊成:縱1品)이 가증(加贈) 되었고 능주(綾州)에 포충

사(褒忠祠)가 세워져 주향사(主享祀)했다. 그리고 영조(英祖) 23년(1747) 겨울에 공(公)이 안고 투강(投江)했던 인(印)이 남강에서 스스로 빛을 발하여 한 어부에게 발견되니 임금은 진주에 인각(印閣)을 세워 보관하고 그 길로 공(崔慶會將軍)에게 충의(忠義)의 시호(諡號)를

내렸다.

정조(正祖) 13년己酉(1789)에 화순에 삼충사, 순조(純祖) 28년(1828)에 장수(長水) 월강사(月岡祠)에 제향하였다.

문집(文集)은 일휴당집(日休堂集)과 육의록(六義錄)이 있다.

仲兄 慶長도 義兵大將으로

중형(慶長)이 분기(憤起)해서 의병대장(義兵大將)으로

진주성(晋州城) 함락 당시 공(慶會)으로부터 칼과 그림, 조복(朝服) 등을 물려 받은 조카 홍우(弘宇:慶會의 작은 형인 慶長의 맏아들)는 아수라장이 된 성(城)을 천신만고 끝에 탈출, 닷새만에 그리운 고향 화순(和順)으로 돌아왔다.

중형(慶長)은 진주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 공(慶會)등 여러장수의 이야기와 그 동안의 피나는 전황(戰況) 이야기를 아들(弘宇)로부터 들으면서 최씨(崔氏)집안 사람들은 눈물로 밤을 지냈다. 이 같은 이야기가 널리 퍼지자, 최씨 집안 뿐만 아니라 화순현민(和順縣民) 전라도민(全羅道

民)이 모두 애통해하며 왜적의 만행에 이를 갈았다.

홍우는 소중히 간직해 가지고 온 짐꾸러기를 조심스럽게 풀어 보이면서

「아버님, 숙부님께서 성(城)이 떨어지기 전에 이 물건들을 주시며 어서 갖다 드리라 하였습니다。」 홍우(弘宇)가 아버지(慶長)에게 보검(寶劍)과 고려 공민왕이 그린 청산백운도(靑山白雲圖), 조복(朝服)등을 내놓으니 모두들 더욱 통곡하며 어루만지면서 손을 떼지 못했다.

중형(慶長)은 「내 이 원수를 꼭 갚아 주리다!」라고 결심했다. 65세의 백발이 성성한 중형(慶長)은 아들(弘宇)이 가져온 아우(慶會)의 유품(遺品)들을 다시 두겹 세겹으로 싸서 길

숙이 보관토록 하고, 왜장에게서 빼앗은 칠척장검(七尺長劍)인 언월도(偃月刀)만은 자신이 직접 간직하고 있다가 그해(1593년 癸巳) 8월에 기어이 의병을 일으켰다. 그가 의주(義州)에 가있는 선조(宣祖)에게 이 같은 취지를 써올리고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도 「전직(前職) 내섬사정신 최경장(內瞻寺正臣 崔慶長)이 죽은 아우(慶會)의 남은 병졸(兵卒)들을 수습하여 경상(境上)에 유둔(留屯)하니 인심(人心)이 안정 되나이다」하고 장계(狀啓)를 올렸다. 임금 선조가 이를 보고 나서

「아우가 국난(國難)에 순절하매 형이 이어 거의(舉義)하니 고인(古人)에도 그 유례(類例)가 드문 일이다.」하고 계의병대장(繼義兵大將)이라 배명하고 대장 인(印)을 각(刻)하여 하사(下賜)하였다.

조정의 명령이 떨어지자 중형(崔慶長)은 훈련부장 선의문(宣義問)을 부장(副將)으로, 전군수(前郡守) 김윤명(金允明)을 종사관(從事官)으로 각각 삼고 이광중(李廣中), 강항(姜沆) 등이 보아들인 고기와 소금, 군량(軍糧) 백석으로 곡성(谷城), 옥과(玉果)에 군막을 친 다음 병(兵)을 훈련시켰다. 그리고 남원(南原)에 있는

왜적을 소탕하니 군세(軍勢)가 크게 떨치었다.

晉州城싸움에 참가했다가 진주성이 포위 되었을 때 아버지(慶會)의 명령에 따라 호남(湖南)으로 나가 군량을 모았던 홍기(弘器)도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중부(仲父) 경장(慶長)을 따라다니며 군무(軍務)를 도왔다.

또한 큰조카 홍재(弘載)도 홍기(弘器)와 함께 계의병장(繼義兵將)인 숙부를 따라 참가했는데 홍재(弘載) 역시 진주성(晉州城) 싸움에 임했다가 구원병을 청하러 호서(湖西)지방으로 떠난뒤 성(城)이 함락되어 버려 같이 죽지 못했던 것이다.

다시 금산 무주에 진격, 왜적을 몰아내고 팔양재(八良峙)까지 올라가 함양(咸陽)에 이르러 곤양(昆陽)과 사천(泗川)에 있는 왜적을 잇달아 쳐부수었다. 이때 숨었던 왜적들이 최경희장군의 형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놀라 진(陣)을 포기하고 도망가니 이를 보고 명(明)나라 장수 오종도(吳宗道)가

「아우가 죽으매 형이 다시 일어나 충의(忠義)를 빛내고 적을 공포에 떨게하니 참으로 고금(古今)에 제일가는 사람이다」라고 했다.

계속 고성(固城) 견내량(見乃梁)으

로 진격하여 전후 10여 차례에 걸쳐 천여급(千餘級)의 적을 참살했다.

이와 같이 혁혁한 전과를 올린 중형(慶長)은 구례(求禮) 석주관(石柱關)으로 병(兵)을 옮긴 뒤로는 방어 전략을 세우는 데 힘썼다.

이듬 해 3월, 김덕령(金德齡)이 담양(潭陽)에서 기병(起兵)했다는 소식을 듣고, 중형(慶長)은 자신이 노쇠한 몸인데다 조정의 명(命)도 있고 하여 병기(兵器)와 군량(軍糧)을 그에게 인계한 후 단기(單騎)로 의주

(義州)로 달려가 임금의 뒤를 따라 호위했다.

그는 뒤에 담양부사를 지냈으며 그 전공(戰功)으로 도승지(都承旨) 이조판서(吏曹判書) 등에 증직(贈職)되었고 정조(正祖) 13년 己酉(1789)에 향민이 삼충사(三忠祠)에 향사했다.

아우(慶會)에게서 물려 받은 청산백운도(靑山白雲圖)는 간데없고 언월도(偃月刀)는 4백년이 되어가는 오늘날까지 화순 고사정(高士亭)에서 많은 수난을 겪으며 보존되고 있다.

伯兄 慶雲도 殉節

만형(慶雲)까지도 오성산성(烏城山城)에서 순절(殉節)

1597(丁酉)년 10월, 화순(和順)에도 왜군 3천여명이 광주(光州)쪽으로 부터 침입해 왔다.

왜군이 들이닥치자 놀랜 화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피난을 갔다. 그러나 유독 전호(錢昊)라는 부호만이 피난을 가지 않고 남아있다가 왜적이 들어오자 반겨 맞이했다. 그는 소를 잡아 주연을 베푸는 한편 자기집 곡식 창고 문을 열어 군량으로 쓰도록 했다. 이렇게 왜군들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화순을 점령했던 것이다. 왜적은 닥치는 대로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코와 귀를 벤 다음 전투 중에 사살했다고 전공(戰功)을 자랑했다.

공(慶會)의 만형(慶雲)은 이때 73세의 노인이었다. 그는 왜적이 화순(和順)에 들어온다는 말을 듣자 가족과 노비들을 불러 모아 놓고 말하였다.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집안은 예로부터 충의(忠義)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겨왔다. 그래서 막내 아우(慶會)는 진주성(晋州城)에서 최후

를 마쳤으며, 그 위의 아우(慶長)도 이어 계의병장(繼義兵將)이 되었다가 지금은 상감의 뒤를 따르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아들 홍재(弘載)는 초토사(招討使)로 특배되어 지금 개성(開城)에서 의병을 규합하고 있으며 조카들(弘宇·弘器)도 역시 싸움터에 나가있거나 직산(植山)에서 방량관(放糧官)이 되어 군량을 모으고 있다.」 여기까지 말한 그는 悲感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말을 더 잇지 못하다가 한참 뒤에야 입을 다시 열었다.

「어차피 우리는 죽을 운명이다. 왜군이 우리 집안의 내력을 아는 이상은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죽더라도 싸우다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죽는 것이 나라와 동생의 원수를 갚는 길이기도 하다. 자! 모두 짐을 꾸려 오성산(烏城山)으로 올라가자!」

그는 둘째 아들 홍수(弘受)와 함께 그들의 뜻에 따르는 주민들을 끌어 모았다. 가족과 집안 노비 그리고 원근 주민으로 조직된 향병(鄉兵) 5백여명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갔다.

오성산(烏城山)은 산성(山城)이라기 보다는 283m고지(高地)를 깎아 지른 벼랑으로서 넓이는 3천여평 가량 된다. 이때 읍민이 시(詩)로서 공(慶雲)을 찬양하길 「白首三川崔上舍

幾同招得半千人」이라 하였다.

성을 지키던 중 왜적이 조총을 쏘며 개미데 처럼 산으로 기어 오르니 무기라곤 칼, 낫, 죽창, 곡괭이, 쇠시랑, 활, 돌과 같은 것 밖엔 없었고, 노약자와 부녀자들까지 혼합된 오합지졸(烏合之卒)인 향병(鄉兵)이었지만 오직 충천하는 적개심과 향토를 수호하겠다는 일념(一念)만으로 3천 왜병과 맞서 싸운 것이다. 그러나, 3주야(晝夜)의 사투 끝에 중과부적으로 2백여 향병이 모두 무참히 희생되고 말았다.

공(慶雲)은 최후의 일각까지 독전하다가 오히려 왜적에게 포박을 당하여

「항복하면 삶이요. 반항하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

이라는 적장의 협박에 대하여

「내 아우를 진주에서 죽게 하고 또 나를 결박하려 드느냐! 이 원수놈은 어찌하여 빨리 나를 죽이지 않는고!」

라고 소리 높여 꾸짖으며 끝까지 항거하며 굽히지 않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공을 부축하고 있던 둘째 아들 홍수(弘受)와 함께 흉기에 찔려 순절하고 말았다. 이때가 1597년(丁酉) 10월 17일이였다.

뒤에 현민들은 「오성산 최진사가 적을 꾸짖어 굽히지 않았다」하여 그 충성과 기상에 감동하였다. 1782년

(정조6)에 조정으로부터 명장고적(名將古蹟)을 조사 보고하라는 명이 내려, 당시 화순현감 박명순(朴明淳)이 오성산 싸움터의 도면을 그려 최진사전망유허(崔進士戰亡遺墟)라 이름하여 올리니, 뒷날 판서(判書) 이석규(李錫圭)가 와서 오성산에 올라 시를 읊어 애통해 하였다. 이때 박명순(朴明淳)이 유허비를 세워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

이 오성산(烏城山)은 화순의 수호성(守護城)으로 화순사람들은 지금도 신성시(神聖視)하고 있다.

1789년(正祖 13년 己酉)에 향민이 삼충사(三忠祠)에 향사했다. 1800(庚申)에 도유림(道儒林)이 사액(賜額)을 소청하였으며, 1실 6의(一室六義)의 정문과 증직(贈職)의 은전을 청한 바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문(一門) 10인이 충절(忠節)을 바치다.

이렇게 해서 해주최씨(海州崔氏) 일문(一門)은 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임진왜란을 당하여 목숨을 초개와 같이 여기고 나라를 위해, 향토를 위해, 형제를 위해 충의(忠義)를 다 하였다.

- 3형제(慶雲·慶長·慶會)
- 5자질(弘載·弘守·弘器·弘受·弘績)
- 1실(義岩夫人·論介)
- 공(公)의 당숙 천범(天範)도 문과에 합격하고 예조좌랑(禮曹佐郎)을 지냈다. 임난이 일어나자 향리에서 창의 금성산(金城山)에서 수백의 왜적을 참살하고 끝까지 항전하다 장열하게 순절했다. 나라에서 좌승지(左承旨)의 증직과 문충(文忠)이란 시호(諡號)를 내렸다.

실로 한 집안에서 열 사람이 충절을 바쳐 그 이름 청사(靑史)에 기리 남겼다.

이제 公의 爲國忠節을 빛내기 위해 91年度에 忠毅公 遺跡淨化事業이 行政當局이나 各機關에서 公論화 되어 着工 現在 敷地 600坪 祠堂. 内外三門, 紀念館, 講堂, 管理事務所, 駐車場, 公衆化粧室등 7棟 建坪 約 100坪 規模로 進行 中인데 95% 程度의 工事が 진척되었으며 관비32억원, 문중2억8천만원이 投入 他門中과 대등한 祠宇가 成事되었고 竣工되기 까지는 宗親들께서 분에 넘치는 헌성금을 내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聲援의 德分으로 思料되오며 앞으로도 더 많은 聲援을 期待합니다.

효와 사랑과 충절의 꽃을 피운 논개(論介)의 발자취를 찾아서



은 식

(문학박사,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논개는 어려서는 아버님의 병환을 정성으로 간호하고, 병약한 어머니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5년간 관가의 종살이를 하게 되자 어머니를 대신하여 종살이를 한 효성이 지극한 여인이다. 철이 들어 장수 현감 최경희의 후취부인이 된 뒤에는 사랑과 예로 남편을 섬겼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진주성을 지키려는 관군과 의병을 도와 왜군과 싸웠다. 진주성이 함락되고 남편 최경희 장군이 자결하자, 기녀가 되어 왜장들의 축석루 승전 축하 잔치에 참석하였다가 왜장을 유인하여 의암에서 왜장을 껴안고 남강에 빠진 충

절의 여인이다. 논개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그녀의 효와 사랑과 충절의 삶을 살펴보고 싶다.

논개의 죽음과 의암

1995년 8월에 사천에서 열린 월곡고전문학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하였



사진 1: 임진왜란 때 지휘본부였고, 왜장들이 전승 축하잔치를 열었던 축석루

다가 회원들과 함께 축석루를 다시 찾았다. 축석루에 올라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아름다운 풍경은 전에 왔을 때와 다름없이 정겨웠고, 시원한 바람은 땀을 식혀 주고, 마음도 상쾌하게 해 주었다. 축석루에서 땀을 식힌 후 임진왜란 때 성을 지키기 위해 물밑 듯이 밀려오는 왜군과 끝까지 싸우다가 목숨을 버린 장병들과 성안 주민들의 희생을 기리는 '진주성 임진대첩 계사순의단(晋州城壬辰大捷癸巳殉義壇)', '축석정충단비(矗石旌忠壇碑)', '의기사당(義妓祠堂)', '김시민장군 전공비' 앞에 섰을 때에는 숙연함을 느껴 풀었던 옷깃을 여몄다. '의랑(義娘) 논개의 비'에 쓰인 글을 다시 읽고, 유유히 흐르는 남강 물위로 보이는 의암(義巖) 올라섰을 때에는 왜장을 껴안고 물 아래로 몸을 날려 장렬한 최후를 마친 논개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선했다.

축석루는 남강 가 바위 벼랑 위에 장엄하게 높이 솟은 아름다운 누각이다. 고려 공민왕 14(1365)년에 세우고, 일곱 차례의 손질을 거친 이 누각은 평화로운 시절에는 과거를 치르는 시험장이었으므로, 장원루(壯元樓)라고도 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진주성의 남장대(南將臺)로서 성을 지키

는 지휘본부였으니, 임진왜란 때에는 이곳을 지키는 지휘본부였을 것이다. 진주성을 함락한 왜군들이 여기서 전승을 자축하는 잔치를 열었으니, 조선 사람으로서는 더할 수 없는 치욕이었다. 그런 자리에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성을 지키다가 순절한 최경회 장군의 부인인 논개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기생이 되어 잔치에 참석하고, 술취한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毛谷村六助)를 유인하여 껴안고 강으로 몸을 던진 것이다.

의암은 축석루 아래 바위 벼랑 끝에 윗면의 크기가 3.65m×3.3m인 평평한 바위로, 물 위로 30cm 정도 솟아 있다. 이 바위를 의암이라고 하는 것은 논개의 의로운 죽음을 기억



사진 2: 진주성 안 축석루 서편에 있는 '의랑 논개의 비'

하는 진주 지역 주민들이 이 바위를 '의암(義巖)'이라고 부르면서 연유한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논개가 죽은 지 30년이 지난 1625년 경에 정대옹(鄭大隆)이 바위 옆면에 전서로 '義巖'이란 글자를 새겼다고 한다. 강물 속에서 물위로 솟은 이 바위는 오랜 시일을 두고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움직여서 때로는 육지의 암벽 쪽으로 다가서고, 때로는 강 쪽으로 들어가서 암벽에서 건너뛰기가 힘들 정도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 뿌리는 어디에 닿았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한다. 옛날부터 진주 시민들 사이에는 이 바위가 암벽에 와 닿으면 전쟁이 난다고 전해 온다. 그 말 대로라면, 임진왜란 때 이 바위는 육지 쪽 암벽 가까이로 옮겨와 있었을 것이니, 논개나 왜장이 건너뛰는 데에 별 어려

움이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의기 사당으로 다시 가서 논개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젊고 예쁜 여인의 뜨거운 정열과 조국애에 경의를 표한 뒤에 돌아오면서, 논개가 자라고 최경희 장군과 인연을 맺은 전북 장수에 가 보리라 마음먹었다.

논개의 출생과 성장

2000년 4월 중순, 나는 1학기 중간 시험 기간을 이용하여 전북 장수를 찾아갔다. 대학원 제자로 장수 계북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장성렬 선생의 안내로 장수 남산에 있는 의암사(義巖祠), 논개기념과, 논개의 생가, 논개와 최경희장군의 묘등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논개연구와 논개 정신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고두영

교장 선생님을 만났다. 나는 장수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논개의 출생과 성장, 최경희 장군과의 만남 등에 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장수 사람들이 얼마나 논개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여기는지를 알게 되었다. 고두영 교장 선생님의 저서와 구술 내용, 그리고 몇 가지 문헌을 참고하여 논개의



사진 3: 논개가 왜장을 꺼안고 물로 뛰어든 의암

출생과 성장, 최경희 장군과의 만남 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논개는 조선 선조 7년(1574년) 9월 3일 현 장수군 계내면 대곡리 주촌 마을에서 훈장 노릇을 하던 주달문(朱達文)과 밀양 박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조선 시대 통정대부를 지낸 바 있는 논개의 조부 주혁은 경사도 서상면 방지리에서 이곳 장수 장계의 산골짜기로 이사온 뒤 서당을 차리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진사였던 아버지 주달문도 그 뒤를 이어 서당 훈장으로 이름을 떨치니, 먼 곳에 사는 젊은 이들과 찾아와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이곳을 주학자 마을이라고 하여 '주촌(朱村)'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부르고 있다.

주달문과 밀양 박씨에게는 대룡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대를 이을 아들

을 달라고 3년 간 지성으로 빌어 임신하였는데, 낳고 보니 딸이었다. 달문이 새로 태어난 아이의 사주를 보니, 갑술월 갑술년 갑술일 갑술시에 태어나 특이한 사주였다. 갑술은 띠동물이 개이므로, 아이의 이름을 '개를 놓다(낳다의 경상도 사투리)'를 거꾸로 하여 '놓은 개' 곧 '논개'라 하고, 한자로 '論介'라 하였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천한 이름을 지어야 명이 길다는 민간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늦은 나이에 외동딸을 얻은 논개의 부모는 논개를 애지중지 길렀다. 논개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특하였으므로, 아버지의 서당에서 남자 아이들



사진 4, 5:전북 장수군 계내면 대고리 주촌 마을 논개의 생가 옆에 있는 '주논개 상' 과 시비

과 함께 글공부를 하였다. 논개의 아버지는 나이가 들면서 해수병으로 고생을 하였는데, 논개는 아버지를 지성으로 간호하였다. 그러나 논개의 나이 열세 살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므로, 논개 모녀는 숙부 주달무의 집으로 가서 함께 살았다.

최경희 현감과의 만남과 헤어짐

이웃 마을에 사는 부자 김풍현은 모자라는 아들을 장가들이기 위해 주달무를 꾀었다. 재물에 눈이 어두운 주달무는 약간의 재물을 받고, 논개를 김풍현의 민며느리로 팔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논개 모녀는 소백산맥의 험한 고개인 민재를 넘어 외가인 경상도 서하 봉전 마을로 도망하였다. 혼인 잔치 준비를 하다가 논개 모녀가 도망간 사실을 안 김풍현은 논개 모녀를 장수 현감에게 고발하였다.

논개 모녀는 관원들에게 잡혀와 장수 현감인 최경희의 심리를 받게 되었다. 숙부인 주달무는 재물을 챙겨 자취를 감췄으므로,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없었다. 최현감은 논개 어머니가 자세한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주 단자를 받았고, 김현풍의 재물

을 축내었으므로, 5년간 관아에서 노비로 일하라고 하였다. 그 자리에 있던 논개는 어머니가 병약하여 노비 노릇을 할 수 없으니, 자기가 대신 노비 노릇을 하겠다고 하였다. 논개의 어여쁜 마음에 감동한 최현감은 관속들의 의견을 들은 뒤에 논개에게 2년 동안 내아(內衙)의 급수비(給水婢)로 일하면 죄를 면하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논개는 종일 물을 길어 나르고, 지성으로 현감 부인 나주 김씨의 병수발을 들었다. 이렇게 1년 남짓 지나는 동안 논개의 착한 마음씨와 성실함을 본 최현감 내외는 논개를 아끼고 사랑하였다.

병이 깊어 회복할 가망이 없음을 안 부인 김씨는 최현감에게 자기가 죽은 뒤에 논개를 후취 부인으로 맞으라고 간곡하게 부탁한 뒤 고향으로 돌아가 숨을 거두었다. 논개의 형벌 기간이 끝난 뒤에 최 현감은 주위의 간곡한 권유와 청을 받아들여 논개를 후취로 맞았다.

최현감은 59세 되던 해에 어머니 임씨의 상을 당했다. 최현감은 3년상을 치르기 위해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 화순으로 가면서, 논개에게 주춘에 가 있으면 3년상을 마치고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였다.

최경희 장군과의 다시 만남 과 진주성 싸움

최현감이 화순에서 어머니의 3년상을 치르고 있을 때인 선조 25(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관군이 패전을 거듭하고, 임금이 의주로 옮겨가자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화순에서 상을 치르고 있던 최경희는 상복을 벗고 분연히 일어나 의병을 모집한 뒤 이들을 훈련시켰다. 전라우도 의병장이 된 최경희는 남원, 임실, 전주, 무주, 금산에서 왜적과 싸워 큰 공을 세웠다. 최장군은 장수로서 왜병을 물리친 뒤 신병을 훈련하면서 틈이 나는 대로 논개와 만났다.

논개와 다시 헤어져 의병을 이끌고 장수를 떠난 최장군은 함양·거창·산음·합천·성주 등으로 가서 왜적을 무찌르고, 진주로 갔다. 그는 진주성 제1차전 때에 진주성을 지키고 있던 김시민을 임계영 장군과 함께 성 밖에서 지원하여 큰 공을 세웠다. 그 공으로 그는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다. 논개는 남장을 하고, 최장군을 만나러 진주로 향하였다. 그녀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진주에 이르러 최장군을 만났다.

왜군은 제1차 진주성 싸움의 패배

를 설욕하고, 호남 지방을 침공하는 전진기지로 삼기 위해 인근 지역에 주둔하였던 군사를 모두 모아 진주성을 다시 공격하였다. 경상우병사 최경희, 의병장 김천일, 충청병사 황진, 복수대장 고종후 등은 6천여 명의 의병과 6만여 명의 성안 주민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10만의 왜병과 맞붙어 싸웠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우리 병사들은 성안으로 들어온 왜병에게 밀려 지휘소가 있는 남장대까지 후퇴하게 되었다. 화살도 다하고, 창과 칼날도 무디어졌으며, 믿었던 원병도 오지 않는 처참한 상황에서 남은 것은 명예로운 죽음뿐이라고 판단한 최경희 장군은 뒷일을 당부하는



사진 6: 광해군 9년(1617년)에 조정에서 최경희에게 승정대부 의정부 좌찬성을 추증한 교지

유언을 남기고, 김천일·고종후와 함께 남강에 몸을 던져 순절하였다.

최경희 장군은 광해군 9년(1617)년에 자헌대부 이조판서,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에 승정대부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논개의 최후와 무덤

논개는 왜장들이 칠석날 축석루에서 전승을 자축하는 잔치를 여는데, 기생을 징발한다는 말을 들었다. 논개는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진주 기생 논개'라고 기적(妓籍)에 올린 다음, 잔치에 참여하였다. 잔치에 참석한 왜장들 중 가또오 기요마사(加藤清正)의 부장(副將)으로, 선봉장이 되어 전공을 많이 세운 게야무라 로꾸스케(毛谷村六

助)가 논개에게 마음을 두고 가까이 다가왔다. 논개는 이를 눈치채고, 잔치 자리를 빠져나와 축석루 아래의 의암으로 갔다. 취흥이 도도한 왜장은 의암으로 와서 논개를 끌어안았다. 논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왜장을 끌어안은 뒤에 각지를 끼고 남강으로 몸을 날렸다.

최경희 장군을 따라 의병에 참가한 사람 중에는 최경희의 고향인 화순, 현감을 지낸 장수등 호남 출신이 많았다. 살아남은 의병 중 최경희 장군과 논개의 충절에 큰 감동을 받은 이들이 왜군 몰래 최경희 장군과 논개의 시신을 수습하여 메고 왔다. 그래서 주씨의 집성촌인 경북 함양군 서상면 방지리에 매장하였다. 그래서 그 곳에 최경희 장군과 논개의 묘가 함께 있다. 그 옆에는 논개의 시신을 메고 온 의병 추모비가 있다.

장수 군민의 논개 사랑

논개의 충절은 임란 당시 상하층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임란 직후에 전쟁의 실상을 조사한 유몽인은 {어우야담}에 논개의 일을 기록하고, 그녀의 의로운



사진 7: 경북 함양군 서상면 방지리에 있는 최경희 장군(뒷쪽)과 주논개(앞쪽)의 묘

행동을 높이 찬양하였다. 논개가 순절한 지 120여 년 뒤인 1716년에 유림들의 진정을 받은 예문관에서는 논개에게 '의암(義巖)'이라는 호를 내렸다. 그리고 진주사당에 사액(賜額)하고, 매년 제사를 올렸다. 논개 순국 253년 후에 장수현감이 된 정주석은 '축석의기 성장향 수명비(矗石義妓生長鄉攄名碑)'에서 논개가 장수 출신임을 밝히고, "언제나 의(義)·열(烈)에 공을 세운 이 여인에게 고운 옷을 입듯 공경심이 생기고, 항상 감개무량하여 이제 수명비를 세워 후세에 전하고, 남은 여생을 순한 바람이 불어가듯 그 정신에 살 것을 원하며 조심스럽게 글을 써서 새긴다."고 하였다.

우리를 식민 통치하게 된 일제는 축석 의기 성장향 수명비를 없애려고 하였다. 이를 눈치챈 장수의 젊은이들이 일제 몰래 이 비를 땅 속에 파묻었다가 광복 후에 장수 남산에 다시 세우고, 비각을 세웠다. 그리고 거기에 의암사(義巖祠)를 세우고, 영정을 모셨다. 함태영 당시의 부통령은

'義巖祠'라고 쓴 현판을 보내 이를 기렸다. 그 후 논개가 나서 자란 주촌에 생가를 복원하고 동상을 세웠는데, 자리가 협소하여 그 옆으로 옮겨 복원하고 있다. 장수 군민들은 효성과 충절의 여인 논개가 장수에서 태



그림8:의암사에 있는 논개의 영정



사진 8:전북 장수 남산에 있는 논개 사당 의암사

어났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논개의 생일인 9월 3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여 애국충절을 기리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다.

논개의 정신을 본받아야

최근 일본의 3대 영산(靈山)의 하나라고 하는 히꼬산 자락에 있는 보수원(寶壽院)에 논개의 사당과 위령비가 세워졌다고 한다. 일본인들이 논개의 정절을 흠모하여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그와 전혀 다르다. 논개의 손에 죽은 게야무라 로쿠스케의 후손인 우에스카 하쿠유가 게야무라 로쿠스케의 무덤 옆에, 그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그의 위령비와 나란히 세운 것이다. 우에스카 하쿠유가 논개와 게야무라 로쿠스케의 영혼 결혼식을 하였다는 말도 들려온다. 우에스카 하쿠유의 행동은 게야무라 로쿠스케의 말없는 개선을 획책하고, 일본주의의 부활을 위한 것이리라. 우에스카 하쿠유는 한일간의 친선과 우의를 다진다는 미명 하에 합동 위령제를 지내기도 하였는데, 여기에 한국인들이 참석하고, 진주시에서는 우에스카 하쿠유에게 감사장까지 주었다고 한다. 논개의 입장에서 볼 때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는 조국을 짓밟고, 최경희 장군과의 사랑과 행복을 빼앗아간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그러므로 논개는 죽어서도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와 같은 사당 안에 있을 수 없다. 해주 최씨 화순 종친회에서는 합동 위령제 철폐, 논개 영정 반환을 요구하며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국회의원사당 앞에까지 와서 시위를 하고, 일본 대사를 만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진주성 싸움과 논개의 의로운 죽음은 조선의 군관민(軍官民)에게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주고, 호국정신을 불러일으켰으며, 왜군에게는 호남 지방으로 진격하려던 그들의 사기를 떨어트려 후퇴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종식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논개의 깊은 분노와 강한 정렬은 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남강의 푸른 물결 위에 넘실거린다. 수 만의 관군도 잡지 못한 왜장을 물에 빠뜨린 논개의 용기와 지혜, 애국애족의 굳은 마음을 우리 모두 마음 깊이 간직하고 본받아야 한다. 일본 히꼬산 보수원의 논개는 논개의 정신을 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가질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조상의 마음을 자손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손의 마음을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수 영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현감공파)

나는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에 서 海州 崔 31世인 최홍민(崔洪民)의 7째 아들로 1946년 태어났다. 아버지는 최충(崔冲)---최만리(萬理 14世)의 장남 각(塙) 즉 현감공파(縣監公派)로 이어지는 최만리의 17대 孫이다. 어머니는 전남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김해 김씨 김찬균(金贊均)의 맏딸 김봉예(金奉禮)이다. 아버님은 조상의 전통대로 정직하고 청렴결백 하였으며, 정직하게 생활하면 내 대에서는 복을 못 받더라도 후손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신념으로 사셨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신 현명한 분이였다. 아버님과 어머니 산소는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야리 1구에 있으며 조상들 4대의 산소가 그

곳에 있다.

나는 완도 고금초등학교, 목포중학교, 서울 경동고등학교를 거쳐 1973년 미국 유학을 떠나 브리감 영대학 화와이 분교에서 영어교육 전공으로 학사학위와 화와이 중등영어교사 자격증을 받았고, 대학원은 유타주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교육학과 언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력으로는 미국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한국어 주임교수로 7년간 재직하다가 1986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지금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컴퓨터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어교육을 가르치고 있으며 한국 멀티미디어 언어교육학회 회장으로서 해주 최씨의 가문에서 훌륭한 교육자가 많이

배출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조상의 일을 본받아 좋은 교육자가 되어 한국의 교육에 공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는 선조와 족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몰몬 교회)를 알게된 1964년부터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통하여 가족 관계와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우리 조상 없이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없고 또한 우리 없이 우리 조상이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부터이다. 가족 관계는 영원한 것으로 다음 세상에서도 가족 관계는 계속되고 우리 조상들과 후손들이 다시 만나서 가족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서로 사랑하고 배우고 발전하여 원래의 조상인 하느님 아버지와 같이 완전하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고 조상과 후손의 영원한 관계와 가족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구약성서 말라기 4:5-6; 몰몬경 니파이삼서 25:5-6 참조) 또한 조상 없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고 우리 없이 조상들이 완전해질 수 없다(신약성경 히브리서 14:40; 교리

와 성약 128:15)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조상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고 족보를 찾기 시작했고 후손들에게 뿌리를 알려주기 위해 지금도 족보와 가족 연구를 정리하고 있다.

1973년 미국 하와이 브리감-영 대학교로 유학을 떠나서 12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축복사로 부터 축복을 받게 되었다. 축복사 축복문 중에 우리 조상들이 저 세상인 영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들였으며, 족보 사업을 통해 돌아가신 조상들이 성전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한 대리의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대목이었다.

축복사 축복문을 자주 읽어보면서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고 의아해 했다. 몇 년이 지난 후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축복사 축복문에 조상들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전 의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외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라고 했고 잘 준비되었을 때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성경에서 자녀

의 마음을 조상에게 돌이키라고 했듯이 나도 최종 할아버지의 훌륭한 모범을 따라 학문과 덕망을 갖춘 교육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1979년 미국 유타주 브리검-영 대학교 교수가 되어 미국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1984년에는 안식년을 받아 서울대학교에 객원연구교수로 연구하러 와서 언어학과 족보를 더 연구했고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했던 최만리께서 나의 선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에 대하여 후손인 나 자신도 오해를 하고 있던 사실들을 새로운 안목으로 보게 되었고 최기호 교수(상명여사대)의 글과 다른 연구를 통하여 최만리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청렴결백하고 강직한 청백리(清白吏) 1호(황희 정승이 2호)였는지 알게 되었고 서울대 안병희 교수를 통해 할아버지께서 집현전 부제학으로서 실질적인 집현전 총 책임자였으며 학문적인 권위자였다는 것을 들어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최만리의 후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고 선조들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히 학문을 닦고 인격을 도야해야겠다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

조상들과 뿌리를 찾기 위해 족보를

연구하고 현감공 종손인 전남 강진군 신기리 최재신 종친도 찾아 뵙고, 경기도 원곡면 지문리 불지촌 영당과 최만리 할아버지의 산소, 또한 경기도 오산에 건립된 문헌서원(文憲書院)과 종친들을 찾아 뵙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강직하고 청렴결백했는지 알게 되었고 “죄를 지어 죽거나 그 이름이 탐관 오리로 떨어져 조상들에게 욕을 끼치고 종인들에게 부끄러움을 끼친 자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말을 듣고 대단히 기뻐다.

미국 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면서 최경창 관찰사에게 보낸 홍량의 시 “뒋 버들가지 꺾어 임에게 보내노라... 잎이 나거든 날인가로 여기소서”의 주인공도 관기와 놀아난 부정한 관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고려의 3대 시인으로 꼽히는 훌륭한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홍량 할머니가 수절하고 관찰사의 무덤에 와서 3년간 지낸 열녀였으며, 임진왜란 때 일본 장수를 꺼안고 강물에 뛰어들었다는 “기생” 논개도 실은 기생이 아니라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관기로 입적하고 파티에 참석하여 남편이 떨어져 죽은 그곳으로 왜군 장수를 유인하여 같이 강물에 투신한 우리의 조상인 최경희 장군의

후실이였다. 최만리 할아버지의 맏딸이 이의석에게 시집을 갔으며 이의석의 증손자가 이율곡이였다. 그러니 우리가 이율곡의 외가집이였고 영의정 송시열 재상이 우리 조상의 비문을 써 주었으니 이씨도 친척이고 송씨도 고마운 분들이니 우리 한민족 모두가 친척이요 고마운 분들로 서로 사랑하고 사이 좋게 지내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986년 9월 드디어 13년 살았던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최충-최만리-최홍민 조상의 얼을 생각하며 한국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한국 교육의 장래를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조국으로 돌아왔다. 미국에서 13년을 유학생과 교수 생활을 하면서 왜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주님께서는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많이 간구해 보았다. 주님께서는 내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일하기를 원했으며 나도 조상의 얼을 본받아 한국 교육의 장래를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기꺼이 한국교원대학교로 오게 되었다.

족보 사업을 통해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의 구원의 의식을 베풀 수 있

도록 한국에 주님의 성전이 서울 마포구 창천동에 1985년에 세워지게 되었고 본인은 그 곳을 자주 방문하였고 드디어 1991년 직계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 그리고 할머니들의 부모에 대한 계보 기록을 제출하였고 1992년 1월에 조상들을 위한 대리침례를 교회 회원들과 나의 자식들과 같이 받아주었고, 또한 조상들의 구원에 필요한 다른 의식들도 계속 받아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상들을 확대하여 찾고 더 많은 조상들의 성전 의식을 해드리도록 준비하고 있다. 조상을 찾고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최씨 집안이 강직하고 청렴결백한 가풍이 있었다는 것과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러한 가풍을 이어받아 우리 후손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이다. 어렸을 때는 아버님이 융통성도 없이 고지식하게 정직한 분이였다고 생각했으나 족보를 연구하고 느낀 것은 아버님의 그러한 청백리 자질이 최씨가문의 전통이었다는 것이다.

아버님이 얼마나 정직했느냐 하는 일례를 들면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척찬리, 세동리, 3마을 바닷가에 원을 막아 개간지를 만들려고 건설부에서 여러 명의 측량 기사들이 측량하러 왔다. 아버님께서 추진 위

원장이셨고 건설부에서 측량하러 오신 분들의 식사를 저희 집에서 하게 되었는데 하루는(중학교 2학년 때) 연동에 가서 소주 한독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기로 지원했고 20분을 걸어서 부두에 가서 우리의 배를 타고 혼자 노를 저어 약 한 시간을 가서 연동에서 소주 독을 싣고 다시 와서 지게에 지고 왔다. 보통 어른의 하루 품이라고 생각했고 어른이 할 일을 제가 했으니 어른 품삯을 주겠다고 생각했으나 어른의 품삯의 반만 주지 않는가? 그래서 “아버지, 어른 일을 내가 했으니 하루 품삯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고 아버님은 “공금이지 않느냐.”고 했다. 마음속으로 저렇게 융통성이 없는 분이 있을까하고 섭섭해 했다. 매사에 그렇게 정직했기 때문에 청년단장, 동네 이장 및 위원장을 하게 되었고 모두 다 아버지의 정직성을 믿어 주었고 신뢰는 받았으나 인기는 없으신 분이셨다.

하느님께서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셨다. 우리 조상들과 아버님이 그렇게 정직해서 우리 후손도 복을 받고 살고 있

다. 본인은 역사와 족보 연구를 통하여 하느님께서서는 의로운 자의 자손을 번성케 하고 악한 자의 자손은 쇠퇴하게 한다는 하느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한 조상의 모범과 가풍, 그리고 최씨의 강한 의지력이 조상들과 아버님을 통해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그러한 조상의 얼이 최수일 장형에게 이어져 장형이 한국 경제계에서 크게 성공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며 흐뭇한 마음을 갖게 된다. 아버님이 살아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정직하게 생활하면 내 대에는 복을 못 받아도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단다. 아버님의 말씀대로 후손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장형 최수일(崔秀逸)의 예를 들어 보겠다.

나는 1979년 미국에서 교수로 채용되었고 1981년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유학간 지 8년만에 조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형님은 그때 현대그룹 계열의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중책을 맡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대화 중에 철학의 빈곤을 느낀다고 했고 나는 속으로 생각하길 아파트 사장이 아파트 지어서 팔면 되었지 무슨 철학이냐고 의아해 했다. 이듬해 미국 브리검-영 대학교의 한국어 프로그램을 키우려고 문교부,

연세대, 대기업을 찾아다니며 애를 쓰고 있는 나에게 조언하시길 “진실보다 더 위대한 무기가 어디 있느냐?”고 하셨다. 나는 깜짝 놀랐다. 대기업들이 부정직하게 기업을 키웠다고 생각해 왔으며 기업의 사장인 형님의 입에서 그러한 말이 나오다니?...

하여튼 형님은 성실과 진실로서 크게 성공했고 한국도시개발회사의 평판은 아주 훌륭했고 그 회사의 아파트 선호도가 제1위였고 100위에도 들지 못했던 회사를 국내에서 18번째로 세금을 많이 내는 회사로 키우셨다. 그런 후 부실기업인 인천제철 사장으로 부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말썽 많은 노조 간부들에게 “나는 거짓말을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을 테니 열심히 일한 다음 임금 협상을 하자”고 했고 노조들의 신뢰를 얻어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 모범적인 건설한 회사로 키우셨다. 노사문제를 잘 해결하고 회사가 놀랄 만큼 성장하자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은 노사분규의 본산지인 울산 현대 중공업주식 회사를 형님에게 맡겼고 형님은 부임 후 노조 간부들을 신념, 정직, 성실로 모범을 보여 유래없는 노사화합과 수출실적 1위를 기록하며 1992년 대통

령상을 받게되고 정말 일할 맛이 나는 회사로 키우셨다.

전라도 사람으로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았을텐데 강한 의지와 투지로 모든 면에서 성공해 주신 형님이 존경스럽고 장하기만 하다. 형님은 크게 성공한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애국자이시다. 1984년 어느 날 늦게 들어오시면서 큰 아들을 부르며 “태훈아! 너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하셨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 뿌듯했는지 모른다. 형님이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이기적인 안목을 갖고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는 마음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주셨구나 하고 느껴져 형님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웠다. 아무튼 존경스럽고 훌륭하신 형님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수집했고 최씨 가문에 흐르고 있는 청렴결백과 성실성을 후손들이 배우고 느끼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족보사업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왜 중요한가? 또한 현대판 족보에는 무엇이 실려야 하는가? 인류의 시조 아담 때부터 기록된 족보 혹은 기억의 책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었나? 왜 우리 조상 없이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없고 우리 없이 조상이 완전하게 될 수 없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족보 연구는 무슨 관련이 있나?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평소 생각하고 연구한 바를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고하기로 하겠다.

조상의 얼을 되새기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좋은 전통을 쌓아가기 위해 조상과 후손에 대한 기억의 책을 만들고 있다. 이 기억의 책이 보완되고 깨끗하게 인쇄되어 조상의 얼을 잇어 가는 현대의 최씨 후손들에게 자기 자신의 기억의 책을 만드는데 하나의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많은 종친들이 이와 비슷한 족

보책 혹은 기억의 책을 만들어 조상의 얼을 자손에게 자손의 마음을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최충 할아버지께서 두 아들들에게 물려 준 가훈과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들을 되새기며 훌륭한 조상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상들이 모범을 후손들에게 전하는데 종친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 조상의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 해주 최씨의 좋은 전통들이 후손들에게 계승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우리 후손들은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더 좋은 전통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祝

宗誌 第3輯 發刊

韓國學院總聯合會

事務總長：崔 順 炫

(大宗會 幹事長)

電 話 (사) 798-8881

(집) 372-3701

주소 :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北加左同 300-18

名門 海州崔氏 後裔로서의 矜持와 自負를



永 哲

(校理公派 29世 · 諮問委員)

1. 序 言

海州崔門은 海東孔子로 높이 추앙 받고 우리 民族史의 一面을 빛내고 있는 文憲公 諱冲께서 이 世上에 태어나신 것이 高麗 第六代 成宗 5年 西紀 986年이니 1000餘年の 歲月이 흘렀다. 그間 文憲公의 後裔 數十萬은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他에 알보임 없이 뿔뿔하게 繁榮을 누리고 있으니 자못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모두가 자랑스럽게 祖上님을 모신 自負心을 가지고 祖上님들의 寶玉 같은 가르치심을 가슴에 새기고 名門의 後裔라는 矜持를 가지고 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렇다. 文憲公 諱冲께서 가르치시기를

‘文章은 값진 비단과 같고 德行은 貴한 珠玉과 같은 것이니 清廉과 儉素를 가슴에 새기며 文章으로 몸치장을 하고 忠直하게 살지어다’

그 寶玉 같은 가르치심의 거룩한 精神과 血脈이 代代 世世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著者는 拙筆로 宗誌 第二輯(1992年)에 海州崔門의 宗魂이라는 題下에 學과 德으로 몸 治裝 虛榮없이 清廉과 儉素한 삶. 不義를 不容하는 剛直·救國을 爲하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忠節을 宗魂으로 할 것으로 論한 바 있어 本稿에서 다시 한번 海州崔 名門 後裔들에 脈脈이 이어져 내려오는 자랑스러운 자취들을 되살펴 보아 名門 後裔로서의 矜持를 더욱 굳건히 해 보고자 한다.

2. 海州崔門은 萬民이 부러 위한 名門

海州崔門은 文憲公 이후로 계속 壯元이 속출한데 이어 數 많은 壯元과 及第가 나왔고 高麗朝만해도 3명의 相國, 4명의 功臣, 많은 宰相이 배출되었으니 어찌 名門 貴族이라 아니할 것인가?

高麗 第八代 임금 顯宗이 元老 重臣들을 불러 宴會를 베풀 때의 일이다.

中書令이신 文和公 諱 惟善과 아우 尙書令이신 諱 惟吉 두 兄弟가 八十老齡의 元老 文憲公을 부액하여 宴會 자리에 들어오니 모든 사람들은 그 榮光됨을 부러워하였다. 이를 본 翰林學士 金行瓊이 祝賀의 詩 한수를 읊었는데, 자주 빛 印授와 黃金빛 冠服을 갖춘 아들과 손자 함께 비둘기를 장식한 지팡이를 모시고 임금님 恩惠속에 술이 취하였다.

尙書令이 中書令을 모셨고 乙壯元이 甲壯元을 부축하였다. 라고 읊으니 모두 感歎을 금지 않았다.

한 집안에서 政丞이 代를 잇는 것도 드문 일이거니와 代代로 壯元을 독차지 하고 임금이 重臣들에게 베푸는 잔치 자리에 三父子가 같이 임금의 부름을 받고 참여하는 榮光이 古

수를 통하여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그런 榮光된 所聞이 알려지자 朝臣들 間에서는 勿論 길거리에서도 所聞이 자자하여 그 榮光을 부러워하지 않는 者 없었다 하니 과연 名門이로세

3. 곧고 바른 節概

海州崔門의 先賢들 中에는 正義를 爲하여 自我를 犧牲해 가며 不義를 바로 잡기에 주저함이 없었던 名人이 많았으니 그 高貴한 精神은 복잡다단하고 어지러운 오늘의 이 社會의 龜鑑이라 아니할 수 없다.

世上에서는 흔히들 崔氏를 毒하다고 말들 하는데 이는 不義에 屈服하지 않고 正義를 爲하여 身上의 不利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兀兀하고 剛直한 節概를 毒하다는 表現으로 말 바꾸어 말한 것이 아니가? 생각된다.

(1) 勢道家의 行悖를 막아 萬民이 安堵의 한숨을 쉬게 한 崔滋

文淸公 諱 滋는 海州崔門의 第八世로 全羅道 按察史로 나갔을 때의 일이다. 當時 朝廷은 宰相 崔怡(江陵崔氏)가 勢道를 부려 온 世上을 손아귀에 쥐고 뒤흔들고 있었다. 그 崔怡의

아들 得全이 全羅道에 내려가 勢道家의 背景을 미끼로 官民들에게 갖은 行悖를 부려 被害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勢道の 보복을 두려워 누구 하나 그 行悖를 제지 못하고 있었는데 觀察使로 내려간 崔滋는 自身의 出世에 不利한 影響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것 쯤은 두려워하지 않고 所信것 法대로 嚴正하게 得全을 處罰하여 그 行悖를 뿌리 뽑으니 萬民의 아픈 이가 뽑힌 듯 安堵의 한숨을 내쉬고 기뻐 하였다.

(2) 勢道家의 협약에도 굽히지 않는 崔沂

雙柏堂 諱 沂는 海州崔門 第十七世로 일찍이 文科에 及第하여 刑曹·吏曹·參議·右承旨등을 歷任하고 外職의 海州牧使로 奉職할 때의 일이다.

때는 李朝 光海君 시절로 朋黨의 갈등이 심하고 朝廷은 李爾瞻, 柳稀奮, 朴承宗이 勢道を 잡고 서로 政敵이 되어 마찰을 빚고 있었는데 李爾瞻은 눈의 가시 격인 柳·朴을 없애고 勢道を 獨占하려고 柳稀奮과 朴承宗이 背後에서 조종하여 海西地方에서 逆賊 陰謀를 꾸미고 있다는 內容의 두 사람을 謀陷하는 上變書를 海州人 朴希一, 朴以彬이라는 者를 포

섭하여 海州 牧使에게 올리게 하였다. 崔 牧使가 그 上變書를 받아보고 內容을 嚴密히 調査해 본바 모두가 거짓이며 要人을 謀陷하는 內容인지라 이 問題로 또 다시 政界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上變書를 불태워 없애고 말았다. 그 뒤 自己의 計策이 水泡로 돌아가고만 것을 안 李爾瞻은 분개하여 崔 牧使에게 애모한 罪目を 씌워 잡아올려 下獄시켜 놓고 崔 牧使를 감언이설로 달래 보았으나 不義에 굽힐 줄 모르는 崔 牧使는 李爾瞻의 奸惡한 謀陷의 眞相을 暴露하려 하였다. 그러자 李爾瞻은 崔 牧使에게 逆賊의 괴수라는 罪目を 씌워 獄死하게 하였다. 그러나 후에 公의 潔白이 밝혀져 吏曹判書와 大提學에 追贈되었다. (상세한 것은 宗誌 第2輯 참조)

(3) 孝行과 忠諫으로 이름 높았던 崔有源

海州崔門의 二十世 海川公 諱 有源은 李朝 宣祖때 全羅道 逆賊 鄭汝立의 亂을 平定시킨 功臣이며 觀察使 都承旨 大司憲 左贊成의 요직을 두루 거치는 동안 임금에게 받은 計策을 諫하기로 名聲이 높았던 月潭公 諱 滉 左贊成의 아드님이시다. 李朝

光海君때 朝廷은 大北, 小北으로 갈리어 서로 헐뜯고 私情을 앞세워 싸우는 판이었다. 그러나 공께서는 大司憲으로서 大義를 爲하여는 주저함 없이 忠諫 上疏를 서슴치 않는 어른이시었다. 光海君때 鄭造 등이 廢母論을 들고 나왔을 때 自身の 不利를 두려워 감히 누구하나 鄭造 等に 抗辯하여 입을 여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공만은 혼연히 抗辯하여 大義로서 論理를 내세우고 王에게 上疏하여 '聖上께서는 어찌 빈틈이 없는 孝를 훼손하시리까? 後世에 어찌 璣議를 免할 수 있겠나이까?' 로 極諫을 하여 忠節로서 나라의 紀綱을 올바르게 잡기에 애썼다. 공은 忠節뿐 아니라 孝行 또한 敦篤하였다. 母親의 病患이 위독하게 되자 손가락을 잘라 흘려 넣어 病을 다스린바 있어 孝誠이 지극하였고 王은 孝子門을 내리시니 世上 사람들은 그 家門을 더욱 우러렀다.

4. 옳지 않는 일에는 諫함을 서슴치 않아

(1) 씹씹이를 節制있게 하라고 忠諫한 崔惟善

高麗 第九代 德宗 임금이 '나라에

재앙과 변괴가 자주 일어나니 부처님의 法力에 의지하여 나라와 王室의 幸福과 繁榮을 위하여 興王寺를 創建하라' 는 命을 내렸다. 이에 守太守 侍中 中書令(宰相) 海州 崔門의 三世 文和公 諱 惟善은 나라에 재앙이 겹쳐 어려운 때에 大役事를 일으키는 나라 형편을 더욱 어렵게 하고 百姓들의 힘을 빼어 苦痛을 주게 된다는 것을 王에게 極諫하였다.

'陛下께서는 先王들께서 쌓아 올린 功績을 잇고 계신 즉 씹씹이를 節度있게 하시고 百姓을 사랑하시어 이미 이룩하신 業績을 잘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급하지도 않은 大役事를 벌리시어 國家財貨를 浪費하여 百姓들의 財物과 힘을 고갈시키려 하나이까?' 라고 極力 諫하였다. 이와같이 나라와 百姓들을 위하여 忠諫을 올리는 것을 주저치 않았다.

(2) 風流놀이만 즐기고 있는 王에게 忠諫

高麗 第十六代 睿宗 임금이 西京에 남시어 每日같이 大洞江에 배를 띄워 重臣들과 더불어 술잔을 돌리며 詩나 읊는 風流만을 즐기는 것을 보다 못한 海州 崔門의 五世 翰林學士 諱 淪은 王에게 '임금은 重臣들과 經

學과 政事를 討論하셔야 百姓들을 感化시키고 나라의 좋은 傳統을 이룩할 것이 아닙니까? 통촉 하시옵소서' 라고 諫을 올리니 王의 비위나 맞추고 아침하는 重臣들은 공을 멸시하며 王에게 要請하여 공을 春川 府使로 左遷되어 가게 하였다. 그러나 공의 忠誠된 眞意를 깨달은 王은 공을 다시 原職에 복귀 시켰다.

(3) 剛直과 清廉의 대 學者 崔 萬里

副提學 諱 萬里는 海州 崔門의 十四世로 文科에 及第 後 校理로 集賢殿에 들어가 江原道 觀察使로 一年間의 外職生活을 빼고는 二十四年을 오직 集賢殿에서 剛直과 清廉으로 忠直하게 奉職해온 大 學者이시며 規範主義 人生觀으로 私利私慾을 모르고 깨끗하게 살아 當時 十二 清白吏 中 第二人者로 錄選되기도 하였다.

副提學은 集賢殿의 專任官으로 最高職이다. 여러 學士들과 古制의 研究를 하며 政府의 行政·社會의 모든 現象을 古制에 依하여 考察하고 批判하여 잘못을 바로 잡고 國家發展에 많은 貢獻을 하였다. 崔萬里는 在任 기간 그릇된 잘못을 바로 잡는 數 많은 上疏를 올렸고 經筵에 참석하여 王에게 바른말을 거침없이 아뢰었다.

공이 江原道 觀察使로 外職에 나가 있는 동안 世宗 임금께서는

'崔萬里가 外職에 나가고 난 뒤로 좋은 計策을 못 들음으로서 나의 허물을 바로 잡을 수 없구나' 라고 하였다.

공이 訓民正音 創制에 대한 上疏로 오늘날 한글 反對論 者로 비난을 받고 있으나 공은 集賢殿 最高 責任者로 訓民正音 創制에 部下 學者들이 創制 研究를 하는데 協力해 왔고 創制 完成때까지 한번도 反對 의사를 表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積極 反對는 아니 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그 때 社會環境이 儒學 中心이어서 혹시나 漢文 音 改新으로 社會 혼란이 되지 않을까 염려한 나머지 職責上 올린 上疏가 아닌가? 한다.

이에 대하여 李崇寧 博士는 李相柏 博士 回甲 記念論叢에서 다음과 같은 句節을 찾아 볼 수 있다.

'訓民正音 創制에 대하여 崔萬里가 올린 上疏를 가지고 反對論 者로 規定하여 文化의 罪人 視 함은 崔萬里 개인의 研究도 없이 또는 上疏文의 背景도 考察함이 없이 또는 上疏文의 內容의 分析과 객관적 價値 判斷도 없이 論難함은 文化 愛護의 感情論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런 資料의 가짐도 없이 感情

的인 모랄觀에서 팽대한 價値 判斷을 내리는 것은 科學하는 態度를 벗어난 것이라고 斷定한다.’

‘崔萬里는 訓民正音 制定에 대하여 好感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나 反對論 者로서 積極的인 行動은 취하지 않았다.’

李 博士께서는 以上の 句節 등에 내용을 일일이 具體資料를 들어 論하였다.

5. 海州 崔門의 뛰어난 文章과 재질

九 齋를 創設하여 私學의 傳統을 이룩하고 우리 나라 儒學의 鼻祖라고 일컬을 수 있는 文憲公 諱 冲이 後孫들을 위하여 가르치신 宗訓의 精神은 後裔들의 代代 孫孫에 이어져 내려 海州 崔門에는 뛰어난 재질의 大文章들이 수없이 나와 國威를 빛내고 文化를 장식하였다.

(1) 그의 文章力에는 外國使臣들도 놀라

海州 崔門의 校理公派 中始祖이신 十五世 諱 璘은 어려서부터 聰明함이 남다르고 文章力과 德望이 뛰어났다. 24歲 弱冠에 成均館에서 學文

을 修練하고 있을 때 明나라 使臣 陳鑑과 高潤이 成均館에 들러 그 景觀에 心醉되어 詩 한 首를 읊을 때 그 주위에 있던 公께서는 卽詩에 그 詩의 對句를 읊으니 使臣이 놀라 또 몇 句의 詩를 읊으니 그 때마다 그들의 詩보다 깊고 더 큰 뜻의 詩 對句를 읊으니 使臣이 朝鮮 땅에도 이런 젊은 秀才가 있구나? 驚歎을 금치 않았다. (상세한 內容은 宗誌 第二輯 참조)

公께서는 科擧에 及第 後 官職에 나가 여러 內外職을 거치는 동안 忠直하게 奉職하였는데 그의 뛰어난 文章力과 두드러진 德望, 높은 忠直性에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장차 큰 宰相감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고 말들 하였다. 그러나 큰 棟梁之材라도 때를 못 만나면 아까운 棟梁之材로 썩게 마련이다. 때는 포악한 燕山君 時代이라 쓸만한 人材들이 애매히 죽고 귀양 가는 것을 목격한 公은 朝廷에서 일 할 意慾을 잃고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判斷하여 官職을 辭任하고 延安 地方으로 落鄉하여 後進들을 養成하는데 盡力하였다. 그의 깊은 學識, 높은 德望 그리고 곧고 바른 節概는 그 地域 後世에 까지도 귀감이 되어 내려오고 있다.

(2) 詩文의 名聲이 明나라까지 떨쳐진 崔慶昌

海州 崔門의 第十九世 孤竹公 諱 慶昌은 李朝 宣祖때에 李栗谷, 宋翼弼 등과 더불어 八大文章으로 世上에 알려졌다. 일찍이 文科에 급제하였으나 功名에는 뜻을 두지 않아 官職은 府使에 그치고 말았다. 公은 唐詩와 글씨에 뛰어나 그의 詩文이 明나라 學者들에게 보여져 明나라 사람들이 感歎을 금치 않아 그 名聲은 明나라까지 떨쳐졌다.

公의 天稟이 豪俠하고 俊遇하며 詩文과 書藝에 뛰어날 뿐 아니라 피리를 잘 불어 그 絶妙는 사람의 聒을 잃을 정도였다고 한다. 하루는 달 밝은 밤에 배를 띄우고 風流에 心醉되고 있을 때 졸지에 倭寇들이 쳐 들어와 包圍되어 危急을 피해 나갈 길이 없게 되자 唾棄하고 所持하고 있던 玉 피리를 꺼내어 단장이 끊어지는 듯한 애절한 곡을 부렸다. 倭寇들이 그 애절한 피리소리에 도취되고 향수에 젖어 저 배 안에는 필시 이 나라의 神仙이 있으리라 어찌 우리가 攻擊을 하랴, 하며 물러가니 危機를 벗어날 수 있었다.

(3) 萬能 才士였던 崔澱과 그의 아들 有海

萬能 才士로 世上에서는 그에 앞날을 큰 人材가 될 것으로 총망되던 海州崔門의 第十九世 澱은 當代의 名文章 栗谷 先生에게 글을 배워 十八歲에 進士 試驗에 급제하고 詩文에 뛰어날 뿐 아니라 音律, 隸書, 草書 등 모든 부면에 그를 따를 者가 없어 그의 聰明과 재주에 感歎을 하여 將次 큰 人物이 될 것을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아깝게도 21歲를 一期로 세상을 떠나니 애석치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뛰어난 詩文遺集은 明나라에 전해져 明나라에서 刊行되어 絶讚을 받았다. 그에 聰明과 뛰어난 재질은 그의 아들 有海에게 이어져 빛을 나타내게 되었다.

崔有海는 出生 1年만에 父親을 여의고 五歲때에 母親마저 世上을 떠나니 孤兒가 되어 外祖母에게 依탁되어 자랐다. 父親의 精氣를 이어 聰明하고 多才多能 함이 그를 따를 자 없었다. 뛰어난 글재주뿐 아니라 醫學, 天文, 地理, 卜筮등에까지도 精通하였다.

일찍이 文科에 급제하여 平安道 評事 吉州 牧使등의 外職을 거쳐 東部 承旨까지 이르렀는데 그의 性品이 剛直하고 潔白하여 不義에 對하여는 참

지 못하고 內外職을 거치는 동안 뛰어난 文章力으로 不義를 바로 잡는 上疏를 수없이 올렸고 上司에 대하여도 官職 出世에 不利 같은 것은 개념하지 않고 口바른 直言을 서슴치 않았다. 그래서 謀陷을 받아 귀양살이도 한 적이 있고 左遷도 여러 번 당하였다. 그러나 事必歸正으로 그의 正當性이 밝혀져 官職이 復歸되었다. 그 한두 例를 들면

○ 公이 科擧試驗 登擧관의 職務를 맡았을 때 試官 任性之등이 가장 嚴正하게 施行해야 할 科擧試驗에 갖은 不正이 저질러지는 것을 보고 試場을 나와 任性之 등을 重刑으로 다스릴 것을 諫하는 上疏를 올렸다.

○ 李适이 叛亂을 일으켜 서울을 攻略해 올 때 公이 北方 邊方을 지키라는 命을 받고 平安道에 말을 달려 가니 平安 監司는 逆賊 追擊에 軍을 出兵시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王까지 避亂을 떠난 危機 下에 臣 下된 도리로 마땅히 창 자루를 끌고 나가 죽도록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上司에게 항의하니 할 수 없이 南 兵事와 金俊容에게 軍을 이끌고 먼저 出兵하라는 命을 내렸다. 그러나 그들이 出兵을 주저하자.

‘원컨대 金容俊의 목을 베고 그 軍

士를 이끌고 제가 나가 싸우겠다.’고 아뢰었다.

亂이 平定된 뒤에 兵事를 찾아가 남의 功을 흠치려는 잘못을 바로 잡자고 따지니 兵事가 不快한 氣色을 보이자.

‘나는 벼슬 버리기를 헌 신작 버리듯 한다.’라는 말을 내뱉고 곧바로 돌아오고 말았다.

6. 國難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한 氣概

(1) 祖國疆土를 짓밟는 오랑캐에게 어찌 降伏을 하리

1231년에 蒙古 軍이 高麗를 侵攻하여 當時의 首都 開京까지 陷落되자 江華로 遷都하여 三十餘年間을 버티다가 극기야는 講和를 맺게 이르렀다. 全國 各城이 陷落되었으나 海州 崔門의 崔椿命이 이끄는 慈州城만은 包圍만 된채 끝내 陷落을 못시키고 降伏을 못 받았다. 講和가 이루어진 뒤에 蒙古는 高麗 朝廷을 꾸짖어 慈州城 門을 열어 降伏하게 하라고 협박을 하니 마지못해 朝廷에서는 宋國 瞻을 보내어

‘朝廷에서도 降伏을 하였으니 降伏하라.’고 勸告하였다. 그러나 椿命은

‘내 어찌 내 祖國疆土를 짓밟은 오랑캐에게 降伏을 할 것인가?’ 하고 끝내 듣지 않고 降伏하지 않았다. 그러자 蒙古의 壓力에 依하여 結局 王命을 거역하였다는 罪目으로 西京에 投獄시켜 處刑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 蒙古의 將帥는 다시 마음을 돌려 朝廷에 勸하기를 ‘椿命은 비록 蒙古의 命을 거역하였으나 高麗에는 忠臣이니 處刑을 中止하라’고 救命運動을 하였다. 그의 節操와 忠誠이 敵將을 感服시켰으리라 생각된다. 朝廷에서는 後에 公을 一等功臣으로 論功하고 樞密院 副使로 奉하였다.

(2) 壬辰 亂時 一家 六 父子가 義兵을 일으켜 戰線에 投身

海州 崔門 十七世 三川公 諱 慶雲은 맏 兄이요, 竹溪 公 諱 慶長은 둘째 동생이고, 忠毅公(日休堂) 諱 慶會는 막내 동생이며, 竹隱公 弘載는 맏 兄 三川公의 아들이고, 忍齋公 弘宇는 둘째 竹溪公의 아들이고, 沙村公 弘器는 막내 日休堂의 아들로서 一家 六 父子가 壬辰 亂에 義兵을 일으켜 싸워 倭軍들의 간담을 썩늘하게 하고 赫赫한 功을 세웠으니 古今을 通하여 一家 六父子가 같이 戰線에 나가 큰 功을 이룩한 例를 찾을 수 있으리오?

慶雲은 壬辰 亂時 倭軍이 全國土를 짓 밟자 義兵廳을 設置하고 母親喪服中이나 아우들과 아들, 조카들을 모두 倭賊 討伐戰線에 내보내고 自身은 뒤에서 義兵을 모집하고 食糧등을 보급하던 中 丁酉 再亂에 倭敵이 다시 쳐들어오자 七十 老軀로 義兵 五百을 이끌고 烏城山城에 들어가 힘써 싸웠으나 敵軍이 많은 數로 攻擊해 오자 衆寡不足으로 敵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敵將이 말하기를 降伏하면 살려 줄 것이라고 협박하자 ‘너희 놈들이 내 동생 慶會를 죽이고 내 祖國疆土를 짓밟았는데 내 어찌 나를 義理없는 사람으로 만들려 하느냐?’ 라고 꾸짖어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慶長은 동생 慶會가 晉州城에서 殉死하자 원통함을 禁치 못하며 七十 老齡으로 동생 慶會를 이어 義兵을 지휘하여 錦山 咸陽 固城에서 싸워 크게 이기니 倭賊들은 公을 두려워하고 退却하였다.

慶會는 壬辰亂이 일자 母親喪의 服中이나 검은 喪服을 입고 義兵을 이끌고 戰線에 나가 勇氣와 智略으로 힘껏 싸워 連戰連勝을 거듭하여 倭賊들의 간담을 썩늘케 하였다. 나중에 晉州城에서 싸울 때에는 倭敵들이 最大兵力을 集結시켜 城을 二重三重으

로 包圍하고 攻撃을 해왔다. 그러나 晉州城은 陷落되지 않았다. 九週間을 불철주야로 大敵을 상대하여 싸우니 힘이 다해지고 軍備와 食糧이 한계에 이르니 더 싸울 길이 없게 되자 最後 순간에 이르러 公은 將帥들과 초석루 樓閣에서 술 한잔을 나누고 南江 푸른 물에 몸을 던져 最後를 마감하였다. 晉州城이 陷落된 뒤 慶會將軍의 副室 義烈 論介도 公의 壯烈한 뜻을 이어 敵將을 쫓아 南江 절벽 위로 유인하고 敵將의 허리를 껴안고 江물에 投身하여 生을 마감하였다. 아! 그들의 넋은 아직도 南江의 護國神으로 남아 있으리!

7. 結 言

本稿는 韓國史大系, 연려실기, 韓國人名略傳, 歷代崔氏名人傳, 國朝人物考, 韓國의 人物像, 國史百科大事典, 韓國人名大事典 그리고 海州崔氏 譜書등을 근거하여 敘述한 것인바 海州崔氏로서 歷代의 名人은 本稿에 收

錄된 분 外에도 많은 名人들이 계시나 紙面관계로 本稿에는 더 실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는 約 297의 姓氏가 있다고 한다. 그 中에서도 崔氏만해도 本貫을 달리 하는 崔氏가 37本이나 되니 아마도 本이 다른 것으로 姓氏를 헤아린다면 그 數는 數千에 이르지 않을까 한다.

그 많은 姓氏 中에 海州崔門과 같이 자랑스러운 名人先賢을 많이 모신 姓氏는 얼마나 될지? 뿌리가 깊고 튼튼한 나무는 잘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곧고 바른 節概, 뛰어난 學德과 재질 剛直과 忠直의 자랑스러운 先賢을 많이 모신 海州崔門 後裔들에게는 아마도 그 자랑스러운 先賢들의 거룩한 精氣가 脈脈이 繼續 이어져 내려오는 것으로 믿는다.

海州 崔 名門의 後裔들이요! 名門의 後裔다움게 矜持와 自負를 가지고 勤實하게 살아간다면 必然 海州崔門은 한층 그 빛을 더 할 것이다.

영문학계의 태두 최재서

섬세한 혼의 궤적

최재서의 셰익스피어 예술론



申 定 玉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전한국 셰익스피어 학회장)

- I. 서론
- II. 섬세한 혼의 궤적
- III. 문학이론
- IV. 셰익스피어 예술론
- V. 결론

I. 서론

누군가의 이야기를 할 때는 망설여진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사람이 그 어떠한 사람이든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운 인물도, 혹은 너무 평범해서 우리네 삶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도, 그리고 인생에서 중대한 실패를 경험했던 그 어떤 사람도 이야기를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야기란 시냇물에 물꼬를 어느쪽으로 내느냐와 같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필자는 최재서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다. 그러나 그가 남긴 셰익스피어에 대한 연구와 학문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진지한 탐구자세는 그 누구보다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그가 있었던 시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주었던 시대이다. 시대의 급류에 휩싸인 천재에게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최재서는 그 누구보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 앞서 있었고, 학문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또한 대단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외로운 삶을 살았다. 최재서가 가진 학문에 대한 잠재력을 펴 나가기에 일제 시대는 너무 가혹했고, 우리 나라는 아직 학문적 체계가 서지 않은 과도기의 단계였다. 이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 최재서가 할 수 있었던 몸부림은 자신의 붓을 놓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붓이 꺾인다면, 그것은 최재서의 삶의 종언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 때문에 최재서는 시대에 순응해야 했던 젊은 학자였고, 문인이었다.

따라서 본론에서 소개할 내용은 최재서의 생애와 그가 남긴 문학의 족적, 그리고 우리 나라 셰익스피어 연구에 이바지한 공로에 대해 서술이다. 그런데 최재서의 생애는 그의 삶의 여정이라기 보다는 문학의 여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장대한 그의 문학이론도 지면상 간결하고 쉽게 쓰도록 노력하였으며, 셰익스피어에 대한 연구 역시 워낙 방대한 분량을 자랑할만하여 최재서의 학문적 공헌을 주로 언급하고자 한다.

II. 섬세한 혼의 궤적

최재서는 학위논문 “셰익스피어”로

1961년 동국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음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셰익스피어를 연구할 최초의 문학박사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이 논문은 1965년 {생명질서로서의 셰익스피어 예술}(Shakespeare's Art as Order of Life)이라는 제명으로 벤테이지 출판사(The Vantage Press)에서 출판되었는데, 이는 그의 박사학위논문이 켄트주립대학에서 발행되는 [셰익스피어 뉴스레터]에 요약, 게재된 계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학문에 공을 드린 노력의 결과가 결실된 것이다. “생명에 질서를 부여한다는 관점에서 셰익스피어의 전작품을 검토”¹⁾한 최재서의 논문이야말로 “셰익스피어 비평에 흥미롭고도 자극적인 기여가 될 것이다”²⁾라고 판단, 출판사의 심사위원회는 저자에게 출판의도를 통지해 왔다고 한다. 이 사실은 최재서가 외국인으로서 셰익스피어 이론의 국제적 권위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음이니, 저자 개인은 물론 이거니와 우리 나라 영문학계에도 큰 영광을 안겨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이 쓴 셰익스피어의 연구서가 미국에서 간행된다는 사실은 그

1. “미국서 곧 출판『생명질서로서의 셰익스피어 예술』 최재서 교수의 논문” 동아일보 1963. 9. 2.
2. 같은 글.

당시 우리 나라 학계의 신선한 충격이며, 경이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이보다 앞서 이 책이 그가 타계하기 전인 1963년 {세익스피어 예술론}³⁾이라는 제명으로 미국보다 먼저 한국에서 간행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영문학계가 하나의 귀감으로 여기는 최재서의 역작이다. 이와 같이 영문학자로서 학계에 대하여 크게 공헌하고 존경받는 학자로서 인생을 다한 최재서가 걸어온 우여곡절의 자취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재서의 호는 석경우(石耕牛), 필명은 학수리(鶴首里), 상수시(尙壽施), 창시명은 석경우인(石耕牛人)이며, 1907년 황해도 해주군 해주면 북행정 72번지에서 해주최씨의 후손으로 출생했다. 그는 경성 제2 고보(현 경북고)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1926년 4월에 경성제국대학 예과의 문과 B반에 수석입학을 했다. 1928년에 경성제대 법문학부 영문과에 입학, 1931년 졸업, 1933년에 동 대학 연구실을 거쳐 런던대학을 수료했다. 그후 경성제대 졸업생으로서는 초유의 사건인 바 山本智道교수의 후임으로 영어강사로 임명되었고, 다음 해

에 사직했다.

최재서의 알려진 학력에 비해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의 부친은 상업에 성공한 상당한 재산가였고,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만큼의 재력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청년 시대의 빈고을 헤쳐나가느라고 과수원에서 아침 일찍부터 가위를 들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작업하는 모습에서 최재서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품고 성장했다.

황해도의 아흐레같이 한 광활한 과수원은 그에게 영원한 아름다움의 이상향이요, 삶의 근원이며, 미래의 꿈과 긍지를 비약시켜 주는 희망의 세계였다. 과수원의 정일 속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최재서는 소년시절부터 무척이나 고독에 빠지고 산책을 좋아했다. 그래서인지 “나는 나의 힘으로써 고독을 극복할 수밖에 없었다”⁴⁾라고 최재서는 후일 옛일을 아스라이 떠올린다. 그래서 그는 정감있는 자가 아니고, 지성적이며 이지적이며, 개성이 강한 냉철한 기품이 있었던 듯 싶다.

한가지 필자와 교분이 있는 최재서의 딸 양희에 대한 기억은 그녀가 아

3. 최재서, 『세익스피어 예술론』(을유문화사, 1963).

4. 최재서, 『인상과 사색』(연세대출판부, 1977) 53.

버지를 닮아서 숙명여고 재학당시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컸었다. 양희는 성품은 아버지를 닮지 않아 다정다감하였고, 반 친구들 누구하고도 잘 어울렸다. 그녀가 큰 눈망울을 굴리며 익살을 부리면 교실이 흔들거리듯 웃음꽃이 만발했던 생각이 난다. 그녀가 말수가 적은 필자에게도 곧잘 말문을 열게 하며 재담을 나누는 지혜도 과시했다. 고교 때 모든 영어 선생님들은 그녀를 예뻐했다. 그녀가 영어도 잘 했지만 부친이 훌륭한 영문학자라는 그 후광도 받았을 것이다. 어쩌다 몇 차례 친구들과 함께 남산에 있는 양희의 집에 놀러 갔었다. 우리 철부지들이 조용할 리 없었다. 푸른 악마처럼 이방저방 쭈시고 다니다가 그녀의 부친 방을 열었다. 여름 저녁 노을이 서편 하늘을 빨갭게 물들이고 있을 때쯤이다. 흰 모시옷을 입은 사람이 책상 앞에 석상처럼 정좌하고 있었다. 나에게 그 때의 최재서의 모습은 아폴로 신의 거상처럼 또는 성자처럼 보였다. 방이 어두컴컴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책으로 방의 사면팔방을 도배한 듯 하였으니 말이다. 우리는 최재서가 한창 셰익스피어 연구에 탐닉하고 있을 때 침

입하였으니 그녀의 부친의 환영을 받았을 리가 없으리라.

최재서는 경성제대에 입학한 경성제2 고보 출신 6명중 한 사람으로 수석 졸업에 수석 입학을 했다. 즉 수재중의 수재였고, 영어가 능통한 최재서는 영어 담당 후지이 아키오(藤井秋夫) 교수의 사랑을 독점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일어 구사에도 능통했고, 우리말도 쓰지 않고 일어로만 말하며, 일본인 학생들과만 친분을 가졌다.

성적이 우수한 최재서는 선생과 자주 접촉하고 특히 후지이(藤井秋夫, 영어) 교수로부터 영어 잘한다고 총애를 받던 처지다. 동창생들은 성적이 우수한 그가 여당적이라 일본어로만 말하고 우리말을 잘 쓰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만 가지고 친일파로 몰기는 곤란하다고 증언한다. 조선학생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그에게 그러지 말라고 듣기 싫은 말로 타일렀다. 최재서는 일본학생과 친한 것뿐만 아니라 현영남과 노는 것 이외는 조선학생과 가까이하지 않았다.⁵⁾

위 글에서 보듯이 최재서는 일본인 학생들과 친할 뿐, 현영남(섭)과 친

5. 이충우, 『경성제국대학』(다락원, 1980) 122.

구 하는 일 외에는 조선학생들과는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교내 학우들 및 선후배들에게 그러한 최재서가 곱게 비치리 없었다. 학우회 회원들은 그를 소외시킬 음모를 짜냈지만, 학생감(近藤時司)이 복도 문틈에다 귀를 대고 있었기에 이들의 오기는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한다. 그러나 분을 참지 못한 조선인 학생들은 학생감의 손이 미치지 않는 종로 3가 뒷골목 열빈루(悅賓樓)에 모여 최재서에게 왜 조선학생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일본인 학생들만 상대하느냐고 득달을 했었다. 이때 최재서와 절친하고 의협심이 강한 현영남이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었다. 현영남이 뜬어말리는 바람에 또 한번 최재서 괴롭히기는 술만 축내는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한다.⁶⁾ 여기서도 최재서는 학우회 회원들의 따돌림을 면하게 되었으니 운이 좋은 셈이었다.

최재서는 경성제대 본과에 가서는 영국에 유학한 시인이며 영시를 전공한 사토 기요시(佐藤 清) 주임교수의 철저한 지도를 받게 되는데, 대학 졸업논문으로 사토 교수의 지도하에 낭만주의 문학의 상상력에 대해 연구한 결과인 “The Development of

Shelley's Poetic Mind”를 쓴다. 또한 최재서는 1931년에 대학을 마치고 동 대학원으로 가서는 석사논문 “Romantic Type of the Poetic Mind”를 쓴다. 그는 졸업생으로는 최초로 야마모토 교수의 후임으로 영문과 강사로 임명되었으니 이는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크나큰 센세이션이었으며, 장안의 사람들의 화두에 오를 정도였다. 1934년에 보성전문학교와 법학전문학교 교수가 되어 최재서는 수년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재서는 사토 교수인 추천도 있고 하여 일본 영문학계에도 화려하게 등단한다. 이때 일본의 영문학지 [영문학연구]를 주관하는 세익스피어 연구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사이토 다케시(濟藤 勇), 이찌카와 상키(市河三喜) 등에게 인정받게 되어 그의 글들이 일본 학회지에 실린다. 처음에는 마침 사토가 그 학회지의 편집위원인 덕분에 재능있는 최재서가 자연스럽게 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이 밖에도 당시 사상지 [개조]에까지도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그런데 그가 우리 나라 문단에 등당한 것은 일본의 사상지나 영문학 잡지에 글을 게재한 것보다 먼저였

6. 같은 글, 122 참조.

다. 우리 나라의 프로레탈리아 문학이 차츰 퇴락할 1934년 조선일보에 “현대주지주의 문학이론의 전설—영국평단의 주류”라는 글을 통해서다.

최재서는 1937년부터는 광화문 네거리 서남 구석에 있는 광화문 빌딩에 ‘인문사’라는 출판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게 되는데, 이는 교수직에서 이탈한 과감한 전환이었다. 그후 몇 년 동안은 그가 평론계라는 고지를 점령하고 종횡무진 활약하였다. 특히 그가 1938년에 출판한 평론집 {문학과 지성}은 그가 평론계에서 맺은 최초의 결실이어서 문학사적 의의가 크다.

최재서는 1939년 9월부터는 [인문평론]을 기획하여 활동한다. 이때 최재서는 유능한 문인들이 창작과 비평의 무대를 마련해 주는데 일조를 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 땅의 문학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힘을 쏟는다. 그러나 일본의 군국주의 전시체제 속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1940년 8월에 강제로 폐간 당하고, 점차 언론 탄압과 민족문학 말살의 만행이 더욱 강화되면서 1941년 4월 [인문평론] 또한 강제로 폐간된다. 이에 최재서는 [인문평론] 대신 1941년 11월부터 1945년 2월까지 [국민문

학]의 주간을 맡아 잡지를 주도하게 되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이다. 또한 최재서는 일본 지식인 그룹이 형성한 [녹기](錄旗)라는 잡지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경성제대의 지도교수 사토 기요시(佐藤 清)와 동 대학 동창 선후배 관계에 있는 데라모도 기이치(寺本喜一), 스기모도 나가오(杉本長夫)를 [국민문학]에 끌어들이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⁷⁾ 실제로 이들의 적극적인 도움은 [국민문학]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최재서의 친일 활동은 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문단 활동에서도 드러났으니, 1943년 8월에 열린 제 2회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가하기도 하고, 일본 왕에 대한 숭배론을 표하는 등의 친일 활동도 하였다.

1930년대부터 해방 전까지 문학평론가로서 신선한 문예비평을 펼쳐 우리나라 문단에 큰 공적을 쌓은 최재서이나, 그는 일제말기 친일 행적과 이에 관한 글을 발표함으로써 명예롭지 못한 오욕을 남긴 것이 못내 애석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해방이후 10년간 그는 침묵의 세월을 보낸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그 기간동안 결코

7.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연구』 (일지사, 1984) 22.

학문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었다.

최재서는 한국전쟁(1950) 발발 전, 학생들 앞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연히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만약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있어 피난을 가게 된다면 나는 {콘사이스 옥스퍼드 영어사전}과 {셰익스피어 전집}만을 가지고 떠나겠다.⁸⁾

무심코 던졌던 그의 예언이 적중했다. 그는 크리스마스날 아침에 앞서 이야기한 두 권의 책을 보따리 속에 넣어 남하하는 친구의 지프차에 편승, 대구에 닿은 것이다.

피난지 대구에서 나는 [햄릿]과 [맥베스]와 [리어왕]을 다시 읽었다. 아무 주석도 없이 적은 영어사전만을 의지로 읽으니까 자연 골돌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가운데서 나는 이 작품들에서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안을 발견했고, 그래서 신선한 가운데서도 산 보람과 또 살고 싶은 의욕을 느꼈다.⁹⁾

최재서가 유난히 셰익스피어에 탐닉했음은 셰익스피어야말로 겨울 과수원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별뿔기로 인식하고, 혼란스러운 해방 후에야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된 그로서는 자신이 겪었던 혼란 속에서 셰익스피어 작품이야말로 질서의 귀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길잡이로 인식되었다.

한국 전쟁이라는 각박한 상황 속에서 {셰익스피어 전집}과 사전 두 권만을 들고 피난지 대구로 남하했고, 이러한 아프고 소중한 체험을 맛보았기에 후일 최재서의 명저가 탄생되었던 것이다. 탁월한 글들을 무궁하게 발표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그가 자진하여 붓을 꺾었음은 자기 자신에게 가한 태형이요 징벌이 아니었겠는가. 아마도 성실한 학자의 양심을 보인 것이리라. 그렇다면 이 시기는 그에게 생의 상실감과 동면으로 이어진 기간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문의 자기 확충을 위한 충만의 세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재서의 연세대, 동국대, 한양대 등에서 영문학 강의를 하면서 {햄릿}(주석·해설·번역), {문학원론}, {영문학사}(1-3), 그리고 셰익스피

8. 최재서. "서문" 『문학원론』 (춘조사, 1957) 1.

9. 같은 책

어 연구에 관한 논문 및 저서 등을 내놓아 우리 영문학계를 수준 높은 학문 계로 끌어 올렸다. 1964년 11월 16일, 한참 실력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57세에 최재서가 타계하자 여러 일간지들에서 그를 길이는 추모의 글들이 쏟아졌다. 최준기는 최재서의 찬란한 학문적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문학의 순교자”¹⁰⁾라 칭했고, 여석기는 “학자적 집념”¹¹⁾이 충만한 그의 정열을 높이 샀다. 경향신문에서는 최재서야말로 셰익스피어 연구에 골몰하는 “의욕의 뭉치요”, 그것에서 “생명적인 충동을 느끼는”¹²⁾ 거인임을 강조했다.

아마도 최재서의 생명이 더 연장되었더라면 간행된 역서가 [햄릿] 1편이 아닌 셰익스피어의 전체 희곡을 틀림없이 단독으로 번역하여, 셰익스피어 작품의 번역 및 해설서의 결정판을 내놓았을 것이다. 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1970년대 말까지는 대학 영문과 학생들이 참고하는 [햄릿] 역서 가운데 최재서의 책이 단연 으뜸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는 셰익스피어 연구에 있어서 직접으로

체험한 것을 이론적인 체계로 남겨놓고 싶었던 것이다. 영문학자로서 또는 문예비평가로서의 그의 죽음은 거의 국가적인 손실¹³⁾에 비유될 수 있으며, 문학비평가 조연현은 최재서의 죽음을 크게 애통해 했다. 불면불휴의 연구열은 휴양을 권하는 의사의 간곡한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으니, 그의 생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최재서는 스스로에게 냉혹하게 형벌을 가했고, 그리하여 셰익스피어 연구에 열중하여 격조높은 {셰익스피어 예술론}을 내놓은 것이다. 이제는 누구의 행동이나 행적보다는 그가 이루어낸 학문적 공헌과 업적을 칭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Ⅲ. 문학이론

최재서의 일생이 어떤 의미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혹은 손가락질을 받든지 간에 황무지나 다름없던 1930년대 우리 나라 비평문학의 문을 연 사람임에 틀림없다. 최재서는 시대 흐름에 대단히 민감한 사람이었

10. 최준기. “최재서 박사를 고향” 서울신문 1964. 11. 17.

11. 여석기. “고 최재서씨를 애도함” 한국일보 1964. 11. 17.

12. “고독했던 고 최재서 교수, 파도가 밀려오듯 종말을 향해...” 경향신문 1964. 11. 18.

13. 조연현. “최재서의 인간과 문학” 『현대문학』 (1965. 1. 19) 19.

다. 그가 친일을 했던 이유도 시대 흐름에 순행했던 그의 성격 탓이리라. 그는 시대 최고의 유행을 따랐음은 물론이고, 시대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사람이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그의 문학 세계에서도 나타나 있다. 따라서 그는 경성제대 졸업논문으로 “The Development of Shelley’s Poetic Mind”를 썼고 대학원에서의 연구 제목은 “Romantic Types of the Poetic Mind”(1931)로 모두 낭만주의에 관한 것이었다. 즉, 18·19세기의 영국 낭만주의 문학을 그의 전공으로 택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그의 영문학적 관심의 수준을 짐작케 할 뿐 아니라 당시 동경제대의 영문학과 풍조 역시 낭만주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다.¹⁴⁾ 영미시의 한 획을 긋는 시에 있어서 낭만주의 문학의 풍부한 상상력과 전 시대에 비해 혁신적인 사조의 체계를 요구했으며, 이는 최재서의 창작 의욕을 불러 일으키고, 비평적 시각을 넓혀 주는 최고의 주제가 되었다.

최재서는 낭만주의 문학에 대한 탐구를 시작으로 나름대로의 비평문학의 체계를 세워 자신만의 비평문학

세계를 열어 갔다. 그가 1933년 경성제대의 영어 강사로 근무하던 시절 “T. E. 흙의 비평적 사상”([思想] 1934. 12)을 필두로 “John Dennis의 시론연구”([영문학연구] 제15권 1호, 1935. 1) 등을 발표함으로써 아마추어적 비평에서 벗어나 본격적 비평 활동을 개시하였다.

최재서의 문학비평 활동은 낭만주의적 영국시에서 지가되었지만 그 꽃이 핀 곳은 모더니즘, 즉 그가 주지주의라고 명명한 분야에서 일 것이다. 그는 [미숙한 문학](1931)을 통해 낭만주의에 대한 회의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셸리나 키이츠, 그리고 바이런 등의 작품을 비평한 이 글 속에서 19세기 낭만주의 장편시를 ‘미숙한 문학’으로 규정하면서, ‘미숙’의 뜻을 사회 전체의 미숙함으로 돌리고 있다. 따라서 낭만주의 최고의 시인인 워즈워드나 셸리의 미숙한 결점은 낭만주의 자체에서 극복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¹⁵⁾ 이는 낭만주의에 대한 비판이며, 회의적 태도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최재서의 탈 낭만주의적 성향이 낭만주의의 “미숙함”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14. 김윤식. “경성제대 영문학과와 낭만주의”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제Ⅱ부 개성과 성격』 219.

15. 최재서. “미숙한 문학” 『新興』 제5호 (1931. 7) 99.

이미 낭만주의는 구시대적 문학의 흐름이 되었고, 동경제대는 신비와 센티멘탈리즘, 그리고 프로레탈리아적 성향에서 벗어나 질서와 지성을 중시하는 모더니즘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따라서 최재서가 본격적으로 일본 영문 학계에 뛰어 들 수 있는 연구 제목은 모더니즘에 관한 것이어야 했다.

최재서 역시 센티멘탈리즘에 대하여 비판을 가했는데, 최재서가 활동하던 당시 문단에는 센티멘탈리즘적 경향의 작품이 주조를 이루었으며, 프로레탈리아 문학이 판을 친다고 보았다. 그가 말하는 센티멘탈리즘이란 “우리는 정서적 반응이 정조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그 반응을 일으킨 사태에 대해서 적절치 못할 때에, 그것을 센티멘탈리즘이라한다”¹⁶⁾라고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센티멘탈리즘은 공상적인 것을 부각시켜 놓고, 회의적이거나 퇴폐적 성향의 문학작품을 만들게 된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최재서는 이러한 문학의 회의적 퇴폐적 성향은 지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때문에 표준적 양식과 교양이 부재된, 즉 지성의 부재를 개탄

하였다. 그는 특히 지성의 문제를 교양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학식은 지식의 축적이고 양식은 교양을 표증하는 비평적 감별력이다.”¹⁷⁾라고 말함으로써 개인의 교양은 인간적인 가치를 옹호하고 증진하는 휴머니즘과 접목시켜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양인의 태도는 사회에 대하여 학식을 휘두르지 않고, 정밀하고 정확한 양식을 가지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교양의 정신이란 비평의 정신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교양은 적절한 판단, 즉 비평을 내리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지성과 연결된다고 본 것이다.

최재서는 비평의 정신이 되는 지성의 요소를 다분히 담고 있는 문학 사상으로 모더니즘을 꼽았다. 특이할 만한 점은 낭만주의의 공허한 상상력에 반해 그 반대편에서 있는 모더니즘을 그가 새롭게 주지주의로 명명했다는 것이다. 최재서가 명한 모더니즘의 뜻을 담고 있는 주지주의란 모더니즘의 시에서 추구하는 하나의 표현 방법인 이미지즘, 즉 작고 메마른 것, 시각적인 것, 분명한 것을 원하는

16. 최재서, “센티멘탈론” 『최재서의 평론집』 (청운출판사, 1961) 176.

17. 최재서, “교양의 정신” 같은 책, 166.

이 방법을 주지주의라고도 하는데, 이는 모호한 경제 속에서 일어난 이지즘, 즉 주지주의를 부각시킨 명칭일 것이다.

최재서의 주지주의 사상에로의 귀속은 다음과 같다.

병실에서도 희미하나마 길이 있다. 적어도 광명과 길을 찾는 비교적 건전하고 진지한 비평가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현대 연구에 그러한 비평가로서 나는 리차즈, 엘리엇, 리두, 루이스를 든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자신의 길을 걷고 있으나 결국 主知的 傾向에 있어서 일치한다.¹⁸⁾

즉 그는 낭만주의의 공허함을 주지주의의 지성으로 맞서려 했던 것이다. 주지주의는 이전의 낭만주의에 대한 거부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낭만주의의 일반적 특징이었던 무한, 신비, 정서 같은 것을 비판하고 지성과 질서를 중시한다. 따라서 최재서는 당시 우리 나라에 유행하던 지나친 감상주의적 물결을 주지주의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최재서는 주로 주지주의적 입장에서의 문학이론을 전개하였다. 그의 문학적 사상은 1930년대 당

시의 과도기 서구 문학의 추구라고 할 수 있는데, 서구 모더니즘의 문학이론가인 T.E. 홉, T.S. 엘리엇, I.A. 리차즈, H. 리드 등의 모더니즘 문학이론을 소개하였고, 그들의 과학적인 태도와 주지주의적 이론을 우리의 비평계에 도입하고자 노력했다. 최재서의 이러한 노력들로 말미암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비평이 우리 나라에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최재서의 주지주의적 문학이론을 살펴본다면, 그는 문학을 미적 구조로 보기보다는 인식구조로 보았고, 동시에 유기적 구조로 파악함으로써 문학이 단순히 이념의 도구일 수만은 없으며, 사회를 향해 열려 있는 내부적 질서를 가진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맹목적인 행동적 휴머니즘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었고, 지성과 행동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여기서 행동이란 사색을 거치지 않은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그는 당시 문단의 주류를 형성했던 프로레탈리아 문학 작품들이 사색을 거치지 않고 획일화된 행동성만을 강조한 것이라고 반대하였다.

최재서는 문학작품에서 사용되는

18. 최재서, "현대주지주의 문학이론" 같은 책, 54.

그의 비평 이론으로 '지성이론', '모랄이론', 그리고 '리얼리즘이론'을 제기하였다. 먼저 '지성이론'에서는 지성을 행동의 대립 개념으로 지성을 파악하고, 우리 나라에서 이에 필적할 만한 지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지성의 매개가 되는 방법적인 문제로는 지적 노력인 교양을 중시했다. 이것은 센티멘탈리즘과 프로레탈리아 문학의 실천적 휴머니즘을 극복해 보고자 한 것으로 당시 혼란을 겪고 있던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모랄이론' 역시 지성을 토대로 한 것으로 가치관과 결부시킬 수 있는 문제이다. 작가 의식, 혹은 작가적 가치관이 결여되었던 1930년대에 새로운 가치관의 결합을 위하여 제시된 이론으로 평가된다.

'리얼리즘이론'은 지성과 모랄이 결합한 형태로 실천적 비평의 양상이다. 특히 최재서의 리얼리즘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 태도라는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에 있어서의 지성적 태도와 모랄로서의 작가적 가치의식이 종합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최재서는 한국 문학의 과도기적 시

기의 사람이다. 그는 나름대로의 비평 문학의 체계를 세워 자신만이 문학 세계를 열어 나간 선구자이다. 또한 본격적인 의미에서 한국 현대 비평가의 한 사람이며, 아마추어적 비평에서 벗어나 한국 비평의 학문적 체계를 확립한 사람이 바로 최재서인 것이다. 그는 서구의 문학을 국내에 소개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논문 등을 통하여 주지주의, 즉 모더니즘 비평의 근거를 확고히 하였다. 비평의 근거란 종래의 문학이론이 다분히 주관적이고 인상적인 것에 머물고 있는데 비해, 최재서는 전문적인 비평가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니,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우리 나라 문학 비평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1930년대 해외 문학파가 서구의 비평 이론들을 단순히 소개만 하던 차원에서 한 걸음 나아가 서구 문학이론을 소개한 것은 물론, 그것을 자신의 비평 이론에 직접 도입함으로써 모더니즘 문학이론을 도입한 개척자의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다. 그는 과학적 비평 인식을 통하여 비평의 전문성을 키웠으며, 따라서 최재서의 우리 평단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시킨 획기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IV. 셰익스피어 예술론

우리 나라 영문학계에 더할 나위 없이 귀감이 되었던 최재서는 57세의 아까운 나이에 사망하기 전, 1959년부터 [사상계]나 [현대문학] [세대] 등의 잡지에 셰익스피어에 관한 논문을 수십 여 편 발표하였다. '질서의 개념'이라는 잣대로 셰익스피어의 문학 세계를 연구 분석한 이들 대부분의 논물들을 하나로 종합한 내용이 우리 나라에서는 1963년 {셰익스피어 예술론}, 미국에서는 Shakespeare's Art as Order of Life({생명질서로서의 셰익스피어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는 바로 최재서의 문학 연구 업적의 한 중심 축을 이루는 것이다.

1959년 최재서는 [사상계] 1월호에서 3월호까지 "셰익스피어 연구초 ①~③을 게재하면서 셰익스피어 비극의 개념과 성장배경, 그리고 당시 극장의 상황들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셰익스피어의 예술론을 체계적으로 펼쳐 나갔다.

먼저 "셰익스피어 연구초①—셰익스피어 비극의 개념"¹⁹⁾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최재서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즉, [오델로], [햄릿], [맥베드], [리어왕]을 그의 다른 비극들과 비교하고, 또한 다른 작가들—소포클레스 (sophocles), 초오서 (Chaucer)—의 비극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4대 비극이 가진 몇 개의 공통된 개념을 추출하여, 그 개념들을 바탕으로 셰익스피어 비극의 개념을 재구성하였다. 특히 최재서는 비극의 핵심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행복한 자가 불행해지고, 행복과 불행의 대비가 비극의 핵심부가 되며, 불행의 정도는 지위가 높을수록 상대적인 느낌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4대 비극의 주인공들은 비극의 원인이 외부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격적 결함에 있음을 지적하고 이런 요소들을 근대 비극의 전형으로 내세웠다.

"셰익스피어 연구초②—에이븐 강의 백조"²⁰⁾에서는 전기적 입장에서 셰익스피어의 가정사, 스트래트포드의 자연환경, 교육, 결혼, 런던에서의 생활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셰익스피어라는 위대한 극작가의 탄생 배경을 소개하였다.

19. 최재서, "셰익스피어 연구초①—셰익스피어 비극의 개념" 「사상계」 제66호 (1959. 1. 1) 286-95.

20. 최재서, "셰익스피어 연구초②—에이븐 강의 백조" 「사상계」 제67호 (1959. 2. 1) 327-32.

“셰익스피어 연구초③—시성의 수업시대”²¹⁾에서는 배우 겸 극작가들이 하루 10여 시간이나 노동을 해야만 극장이 운영될 수 있었던 당시의 극장 형편에 관해 설명하고, 셰익스피어가 생계를 위해 약 1590년경에 런던으로 상경하여 펌브로오크(Prmbroker's Men) 극단에서 연극계 생활을 시작한 후 [타이터스 앤드러니커스], [헨리 6세] 3부작, [사랑은 헛수고] 등의 작품을 써서 명성을 얻었으며, 1593년부터 약 2년간 순회공연을 떠나 극단에 합류하지 않고 소네트를 써서 시인으로서도 명성을 누렸던 1594년까지의 사건을 설명하였다.

“셰익스피어 연구초”^{④~⑦}²²⁾은 최재서 역시 E.M.W. 킬리아드와 마찬가지로 셰익스피어의 사극을 하나의 사이클로 보고 [존왕], [리처드 2세], [헨리 4세](1, 2부), [헨리 5세], [헨리 6세](1, 2, 3부), [리처드 3세], [헨리 8세]가 모두 전후 관계에 고려되어 쓰여진 것이라고 하였다. 최재서가 보는 셰익스피어 사극의 사이클은 프롤로그인 [존왕], 제 1부로 분류되는 [리처드 2세], [헨리 4세](1, 2부), 그리고 [헨리 5세], 제 2부가 되

는 [헨리 6세](1, 2, 3부)와 [리처드 3세],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인 [헨리 8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재서의 셰익스피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셰익스피어 예술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셰익스피어 예술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책은 전체 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론 (1)은 셰익스피어의 비평적 연구로써 각국의 학자들이 연구한 셰익스피어의 비평을 정치적 질서로서의 사극, 제 II장에서는 사회적 질서로서의 희극, 제 III장은 인생 비평으로서의 비희극, 제 IV장은 도덕적 질서로서의 희극, 제 V장은 초월적 질서로서의 로마 사극, 그리고 제 VI장은 자연적 질서로서의 로맨스극을 각각 다루었는데, 결론적으로 결론에서 셰익스피어 예술의 본질이 질서의 개념을 통한 완전한 인간성에 대한 탐구였다는 문제를 다루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서론 (1) ‘셰익스피어의 비평적 연구’에서 F.J. 휘니벌, E. 다우든, A.C. 브래들리, R.G. 모올튼, 도버 월슨, H.B. 찰튼, G. 월슨 나이트 등 세계적인 셰익스피어 권위자들의 셰익스피어

21. 최재서, “셰익스피어 연구초③—시성의 수업시대” 「사상계」 제69호 (1959. 3. 1) 218-30.

22. 최재서, “셰익스피어 연구초” ④~⑦ 「사상계」 제71호~74호(1959. 6. 1~9.1)

비평을 언급하고, 연구 논문의 목적으로 전 작품을 연대순과 분류적으로 고찰하는 방법을 병합하여 사극, 희극, 문제극, 비극, 로마극, 로맨스극으로 분류, 각기 장르의 개념으로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 또한 셰익스피어 예술의 발전을 발생학적으로 고찰하여 작가의 창작 동기를 파악하면서 극작의 모델로 사용한 인습적 형식을 살핀 다음, 각 작품의 주제를 발견하고 결정된 주제를 중심으로 작품의 인상들을 재정리하여 브래들리와 모울튼의 방법에 따라 작품 구성, 성격, 플롯과 운동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은 효과에 대한 고찰로서, 첫째는 작품에서 받은 종합적인 인상을 되도록 간결하게 기술하고, 두 번째로는 효과의 원인을 찾아 각 작품의 분석이 끝나면 그들의 효과를 종합하여 그 작품군의 공통적 특질을 추출한다고 한다.

서론 (2)의 '질서로서의 문학'에서 최재서는 문학은 흥미를 조직화하여 감정에 질서를 주는 것이며, 쾌락의 질과 정도는 작품의 체험 속에 어떤 흥미가 제기되었는가, 어떤 종류의 정서들이 참여했는가, 또 그들이 어느 정도로 지성의 지도를 받아 질서화 되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

에 비극에서 느끼는 카타르시스 외에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에서는 좀 더 다양한 쾌락이라 할지라도 감정의 질서화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다.

본론 I '정치적 질서'에서 최재서는 르네상스이래 사극을 통해서 이념적인 질서의 세계를 형상화하려 했던 극작가들 중 가장 뛰어난 작가로 셰익스피어를 꼽으면서 셰익스피어가 일정한 역사관과 의도하에서 사극을 썼으나, 그것은 셰익스피어만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당대 지식층의 공통적인 사관이자 정치적 사상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내란의 악몽에 시달려 정치적 질서를 갈망하는 엘리자베스 시대 영국 사람들의 국민적 심정을 반영하려는 글을 쓰게 된 것이라 했다.

본론 II '사회적 질서—낭만적 희극의 세계'에서 셰익스피어의 초기 희극들의 특징은 로맨틱 코미디로서 첫째, 변함없는 사랑이 주제이고, 둘째,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아든(Arden), 인간 세계를 초월한 일릴리아(Illyria)등과 같은 특별히 로맨틱한 장소를 선택하였으며, 셋째, 일정한 스토리를 갖는 작품들로서 벤존슨(Ben Jonson)의 희극과 같은

성격 희극이 아니라, 플롯이 절대적으로 중요시되는 반면에 성격이 가볍게 취급되는 희극이라고 규정하고, 낭만적 희극의 플롯은 보편적인 희극의 개념에 따라서 얽힘(entanglement)에서 풀림(solution)으로 진행되며, 행복한 결말(happy ending)을 가져오는 절차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극에서 사건을 얽히게 하고 흥미를 자극하여 정서를 컨트롤하는 수단인 모티프는 오인(mistaken identity)과 계교(intrigue)이며, 낭만희극에서는 전자가 우세하고 후기의 비희극에서는 후자가 우세하다고 했다.

또한 사극이나 비극과는 달리 셰익스피어의 희극에서는 여주인공의 중심인물이 되는데, 대체로 그들은 지적인 여성들로서 위트가 있는 반면 매우 실제적이며, 무엇보다도 사랑과 선의를 가지고 있어 극적인 얽힘을 풀어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한 결말로 인도하는데 적합하다고 하였다. 인간을 불행에 빠지게 했다가 행복으로 인도하고,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분규를 되도록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다가 되도록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것이 셰익스피어의 희극이라는 것이다.

본론 Ⅲ '인생비평—문제극들의 의미'에서 최재서는 소위 문제극이라고 하는 [트러일러스와 크레시더], [끝이 좋으면 다 좋아], 그리고 [말은 말로 되는 되로] 등의 세 작품의 의미를 인간에 대한 셰익스피어 자신의 인생 비평의 원리로 이해하려 했다. 그는 '문제극'으로 분류되는 셰익스피어의 희극들은 완전한 인간과 불완전한 인간을 병치함으로써 셰익스피어 자신의 인생 비평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가 완전과 불완전을 언제나 질서와 혼란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의 문제극을 고찰하려면 '완전'이란 말을 '질서적'이란 말로 대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행복의 조건으로서의 질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들 문제극들은 낭만적 희극과 같으나 보다 비판적이라는데 그 특색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트러일러스와 크레시더]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얽힘이 풀려서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희극의 일반적 구조를 갖지 않으며, 셰익스피어는 불완전한 인간을 비교적 완전한 인간들의 곁에 놓아 여러 면에서 접촉을 시도함으로써 그 자신의 인생 비평을 전개해 나갔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최재서는 이런 음침한 희극에 나타나 있는 도덕적 질서와 초월

적 질서는 비극 시대 이후로 셰익스피어의 마음을 지배하는 관심사였고, 그의 비극들에서 그는 주로 도덕적 질서를 발전시켰고, 로맨스극에서 후자인 초월적 질서를 발전시켰다고 했다.

본론 IV ‘도덕적 질서—비극의 세계’에서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서 악인과 동시에 선인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궁극적인 힘은 도덕적 질서라는 브래들리의 말에 동조하면서도 도덕적 질서를 적어도 세 부분, 즉 생·심리학적(Physio-psychological) 측면과 윤리학적 측면, 그리고 사회과학적 측면의 관련성을 갖는 포괄적인, 동시에 자기 충족적인 생명의 원리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포괄적인 도덕적 질서는 선과 악이 그 속에 포함되고, 악이 아무리 비인간적이고 비사회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전체적인 질서의 밖에 있지 않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악이 질서에 공격을 가하여 그 일부를 파괴하는 일은 자신을 공격해서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악은 필연적으로 자멸한다고 보았다.

본론 V ‘초월적 질서—로마극의 세계’에서 최재서는 셰익스피어의 로마극 [줄리어스 시이저], [앤토니와

클레오파트라], [코리올레이너스]를 사극과 비극 두 범주에 모두 속하는 것으로 이 작품들의 각각 남자 주인공인 부루터스, 앤토니, 코리올레이너스가 결국 자신들의 정신과 신념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는 것은 그들의 강한 성격 때문에 현실에서 복수를 당한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현실에 붙잡히기 전에 현실을 초월하여 좀더 높은 세계로 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결말에서 독자가 느끼는 이들에 대한 찬미는 그러한 승화에 대한 감탄인 것이며, 그들이 승화하는 보다 높은 세계가 바로 초월적 질서라고 했다.

본론 VI ‘자연적 질서—로맨스극의 세계’에서는 로맨스극인 [심벨린], [겨울이야기], [태풍]의 세계를 자연적 질서로 풀이하면서 “자연적 질서에 의하여, 나는 탄생과 성장과 노쇠와 사망, 그리고 재생에 나타나는 자연 창조의 율동적인 변화를 의미한다”²³⁾고 했다. 그는 [심벨린]은 로맨스극에 있어서의 실험작으로 [겨울이야기]를 거쳐 [태풍]에 이르면서 작가의 의도가 점점 명확해지는 동시에 그 표현이 확실해진다고 분석하였다.

결론에서 최재서는 셰익스피어가

23. 최재서, 『셰익스피어 예술론』 193.

20년의 극작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완전한 인간성을 추구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셰익스피어는 균형된 인간관을 추구했는데, 그는 로마극과 4대 비극의 주인공들이 어떤 성격적 결함을 동시에 지닌 그들이 고귀한 인간성을 소유한 인간임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현실과 이상의 두 가지 면에서 비극의 주인공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호레이쇼와 레어티스, 맥베드 부인이나 벵코우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인물들을 두 명 혹은 세 명씩 조합하여 완전한 인간성을 암시하는 수법을 썼다. 셋째, 한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 작품의 인물들을 비교할 때 셰익스피어의 인간상을 더욱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햄릿의 지력과 맥베스의 상상력, 오델로의 실천력을 합하면 완전한 인간성이 되듯이 셰익스피어는 이러한 이상가와 실제가의 대립에서 어느 쪽에도 우위를 두지 않고 두 인간형을 같은 애정과 존경으로써 똑같이 정열적으로 묘사하였다. 그리고 넷째, 셰익스피어는 사극과 희극에서 출발하여 마지막에 로맨스극을 쓰기까지 끊임없이 극 형식을 실험하면서도 그것은 그의 완전한 인간성에 대한 탐구를 수반하는 것이었

고, 그 완전성의 개념을 질서의 개념으로 사유하여온 것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의 원리로서 작용하는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에 나타난 질서의 개념이 사극에서는 무질서한 영국의 정치적 투쟁을 통한 질서 이념의 추구였고, 희극에서는 사회 생활에 구현되는 질서 속에서 행복의 조건을 탐구한 것이었으며, 비극들은 도덕적 질서의 파괴와 회복으로 그려졌다. 또한 셰익스피어는 문제극들에서는 질서를 기준으로 불완전한 인간성을 비판하고, 로마극과 로맨스극에서는 비극을 초월한 영원한 이념의 세계와 유구한 자연계로 질서의 탐구를 연장하였는데, 이와 같이 질서의 개념이 서로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질서는 하나인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이다.

V. 결 론

최재서는 일제 시대와 우리 나라의 문학적 과도기를 겪은 불운한 학자였다. 그러나 최재서는 자신의 불운함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아니다. 그는 나름대로 비평 문학의 체계를 세워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열어 나간 선구자이며, 본격적인 한국 현대

비평가의 한 사람이고, 한국 비평 문학의 학문적 체계를 확립한 사람인 것이다.

최재서의 업적은 서구의 문학을 국내에 소개했으며, 자신의 논문을 통해 모더니즘 비평의 근거를 확고히 하였을 뿐 아니라, 전문적인 비평가로서 문학에 대한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비평을 시도하였다.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나라 비평계의 전문성을 키웠으며, 격조 높은 비평의 한 예로 {셰익스피어 예술론}을 내놓았다. 특히 {셰익스피어 예술론}은 예술의 원리로써 작용하는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에 나타난 질서의 개념을 주제로

하여 셰익스피어의 전 작품을 심도있게 분석하였는데, 이것은 미국에서도 학계의 인정을 받아 출판될 정도로 권위있는 셰익스피어의 비평서로 꼽히고 있다.

최재서는 혼란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가다듬던 사람이었다. 그는 냉혹한 시련 속에서도 붓을 꺾지 않고, 자신의 심혈을 기울여 사그러드는 생명의 불꽃 가운데서 {셰익스피어 예술론}에 정성을 쏟았으며, 셰익스피어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질서'를 위해 내재되었던 예술 혼을 불사른 이 시대의 진정한 학자로 기억될 것이다.

祝

宗誌 第3輯 發刊

大寧君派 洪川 乃村 宗親會

會 長：載 圭

副會長：昌 鉉

總 務：承 祚

(大宗會 弘報幹事)

電話：033-433-3284, 032-432-4088

주소：江原道 洪川郡 乃村面 道寬里

삶의 이야기



창 섭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필자가 봉직하고 있는 학교를 설립한 예수회의 교육이념은 한 마디로 '남을 위한 삶' (man for others)으로 요약될 수 있다. 쉽게 곧 이해될 듯 하면서도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무언가 손에 잡히지 않는 면이 있어 묘한 여운을 던져주는 이념인 듯 싶다. 무두를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도 바쁘고 힘든 판이라 하는데 더더구나 남을 위해 살다니. 알 듯 하면서도 아리송한 이야기임에 틀림없다.

그러기에 이 문구가 떠오를 때마다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깊은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나름대로의 생활지표에 연계시켜 보고자 안간힘을 써보곤 한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막연하게나마 'man for others'를 지향하는 인간상이 그려지기 시작했고, 그와

같은 인간 삶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 주위에 적극 전파하기에 이르렀으며, 오늘도 이 주어진 해주 최씨 문중 지면을 통해 '삶'을 주제로 '남을 위한 삶'을 위시한 '성공적인 삶'과 '금테 같은 삶'의 깊은 의미를 문중 여러분과 함께 되새겨 봤으면 하는 것이다.

첫째는 남을 위한 삶의 얘기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손과 입과 위에 관련된 원시적인 얘기 한 토막으로 이 첫 번째 얘기는 실마리를 풀어나가 보고자 한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된다. 그 동안 아무 말 없이 고분고분 제각기 맡은 역할과 일을 해오던 어느날 이들 3자간에 갈등이 일기 시작했다고 한다. 손의 입장에서 보니 자기는 죽어라고 먹을 것

을 부지런히 입에 넣어주기만 했지 자기가 먹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라고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런 불만을 듣고 있던 입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또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음을 인식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한 마디로 입의 입장에서는 손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씹느라고 힘만 들었지 입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는 논리이다. 이 같은 입의 불평에 황당한 위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 또 불만의 여지를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즉, 위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단물은 입이 다 빨아먹고 단물 빠진 찌꺼기만 받아 가지고 이를 소화시키느라 애만 먹는 자신의 모습에 화가 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손으로부터 터지기 시작한 불평불만이 입과 위에까지 파급되면서 위기진정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3자 모두가 다 불만이 있으니 피차간에 이제까지 해오던 일을 일시에 중지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의를 받아들이에 이르렀다. 손은 손대로 부지런히 손가락질을 하지 않게 되었고, 입은 입에 들어오는 음식이 없으니 씹느라고 애를 먹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넘어오는 것도 없으니 위도 휴업

상태로 3자 모두 편히 쉬면서 조용히 휴식상태를 즐기게 되었다고 한다. 평화가 지속되는 듯 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입에서는 침이 마르고 위에서는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현기증의 여파가 손으로 파급되어 힘 빠진 자신들의 모습을 보기에 이르른 것이다. 동시에 이제까지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자신들의 역할과 그 역할분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제까지 불만사항으로 느꼈던 단순한 젓갈 질 역할이 순차적으로는 씹는 입과 소화의 일로 연결되면서 그 영양소가 결국에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신체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독특한 역할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다. 손이 입과 위만 위해서 젓갈 질해야만 한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오히려 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은 단순히 젓갈질만 해도 영양을 공급받게 된다는 역할 분담의 의미와 남을 위해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돕는 길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이다. 그러한 깨달음이 일찍 있었기에 오늘과 같은 육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룬 '손과 입과 위'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어 그 뒤로 인류번영의 길을 터놓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 각자의 역할과 의미를 보다 넓고 깊은 차원에서 추구하도록 일깨워 주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본다. 우리 육체의 어느 한 부분도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없다고 한다. 다각기 다른 위치에서 다 다른 역할을 하기에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한 육체가 필요로 하는 위대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같은 손이라도 왼 손과 오른 손이 서로 보완적인 일을 하듯이 손가락들도 다 각기 독특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만약 새끼손가락이 없다면 새끼손가락을 거는 둘만의 아기자기한 약속을 어떻게 하며, 좀 점잖치 못한 비유이긴 하겠으나 누구의 말마따나 코 속을 누가 후빌 수 있을 것인가. 또 샤워하고 나서 쓱쓱 문질러대는 발바닥의 푸대접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몸에서 하루종일 가장 혹사당하는 부분이 발바닥이었다. 그러나 실컨 일 시켜먹고 내팽개치는 듯한 박대를 물 마시듯이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기에 뒤늦게나마 건강관

리 차원에서 발바닥과 손바닥을 잘 모셔야 건강에 좋다는 역설적인 비법을 알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 아니겠는가.

한 손가락으로 연결되는 무수한 고리의 모습을 통해 나무(木)와 나무(木)로 연결되는 전체 숲(木+木=林)을 보면서 자신의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색하는 사람들을 보고픈 것이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즐거움과 그 즐거움 속에서 연결되는 열매를 볼 줄 아는 비가시적인 세계를 꿰뚫어 보는 眼과 目을 겸비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은 것이다. 손의 역할을 하는 개개인의 진솔한 봉사자와 일꾼의 모습에서 에너지로 환급되어 되돌아오는 크게는 인간 결속과 작게는 해주 최씨 문중 공동체 성장의 밝은 내일을 기대해 본다.

두 번째로는 '성공적인 삶'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고자 한다. 우리는 모든 사물을 극단적인 두 가지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성공이냐 실패냐, 선이냐 악이냐 등의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복합적인 삼라만상의 현상을 어찌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상황으로만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겠는가. 성공과 실패

도 사실은 보는 관점 나름이 아니겠는가. 아름답고 추한 것도 마찬가지로, 추한 것도 아름다운 관점에서 보면 좋게 보일 수 있다.

속된 표현으로 “성공해야 한다” “출세해야 한다”라는 말을 주위에서 흔히 듣는다. 다시 말해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권력을 잡고, 명예를 얻어야 한다는 성공의 경쟁적인 지표를 향해 각자는 맹렬히 뛰고 있는 것이다. 못 가진 자는 가진 자가 되기 위해, 낮은 자는 높은 자를 향해, 피지배자는 지배자와 특권층의 대열을 향해 전진하는 과정에서 때에 따라서는 말로, 말로 안될 때는 행동으로, 또 이성의 호소력이 약하다고 느낄 때는 감정으로 자기를 표현한다.

성공 아니면 실패, 강 아니면 약, 부 아니면 빈 등의 흑백논리에 의한 절대적 이가(二價)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어디서부터가 성공의 영역이며, 그 기준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무엇이 성공이란 말인가? 실패라는 말이 없다고 가정해 보자. 실패라는 단어 대신에 성공이라고 부른다면 성공 대 실패가 아닌, 성공1(제 1단계) 대 성공2…… 성공○○(성공 무한대)의

공식만이 있을 따름이다. 실패 대신에 성공 1이나 성공 2…… 성공○○ 등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가 이미 성공의 대열에 있는 것이 아닐까. 단지 정도의 차이만이 있을 뿐인데도, 우리 각자가 자신의 성공을 느끼지 못할 따름인지도 모른다. 실패했다고 자포자기적인 체념에서 금시발복적(今時發福的)인 성공을 지향하려는 성급함보다는, 오히려 1에서부터 한 단계씩 밟아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내적인 자기 만족이야말로 외적인 출세가 아닌, 참된 의미의 성공이 아니겠는가.

영어에 ‘IFD병’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from Idealism(이상향) to Frustration(좌절감) to Demoralization (타락 또는 사기저하)’이라는 표현을 단축시켜 놓은 복합 조성어이다. 즉 ‘IFD병’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신적인 부적응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자신의 능력이나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높은 이상적 목표를 세웠다가 이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곧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타락하게 된다. 심지어는 IFD 병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자살까

지 하는 사람도 볼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세를 사는 우리 대부분이 일정 형태의 'IFD 병'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위의 고하, 지식의 유무, 덕망의 다소를 막론하고 인간은 누구나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발전 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환경, 위치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미래를 설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자기만족을 만끽하기도 한다. 따라서 좌절감이나 사기저하의 정도를 극소화시킬 수 있다. 반면, 자신의 능력이나 한계를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높은 이상을 꿈꾸거나 남이 하고 있으니 나도 해야겠다는 무분별한 욕심에서 남의 흉내를 내다가 쉽게 좌절감에 빠져 타락해 버리는 사람도 주위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옛부터 선조들은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의 분수를 알라” “뱀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자리를 보고 발을 뺀어라”는 등 다양한 격언을 통해 IFD 병에 걸리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경고해 왔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먼 곳에 있는 진

리만을 추구하다 보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서도 지나쳐 버리는 평범한 일상의 지혜 속에 참다운 진리가 있음을 간과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요즈음 신문의 사회면을 보면 'IFD 병'에 걸려 있는 인간들의 아비규환으로 머리가 혼탁해 진다. 그 뿐 아니라 IFD 병에서 IFDS로 옮겨가는 현상도 볼 수 있다. 즉 병적인 상태를 넘어 자살(suicide)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제 하나를 이루었으니 다음에는 능력에 맞도록 둘을 설계하며 차분히 전진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고민하고 좌절에 빠지는 것은 바로 잘못된 언어 성찰과 사고 방식에서 오는 것이다. 스스로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하면서 성공을 향해 한발 한발 다가가는 긍정적인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또 조상이 남긴 격언을 조용히 되새겨 보는 습관도 길러야 하겠다. 계속해서 씹어야 단물이 나오는 칩뿌리처럼 격언을 되씹어 보면서 단물을 맛보는 습관을 가져 볼 것도 좋을 것이다.

성공이란 외형적인 성공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무언가 발전 지향적인 목표를 세워 놓고 꾸준히

그 지향점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간 내면적인 변화와 그에 따르는 자기 만족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성장이나 성공의 의미는 바로 남을 위한 나눔, 섬김, 봉사 정신과 함께 결들여질 때 그 진가가 더욱 깊어지리라 믿는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세 번째로는 '금테 같은 삶'의 참된 의미를 음미해 보고자 한다. "금테요? 글썄요, 높은 분이죠, 뭐!" 학교나 관공서, 아파트단지, 공단 또는 공공건물을 출입하다 보면 금테 두른 모자를 썼거나 노란 줄을 댄 제복을 입은 수위나 경비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쓰고 있는 모자의 금테나 바지의 노란 줄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또 군이나 경찰의 간부급이 쓰는 정모의 금테에 대해서도 단순히 하급자들과 구분하기 위한 계급장 정도의 표시로만 이해하고 그 금테가 내포하고 있는 참 의미와 수위가 쓰고 있는 금테의 의

미가 근본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연유된 것임을 깊이 생각해 본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금테나 모자 챙에 수를 놓은 금박 또는 은박 표시의 기원을 정확히 추적하기는 어려우나 다만 해군에서 군함 갑판의 전방이나 상방에서 지휘자를 쉽게 식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여기서 금테의 기원을 정확히 추적하고자 함은 결코 아니다. 다만 금테나 노란 줄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함이 중요할 뿐이다. 그 의미는 바로 지휘자의 책임감과 사명감에 따르는 희생과 봉사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금테는 하급자 위에 군림함을 암시하기 보다는 봉사하는 정신을 일깨워 주는 자극제이며 상징적 표시인 동시에 이러한 공복(公僕)의 본분과 신분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식별시켜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자는데 숨은 뜻이 있는 것이다.

뿌리공원 조형품의 건립과 해주최씨의 공지

承 泰

(31세손 전 해주최씨상징조형물건립추진위 간사장)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최초의 뿌리공원이 전성환 당시 대전광역시 중구 청장의 창안으로 1997년 11월 1일 대전시 중구 침상동에서 준공됨에 따라 우리 문중에서도 동년 10월 13일자로 제43호 부지에 “해주최씨 상징조형품”을 건립하여 문중의 긍지를 높히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뿌리공원은 종전부터 유명하던 “안영동 수영장” 옆에 건설하였는데 경관이 좋아 앞의 저수지와 장수촌 큰 건물을 마주보고 있으며 입구에는 출렁다리와 뿌리공원의 돌간판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저수지에는 쾌속정과 소형 노릿배가 있고 또 물이 맑고 주변이 시원하여 피서지로도 한몫을 하고 있어 관람객이 꾸준히 찾아온다.

해주최씨 상징조형품 건립은 뿌리공원 건설소식을 들은 인섭(仁燮) 대전충청지회장(당시 수석부회장)의 조형물 건립 제안에 따라 지회임원 전원의 찬성으로 1997년 4월부터 건립사업에 착수하였다.



이때 [해주최씨 상징조형품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하였는데 그 구성원을 보면 고문에 상선, 병구, 지회장 덕룡, 현수, 진섭, 위원장 인섭, 부위원장 종흠, 기순, 봉수, 군일(병환), 순봉, 운서, 태식, 광덕, 은식, 한수, 감사 길수, 장섭, 간사장 승태(현모), 건립위원 순욱, 광준, 원구, 임구, 주궁, 봉성, 호준, 학수, 학근 익수(서울), 장섭(홍성), 병서, 상섭, 광국, 종민, 광룡, 을석, 인석, 형석, 병석, (이상 3인 서울) 홍선, 금동, 영보, 승무, 응국, 상철, 남천, 병덕, 성렬, 황섭, 준화, 준식, 종식, 광해, 재석, 광태, 지현, 재덕, 재봉, 병국, 시민, 시명, 동수, 건호, 성수, 병훈, 희원, 좌랑공파종회 고문 승건, 광민, 회장 광훈, 부회장 승균, 충섭, 광일, 사무국장 광서, 좌랑공파참판공종회 고문 윤식, 병학, 회장 상선, 부회장 숙현, 광국(인천), 득주종친 등이다.

총예산금액은 25,385,877원을 집행하였는데 임원들이 숭조애종정신으로 적극적으로 협찬하여 공사와 예산 집행이 약 20개월만에 완결되었다.

공사규모는 전경(全景) 앞뒤가 약 10m, 좌우폭이 약 6m, 경내에는 청동제 조형품이 화강석 좌대위에 전체

높이 약 2.7m로 남들보다 우수하게 (김석우 교수 작품) 세워졌으며 좌대 앞면에는 “해주최씨의 유래”문이 뒷면에는 “협찬종친의 방명”이 조각되고 옆에 건립된 오석시비에는 문헌공선조의 계이자시와 시좌객 등 두 시문이 앞뒤로 조각되어 있어 공원내의 유일한 시비(詩碑)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현장을 돌아 볼 때면 뿌리공원을 찾아오는 종친들이 아 여기다! 하고 반기며 구경하고 기쁜 얼굴로 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건립당사자인 우리들은 [참으로 잘 세웠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며 “만일 이것을 건립하지 못하였다면 모처럼 방문하는 종친들이 얼마나 애써 찾아 헤매다가 실망하고 돌아갈까”하고 우리들의 성취감에 마음 흐뭇해하며 뿌리공원을 건설하여 성씨조형품을 건립하도록 하여 준 관계당국에 감사와 조형품 건립에 협찬하여 준 종친제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성씨상징 조형품이란 다만 성씨 홍보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한 문중의 상징물로서 종친들이 자기의 문중을 배우고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며 아울러 조상에 대한 존숭심(尊崇心)을 배양하고 효심(孝心)을 더욱 싹트게

하는 교육의 장(場)이 되는 것이다.

방문하는 어떤 종친은 기념사진과 함께 조형물 사진을 정성껏 찍어 가는가하면 또 어떤 종친은 조형물 사진을 찍어가며 [컴퓨터 CD롬에 실려 두고 어른 아이 모두가 문중과 조상을 배우겠다]고 하였으니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건립관계자로서 참으로 마음 흐뭇하였다.

수학여행으로 방문한 종친학생들은 숙제라고 하면서 성씨유래문과 시문의 요점을 공책에 열심히 기록해 가기도 하였으니 만일 우리 조형품이 없었더라면 어린 종친학생들이 찾아 헤매다가 돌아가며 우리 종중 전체의 기성세대에게 원망과 비난을 하며 돌아갈 것이 아닌가 하고 땀흘려 건립한 보람을 다시 느낀다.

일반 방문객들도 우리 조형품과 시비를 읽어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문중의 우월성을 홍보하는데도 큰 역할이 되고 있는 점에 마음 흡족하니 조형품 건립의 효과는 곧 이런 것들이다.

아직 건립하지 못한 타성씨의 방문객이 자기네 조형물을 찾아 헤매다가 필자에게 ×××씨 조형물은 못보았느냐고 물을 때 아는대로 대답해주며 이미 건립한 우리의 성취감에 다시 흐뭇해진다.

대전은 관광의 고장이어서 가까운 계룡산과 엑스포 과학공원, 대전동물원 등으로 이어지는 뿌리공원은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어 여기를 방문하는 종친만해도 1년간 약 1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우리 조형품 건립의 성과는 매우 큰 것이다.

끝으로 뿌리공원을 건설하여 준 대전광역시 중구청 관계자 제위와 우리 조형품 건립에 협력하여 준 종친제위께 다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종친제위께 바라는 것은 이 조형품이야말로 우리 문중의 유일무이한 상징물인 만큼 다 함께 소중히 여기고 영구 보전에 합심하여 후손들에게 이를 기리 물려주어 교육의 자료로 삼고 또 더욱 긍지를 가지도록 부언한다.

고죽 선생과 홍랑 이야기



이 상 보

(문학박사.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최 경창(1539~1583)선생은 해주 최씨로서 고려 때 문헌공 최 충의 18 세손이다. 조선조 중종 34년에 전라남도 영암에서 수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자는 가운데이요 호는 고죽이다. 명종 17년(1562) 24살 때 진사가 되고, 선조 1년(1568) 30살 때 문과에 급제해서 대동도 찰방을 지내고 함경도 북평사가 되었다. 선조 6년(1573) 35살 때 독서당에 들어가고, 예조와 병조의 원외랑을 거쳐 선조 8년(1575) 37살 때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 선조 9년(1576) 38살 때 사생사로 연경에 다녀와 성균관 전적이 되었으나 북평사로 있었을 때에 홍랑과의 일로 파직되었다. 그러나 바로 영광군수로 나갔고, 선조 10년(1577)에 대동찰방이 되었다. 선조

15년(1582)에 종성부사가 되었으나 당쟁의 파문에 밀려 파직되고, 선조 16년(1583)에 방어사 종사관이 되었다가 성균관 직강으로 부름받아 상경하던 중 종성객관에서 죽으니 향년이 45살이었다.

〈대동기문〉 권 2의 '최경창 팔문장이십팔수' 조에는 "천성의 자질이 호탕하고 상쾌하여 보는 이들이 마치 신선처럼 여겼다. 젊어서 이율곡(이), 송귀봉(익필), 최간이(입)들과 무이동에서 글로써 사귀니 세인들이 8문장이라 불렀다. 이미 정송강(철), 서만죽(익)과 같은 여러 선비들과 삼청동에서 놀았으므로 사람들이 또 28수라 기렸다. 재주가 뛰어나고 아울러 활을 잘 쏘니, 임금이 일찍이 문관들의 재주를 시험할 때에 한 무관

이 꺼려하므로 경창이 웃으며 말하기를 ‘그대는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오늘 몸이 아프다’ 하고 일부러 화살을 잘못 쏘았다. 또 거문고와 저에 뛰어나니 어려서 영암에 살 때에 임진란(명종 10년 을묘왜란의 잘못 적음인 듯:필자 토)을 맞아 왜적이 밀려와 배를 타고 피하자 적이 포위했는데 달이 밝아 경창이 지냈던 옥통소를 부니 적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두 고향을 그리워하며 말하기를 ‘이 속에 반드시 신선이 있다’ 하고 포위를 푸니 이에 벗어날 수 있었다. 명나라 학사인 난우 주지번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의 시를 얻어 보고 탄복하기를 ‘마땅히 돌아가 강남에 퍼뜨리어 이 나라에 문물이 흥성함을 드러내리라’고 했다.”

이는 일찍이 박세채가 <고죽시집> 후서에 적어 놓은 선생의 행장을 이끌어 쓴 것이었다.

고죽선생은 그 때에 옥봉 백관훈과 손곡 이달과 함께 이른바 삼당시인으로 칭송을 받았으니 종래에 송나라의 시풍에 젖어있던 이 나라의 시단에서 당나라의 시풍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허균은 <성수시화>에서 “최고죽의 시는 날래고 굳세어 편마다

모두 좋다”고 했다.

또 이수광도 <지봉유설>에서 “우리나라 시인들은 많이 소식과 황정견을 좋아해서 2백년간을 모두 한 투식을 따랐으나, 요즈음에 와서 최경창과 백광훈이 처음 당시를 배워 맑고 괴로운 시를 지으려고 애썼으므로 ‘최백’이라고 불리워 일시에 그들을 본받아 거의 종래의 습관이 바뀌었다”고 했다.

또한 홍만종도 그의 <소화시평>에서 “내가 일찍이 여러 선배에게 듣기를 ‘우리나라의 시는 오직 최고죽이 종시 당나라의 시를 배워서 시격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 바가 있다.

선생은 성품이 맑고 깨끗해서 예술적 재능과 무인적 기상을 지녔으며, 권력과 당쟁에서 초연했으므로 고난을 받기도 했었다. 그러나 당시풍의 현실고발과 변새시의 경지를 드러낸 시를 남겼다. 또 남녀간의 사랑과 민중의 희노애락을 노래해서 순수한 서정시를 짓기도 하고, 주정적 특징을 진솔하게 표출함으로써 이 나라 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다.

그런데 고죽선생과 홍랑과의 사랑 이야기는 한국문학사에서 그 애뜻함과 함께 오래 전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아름다운 담시가 되어 있다.

“뫓벼들 곁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
손뎨

자시는 창 밧긔 심거 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 넙곳 나거든 나린가도
너기쇼셔”

이를 좀 쉽게 풀자면 ‘산에서 자라
고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임
에게 보내드립니다.

주무시는 창문 밖에 심어 놓고 보
아주소셔. 밤비에 새로운 잎이 돌아
나거든 내가 입을 보고 자 난 것이라
고 여겨주소셔”라는 뜻이니 그 얼마
나 애뜻한가?

이는 홍량이 지은 것으로 <악학습
령>등 여러 시조집에 실려 있다.

그리고 <고죽집>에도 이를 ‘번방
곡’이라고 번역해서 실려 있으니 그
한시는 이렇다.

절 양 류 기 여 천 리 인
折 楊 柳 寄 與 千 里 人

위 아 시 향 정 전 종
爲 我 試 向 庭 前 種

수 지 일 야 신 선 엽
須 知 一 夜 新 先 葉

초 채 수 미 시 첩 신
慙 悴 愁 眉 是 妾 身

이 노래의 내력은 이렇다. 고죽선
생이 선조 5년(1572)에 함경도 북평
사가 되어 경성으로 나가 있을 적에

홍원 태생인 홍량도 그곳에서 선생을
섬기고 있었다. 그 이듬해인 선조 6년
(1573) 봄에 선생이 독서당으로 불리
워 서울로 돌아오게 되니 홍량이 쌍성
(영흥)까지 따라와서 작별하였다. 그
들이 함관령(함흥과 홍성의 경계에
있는 재)에 이르러 날이 저물고 마침
비가 내리니 이 노래를 지어 고죽에게
보냈다. 그 뒤에 3년이 지난 선조 9년
(1576)에 고죽이 병들어 봄부터 겨울
까지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은 홍량이
7주야를 내달아 서울로 찾아왔다.

그 때 함경도와 평안도에 금족령이
내려 있었고, 또 명종비인 인순왕후
심씨의 승하하여 비록 연제는 지냈으
나 이것이 말썽이 되어 고죽은 파면되
고, 홍량도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고죽과 홍량의 애끓는 사랑
이야기는 <대동기문>과 <홍원읍지>
등 여러 곳에 나오고, 특히 정조 때
조종섭이 엮은 <해동시선>(신라, 고
려, 조선의 명시만을 골라 실음)에는
두사람의 시가 실려 있다. 곧 홍량의
‘최고죽에게 보냄’(기최고죽)이란 시
가 있으니 다음과 같다.

“기최고죽 최고죽에게 보냄

상 관 맥 맥 증 유 란
相 看 脈 脈 贈 幽 蘭

서로 보기 그리워 유란을 보냅니다.

차 거 천 액 기 일 환
此 去 天 涯 幾 日 還

이제 멀리 떠나면 언제나 돌아올까?

막 창 함 관 구 시 곡
莫 唱 咸 關 舊 時 曲

함관령 옛 노래를 부르지 마십시오.

지 금 운 우 암 청 산
至 今 雲 雨 暗 靑 山

오늘은 구름비에 푸른산도 어둡겠오.”

그리고 그 시의 난외에 “최고죽이 세상을 떠나자 홍랑은 용모를 흐트리고 파주에서 그의 무덤을 지켰다.”고 적어 놓았다.

그리고 고죽도 홍랑에게 시 한 수로써 도타운 정을 나타냈으니

인 린 쌍 차 륜
麟 麟 雙 車 輪

쌍수레 바퀴는 덜컹거리며

일 일 천 만 전
一 日 千 萬 轉

하루에도 천만 번 구르건마는

동 심 부 동 차
同 心 不 同 車

마음은 같은데 수레는 함께 못타

별 리 시 누 변
別 離 時 屢 變

헤어져 있으려니 마음이 갈팡질팡

차 륜 상 우 적
車 輪 尙 友 跡

수레바퀴는 오히려 자취를 남기지만

상 사 인 불 견
相 思 人 不 見

그리워해도 볼 수 없는 임이여.”

라고 노래하였다.

일설에는 고죽이 종성부사로서 2년 임기를 마치고 성균관 직장으로 부름을 받아 서울로 돌아가던 중에 첩실인 홍랑은 덕풍역(서울에서 약100리 거리)에 머물고, 고죽은 왕십리에 이르러 하룻밤을 묵었는데 어떤 자객에게 살해되었다고 한다. 덕풍역에서 고죽을 기다리던 홍랑은 한 달이 넘어서야 이 슬픈 소식을 듣고는 바로 고죽이 묻혀 있는 파주로 달려가서 무덤 옆에 묘막을 짓고, 9년동안 무덤을 지키다가 임진왜란으로 선조가 의주로 몽진하자 할 수 없이 고죽이 남겨놓은 시고를 거두어서 고향인 홍원으로 피란했다. 그러다가 홍랑도 죽은 뒤에 그미가 “내가 죽으면 남편 옆에 묻어 달라”고 유언한대로 파주군 교하면 청석리 산기슭에 있는 고죽의 무덤 옆에 나란히 안장했다고 한다. 고죽이 죽자 그의 묘를 지키며 수절한 홍랑이기에 지금도 최씨 문중에서는 홍랑을 기리어 함께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고향에 두고 온 산하

吉 垓

(대종회장 · 교리공파 종친회 고문)

1. 개 황

해주최씨 15세 휘(諱) 린(璘)을 파조로 하고 있는 우리들 교리공파의 요람지요 영원한 고향인 자달마을은 황해도 연백군 호남면 자봉리의 자달마을로써 자봉형(雌鳳形)의 아름다운 당웅산(棠雄山:일명 雌鳳山)이 자애롭게 감싸안고 있는 마을이며 이 땅이야말로 교리공파의 역사를 처음으로 열어준 산하이며 그간 500년의 역사가 아로 새겨져 있고 교리공 후손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마을인 것이다.

이곳은 본시 연안군에 속해 있었으나 일제 통치초인 1914년에 연안군과 백천군이 합군함에 따라 연백군이 되었으며 호남면은 그 위치가 연안군의 명물이었던 남대지(南大地:일명 臥龍地라고도 부른 상당히 큰 물이

얕은 호수였으나 일제 말에 대대적인 개간사업으로 현재는 비옥한 농토로 변해있음)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얻은 면의 명칭이며 자봉리는 그 이전 오래전부터 자봉형의 당웅산이 감싸안고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얻은 명칭인 것이다.

호남면은 연백군의 군청 소재지인 연안읍에서 남쪽으로 4km정도 떨어진 곳으로 그 남쪽은 한강 하구의 서해 바다에 연접해 있고 강화군(현재는 인천직할시) 교동섬에서 직선거리로 2, 3km에 불과한 휴전선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6·25사변 전에는 서울의 마포나루에서 뱃길로 한, 두시간 걸리는 지근거리에 있다.

고향에서 제가 살던 집 뒤의 야트막한 언덕에 수령 수백년이 된 큰 은행나무가 있으나 그 나무 아래서 멀

리 동쪽을 바라보면 청명한 날씨에는 흡사 유관(儒冠)과 같은 아름다운 자태의 삼각산이 선명하게 보이는 곳으로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100리 남쪽 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연백군은 남북의 중간지점을 북위 38도선이 지나고 있어 자달마을은 6·25사변 이전에는 38도선 이남지역으로 대한민국에 속해 있었으나 6·25사변 후 휴전협정으로 휴전선 바로 북쪽에 위치하게 되어 정감록(鄭鑑錄)의 예언대로 임진이북 재작호지(臨津以北 再昨胡地)가 된 통한의 미수북 지구가 된 곳이다.

당웅산은 황해도의 중추산맥인 멸악산맥에서 분지하여 수백리를 달려와 황해 바다가 휘감고 있는 이곳에 청수한 쌍태봉의 탐랑길성(貪狼吉星)을 머무르게 하여 호남면의 진산(鎭山)이 된 명산이며 이 안에 황해도 팔명당(八明堂)에 드는 대혈이 있다고 하여 팔당웅으로 불리는 그야말로 명산인 것이다. 그 명당이 흑자는 갈마음수형(渴馬飲水形)의 파평윤씨의 묘라고 하고 또 흑자는 자봉포란형(雌鳳包卵形) 또는 금계포란형(金鷄包卵形)으로 알려져 있는 교리공 선조님의 묘소인 해주 최씨 묘라고 하나 어쨌든 양자가 다같이 백

자천손(百子千孫)하고 만대 영화를 누릴수 있는 천하대지인 명당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어릴적에 마을 촌노로부터 자주 들은 이야기지만 당웅산에는 4제갈 5진평 즉 제갈공명과 같은 명사(名師)가 네명이 나고 진평과 같은 명 재상이 다섯명이나 나오는 대혈이 있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이 대혈이 윤씨묘를 가리키는 건지 또는 최씨묘를 가리키는 건지 또는 다른 제3의 대혈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당웅산 밑에 천하명당이 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말인 것이다. 고향에 있을 때 저녁 노을에 휘감겨 있는 당웅산을 멀리서 바라보면 쌍태봉에서 서기를 뿜어내는 듯 하여 참으로 아름다웠던 산 모양이 지금도 불현듯 떠오르곤 합니다.

파조이신 교리공 선조님께서 젊었을 때 장래의 재상감으로 촉망받던 유능한 선비였으나 잦은 사화(士禍)로 뜻을 충분히 펴지 못하고 관계의 영욕에 환멸을 느껴 연산군 4년 무오사화때(1498년) 승무원 참교 벼슬을 버리고 후손의 요람지로 이곳 황해도 연안땅을 선택하여 낙향하신 후 자봉포란형의 유택을 손수 잡아 잠들어 계시고 그후 세 아드님이신 광산군수,

희천군수, 백천군수는 물론 그 후손들이 대부분 이곳에 묻혀 잠들고 계시며 또한 우리들의 태가 묻혀 있는 곳으로 교리공파에게는 다시 없는 성지요 영원한 요람지가 된 곳입니다.

그후 교리공파는 조선조의 서북인 물요등용정책 때문에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였으나 연백군내에서 으뜸가는 토착 선비집안으로 그 수가 약 2,500명에 이를 정도로 번창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6·25광풍 때문에 다른 마을에 비하면 그다지 크지 아니한 피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공산군 퇴각 때 또는 도강 남하할 때 공산당의 학살이나 인민군의 저격 또는 지뢰 등으로 마을의 젊은이들이 희생당하는 아픔을 겪었고 제가 살던 100년 가까이 된 고가가 1·4후퇴 후 유엔군의 폭격으로 기와가 산산조각이 나 온 마을을 덮을 정도로 완전히 폭파 당하는 등 전흔이 여기저기 남기도 하였으며 특히 9·28수복 후 공산군 퇴각 당시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반동분자나 반역자들을 납치하여 즉석에서 만든 죽창이나 칼 창으로 이들을 난자하여 학살한 현장을 목도하고 정치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인간성이 이렇게까지 잔혹할 수 있는건지 전율에 몸을 떨었던 기억이

지금도 뇌리에 생생합니다.

여러번의 후퇴와 수복을 반복하면서 적지 아니한 종친들이 남부여대 혹은 단신으로 월남하여 서울 인근에 정착함으로써 무오사화 때 교리공 선조님께서 떠나온 고향인 한양땅에 500년만에 우리들이 다시 환 고향을 하게 된 격이 된것입니다. 그후 남하한 종친들이 한국 현대사의 격동속에서 이산가족의 서로움을 새기며 나름대로 생활 터전을 잡고 상호 친목을 돈독히 하면서 교리공파 종친회는 물론 대종회의 창설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와 공헌을 하고 있음은 참으로 고마웁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향에 있을 때 촌노로부터 교리공 선조님의 후예들은 봉황새의 둥지인 자봉리를 떠나 외지에서 살아야 성공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어쨌건 우리들은 둥지를 떠나온 봉황새나 다름없이 되었으니 더욱 종친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서로 도와주며 격려하고 아껴주는 기풍을 조성하여 우리들의 후손들이 그야말로 창공을 힘차게 나를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하한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부자간의 이산, 부부간의 이산, 형제간의 이산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겨레의 슬픔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막강한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강성대국만을 추구하고 이미 세계적으로 실험이 끝난 공상이데올로기만을 끝까지 고집하는 군상들 때문에 통일전망이 전연 보이지 아니함은 참으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리공 선조님께서 1498년에 연안 땅에 입향 하심으로써 1998년은 교리공파의 역사를 연지 꼭 500주년이 되는 해임으로 500주년 기념행사로 경기도 오산시에 소재하는 문헌서원 경내에 느티나무 두 그루를 심어 기념헌수를 하였고 또한 경기도 양주군 남면 상수리에 소재하는 재북(在北) 선조님들의 시향제당 앞에 소나무 두 그루를 기념식수하였으며 그리고 강화섬 서북쪽에 있는 교동섬 서한리에서 교리공 선조님의 묘소가 있는 당웅산을 향하여 500주년기념 망향제를 성대히 올린바 있습니다.

야트막한 언덕에 차린 망향제단에서 고향 떠나온지 반세기만에 바라보는 고향산천은 의구한데 고향에 살고 계시는 아버지와 자녀들. 그리고 남편과 아내들.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생사는 물론 소식조차 알길이 없으니 교동섬과 연안땅 사이를 흐르고 있는 한강하구의 서해바다는 우리들에게

는 그야말로 통곡의 바다로 변하고만 것입니다.

이산가족의 절절히 흐르는 슬픔과 아픔을 외면하고 또한 한겨레의 통일을 염원하는 7,000만 동포의 비원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분단의 장벽만을 높게 쌓고 칼을 가는데 여념이 없는 군상들이야말로 겨레의 영원한 역적으로 단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사를 마치고 함께 드는 음복주 잔위에 절절히 흐르는 통곡의 눈물을 그 누가 있어 닦아줄 것인지 오직 조국강산을 향하여 다시 한번 두손 모아 이 땅의 통일을 간절히 빌 뿐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따금씩 아름다운 고향산천의 모습이 자주 떠오르곤 하지만 이 산천에 봄이 오면 온 마을은 살구꽃 복숭아꽃으로 수놓아지고 인근 부락의 처녀 아가씨들이 청명한식의 따뜻한 봄 하늘아래 울긋불긋한 봄 나들이 옷으로 치마자락을 날리며 당웅산에 올라 삼삼오오 나물 캐는 정경은 참으로 낭만적이고 정겨운 풍경이었으며 여름철에는 산자락에 있는 노송나무에 두루미 황새들이 등지를 들고 새로 태어난 아기새를 키우며 두둥실 떠 있는 흰구름 아래로 산허리를 유유히 나르는 군무(群舞)는 참으로 평화로운 한쪽의 그림

을 연상케 하는 풍경이었으며 가을에는 기러기 날아가는 산마루에서 풀베는 초부(樵夫)의 구성진 가락이 동리에까지 메아리쳐 애뜻한 가을상념을 불러 일으키게 하였으며 겨울에는 산자락을 휘감고 있는 소나무 숲에 흰눈이 소복이 쌓이고 그 위에 백설에 뒤덮인 쌍태봉이 다소곳이 솟아있는 모습은 진정 한폭의 그림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평화로운 이 마을에서 해마다 당웅산 산신제와 교리공 시향제를 초봄과 초가을에 성대하고 정성되게 올리고 있었으나 공산치하에서 지금은 그 맥이 끊긴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2. 당웅 산신제(棠雄 山神祭)

매년 음력 2월 두 번째 정일(丁日)에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올리는데 그 효염이 매우 특출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10일동안 진행되는 제사 기간중에는 어김없이 지독한 봄 추위가 한번씩 찾아와 인근 마을 사람들도 자달 마을의 제사때가 되었음을 자연스럽게 알 정도로 그 인근에서는 유명한 산신제인 것입니다.

2월 첫 번째 정일(丁日)전에 마을의 최 연장자인 도유사(都有司)가 제사소

임을 맡을 유사(有司) 네 사람을 선정하여 본인에게 통문을 전달하면 지명된 네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락하였고(아무런 이유없이 이를 거절한 때에는 후에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재앙이 발생하여 후환이 뒤따랐다는 사례가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유사 네 사람중 두명은 상소임(上所任)으로 헌관과 축관이 되고 나머지 두 사람은 하소임(下所任)으로 제수의 준비등 제반 잡무를 맡게된다.

유사 네 사람은 통문을 받은 즉시 자기집 대문입구에 소나무가지(松針)를 걸어서 유사로 선임된 것을 표시하고 일절 외인 출입을 엄금하고 매일 이른 아침에 장막을 두른 우물에서 찬물로 목욕재계하며 소복 소찬으로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제사 기간 중 마을사람들도 살생이나 가무 음주를 금하여야하며 말이나 차를 타고 동리를 다니는 등 불손한 행동을 삼가고 마을전체가 숙연한 자세로 제사에 동참하는 몸가짐을 가져야 한다.(제사 기간 중에 말을 타고 당웅산 제단 밑을 지나가다 낙마하여 크게 부상한 사례가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전 주민은 빠짐없이 제사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하소임을 맡은 유사가 배랑을 메고 호별방문을 하면 자진해서

호당 5홉씩의 백미를 거출하게 된다.

제주(祭酒)는 당웅산 정기를 받은 술을 빙는다는 뜻에서 초정일에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당웅산 남쪽에 있는 독서동(讀書洞)제단 옆 양지바른 지하에 주보를 묻어 숙성토록 하고 거출한 백미 중에서 제주와 떡살을 제외한 나머지 백미로 과채류 등을 준비하게 된다.

제사 2일전에 독서동 제단에 마장(麻帳)을 두루고 자리를 정돈한 후 네 사람이 함께 목욕재계와 소찬으로 이틀간 거처하고 중정일 새벽에 제수를 진설하고 상단에는 상소임이, 하단에는 하소임이 자리하여 분향·강신·재배를 하고 헌주, 독축 등으로 정성껏 제사를 올리고 음복 철상한 후 하산하여 그 다음날까지 목욕재계를 하고 모든 행사를 마치게 된다.

자달마을은 낙향시조인 교리공의 후손들이 자자 일촌을 이루어 사는 마을로 다른 마을에 비하여 혈연적인 공동체적 성격이 강함으로 통일 후에도 당웅산 산신제는 계속하여 거행함으로써 온 동리사람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동리의 안전과 풍요, 그리고 화목과 발전을 위하는 마음가짐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제사 당일에는 마을의 유사, 또는 유지들이 제사에 함께 참집하여 제례에 참가하고 제사를 마친 후에는 함께 음복주를 들면서 마을의 발전을 위한 대소사를 논의하는 등 하여 산신제가 마을발전을 위한 행사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 교리공 시향제(校理公 時享祭)

저에게 17대조가 되는 교리공의 묘소는 명당답게 묘소 아래 양옆에는 두 개의 샘물이 년중 솟아 나오고 있어 그 앞에 꽤 큰 연못이 있으며 그 연못 옆에 망해당(望海堂)이라는 누각을 가지고 있는 고색찬연한 제각(祭閣)이 있는데 이 제각에서 제수 등 모든 준비를 한 후 묘소 앞에 교리공의 후손 수백명이 참집하여 가을에 한번씩 제향을 올리고 뒤이어 종종 대소사를 논의하는 행사로써 교리공 시향제는 마을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성대한 년중 행사로 1·4후퇴 전까지 각별한 관심속에 행해진 행사인 것입니다.

제각에 있는 망해당루는 교리공 선조님의 아호인 망해당을 따서 지은 누각이며 아호는 교리공께서 낙향하

실 때 마포나루에서 해로를 따라 연안땅에 입항하신 후 멀리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이곳에서 바다 건너 멀리 있는 고향땅 한양을 생각하며 아호까지도 망해당으로 지으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시향은 일반적으로 음 10월 초·정일(初·丁日)에 올리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으나 교리공 선조님의 기일(忌日)이 음 9월 19일이므로 시향제는 매년 음 9월 중·정일(中·丁日)에 거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며 제향 절차는 타 문중과 동일하게 종중의 어른이신 도유사(都有司)께서 유사들과 상의하여 축관 등 여러제관을 지명하고 초헌관은 언제나 대종손이 담당하며 아헌관과 종헌관은 문중에서 가장 연로한 분이나 문중에 공로가 있는 분중에서 지명하게 된다.

우리나라 전통사상의 가치체계는 효(孝)가 중심이 되어 숭조사상(崇祖思想)과 가족 및 가문 사랑을 거쳐 이웃과 나라 사랑인 충(忠)사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숭조사상은 우리민족이 오랫동안 간직해오고 또한 실천해 온 고유한 아름다운 전통문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지에 흩어져 살던 후손들이 일년에 한번씩 선조 묘소 앞에 모여 먼저

이 세상을 살고 가신 선조님을 생각해 보고 또한 앞으로 영구히 계속될 후손들을 생각해 보며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로서 우리들의 심성(心性)을 순수하게 함양시켜 주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행사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신 자유주의에 의한 정보화와 세계화의 격랑속에서 우리들의 전통사상과 고유문화가 하나 둘씩 사라져 가는 현실을 생각할 때 이러한 행사는 통일 후에도 현지에서 영구히 보존유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운 1000년이 시작되는 2000년 초봄에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해 보니 21세기에는 어떤 모양이든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나와 같이 70고개를 훌쩍 넘어선 피난 1세대들은 대부분 고향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고향산천에 잠들고 계시는 여러 조상님들의 가호로 교리공과 후손들에게 큰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붓을 놓고자 합니다.

인천을 새로운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仁川廣域市長 箕善宗親이 밝혀

乙 善
대중회부회장



우리 종문의 자랑이요, 청백리 만리공의 후손이요, 이 시대 양심의 마지막 보루인 최기선 시장은 취임 후 목민관으로서 난마같이 어두웠던 인천의 미래를 밝고 희망찬 새로운 인천으로 바꾸어 놓았다. 최시장은 취임사에서 세계 속의 인천 위대한 인천의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in-port 개발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세계를 향해 비약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천의 구체적인 모습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복지 등 삶의 질의 분야에서도 최상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리고 인천TV 방송국의 설립, 인천 국제공항으로의 주체적이고 자긍적인 명칭을 확정하였고, 미디어벨리 유치 등을 통해서 인천시민이 긍지와 자긍심을 국내외에 당당하게 선언하였다. 아울러 시정의 방향을 인간존엄성의 회복과 '삶의 질의 향상'에 목표를 두어 시민들의 소망과 시민들의 꿈을 현실화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인천은 좌절과 낙망과 낙후에서 서울·부산·대구 다음에 가는 과거의 미추홀이 아니고 서울·부산 다음가는 미래의 땅이요, 그리고 부산에 다음 가는 대도시로서 발돋움하고 있다. 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를 객관적으로 조명하기 위하여 2001년 2월 9일 문화일보 기자와 인터뷰한 글을 인용해 본다.

“인천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 송도신도시·인천지하철 1호선·월드컵경기장 건설, 용유도·무의도 국제관광단지 조성... 정말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는 얘기가 실감납니다. 이제 인천을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갈 만반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최기선(55) 인천시장은 8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의 앞날에 대한 자신의 ‘장비빔’ 구상을 차분히 털어놓았다. 서울의 관문이자 인구 250만명의 대도시 시장을 8년씩이나 맡은 전국 최장수 광역단체장으로서의 자신감 때문일까.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최시장은 “이제부터가 중요한 만큼 국운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각종 경제와 민생에 관련한 현안들을 직접 챙기겠다”며 의욕을 과시했다. 그 때문에 최시장은 울들어 그 좋아하던 술도 끊었다.

— 올 한 해 인천은 매우 바쁠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올해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월드컵용 문화종합경기장 완공 등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추진되어 오던 대형 사업들이 결실을 보는 해입니다. 언제 이런 일들을 벌였나 싶을 정도입니다. 제2연륙교 민자사업

자 선정, 송도신도시 입주, 용유도와 무의도 국제관광단지 조성 등 대형 사업들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 중차대한 이들을 앞두고 건강관리도 신경 써야 하겠습니까.

“그래요 요즘 술자리에 일절 안나갑니다.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죠. 건강은 아주 좋습니다.”

— 인천공항이 다음날 29일 개항하더라도 지역 경제에는 큰 도움이 못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항 취업자만 올해 4만5천명, 내년에는 8만5천여명에 이릅니다. 굉장한 숫자 아닙니까. 공항 주변에 상주하거나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리 여건상 대부분 인천시민들이 고용될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지역 경제나 고용 유발 면에서 효과가 클 것입니다.”

— 송도 신도시 조성사업은 어떻습니까.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들어 송도신도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독일 뮌헨대 과학기술센터와 프랑

스 업체 등이 송도신도시내 산업단지
에 대한 투자 진출을 고려하고 있습
니다. 다음달부터는 테크노파크 본부
동과 시험생산공장을 잇따라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 입주를 희망하는 110
여개 업체를 상대로 우선적으로 분양
에 나설 계획입니다.”

– 그렇지만 아직 송도신도시와 긴
밀한 관련이 있는 인천공항 제2연륙
교는 착공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제2연륙교 건설문제로 용유
도와 무의도, 국제관광단지 조성건과
함께 국토개발원의 민간투자심사위
원회에 상정돼 타당성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통과될 예정인
데, 그 뒤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때엔 외자
유치도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 대우자동차 사태에 다른 여파가
큽니다.

“사실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시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습니까. 우
선 협력업체들에 56억원의 경영안정
자금을 긴급 지원중입니다. 또 시민
단체들과 함께 대우자동차 살리기운
동도 벌이고 중앙정부와 채권단에 근
로자들을 배려해 달라고 기획 있을
때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복지부
동을 문제삼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 사회의 분위의 쇠퇴가 필요
하고요.

“일부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은 과감
히 퇴출시키고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
는 공무원들을 적극 기용한다는게 나
의 철학입니다. 잘한 건 칭찬하고 잘
못된 건 깨우치게 해 인천시의 공직사
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생각입니다.”

– 그동안 대형사업들에 밀려 문
화·복지사업 분야가 관심 밖으로 멀
어져 온게 사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의 1%를 문화예
술진흥기금으로 배정했고, 144억원
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매년 같은 방
법으로 기금을 1000억원까지 늘리려
고 합니다. 우선 기금이 300억원만
되면 무화재단을 세울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무화재단이 시민들과 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 그동안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가
장 아쉬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안타깝고 가슴 아팠던 기억
은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고입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데 대해
다시 한번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민들과 부하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을텐데요.

“의식수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천시민이 아니라 세계시민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국제화 되고 다기능적인 도시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둔감해지면 낙오됩니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자기전문분야의 실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동북아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시민 모두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 가운데 한가지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최시장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저녁 회동 횟수를 줄이고 새벽 조깅을 시작할 생각이다. 김영삼 전대통령의 비서 출신으로 정치를 시작해 현재 자민련에 적을 두기까지 정치적 격변에 따라 당적을 옮겨야만 했던 그였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역량을 인천의 미래에 바치겠다”고 몇번이나 다짐했다. 최시장은 머지않아 송도신도시나 국제관광단지 조성 같은 굵직굵직한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겪은 경험과 후일담을

모아 책을 펴낼 생각이다.

<2001년 2월 9일자 문화일보>

변화란 무엇일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 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만물은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보다 새로운 것으로 보다 희망적인 것으로 그 변혁과 발전의 주체가 우리 해주최씨 우리의 같은 핏줄이라는 데에 자랑스럽고 감격스럽다. 그는 탁월한 정치가로 뛰어난 행정가로 미래를 예견하는 선각조로서 그는 이 시대에 가장 선두에서 우리를 이끌고 있다. 끝으로 그에게 부탁하는 말을 그가 즐겨 애독하는 채근담의 일절로 대신해 본다.

士大夫居官 不可우片賣無節 要使人難見 以杜倖端 居鄉 不可崖岸太古 要使人易見 以敦舊好라 하였다.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벼슬자리에 있을 때는 편지 한 장이라도 절도가 있어야 한다. 이로써 요행을 바라고 모여드는 무리에게 틈을 주지 않으며 물러나 시골에 살 때는 지나치게 높이 굴지 말 것이니 스스로의 마음을 헤쳐 놓아 옛날의 정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文德齋에 崔子와 崔忠憲



康 勳

(김포지역, 현감공파, 부회장, 三十七世孫)



金浦宗門 時祭 양11月 셋째 일요일 두번에 나누어 일시에 봉사함

우리 나라 儒學道統의 큰 맥이 되어 수백년간 고려조 후학들의 밑거름이 되어 주신 文憲公과 묵묵히 道와 義로써 기리 기리 나라의 동량이 되

셨던 忠憲公을 우리 家門의 증표로 삼기 위하여 문덕재에 모셨다. 記文은 다음과 같다.

三十七世孫 康勳



金浦門中 齋閣 “文德齋”

崔冲

최충은 고을 아전 溫의 아들이다. 풍모가 훌륭하고 지조가 굳으며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글을 잘 지었다. 이들을 구재에 응하는 이들은 반드시

高麗穆宗 때 甲科에 壯元급제 하여 벼슬은 開府儀同三司守太

師兼 門下侍中上柱國內司令에 올랐고 시호는 文憲이다.

開城 古蹟에 이르기를 高麗顯宗 이후 병란은 겨우 그쳤지만

나라에서 아직 文教를 펴져를 이 없음을 알고 문헌공 최충이

후진들을 가르치기에 힘써 오다가 마침내 紫霞洞에 九齋를 열었다.

구재의 이름은 樂聖齋, 大中齋, 誠明齋, 敬業齋, 造道齋, 率性齋, 進德齋, 太和齋, 待聘齋이다.

과거에 응하는 이들은 반드시 구재에 입문 수학하게 되었으며 이는 최충 사후에도 계속 되었다.

이들을 文憲公徒라 칭하였는 데 세간에 있었든 十二徒중가 장성하였다.

우리나라에 학교가 冲으로부 터 시작되었다 하여 공을 海東孔子라 칭하였다.

—東國與地勝覽—

儒學史上 公의 위치를 대개 箕子—薛聰—崔冲—安珦—을 그 연원의 道統으로 삼고 있었으며 고려 조정에서는 문무를

겸비하여 出將入相으로 나라의 기를 다지는데 공이 컸다.

수는 八十三세 이었다.

—崔冲研究論叢—

崔有滄

최유엄은 滋의 아들이다.

천성이 온후하고 청렴하여 십

년 동안이나 한 자리에 봉직

하면서 도 승진을 구하지 아니

하였음을 듣고 高麗忠烈王이

등용하여 벼슬이 都僉議贊成事

에 이르렀다.

侍中이 우리 三韓을 보존 하였

다고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을면서 기뻐 하였다.

벼슬이 정승에 이르러 네 임

금을 내리 섬기니 마침내 朝野

모두가 의지하는 나라의 원로

가 되었다.

—東國輿地勝覽—

시호는 忠憲이다.

元나라 황제가 우리나라의 어

진 신하를 보내라 하여 유엄이

元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우

리나라를 元의 省으로 하고 世

祿·奴婢法을 고치려는 음험임

이 있었다.

이에 공이 힘써 간청하여 그

일을 중지하게 하였다.

公이 忠肅王 十二년 八十五세

에 귀국하자 나라 사람들이 崔

公이 나이 九十이 되신 해 忠

肅王은 兩府의 신하들에게 公

의 저택에 나가 위로하는 연회

를 열게 하시고 치하하는 교지

도 내리셨다 왕은 또 公의 초상

화를 벽에 그려 후세 사람들에게

게 공적을 전하라고 명하셨다.

公의 수는 九十三세 이시며

七十九년간 고려조의 다섯 임

금을 섬기셨다.

—海州崔氏家藏—

숙원인 “長山齋”를 건립하다



형 일

(進士公派 宗親會長)



진사공파 당진 문중 長山齋

1. 長山齋 건립

충남 당진의 구로지에는 해주최씨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 있다. 500년전에 이곳으로 낙향하신 17세

이 진(璉) 할아버지의 자손들이다. 이분은 최만리 할아버지의 증손자로서 아버지이신 숙손은 조선왕조의 성종때 문과에 급제하여 진사에 오르고 통정대부(정 3품)와 예빈사

(禮賓寺), 그리고 집현전 부제학을 하시었다.

이와같이 숙손은 훌륭한 조상들의 대를 이어 조선왕조의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집현전의 부제학이란 높은 위치에서 왕의 측근으로 있으면서 연산군의 폭정에 왕의 면적에서 직언으로 올바른 정치를 할 것을 주장하시다가 남해로 귀향을 하여 癸亥 10월 13일에 남해 귀향지에서 돌아가셨다. 숙손은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고관 벼슬을 한 집안이고 성품이 훌륭하여 극형을 면하고 대신 귀향을 보내었다. 이분은 아들 여덟을 낳았는데 세신(世臣), 원향(元享), 시동(時東), 중석(重錫), 곤(琨), 성민(聖敏), 진(璉), 림(琳)이다.

아버지의 귀향으로 인하여 자식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숨어살게 되는데 이때 넷째이신 중석(重錫)은 문경으로 피신하여 현재 문경에 집성촌을 이루었고 칠남이신 진(璉)은 당진으로 피신하시어 구로지에 집성촌을 이루었다. 그 이외의 아들들은 황해도와 남한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유독 당진과 문경은 오늘날까지 집성촌을 이루고 한 곳에 살고 있다.

숙손은 한 임금의 폭정으로 희생이 되고 가정이 풍지박산 되어 하루아침에 이산가족이 되고 만다. 그러나 연산군의 폭정도 오래가지 못하고 종종 반정으로 종종이 즉위하여 다시 명예를 회복하게 되는데 사후에도 종종은 숙손을 이조판서로 임명하고 제사를 지내 혼이라도 위로해줄 만큼 덕과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다.

숙손의 아들인 진(璉)자 할아버지는 안동권씨와 혼인을 하였고 종종때 문과에 급제하여 通政大夫 工曹參議로 出補하여 魯城縣監, 즉, 지금의 公州부근에서 縣監을 하시다가 종종 계사 1월 28일 돌아가시고 충남 당진의 명산인 고산봉 산하에 영택을 모시고 있다. 이분 역시 훌륭한 가문의 자손으로 학문을 많이 하시고 가난한 백성의 편에서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 주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는 등 현감으로서 직분을 다하시었다. 노성현감은 청백리로서 재임 기간에도 청렴결백하여 재물을 멀리하고 재산이 없이 가난하였으며 돌아가신 후에도 묘소를 보통사람과 같이 수수하게 하시었다.

이분의 자손인 18세 여흥, 19세 정(선략장군), 20세 덕준, 21세 호룡, 22세 빈, 할아버지들은 고산동의 봉

화산, 구로지의 장산, 당진포리 등에 묘소가 있어 해마다 음력 10월 10일부터 3일간 시제를 모시고 있다.

우리 후손들은 늘 한곳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종친들끼리 서로담화를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고 같은 후손임을 확인할 수 있는 齋閣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다. 이에 31세 형일, 32세 주재회장, 32세 동재, 32세 공재, 32세 충재 등 뜻있는 종친들이 주동이 되어 충남 당진군 고대면 옥현리 구로지 長山아래에 장산재를 건립하기로 하고 모금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1억을 갑자기 어떻게 만들까 하고 많은 걱정을 하였으나 뜻밖에도 모든 종친들이 선뜻 동참하여 짧은 기간에 거금을 모아 2000년 4월 대망의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후 설계, 공사, 비문, 현판 등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0년 8월 15일 준공식을 갖게 되었다.

이 준공식에는 대종회에서 길준희 장님과 순현간사장님, 우 종지편찬위원장님, 형식 사무국장님이 참석하여 주셨고 그 외에도 문경, 서울 등에서 많은 종친들이 참석하여 뜻깊은 長山齋 건립을 축하하여 주셨다.

이곳은 앞으로도 자손 대대로 훌륭하신 조상님들의 업적과 승조사상을

가르쳐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곳 구로지 최씨 집성촌에는 500년된 족보와 조상들의 업적이 기록된 문서가 잘 보관되어 있다.

이곳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현재 재계, 학계, 의료계, 정계, 예술계 등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다방면으로 활동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며 긍지를 가지고 귀족혈통을 잘 이어가고 있다.

2. 장산재 건립 추진 경과 보고

장산재 건립 취지

17세(諱, 璉) 할아버지는 500여년 전 조선 중종조의 통정대부공조참의로성현감으로 당진군 고대면 옥현리 구로지에 낙향하시어 현재까지 해주 최씨 당진 종친들의 모여사는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17세 諱, 璉 선조님의 묘소는 고대면 당진포리 고산봉하 갑좌향으로 모시고 있으며 18세 諱, 여흥, 20세 諱, 덕준 묘소는 고산동에 모시고 19세 諱, 정, 21세 諱, 호룡, 22세 諱, 빈 세분은 고대면 옥현리 구로지에 모시고 매년 음 10월 10일부터 5~6일간 매일 시제를 지

내왔으나 앞으로는 이 묘소앞에 제각을 세우고 조상님들의 위패를 모시며 매년 음력 10월 10일에 시제를 지내되 당진 종친회 온가족(남녀노소)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님의 뜻을 기리고 종친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 재각은 종친 한분 한분들의 자발적인 성금에 의하여 세워지며 현재 종친들의 뜻을 모아 두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5~6년전에 재각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난 1월 24일 해주 최씨 진사공파 당진 종친회 총회에서 종친회의 협찬을 받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대지는 24세휘, 외 조부님의 종실이었으나 해당파에서 당진 종친회에 기증하여 해당파의 22

세휘, 빈, 23세휘, 외, 조부님의 시향을 같이 모시기로 하며 건립 기념 8,500만원을 각출기로 하고 소파별 추진위원회를 결성 추진한 결과 목표

액엔 못 미쳤습니다만 종친님의 많은 협조로 현재에 이루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 장산재는 2000년 4월 24일 건립 총액 8,600만원에 건립키로 당진에 소재한 장백건설 박상문 사장과 계약하고 부수공사로 언덕에 축대 쌓기공사 조경석공사 주차장 석분깔기 등은 박상문 사장님이 우리 종친을 위해 베푼 공사입니다. 온 종친을 대표하는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차장 중앙에 세워진 장산재 건립 기념비는 해주최씨 진사공파 종친회에서 우리 당진 종친회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주신 것이며 앞면에 새겨진 큰 글씨와 비문 내용은 진사공파 종친회 고문으로 계신 서



長山齋

울 도식님의 도움으로 초대 대한민국 심사위원장을 역임하신 최승락 선생님이 쓰신 글씨입니다. 후면의 長山齋기의 글은 전 성균관장을 역임하시고 현 세계유교 총연합회 이사장 현 대한민국 유교 총연합회 이사장 현 대한유도총본부장 이사장 현 성균관대학교 유교대학장으로 계신 최근덕 교수님께서 지으신 글입니다.

장산재 건물의 현판글씨는 진시공파 회장이신 형일 회장의 헌납으로 전국 서예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입선하시고 현재 한국서예전 심사위원이신 인연환 선생이 쓰신 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명하신 분들이 내리신 글과 글씨는 액자에 담아 오래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이 재실은 자금이 한푼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하여 우리 종친님들이 헌금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금액을 헌납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매년 10월에 여러날 모시던 歲一祀를 풍성한 계절인 10월중에 날을 정하여 종친의 온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의 넋을 기리고 종친들의 화합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립한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 진시공파 종친회장 인사말

오늘 무더운 날씨에 長山齋 준공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준공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서울에서 와주신 대종회 길준 회장님, 순현 간사장님, 그리고 형식 사무국장님, 도식 고문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당진 종친들에게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이곳은 우리 해주최씨의 시조이신 최은의 17대손 璉자 할아버지가 510년전에 정착하신 유서깊은 곳입니다.

이분은 최만리(15대) 할아버지의 증손자로서 부친이신 집현전 부제학 숙손 할아버지가 연산군의 폭정에 항거하시다가 출보(귀향)되어 자녀들이 뿔뿔이 헤어지면서 이분도 이곳 오지인 구로지로 피신하여 숨어살다가 오늘날 저희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옛날 이곳은 바닷가로서 나무가 우거져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조용히 숨어살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었지요. 璉자 할아버지는 중종때 과거 시험에서 文科에 합격하시고 지금의 公州인 노성현에서 현감을 하셨습니다. 이넘어 봉화산 아래에 묘소를 모셨고, 아드님 汝興(18세)은 중종 27

년에 무과에 합격하시어 통정대부란 벼슬을 하시고, 손자이신 汀자(19세) 할아버님은 명종때 역시 무과에 합격하여 선략장군으로 크게 활약하시다가 역시 이곳 구로지에 묘소를 모시고 해마다 시제를 모셨습니다. 이분의 부친이신 숙손할아버지(16세)와 조부이신 진사공 垠자(통훈대부, 예조좌랑) 할아버지는 지난 1998년도 안성불지에 함께 묘소를 복원하였습니다.

이역시 전국의 진사공과 종친들이 힘을 합하여 역사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선조님들은 참으로 높은 벼슬과 요직에 있으면서 이 나라의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선비와 귀족으로 살아오시다가 한임금, 연산군의 폭정에 희생된 후손들입니다. 이러한 자랑스런 조상님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모실 마땅한 장소가 없어 저희들은 이 齋閣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은 500년된 족보를 지금도 잘 보관하고 있는 뿌리있는 자손들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조상님들의 업적을 후손들에게 전하며 조상을 숭배하고 효도정신을 일러주며 함께 제사를 모실 수 있는 재각을 짓기 위해 여러 종

친들이 기꺼이 성금을 내주시어 이런 큰 공사를 하고 오늘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長山齋를 짓는데 여러분들이 애쓰셨지만 특히 주재회장님, 공재부회장님, 총재 총무님은 모든 일을 전패 하다시피 하고 모금에서부터 설계, 감리, 공사를 추진하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아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진사공과 전국 종친회 회장으로 전 종친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큰 번영을 기원합니다. 오늘 종친들 상호간에 친목과 덕담을 많이 나누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장산재 준공식 인사말씀

금년 여름은 어느해보다도 무더웁고 짜증이 나는 여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종친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댁내에 평안하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시어 찾아주신 해주 최씨 대 종회장이신 길준 회장님과 임원님들 그리고 문경에서 오신 우리

종친이신 학구부회장님과 그외 종친님들 그동안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협조하여 주신 종친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주최씨 진사공파 당진 종친회의 뿌리이신 17세 휘, 진 할아버지께서는 510여년전에 이곳으로 낙향하시어 터전을 마련한 곳으로 그동안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우리 선조님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상의 얼을 기리고 매년 만물이 풍성한 가을철 음 10월 10일 경에 시향을 지내며 우리 종친들의 만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 당진 종친회는 그동안 종실하나 장만하지 못한 것이 온 종친의 염원이었으나 금년봄 종친회 총회시 종친 여러분들이 재실을 건축하기로 결의하시고 여러 종친님의 성금에 의하여 이러한 훌륭하고 장엄한 재실을 세워 오늘 의 준공을 갖게된 것은 우리 종친의 단합된 뜻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친님들이 하실일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잘 정리한다면 앞으로 매년 10월에 조상 모시는데 보람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이 행사에 온 가족이 자녀와 함께 참석할 경우 우리 뿌리에 대한 이념이 확실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서 이처럼 많은

종친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종친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 長山齋建立紀念碑

唐津 땅 山水 아름다운 고을 서북쪽에 名山 高山峰이 우뚝 솟아 있는데 이는 옛 烽火山이다.

高山峰下 甲坐로 雙峰을 모셨으니 곧 朝鮮 中宗朝의 通政大夫工曹參議 위, 璉公의 幽宅이다. 近處 九老地 長山下의 長山齋를 建立하여 公을 爲한 齋室를 마련하였다.

이곳은 公이 入鄉한 옛터인데 고을 안에 사는 子孫들이 길이 追慕하는 뜻을 담아 扁額으로 걸은 것이다. 公의 姓은 崔氏요 貫鄉은 海州이며 諱는 璉인데 처음 諱는 孟權이며 字는 孟獻이다.

高麗의 名儒로 世上에서 海東孔子라 일컫는 文憲公諱. 公의 後孫이시고 曾祖는 朝鮮朝 世宗때 儒臣이며 清白吏인 集賢殿 副提學 諱萬理이시며 祖는 諱 垠인데 成均館進士로 通訓大夫 禮曹佐郎에 贈職되신 분이고 考는 휘 淑孫으로 燕山朝戊午士禍때

坐直言하여 抗訴不諱다가 南海 땅으로 귀양가서 그 謫所에서 卒하셨는데 甲子士禍때 뒤어어 慘禍를 당하셨다.

中宗反正後에 임금께서 官員을 보내어 글을 내리며 祭祀를 지내 주시고 吏曹判書로 贈職하였다.

휘 璉公께서는 幼詩부터 훌륭한 바탕에다 稟性이 精純하였으며 西紀 千五百七年 中宗 丁卯에 文科에 올라 清要한 벼슬을 두루 거치고 通政大夫 工曹參議에 올랐다가 魯城縣監으로 出捕되었으나 百姓을 爲한 政事를 훌륭하게 遂行하시다가 西紀 千五百三十三年 中宗癸巳에 任地에서 돌아가셨다. 配位는 淑夫人 安東權氏로 吏曹判書 健의 따님이시다.

집안의 法度가 있었고 子孫이 繁昌했다. 子孫들이 代代로 唐津에 살면서 일찍이 齋宿할 곳을 마련치 못한 것을 恨歎하더니 今年 初에 唐津 宗親會가 主軸이 되어 모든 子孫이 뜻을 합하여 財源을 마련하고 齋舍를 建立하였으니 春秋의 省墓와 祭享을

드리는 곳으로 資賴하며 兼하여 後孫들이 글익히는 곳으로 쓰고자 한다. 요즘 世上의 道義가 날로 떨어지고 祖上을 追慕하고 뒤를 繼承하려는 者가 적음에도 이들은 一致團結하여 祖上모시는 精誠을 다하니 後孫 必昌을 期約하리라.

汝興 十九世 諱汀 二十世 諱德竣, 二十一世 諱好龍, 二十二世 諱, 二十三世 諱斗箕, 二十四世 諱巍, 二十五世 諱宗河 諱宗漢 아홉분의 位牌를 모시고 每年 十月 日에 唐津 宗親會 온 家族들이 한자리에 모여 祖上의 일을 기리고 宗親들의 화합의 場을 마련코자 한다니, 더욱 놀랍고 이들 祖上 받드는 精이 참으로 壯하다. 傍孫 서울 道植이가 宗義로서 나에게 碑文을 請하니 辭議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그 大略을 敘述한다.

西紀 二千年 庚辰 立秋節

原任 成均館長 慶州崔根德謹
海州崔氏 進士公派 宗親會謹

중후한 품격을 지닌 신념에 찬 현대적 리더

최원식대종회고문(제2대 대종회장)



후 元植고문이 대종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줄곧 가까이서 보필을 했기 때문에 인간성이라든가 리더십 등 모든 면을 나름대로는 어지간히 파악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가 元植고문의 인간상(人間像)을 말하는 것은, 어쩌면 아주 적절한 일인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거나 필자는 객관적이고도 냉철한 입장에서 元植 고문의 있는 그대로를 평하려하며 추호의 과

찬도 극력 피할 것이다.

하지만, 元植 고문의 大宗會 발전에 공헌한 부문에 미치게 되면 그 공적이 원체 크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

필자가 元植 고문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대면하게 된 것은, 1982년 해주 최씨 대종회가 재건되고서부터이다.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의 일이다. 그

한 보탬없는 진솔한 기술(記述)이라 하더라도 진실을 잘 모르는 일부에서는 속(俗)된 예의에서의 공적의 나열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지닐법도 한 일이어서 무척 조심스럽기도 한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필자는 필자 나름의 건전한 양식에서 결코 어떤 허튼 말이나 과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거듭 분명히 말해 둔다.

필자가 元植 고문을 처음 대면하고서 받은 인상은 “자애로운 표정의 무척 과묵한 분”이라는 것이었다. 그 후 만나는 빈도(頻度)가 많아지면서 첫 인상 그대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그러나 과묵한 가운데 항상 행동이 있고 행동하는 가운데 무엇인가 진취적인 일을 일구어 내는 신념에 찬 리더십을 지니고 있는 분이였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으면서도 남의 주장에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아량과 애타심을 지니고 있으며 교양이 몸 전체에 배어있는 분이였다. 이것은 곧 元植고문의 자애로운 표정과 맞물리는 매너라고 생각이 된다.

인간처세학으로 유명한 카네기는 “참된 의미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 말은 곧 元植 고문과 같은 분을 지칭한 것같이 느껴진다. 그만큼 남의 말도 존중한다. 남의 말을 경청하고 남의 말을 존중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말수는 적어지지만, 말에는 반드시 책임과 행동이 뒤따른다. 철저하게 언행이 일치하는 분이다.

흔히 말하기를 한 인간의 무릇 행위는 그 사람이 처해있던 환경과 함수(函數) 관계에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元植 고문은 국제 감각이 뛰어난 폭 넓은 사고력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이 굵고 중후하면서 여러 면으로 세련된 국제신사이다.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元植 고문은 젊은날 외국상선의 선장으로서 푸른 바다를 가르고 5대양 6대주를 누빈 전력을 갖고 있다. 누구나 元植 고문을 대할 때 느끼는 일이지만, 바다만큼이나 넓은 도량을 지닌 분이요. 항상 대국(大局)만을 내다보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는 늘 초연하다.

이러한 성품은 어쩌면 초인적(超人的)인 인내심으로 이어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날 해주최씨 대종회를 이끄는 과정에서 극히 일부 종인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일이다.

직접 당사자가 아닌 대총회 임원들 까지도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강력대응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당사자인 元植 당시 대총회장은 마치 남의 일같이 의연(毅然)했다. 범부(凡夫)들은 감히 상상도 하기 힘든 처신이어서 주위 사람들을 감탄케 한 것이다.

이때 필자는 선현(先賢)의 말이 떠올랐다. 즉, “인일시지분 면백일지우”(忍一時之憤 免百日之憂) (필자주: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할 수가 있다)라는 글이다.

그리고 元植 고문은 뛰어난 리더십을 지니고 있다. 많은 이 땅의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조직체의 수장(首長)이 되면, 낡은 리더십 개념에서 “조직을 내 뜻대로 이끈다. 영도(領導)를 한다” 등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元植 고문은 “리더는 단순한 역할적 지위(地位)에서 그 조직의 조정자(調停者)일 뿐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민주적 개념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이다.

사실 오늘날은, 교육의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고 가치도 다원화(多元化)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여러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하나의 결론으로 조정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내가 수장이요 내 의견이 곧 조직의 지향점(指向點)이다.”라고 하는 사고는 독재자가 가는 길이다.

필자가 읽은 글 가운데 「110분간의 침묵」이라는 것이 있다. 미국 우주항공국의 젊은 스트라킹팀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관한 것인데 팀장은 2시간 동안 계속된 회의에서 110분간을 침묵으로 일관(一貫)하면서 회의를 구성하는 다른 참석자들의 의견만을 경청하고는 발언 내용을 취합, 자기는 단 10분간의 발언으로 결론을 도출(導出)했다는 유명한 이야기다.

元植 고문의 스타일도 이와 비슷하다. 대소 회의를 주관할때면, 많은 쪽으로 결집(結集)되는 중지(衆智)에 따라 결론을 내리며, 본인의 발언은 가급적 삼가는 편이다. 또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줌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창발적(創發的)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켜 준다. 이러한 리더십의 진면목(眞面目)은 오산의 문헌서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보여 주었는데 元植 고문은 대총회장겸 서원건립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능수능란한 용병술(?)로 관계

임원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도록 이끌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뛰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거나, 속된 표현으로 잔소리를 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이, 큰 방향만 제시하고는 당무자가 알아서 하라는 방침이다. 즉 철저하게 권한을 위양(委讓)해서 자발적으로 재량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속성은, 일을 맡겨놓고 윗사람이 자질구레한 문제까지 일일이 간섭을 한다든가 하면 은근히 저항심이 생겨 일에 대한 의욕까지 상실하게 된다. 또 소박한 상식만으로 남의 전문분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하면 전문성과 상식과의 괴리에서 마찰이 생기는 법인데 원식 고문은 자신이 깊이 있게 숙지하고 있지 않은 영역(領域)에 대해서는 일절 용훼(容喙)를 하지 않는다.

필자가 元植 당시 대총회장을 보필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맡긴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량권을 부여해주고 모든 것을 알아서 하라는 주의였기 때문이다. 사실 주종(主從)관계도 아니요 보수를 받아 가며 일하는 것도 아닌데 일을 맡겨 놓고 일일이 간섭하게 되면 일할 의욕은커녕 극단적인

경우 맡은 일을 반납하고마는 일도 있을 수 있다.

또 한가지 元植 고문의 용병술의 특징은 조직을 풀가동시키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백보보다 백 사람의 일보를 더 중요시한다.(주:一人百步, 不如百人一步)

이러한 용병술의 사례는 오산의 문헌서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났는데 관계임원들에게 역할을 분담시키고는 매사에 합심육력(合心戮力)해서 성취시키도록 독전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필자가 元植 고문을 가까이 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지식은, 그냥 학문을 논하고 예술을 논하고, 또는 어떤 높고 원대한 이론을 논(弄)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무릇 일의 실천을 위해 유용(有用)한 지식들이었다. 결국 이러한 지식들이 바탕이 되어 元植 고문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늘 자신있는 재단을 내리는 것이다.

특히 철저한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에서 어떤 관습이나 관념론(觀念論) 따위는 중요시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람을 쓰는데 있어서도 그 사람의 경력이나 현 위치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중요시한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소위 타이틀에 무게를 두고 역할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는데 元植 고문은 그렇지 않다. 맡겨진 일의 책임자인지 여부를 먼저 따지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매사에 실효성을 거두는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元植 고문의 훌륭한 면모는 필설로는 이루 표현할 길이 없는데 같은 문중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어니 무어니 해도 투철한 송조상문(崇祖尙門)사상을 먼저 꼽지 않을 수가 없다.

문중이 주지(周知)하고 있는 일이지만 경기도 오산의 문헌서원 건립은, 해주최씨 1천유여년의 역사에 새로운 금자탑이요, 남한에 거주하는 30여만 해주최씨의 몽매간에도 잊지 못했던 숙원의 성취였다. 우리 해주최씨의 입장에서는 언감생심 그 누구도 그 역사적인 대역사(役事)를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元植 고문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공식으로 이 문제를 발의, 부지(敷地) 마련에서부터 공사추진에 이르기까지 솔선해서 진두지휘를 하였다.

물론 문헌공탄신 1천주년기념대동보의 간행에 따르는 잉여금 등 기본재원은 그럴 저력 마련이 된 상태였

지만, 元植 고문은 자신이 거금(巨金)을 출연(出捐)하는 등으로 대역사를 무리없이 마무리 지었던 것이다. 그러나 재정적인 문제이외에도 여러 가지 애로가 중첩되어 일을 돕고 있는 주변의 임원들까지 좌절하고 있을 때도 元植 고문은 불퇴전(不退轉)의 신념과 투철한 책임감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갔으며 그때 그 모습은 의연(毅然)하기까지 했다.

元植 고문은 이웃을 돕는 일에도 솔선한다. 경제일류학자 칼. 포라니는 이웃과의 나눔의 삶을 새로운 경제매커니즘이라고 했는데, 元植 고문은 알게 모르게 이것을 실천하고 있다. 세계적 봉사 단체인 로타리클럽에 가입을 한이래 장학사업, 북한동포 결핵퇴치를 위한 거금의 쾌척등 숨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 나눔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은 무척 검소하다.

그리하여 숨은 선행(善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평소의 생활태도만 보고 무척× 사람이라고 평하는 경우가 있다.

元植 고문은 1923년 11월 27일, 지금은 북한 땅이 된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풍덕리에서 최승록(崔承錄)씨의 3형제중 막내로 태어났다. 선친

은 지사(志士)풍의 선각자로서 개풍군내에선 많은 존경을 받던 분이다.

“개풍군지”(開豐郡誌)에 소개된 기사에 의하면 선친 고 승록씨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향리 광덕면에다 사재(私財)로 감리교 예배당을 세우고 선교사업을 하였으며, 일제말기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예배당을 사립학교로 만들고 후진 양성에 힘썼다고 한다.

필자가 이 사실을 원식 고문에게 확인하였더니 자식으로서 긍지를 느낀다고 하면서 생전에 통일이 되어 고향에 갈수만 있다면, 선친의 유지를 살려 어엿한 교육기관을 만들것이라고 하면서 이 계획은 가족들까지 전원이 결의한 숙원이라고 했다.

이렇듯 훌륭한 선친 슬하에서 자란 원식 고문은 청운의 뜻을 품고 젊은 날에는 외국상선의 선장 등으로 근무하다 선진국의 항만운송 사업등에 대한 견문을 살려 이부문을 위해 기여코자 하는 충정(衷情)에서 1960년에는 인천항운(주)를 창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했으며, 이어 (주)인천여객터미널을 설립, 대표이사 회장직을 맡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0년에

는 인천지방법원 조정위원(민사, 가사)으로 위촉되어 15년간을 줄곧 민사와 가사의 조정역할을 수행했다. 1985년에는 해주최씨 대종회장 겸 문헌서원 건립 추진위원장의 중임을 맡아 많은 공적을 남겼으며 현재는 고문으로 대소사를 돕고 있다. 1994년에는 자신의 아호(雅號)를 부친(주)수암월드를 설립하고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일산지회고문으로 노인복지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주:아호가 水岩임)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연세대학을 마치고 元植 고문의 사업을 계승하여 기업체들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차남은 오레곤주립대학교 석사과정을 수료 미합중국 공인회계사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3남은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 이학박사로 역시 미국에 살고 있으며, 셋째 며느리도 명문 스텐포드대학교 이학박사이다.

한마디로 元植 고문은 자식복에다 물질적인 축복까지 받고 있는 이른바 5복을 누리고 있는 분이다. 내내 만수무강을 빌며 이 글을 마친다.

교리공파의 문헌복지장학회 운영



만 기

(문헌복지장학회장)

경제인류학자인 칼·포라니는 그의 경제이론에서 자발적으로 이웃에게 베푸는 제도를 새로운 경제메카니즘이라고 강조한바가 있다.

그러나 우리들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 베푸는 일, 다시 말해서 남과 함께 나누는 삶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기적인 인간들의 속성상 너나 할것없이 이것을 쉽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평생동안 고생해 모은 전 재산을 불우한 이웃이나, 장학금을 위해 쓰여지도록 쾌척을 하기도 하지만, 무척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월남 피난 문중인 저희 교리공파는 피난생활이라고 하는 어려운 처지에,

동병상련(同病相憐)하는 마음에서 상부상조 정신을 발휘,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1976년 5월 16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전에 「문헌장학회」를 설립하고, 비록 넉넉하게 학비를 보조하진 못했으나 해마다 거르지않고 3~5명의 문중 해당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나라의 경제 발전과 함께 절대 빈곤이 사라지고 장학금지급 신청자의 수가 차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자 장학회 임원회의에서는 불우한 종인들에게도 눈을 돌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의논이 모아져 1998년부터는 「문헌장학회」를 「문헌복지장학회」로 그 명칭을 바꾸고 소년소녀가장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생계가 어려운 종인들에게 생계보조금을 지급하

기 시작하였다.

한편 장학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정되는 새로운 문제의 하나가 과거와 같이 시혜적(施惠的) 사업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사실이 었다. 즉 과거의 개념은 공부를 잘하는데 가세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 학자금을 보조해준다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것을 영예가 아닌 수치로 생각하는 경향마저 있다. 즉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어려모로 떳떳하지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학교등에서 성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받는 장학금의 경우는 다르지만, 그렇지가 않고 일반 장학회가 통상 규정하고 있는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가세가 빈한하여…」는 마땅히 수정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리하여 아직 전체 임원회의에 부의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장학회의 규약을 개정하여 가세가 좋고 나쁘고를 불문하고 성적이 뛰어난 학생위주로 선발을 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장학생으로 선발된것을 큰 영예로 생각하게 해야할것으로 본다.

그리고 많은 장학회가 기금의 과실(은행금리등)로 장학금지급을 해왔

으나 금리의 인하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어쨌거나 문헌복지장학회는 발전적으로 재단법인화시키고 운영의 묘를 찾고자 모든 임원들이 부심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문중에 참고가 될까해서 일부 개정된 「문헌복지장학회」규약과 운영세칙을 게재한다.

문헌복지장학회 규약

제1조(명칭) 본회는 문헌복지장학회(이하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해주최씨선조인 해동공자문헌공의 빛나는 위학정신과 교육이념을 받들어 교리공파자제들의 교육진흥과 영재배양 그리고 불우한 종인들의 생계비 보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
2. 문중의 영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불우한 종인(소년, 소녀가장 포함) 생계비 보조사업

4. 기타 본회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 특별시에 둔다.

제5조(구성) 본회는 해주최씨 교리공파종친으로 구성하여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하고 회원유고시는 그 가독상속자가 승속토록 한다. 특별회원은 금일십만원 이상을 기부한 종친으로 하고 일반회원은 금일만원 이상 기부한 종친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의무) 본회회원은 누구나 본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임원) 본회는 하의 임원을 둔다.

고 문	약간인
회 장	1인
부 회 장	3인
운영위원	5인이상
감 사	2인
간 사 장	1인

제8조(선임) 회장은 종친회총회에서 선출하되 피선거권은 특별회원으로 하며 운영위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본회회원중에서 종친회총회가 선출한다.

간사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만 2개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하고 각종회의에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은 연 1회 장학회운영상황을 종친회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은 본회운영에 관한 각종 중요사항을 협의결정한다.

③감사는 본회재산의 관리와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이를 회원총회에 보고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단 의결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④간사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일체 업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본회는 회원총회와 운영회의로 구분하며 회원총회는 연 1회 종친회총회목에, 운영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2조(의결) ①회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운영위원의 선출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사무계획의 승인

②운영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운영세칙제정에 관한 사항
2.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운영에 관한 사항
- ③각종의결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3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본회 명의로 하고 현금의 은행입출은 회장이 위촉하는 3인이상의 운영위원공동명의로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 본회의 기금은 은행에 장기신탁예금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장학금의 지급은 예입된 원금의 이식으로 충당토록 한다.

제15조(규약의 제정) 본규약은 종친회총회에서 이를 제정통과시킨다.

부 칙

본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한다.

1976년 5월 16일

해주최씨
종친회정기총회
교리공파

장학금 및 생계보조금 지급에 따른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장학금과 생

계비 보조금 급여방법과 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방법 그리고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①장학금이라 함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한 자와 학업성적이 대학교에서 B학점 이상 되는 학생에게 무상으로 급여하는 학비보조금을 말한다.

②생계비 보조금은 불우한 종친(소년, 소녀가장 포함)에게 생계비보조를 보조하는 금원을 말한다.

제3조(급여대상자) 해주최씨교리공파의 자제로서 재능은 풍부하나 가세가 빈한하여 학업을 계속할 능력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나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생계보조금은 생계가 어려운 종이나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급여대상) 급여할 대상 및 인원수 등은 예산을 감안하여 그때 그때 운영위원회의에서 이를 정한다.

제5조(급여금액) 1인당 장학금의 급여액은 운영위원회의가 이를 정한다.

제6조(급여기간) 장학금과 생계보조금의 급여기간은 매학년말까지로 하고 매학년 초에 급여한다. 다만, 본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격이 된 자는 그 시점까지로 한다.

제7조(신청) 본회로부터 장학금과 생계보조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본회소정) 1통
2. 보서(을묘보) 해당란 사본 1통
3. 학교장 추천서 1통
4. 학업성적표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재산증명서(재산세 납세필증) 1통
7. 사진(학생) 2장

제8조(장학금의 급여중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학기말 성적이 제2조 규정에 미달되는 자
2. 휴학, 정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자
3. 군에 입대한 자

제9조(장학생 의무) 본회에서 장학금을 받는 자는 더욱 학업에 열중하여 본회설립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본인의 수학상황은 물론 신상의 변화가 있을 때는 이를 장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장학기간이 만료되어 사회에 진출한 뒤에도 신분상의 관계를 통보해야 함은 물론 본회발전에 적극 협력을 하여야 한다.

해주최씨교리공파종친회

名譽會長

우

會 長

병 안

“노동서원”기(魯東書院記)



承 綬

(강원지역종친회장 대령군파 31世)



魯東書院 正殿

1. 연혁(沿革)

大寧君(諱: 鄆)派祖의 장남 13世 諱: 汧(官大護軍)先祖가 嗣子 諱: 德芳(官: 正言)을 데리고 흥천군 북방면 노일리에 落鄉定着하였는데 그의 雲孫(8代孫)인 21世 諱: 重昌, 孝昌, 悌昌 兄弟들이 落鄉祖의 遺志를 받들어

戊辰年(1688)에 노일리에 祠堂을 건축하고 이해 5월에 海州文憲書院에 가 文憲公과 文和公의 畫像을 모사하여 와서 8월에 祠于正殿에 位牌와 함께 奉安하고 魯日影堂이라 揭額한 후 每年 9月 上丁日에 문중후손들이 奉

祭祀해 온지 243년이 지난 辛未年(1931)봄에 29世 諱: 台鉉公을 비롯한 후손들이 文중회의를 열어 魯日影堂이 많이 훼손되고 관리상 어려움을 들어 西面 魚遊浦里로 移建하기로 合議하고 이해 3월에 魚遊浦里 孝子洞子坐之原에 着工하여 다음해 1932年 7월에 正殿이 완성되고 東齋 西齋 興

學, 文憲, 內外三門과 紅門이 竣成되어 노일영당을 魯東書院으로 改名揭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位置와 現況

강원도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32번지로 홍천읍에서 西南方으로 約 20Km지점에 있고 춘천시에서 남쪽으로 約 20Km지점이며, 양평에서 북쪽으로 約 20Km지점이고 가평에서 東南方으로 約 20Km지점에 位置해 있고 규모는 垡地 1,500평에 建坪 20평의 正殿 14평의 東齋와 西齋 5평의 內三門과 外三門이 있고 正殿에는 文憲公과 文和公의 影幀과 位牌가 奉安되어 있으며 東齋와 西齋는 儒林들이 耆老하여 학문을 토론하고 강론하는 곳이며 內外三門은 유생들이 출입하는 곳이다. 奉安된 文憲公, 文和公影幀은 1984年 지방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 祭器도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3. 祭禮와 年中行事

본 서원은 우리 나라 사학의 元祖이신 海東公자 文獻公의 영정과 위패 그리고 文獻公의 영정과 위패를 봉안

하고 매년 陰 3月과 9月 上丁日에 유림주관으로 향교와 같은 절차로 奉享하였으나 서원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몇 년전부터 年1회 추계제향으로 陰 9月上丁日에 거행해오고 있는데 서원의 의전행사를 총괄하는 都有司와 書院의 代表 그리고 지역의 儒林을 대표하는 掌議가 會晤를 갖고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17명의 祭官을 선임하며 제관들은 제향 전일에 入齋하여 祭需를 진설하고 당일의 부서와 역할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 제례행사에 차질이 없도록하고 제례당일에는 관복과 도포를 입고 홀기(笏記)에 의하여 경건하게 시종일관 진행하고 제례시각은 午前 불구 10시 정각에 시작하여 약 1시간이 소요된다.

其他行事로 儒生들의 한시짓기와 詩唱하기 등 전통문화계승발전을 위한 행사가 있고 인근 初中高학생들이 유적지 순례를 하여 글짓기, 그림그리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천향교 유도회학생들도 서원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4. 魯東書院 上樑文(번역문)

도덕이 크게 빛나서 못 선비의 덕을 모아 대성하시니 百世의 긴세월동

안 師表로 숭상 받으셨다. 서원은 정숙하여 公의 초상을 안치하니 엄연한 七分의 모습이 드러났고, 옛적의 건물을 중수하니 그 제도가 더욱 새로와 졌다.

앞드려 생각해보니 惺齋선생께서는 道家의 祖宗이시며 士大夫의 領袖로서 고려조에 탄생하시었으니 그 관직이 門下侍中에 이르셨다. 그 학문은 魯나라 聖人인 孔子를 이어 세상에서는 海東孔子의 칭호로 전해내려 온다. 先生의 忠孝를 담은 文章은 두 아들을 경계하는 詩에 가르침을 베풀어 놓았고 經傳을 풀이한 뜻은 九齋를 설치하고 講學한데서 分析된다. 異端을 누르고 사악한 학설을 물리쳤으니 덕이 풍부한 선비라 할 수 있고 유학을 闡揚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었으니 참으로 세상에 뛰어난 才士라 일컬을 위인이다. 그리고 명성과 가르침이 중국에까지 퍼진 것은 公의 德에 의한 것이고 몇몇한 인륜이 하늘의 해와 별처럼 빛나게 된 것은 그 누구의 공적이라 하겠는가?

靖宗의 廟廷에 배향되어 영원토록 무궁한 은혜를 입었으며 성상이 巡狩하는 행차에 조칙을 반포하시어 옛 서원을 복구하라는 명을 받들게 되었다.

서원을 살펴보니 華西의 이름난 곳

이요 관동의 勝景이라 高土에 자리잡고서 文峯을 향하였다. 아름다운 이름을 처음 붙이자마자 신령스런 자질을 하늘이 보여주었다. 산을 등지고 물을 마주보고 있으니 참으로 아름답고 호젓한 장소이며 이슬을 내리고 서리를 밟으니 썩을 끊이며 슬퍼하는 정성이 깃든다. 이에 자손들이 힘을 내어 재목을 엮어 여러해 동안 집을 짓고 선비들이 공사를 감독하고 일을 주관하여 빠르게 완성시켰다. 여러길의 담은 夫子께서 머무시는 곳이니 천년토록 제사를 받들어 中丁(釋奠을 드리는 날 14일)이 되어 제사를 드린다.

이에 들보를 들어 올리려하니 짐짓는 것을 축하하는 소리가 시끄럽다. 그러니 모든 장인들은 도구를 멈추고 나의 여섯방향에 대한 詩를 들어보라.

동쪽에 들보를 올리네!

동해에는 아득히 붉은 해가 비취네. 百世토록 海東공자의 호칭을 전해오고 지금까지 유학의 기풍이 끊어지지 않았다네.

서쪽 들보를 올리네!

碧城에 산빛은 구름과 나란하게 서있네. 황제가 西道를 巡行하시는 날에 은혜를 입으니 옛서원은 새로 지으라는 조칙을 받았다네.

남쪽에 들보를 올리네!

魯湖와 江水는 쪽빛보다 푸르구나.
道心은 오랜 세월 山林 우거진 곳에
살아있고 담박한 정신은 달빛이
못에 가득한 듯 하여라.

북쪽에 들보를 올리네!

개성의 지나간일은 어찌도 그리 오묘한 일인가? 九齋를 세워 가르침을
배우신 일이 모두 꿈만 같구나. 철쭉
꽃 떨어져 지니 봄빛도 저물어 가는
때로구나.

위에다 들보를 올리네!

화려한 누각엔 엄연한 夫子의 초상이
서 있네. 선생의 남기신 덕택은 끊임없이
마음의 풍속이 아름다워라. 士林이
이로부터 선생을 의지하고 숭상하였다네.

아래로 들보를 올리네!

환한 달빛의 풍광은 道德이 歸宿한
곳에 비추네. 넘실대는 물은 네모난
연못에 큰 거울을 이루어 놓았네. 후
생가운데 그 누가 선생의 마음을 전
수받은 자인가?

엎드려 바라노니 들보를 올린 뒤에
風教가 미치는 곳에 마을 풍속이 흥
기하리라.

날과 달에 같고 닦아 문장이 진보
하여 인재가 배출되기를 바라며 밤낮
으로 힘써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재
사를 경건하게 지내어 자손이 번성하
기를 바라노라.

壬申年 梧月

後生 李承奎는 삼가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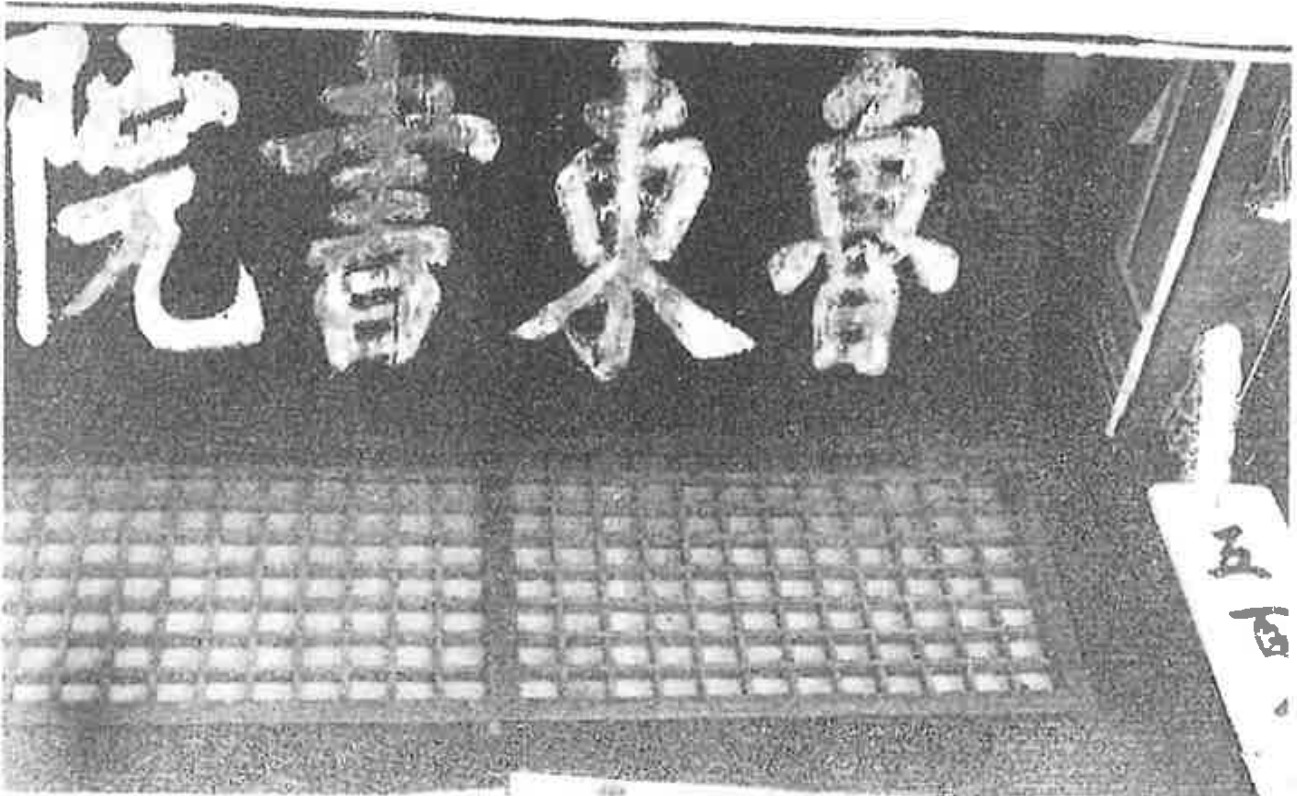
文和公尊影 文化財 五一—號



文憲公尊影 文化財 五一〇號



文憲公과 文和公의 影幀을 奉安한 魯東書院(洪川)



魯東書院의 懸板(500年前이라는 札이 보임)

“明谷書院”記



順 炫

(大宗會 幹事長 현감공파 32世)

1. 沿革

落南祖 諱:遇의 遺志를 받들어 崇祖정신이 투철한 30世 常淳 종친이 1974年 전남 장흥군 장흥읍 월평리에 단독 私財로 祠堂을 건립하고 성균과의 승인을 받아 “명곡서원”이라 명명한 후 강진과 장흥의 유림들의 발의로 문중에서 이에 응하여 위패를 모시고 제사하였다.

그러나 건립자 常淳종친이 他界한 후 후손들이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서원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祭需준비와 節次에 애로가 많아 건립 10년 만인 1984년에 유림들의 발의로 문중회의에서 이진하기로 합의하고 서원을 후손들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신기리 산 기슭에 터를 잡아 이진하

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位置와 現況

명곡서원은 우리 나라 최남단인 전남 강진군 군동면 신기리 술봉산 기슭에 멀리 탐진강을 굽어보며 해주최씨 집성촌을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신기리 집성촌은 지금부터 약 400여년전 落南祖 19世諱:遇(號. 湖隱) 좌승지께서 정착한 후 후손이 번성하여 海州崔氏 世葬碑가 세워진 곳이다.

서원규모는 垞地가 약 500평에 한식건물 4동으로 神室(正殿)이 3칸1동 유림들이 학문을 토론하고 강론하는 강당이 4칸1동 내삼문 외삼문이 각각 1동으로 되어 있다.

유물은 海州崔氏 世德錄 上下卷과 史記家傳이 전하여 오고 있으며 位土는 제사답이 3,000평이 있다.

3. 祭 禮

본 서원은 우리 나라 私學의 元祖인 海東孔子, 文憲公 諱: 冲. 文和公 諱: 惟吉. 文淸公 諱: 滋. 江湖 諱: 萬理. 湖隱 諱: 遇 등 5位의 위패를 봉안하고 祭日은 3月上 丁日에 유림주관으로 지역종친과 유림들의 참석으로 제사를 모시고 있으며 祭官은 道 및 郡의 저명한 유림중에 “강진군 원시 추진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 이 모임에서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례 대축 진설등 각급 재관이 선임되어 집례의 홀기 주도로 거행된다.

4. 配享人物 行蹟

가) 文憲公 諱冲:(986~1068)

- 字, 浩然 號, 惺齋 또는 月圃 諡號는 文憲
- 海州 大寧郡 出身, 1005년에 甲科(文科)에 壯元
- 1010~1031. 한림학사, 예부시랑
- 1032~1034. 형부상서, 중추원사
- 1035~1046. 상서좌복야, 참지

정사, 문하시랑평장사

- 1047~1052. 문하시중, 도병마사
- 1053. 문종 7年 致仕 구재학당을 세워 후진 양성에 치중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구재학당의 학도를 시중공도 또는 문헌공도라 하였는데 유학과 사학의 문운을 크게 진흥시켜 世人으로부터 해동공자로 존송되어 온다. 靖宗 廟庭에 配享되었다.

나) 文和公 諱: 惟吉(1010~1075)

- 1030. 문과급제, 한림원에 입문
- 1052~1055. 형부상서, 지중추원사
- 1061~1072. 중서시랑, 판리부사, 감수국상주국, 문하시중
- 1075. 서거후 수태위 중서령에 추증

다) 文淸公 諱: 滋

- 字, 樹德 號, 東山與
- 1212년 文科及第 상주의 司錄재 직시 治績이 우수하여 國學 學諭에 보직되어 文翰을 맡았음. 給田 都監錄事로 治積
- 1250년 몽고사신으로 다녀와 殿中少監 寶文閣侍制, 中書侍郎平章事역임, 시문에 뛰어나고, 학식과 해정력을 겸비하여 많은 치적을 쌓았음.

라) 江湖諱 : 萬理

- 字, 子明. 官은 집현전 부제학
- 1419년. 문과급제, 홍문관 집현전 박사역임
- 1427년. 교리로서 문과중시에 급제
- 1437년. 집현전 직제학을 거쳐 부제학으로 승진
- 1439년. 강원도 감찰사를 거쳐 다시 부제학제수, 후일 청백리로 뽑힘

마) 湖隱諱 : 遇(1543~1613)

평소 성품이 강직하고 문무를 겸비하여 左承旨를 거쳐 潭陽都護府使로 제수받아 임난당시 혁혁한 공을 세웠음.

후손으로는 현재 전남 강진군 군동면 신기리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이 마을에서는 이분을 落南선조로 모시고 현재 16대손까지 번성하였다.

특히 매년 陰 10월 15일 전국각처에서 후손들이 모여 경건하게 奉享하고 있다.

5. 祝 文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後學某 敢昭告于

文憲公 惺齋. 崔先生, 學宗孔聖道
開, 東方得免左衽 惠我無疆

文和公 松灘. 崔先生, 克承家學 卓
冠士類

文淸公 東山. 崔先生, 立朝 論道典
藩活民

副提學 江湖. 崔先生, 興學設教 士
氣復禮

左承旨 湖隱. 崔公 忠孝 匹美永垂
芳名世類克生士林仰止茲值春序式薦
明祀.

尙饗

★ 축문번역

모년 모월 모간지삭 모일에 후학 모는
감히 문헌공성재 최선생님께 고 하옵니
다. 공성의 학업을 이어받아 우리 동방
에 인의를 열어 주셨고 좌임을 벗어나게
하셨으며 그 은혜 무한이옵니다.

문화공 송탄 최선생님께서서는 선대
의 학업을 이어 받으시니 후세사류
우리러 받드시옵니다.

문청공 동산 최선생님께서서는 조정애
계시매 인의로서 하고 목민관으로 계
시매 백성을 보살피 도와 주셨습니다.

부제학 강호 최선생님께서서 학업을
일으키시고 후학을 가르키시니 사기
가 새로워 졌습니다.

좌승지 호은 최공께서는 충과효를
함께하시니 영원토록 방명을 남기시
고 난세를 능히 극복하시니 저희는

우러러 할 뿐입니다.

제사를 올리오니 흠향 하옵소서.

이제 봄철을 맞이하여 정성스럽게

6. 歷代 初獻官(都有司) 名單(1974~2000)

年度	姓名	年度	姓名	年度	姓名
1974	白東善	1983	尹在瓚	1992	柳寅彬
1975	白亨模	1984	金應九	1993	曹秉皓
1976	李洙平	1985	鄭海英	1994	尹柱玆
1977	柳鍾龍	1986	朴潤安	1995	羅正采
1978	魏錫漢	1987	金三煥	1996	梁在斗
1979	金承植	1988	文濟晟	1997	李忠根
1980	魏仁煥	1989	李葉洙	1998	尹炳珍
1981	金德善	1990	朴在麟	1999	李炳在
1982	崔奎鉉	1991	安秉湜	2000	朴浩培



文憲公, 文和公, 文淸公 副提學(萬理), 湖隱(遇)公의 影幀을 奉安한 明谷書院과 懸板(下) (全南康津)



進士公(諱垠)

“五百年 宿願을 完遂한 後裔들”

判書公(諱淑孫) 墓域 復元

道 植

(海州崔氏 進士公派宗親會 · 常任顧問 31世孫)



進士公과 判書公 墳墓復元 全景

海東孔子 文憲公 先祖님께서는 孔子의 道를 바탕으로 九齋를 세워 儒學과 文運을 크게 振興시키셨다. 이렇듯 온 人類의 스승인 孔子의 弟子 曾子(五聖中 한분)께서는 일찌기 “慎終追遠이면 民德이 歸厚矣리라”라고

하셨습니다.

慎終이란 아버지의 喪事에 禮를 극진히 하라는 것이고 追遠이란 祖上의 德을 追慕하여 祭祀에 精誠을 다하라는 말씀이다.

儒教를篤信하는 우리 民族은 옛부

터 聖人의 가르침을 받들어 慎終追遠을 祖上 崇拜思想으로 昇華시켰고 굳건한 信仰으로 定着시켜 傳統的인 家統家風의 良俗으로 傳來되어 왔다.

그러나 近世에 物質文明이 高度로 發達되어 西歐文物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傳統 倫理道德은 頹落하고 核家族化 되면서 崇祖尙門精神이 衰退해 가고 尊屬恭敬도 싫어하는 世上이 되었으니 먼 祖上에 對한 不敬은 오죽 하겠는가?

아직은 慎終追遠의 傳統이 根本있는 儒家에서 綿綿히 이어지고 있기에 500年만에 復元된 進士公派祖와 淑孫公의 山所에 對하여 모든 親族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다.

우리 派祖 進士公(諱垠)은 李朝 世宗朝의 名臣이요. 清白吏이신 集賢殿 副提學 諱萬理公의 아드님 五兄弟中 넷째분으로써 世宗 19年 丁巳(西紀 1437年) 8月 10日에 出生하여 일찌기 아버님을 여의시고 어려운 가운데 學問을 부지런히 하여 世祖 五年 己卯(西紀 1459年)에 進士가 되시고, 成宗 24年 癸丑(西紀 1493年) 3月 26日에 卒하여 贈 通訓大夫 禮曹佐郎이 되셨으며 墓는 安城佛智 先考副提學公 墓의 右麓에 丑坐로 모시고 吏曹判書 尹世傑이 碑文을 지었다.

公은 文章學行으로 後進을 教導하는 등 世上에 名聲을 떨치셨고 配位는 尙州 金氏 參贊 宣의 따님이며 墓는 雙封으로 모셨다.

그러나 後嗣가 없어 兄 諱塘(生員公)의 四男中 三男 諱淑孫公을 入養하셨는데 淑孫公은 世祖 6年 庚辰(西紀 1460年) 5月 13日에 出生하여 成宗 14年 癸卯(西紀 1483年)에 進士가 되시고 成宗 17年 丙午(西紀 1486年)에 增廣文科에 及第하여 官이 通政大夫 集賢殿 副提學에 올랐으나 燕山朝 暴政에 抗疏不諱(꺼리낌없이 항소)하고 靜臣으로서 朝廷의 여러 不當한 政策에 對抗하였으며 燕山 4年(西紀 1498年) 戊午土禍때에는 坐直言하며 不義에 屈하지 않고 廷爭타가 南海 땅으로 黜補되어 憂憤으로 住所에서 卒하셨는데 7年만인 燕山 10年(西紀 1504年) 甲子土禍에 다시 慘禍(所謂剖棺斬屍)를 당하셨다.

中宗이 反正(暴君 燕山君을 폐하고 새임금 中宗이 들어서다)하여 特別히 官吏를 보내 글을 내려서 祭祀를 지내게 하고 贈 吏曹判書로 追敍하셨다. 翌年 乙丑年(西紀 1505年)에 楊州 땅 海東村에 葬事를 지냈다가 3年만인 中宗 2年 丁卯(西紀 1507年)에 先考進士公墓下 丑坐로 이장하여 翰

林學士 朴祐가 碑文을 짓고 直提學 金魯가 글씨를 썼다.

配位는 義城 金氏 贈 吏曹判書 璉의 따님인데 世祖 5年 乙卯(西紀 1459年) 8月 10日 生이시고 中宗 18年 癸未(西紀 1523年) 4月 4日에 卒하시니 雙封으로 모셨다고 되어 있는 族譜의 記錄만 보아도 미루어 보건대 相當한 家門에서 墓域 亦是 中宗大王의 보살핌으로 當時로서는 品位에 맞게 잘 모셨다고 思料된다. 그러나 五百年 뒤인 오늘날 우리 後孫들이 보건대 그 墓所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廢墟되어 있었다. 其間 여러 차례의 兵亂과 天災地變으로 進士公墓는 아드님 淑孫公階下에 逆葬되어 있고 淑孫公墓墳은 허물어져 雜草가 우거진 荒地로 變했으며 華麗하고 威嚴있을 법한 碑등 石物은 흔적도 없고 몇 개의 石物만이 땅속에 묻혀 있었다.

이는 後孫들이 먼 祖上에게는 너무 無關心했던 탓이라고 生覺된다. 그나마 數十年전에 聞慶後孫 武鎬氏, 永祐氏 등이 主動하여 全國後孫들을 찾아다니면서 募金을 하여 址鎬氏의 碑文을 받아 조그마한 碑를 세우고 墓域을 補修한바 있었으나 아드님 淑孫公墓는 復元하지 못하고 進士公墓만이 초라하게 雙墳으로 모셔져 있었다.

位土는 그 前에 聞慶 基鎬氏가 元根氏 등과 相議하여 八百餘坪을 마련하였으나 耕作이 어려운 地形이라 墓祀때 祭需마련도 不足하여 每年 모시는 時祭때면 그때 그때 後孫들이 經費를 分擔하여 근근이 조출하게 祭需를 마련하여 올리는 形便이여서 그간 몇몇 子孫들이 對策을 議論해 보았지만 解決할 能力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들은 먼 祖上에 對하여는 觀心없이 지내왔다.

西紀 1996年 가을 大宗會 運營會議에 參席次 上京한 聞慶 居住 鶴九, 仁植氏가 나를 찾아와서 進士公墓所의 時祭問題를 걱정하면서 祭需마련 對策을 相議하여 왔다. 나는 오래 전부터 時祭問題 뿐만이 아니라 根本적으로 進士公 父子분의 墓所 復元을 計劃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財政이 없는 형편에 臆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터라 그 자리에서 當場 무슨 結論도 내지 못하고 다만 位土를 整備하여 우선 祭需라도 마련토록 하자고 하면서 헤어졌다. 이것이 進士公父子분의 墓域復元の 動機가 된 것이다.

그동안 祭需를 마련해 오던 位土가 지금은 荒廢되어 耕作이 되지 않아 祭需도 마련 못한다는 意外의 말을 듣고 나는 더욱 苦悶하였다. 많은 子

孫들이 聞慶과 唐津地域에 集成村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그간 宗會도 構成되지 못한 우리에게는 經濟的 能力이 없으니 墓祀對策도 세워야 하지만 꼭 해야할 進士公 父子분의 墓域復元이라는 큰일을 生覺 조차 할 수 없는 處地이다.

나는 苦心 끝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음 世代에는 祖上의 來歷을 알지 못해서도 하지 못할 憂慮 뿐만 아니라 해가 지날수록 崇祖思想이 稀薄해지는 世態下에 財政 마련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가 祖上을 爲하여 큰일을 한번 해야겠다고 決心하였다.

나는 먼저 손잡고 앞장서서 일할 사람을 물색하다가 서울에 居住하는 宗植 宗親과 相議해 보기로 하였다. 그는 宗事に 觀心이 많고 性格이 闊達하고 推進力이 있어 爲先事業에도 잘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約束한 어느날 宗植氏를 만나 우리 派祖 進士公 父子분의 모든 來歷을 說明하고 墓域復元은 우리 世代에 꼭 해야할 課題임을 詳細히 說明하였던바 그는 欣快히 贊同하고 우리 두 사람이 앞장서면 못할 것도 없다고 장담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事業計劃을 세우고 于先 全後孫들의 參與와 團結을 呼訴하여 宗會부터 結成하고 財政도 점차 늘려 나가면서 祖上을 爲한 事業을 하나 하나 推進키로 하였다.

한편 族譜를 中心으로 各種文獻과 記錄을 蒐集하였고 여러 어른들의 口傳談도 빠짐없이 記錄하였으며 宗植氏와 安城佛智, 墓所現場을 수없이 踏查하고 땅속에 묻인 石物을 考證하고 各種記錄을 檢討 分析하여 미친듯이 이 事業에 沒頭하였다.

이는 永遠히 後孫들에게 물려주기 爲해서는 可及的 조그마한 錯誤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責任感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全後孫 結集과 團合으로 誠金 모으는데도 總力을 傾注키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西紀 1997年 9月 10日 우리는 唐津出身 寬在氏와 榮在氏를 同參시켜 相議하고 進士公派 宗親會를 結成키로 決意하였다.

우리는 먼저 宗親集成村인 聞慶과 唐津地域에 各各 5名씩의 宗親會 結成 準備委員을 推薦하여 西紀 1997年 9月 18日 準備委員들에게 同趣旨文을 兼한 會議召集 案内狀을 發送하였다.

그리고 西紀 1997年 9月 25日 六三빌딩내 食堂 會議場을 빌려 宗親會 結成 推進委員會를 開崔하였다.

이에 聞慶出身 道植, 周溥, 時煥, 閏植氏(鶴九, 仁植氏는 委任)와 唐津出身 珠在, 東在, 商在, 沖在, 公在, 榮在, 天在, 鍾惠, 寬在씨와 서울 宗植氏등 16名이 參席하여 臨時 議長에 道植(筆者)이 選出되어 議事進行을 맡아 同趣旨와 祖上來歷 그리고 宗會結成의 必要性을 說明하여 滿場 一致의 贊同을 받았다.

會長 選出에 들어가서 宗植氏를 會長으로 推薦하여 全員贊成으로 可決하고 會長은 同會 常任顧問으로 道植을 推戴하였다.

그리고 副會長 및 任員은 聞慶出身 首席副會長 周溥, 副會長 鶴九, 時煥, 閏植, 仁植氏. 監事に 永培氏 總務에 仁木氏와 唐津 出身에 副會長 珠在, 東在, 商在, 榮在氏. 監事に 天源氏 總務에 沖在氏가 各各 決定되고 宗親會 幹事長에는 寬在氏가 選任되었다.

이렇게 任員이 決定되어 우리는 그 날부터 各者 任務를 띠고 協力하며 目標를 向해 뛰었다.

西紀 1997年 9月 27日 宗親會 會則草案을 作成하여 다음 運營會議에서 認准받기로 하는 등 備置해야 할

書類를 整備하였다.

그리고 宗植會長 自宅과 나의 집을 玆로 宗會 事務室로 利用하며 寬在 幹事長을 參與시켜 머리를 맞대고 同爲先事業 推進計劃樹立에 晝夜를 가리지 않았다.

이제 비로소 創立한 우리 宗會에서 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開拓이고 始作이었다. 經驗이 없이 祖上을 爲한 큰 事業을 하자니 무척 苦心하고 고달피서 個人 事務는 全廢하고 오직 宗事에만 매달렸다.

그리고 이 엄청난 爲先事業을 提案한 나는 또 한가지 苦悶이 있었다.

오랜 歲月에 失傳된 淑孫公의 墓는 어떻게 찾을 것이며, 또한 客觀的인 證明을 어떻게 내세울 것인가?

宗植, 寬在氏와 佛智 現場을 繼續 踏査하고 땅속에 묻혀있는 各種 證據 石物을 찾아 여러차례 考證分析하고 周圍 어른들의 證言을 參酌하여 進士 公父子분의 墓位置를 確認한 우리는 于先 첫 事業으로 進士公墓 原位置 移葬과 아드님 淑孫公墓의 復元計劃을 세웠다.

그러나 事業財政 마련이 第一 큰 問題이다. 玆 創立된 宗會에는 資金이라고는 全無하니 이 問題도 우리가

안고 뛰어야 한다.

우리는 全後孫을 巡訪하며 說得하고 呼訴하여 募金을 하기로 日程을 잡아서 먼저 聞慶宗親 集成村을 訪問키로 하였다.

우리의 連絡을 받고 마을 會館에 모인 老少宗人들에게 準備해간 鳥瞰圖를 내놓고 우리들 子孫들이 당장 해야할 時急한 爲先事業임을 強調하고 支援을 呼訴하였다.

同趣旨에 全員이 同感은 하나 그 큰 事業資金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念慮도 하였다.

그날 저녁에는 그곳 花樹會 主催로 歡迎의 晚餐待接을 받았다. 그리고 仁植副會長은 宗植會長 內外分을 自宅으로 招待 留宿케 하며 宗親의 따듯한 情을 보였고 다음날 아침 우리 一行이 訪問한 자리에서 그는 선 듯 獻誠錄에 多額의 獻金 署名을 해주어 우리의 募金活動에 큰 希望을 주었다.

歸路에 忠州 時煥宗親을 訪問하여 더 큰 誠金을 받고 意外로 熱誠을 보인 宗親들의 崇祖思想에 感動하였으며 歸京길에 城南市 居住 周溥宗親으로부터 多額의 贊助金을 받고 돌아온 우리는 그간의 計劃이 꿈만은 아닌 現實로 祖上을 爲한 事業이 곧 完成될 것으로 豫見하였다.

日程대로 곧이어 唐津宗親 集成村을 訪問하여 亦是 여러 宗親들의 歡迎속에 珠在 門中會長을 爲始하여 東在, 鍾琬, 冲在氏等 여러 宗親들과 午餐을 나누며 事業計劃을 相議한바 滿場一致의 贊同과 多額의 支援署名을 받고 우리는 血肉의 情을 더욱 느끼고 큰일을 잘하라는 策策으로 믿고 강한 責任感을 느꼈다.

이어 宗植會長이 큰 金額을 내놓아 더욱 順調롭게 計劃이 進行되고 繼續하여 炯一氏, 鎔在氏等の 多額 支援과 많은 宗親들의 誠金이 遷至(답지) 함으로써 첫 計劃된 事業에 着手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하여 傳統儀式으로 進士公 父子內外分の 墳墓 移葬 復元工事を 企劃하고 擇日을 하여 年運이 맞는 當年 즉 西紀 1997年 11月 29日(陰曆 丁丑 10月 30日)로 着工日을 決定하고, 모든 宗人들에게 通文을 보내 參與토록 하였다.

西紀 1997年 11月 29日 工事當日은 雨中임에도 不拘하고 많은 宗親들이 모였다. 進士公墓緬禮와 淑孫公墓 復元에 있어 可及的 傳統禮法을 지키려고 事前에 많은 研究와 諮問을 구하였고 細心하게 神經을 써서 葬擇日을 하여 많은 經驗이 있는 業者에게 工事

를 맡겼으며 山神祭 破墓祭를 올리고 平土祭에는 父子兩位분께 各各 祭需를 精誠껏 차렸고 遺骨은 정성드려 잘 收拾하여 喪布를 사용하여 모셨으며 準備한 誌石을 安置하고 各 内外 同封으로 모셨다. 現場에는 60餘名の 宗親들이 參與하여 지켜보는 가운데 嚴肅하게 無事히 行事를 마쳤다.

西紀 1997年 12月 14日 一次 爲先事業을 마친 自祝宴을 兼하여 第一次 運營委員會를 仁川 송도비치호텔에서 52名の 運營委員이 모여 盛大히 치렀고 앞으로 一致團結하여 2次, 3次 事業을 推進기로 期約하였다.

西紀 1998年 3月初 兩位墓所에 碑等 石物 立石計劃을 세우고 聞慶市 鄉校典校를 歷任한 退溪先生 直系孫이며, 漢學者인 李源榮氏로부터 碑文을 받기로 하고 宗植 會長과 寬在幹事長이 同行 시골 그의 自宅를 訪問하여 進士公父子분의 來歷草案을 내놓고 碑文을 請託하니 그 어른은 반갑게 맞이하며 “나는 崔萬理先生을 世宗大王보다 더 尊敬하는 사람일세 그 當時 어려운 時期에 만들어서 반포한 언문이 몇 百年동안 무엇에 쓰였는가? 그 當時부터 언문전용을 했으면 오늘날 우리나라 學問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나는 이 어른 碑文 한번

짓는 것이 所願이었는데 그의 아드님이라니 참 기쁘고 榮光스럽네”하던 그 모습이 선하다.

이렇게 父子분의 各 碑文을 받아 앞쪽 큰 글씨는 서울 居住 初代國展 書藝審査委員長을 지낸 古蓬 崔承洛氏에게 依賴하였고 立石工事は 聞慶所在 石工業者에게 맡겨 우리는 수없이 現地에 가서 監督하여 나름대로 훌륭한 碑를 完成하고 立石 竣工式 擇日을 하였다.

西紀 1998年 4月 12日 派祖 進士公父子분의 墳墓 移葬復元 및 豎碣 竣工式을 舉行하였다.

來賓으로는 大宗會 吉竣會長님 外 幹事一同 그리고 各派 宗親들이 參與하여 주셨고, 우리派 宗人들은 夫婦 同伴으로 200餘名이 모인 盛況을 이룬 가운데 盛大히 竣工式을 舉行하여 後孫들의 五百年 宿願을 成就한 그 기쁜 자리에서 式後行事로 進士公派 宗親會 創立 總會를 開催하였으니 全 後孫들의 和合과 崇祖思想 鼓吹에 새 轉機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우리 進士公의 後孫들은 一致團結하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自進 支援하고 聲援하여 短時日內에 이 큰 工事が 完成되니 亦是 海東孔子 文憲公의 後孫다웠고 顯祖 諱 萬理

副提學公의 훌륭한 일을 이어 받은 名門의 子孫임을 새삼 느꼈다.

특히 이 行事に 典翰公派 良齋公 宗孫 理燮族丈의 많은 助言 및 諮問과 康燮氏의 物心兩面의 支援에 깊이 感謝하며, 그리고 佛智宗親들의 聲援에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

지금은 우리 進士公派 宗親會 2代 會長인 炯一氏가 宗會를 알차게 이끌어 가고 있으며 昨年에는 墓域 앞에 獻誠紀念碑를 세우고 今年 봄에는 耕作이 어려운 位土 800餘坪에 對하여 整地作業을 하고 管理人을 두어 墓所 管理와 時祭의 祭需 마련에 기틀을

마련하였다.

돌이켜 보건대 赤手空拳으로 始作하여 이렇게 큰 事業을 短時日에 完成했다는 것은 누구보다 熱誠的인 宗植會長과 筆者가 晝夜를 가리지 않고 오직 이 事業에만 매달려 推進하고 副會長團等 任員들의 全幅的인 支援 그리고 全宗人들의 聲援으로 完成된 것이다. 卽 三位一體의 結實이라 하겠다.

以上과 같이 現世 後裔들의 爲先事業 活動 狀況을 大綱紀錄하고 將次 後孫들의 本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海州崔氏宗親會

副幹事長 道 植

大寧君派 乃村宗會 및 淸寶齋

載 圭

(大寧君派 乃村門中)

江原道 洪川郡 乃村面 道寬里는 백우산(해발 878m)에 에워싸인 동네로서 물 좋고 인심 좋은 곳이며 또한 忠節의 고장이기도 하다.

日帝治下の 抗拒를 위하여 三一獨立만세 運動을 하다 遺命을 달리하신 愛國志士의 記念碑가 保存되고 있다.

乃村門中은 十三世 沆(字)官. 大護軍 先祖任께서 洪川으로 落鄉하시어 삶의 터전으로 자리를 잡으셨기에 現在 乃村宗中이 이곳에 터전의 뿌리를 내리고 代代로 살아왔으며 李朝時代를 거쳐 오면서 한때는 洪川郡一圓에 海州 崔氏의 集成村일 만큼 많은 門中이 살고 있었으며 社會變化흐름에서 오는 즉, 農耕社會에서 輕工業發展과 産業國家로 변함에 따라 농촌에서 生活中心이 都市心圈으로 이동되면서부터 우리

내촌문중도 生活環境 變化에 따라 都市로 住居生活·教育등 삶의 터전이 移動함에 따라 宗親 모두가 都市로 옮겨가고 現在는 小數의 宗親들께서 그나마 故鄉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乃村門中 後孫은 十八世孫 澤(字)武科·官 副司果를 歷任하신 後孫이다.

澤(字)先祖님의 둘째 子弟이신 十九世孫 裕(字)仁(字) 武科專攻學文에 努力하시었으나 家庭形便 때문에 科舉試驗에는 應試하지 못하였으나 文武兼學을 하였기에 周邊으로부터 많은 稱頌과 德望을 받으신 先祖님이기에 門中에서는 崇祖事業을 하기로 중지를 모아 現在의 祠堂建立計劃을 하고 基金募金이 滿了되는 1998年 3月 着工하여 1999年 10월에 完工하였다.

乃村門中은 1996년부터 先祖奉享

및 崇祖事業을 하기로 결정하고 약 3年 동안 基金마련을 위하여 各宗親의 生活能力에 따라 分擔金을 정하여 募金한 基金으로 本 祠堂(清寶齋)을 建立하게 되었으며 建築工事費用은 약 1억2천만원과 祠堂敷地는 門中所有 不動産에서 進入道路포함 약 350평을 전용하였다.

現在 本 祠堂에는 文憲公 先祖님의 影幀과 十九世孫·(字)仁(字) 位牌와 二十七世孫·協(字)東(字)司憲府·官 監察 二十七世孫·潤(字)東(字)中樞院·議官 歷任까지 23位의 位牌가 奉安되어 있고 每年陰曆 10月初 3日에 時祭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乃村門中에서는 우리의 葬禮文化改善을 위하여 墓地보다는 納骨墳墓을 設置하여 效率的인 國土利

用에 寄與하고자 納骨墳墓建立을 推進중에 있으며 多數의 宗親들께서 本事業에 同參할 뜻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前任會長께서 못다하신 後孫에 대한 올바른 人性教育에도 最善의 努力을 다할 것이며 前任 載應會長님의 教育者 公職 40여년의 經驗을 바탕으로 家庭에서부터 올바른 教育을 시켜 後孫들이 社會生活에서 模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新任會長을 中心으로 450여명의 宗親 모두가 努力하고 있다. 現在 乃村門中은 150여 世帶로 宗親의 數는 약 370여 명으로 構成되고 있으며 社會 各 분야에서 열심히 努力하고 있습니다.

乃村門中の 發展을 위하여 大宗會 및 各 계과 宗親會의 많은 激勵을 부탁드립니다.



乃村宗會의 齋室 “清寶齋”

海觀公(해관공) 永慕齋(영모재)

泰 峯

(領南支會 幹事長)

海觀公(휘:是南)은 해주최씨 시조로부터 21世孫으로 조선 명종조 통정대부 돈령부도정(通政大夫 敦寧府都正) 휘 유의(有誼)의 장자로 태어나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불지에서 살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義兵에 들어가 왜군을 물리치기에 전력을 다 하였다. 역부족으로 전국이 왜병들에게 유린되기에 이르자 혈혈단신으로 지금의 경북 선산군 산동면 백현동 상옹현(곰재)으로 피난하여 세월을 보내다가 일선 김씨(一善金氏)를 만나 배위(配位)로 맞아 성가하여 살만하게 되었을 때 불행히도 배위를 사별하게 되어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선산의 금오산을 향하여 이거를 계획하고 가던 중 산자수명한 자연경관에 마음이 끌

려 잠시 머물기로 한곳이 지금의 칠곡군 가산면 학산동 둔현으로 오늘의 집성촌을 이루게 되었다.

公의 人品과 學德이 뛰어나서 이런 人材가 草野에 묻혀 있기는 可惜하다고 조정에 천거를 여러번 초빙되었으나 一生동안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향리교육 후진양성을 위해 강학당을 세워 후학에 힘쓰시며 士林으로만 생활하시다가 淸儉과 謹慎으로 癸巳年(1653) 8月 25日 壽 71세로 一生을 마치시니 幽宅은 多富 所也 峴山 6번지 乾坐에 安葬하였다. 이곳은 世宗 때 1440年 경에는 仁同縣, 東面 多富院이라 했는데 다부원은 한양길의 주도로에 위치하여 공용 여행자의 숙식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곳이어서 상설곡창이 있어 넉넉한 역촌이 되어

서 부자답게 잘산다하여 多富院이라 불리었다고 하며 고위관리나 고을원이 행차시에는 반드시 仁同을 거쳐 이곳에 머물러 갔다고 한다.

그후 세월이 멀어지는 동안 兆域은 허물어져 후손들은 길일을 택하여 墓地를 加封하고 石物을 바르고 甲午年(1894) 7月 23日 巳時에 공개서 居하시며 학산리 후학도를 양성하던 학당터에다 後孫과 學徒의 후손들이 遺德을 추모하기 위하여 永慕齋를 세웠다.

처음 건립, 입주 사용하던 곳은 특히 夏課에 先進들이 찾아와 詩文을 익히는 장소로도 유명하였다고 한다.

舊齋記文에 遊學山河, 精氣를 받은 地勝景은 齋室 동쪽에는 닭이 울며 날아오는 午鷄山이 제1경이요, 재실 서쪽에는 금오산머리 흰눈 쌓인 경관이 제2경이요, 재실 남쪽에는 새소리 피리소리 어울려 울긋불긋 꽃향기내 나는 것이 제3경이요, 재실 북쪽에는 유학산 淸高에서 白鶴들이 마을에 날라 내리는 모습이 제4경이요, 淸溪 맑은 물소리 成淵 山紫水明한 자연경관이 제5경이요, 秋月三更, 古古木露光風 그 달빛이 은은함이 제6경이라 하였다.

이 시문은 노산 이은상 선생이 남

겼다. 상량문은 문교부장관 민관식씨가 撰하였다.

世帶가 멀어지는 동안 돌변사태를 거쳐오면서 1919年과 1954年 두차례 부분 중수하고 특히 1950年 庚寅 6.25전쟁으로 인하여 크게 파손되어 건물 유지상 보존불능 상태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1983年 (음)10月 15日 墓祀日에 重修나 移建이나를 놓고 발의하였던바 이구동성으로 소야현으로 이건설 것을 결의하고 수차에 걸쳐 종회소집, 사업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사업계획에 의거 학명리 764번지 대지 206坪 同 745번지 田 187坪 同 729번지 田 25坪 都合 418坪 3필지 중에서 116평 접도저촉 면적을 공제하고 나머지 202坪은 空地로 활용되도록 하여 실대지 면적 약 91평에다 건축면적 약 9평(본재 및 부속건물3평) 설계를 왜관 구성설계 사무소에 의뢰하여 84年 11月 1日 건축허가 신청서를 칠곡군청에 접수 84年 11月 17日 칠곡군 건설 455-990호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85년 3월에 공사착공한 후 약 1년 동안 공기를 거쳐 86年 1月 6日 준공되어 총공사비 및 경비 2,6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되었다.

건축양식은 한식으로 기와지붕은

신라고적에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경주에 거주하는 종친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재면에 다소 참고가 되게 하였고 正三間 正門으로 규모는 작지만 4兩柱 柱聯의 柱頭를 쓰고 기둥은 윗몸에 창방을 짜올리고 그위에 평접을 들렀으며 내외삼 출목의 가진 포각을 짜 올렸다. 대들보에는 전면 평수로 부터 추불벽이 있고 보 아래에는 보다지를 깊숙히 받치게 하였으며 가운데 대청에는 마루를 깔았으며 방내벽에는 실경을 설치하고 구들은 옛 온돌식으로 꾸밈으로써 시초의 영모재 규모로 이견하게 되었다.

당초부터 족친들의 애쓰신 추원의 정신과 보본의 뜻으로 물심양면의 협조가 있으신 분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비석에 새겨 永世에 남기고자 齋庭에 豎碑하다. 90年 5月 6日(음 4月 12日) 쾌청한 봄날을 맞아 落成式을 회순에 따라 국민의례부터 시작하여 종회장 상학씨의 인사말에 이어 필자(태봉)가 사회겸 사업경과 보고에 이어 秉權氏의 치사, 大宗會長 元植씨의 축사 등으로 이어져 각 계에서 참석하신 유림과 내빈 종친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특히 내빈으로 참석하신 張永喆 국

회의원, 칠곡군수 가산면장, 다부초등학교장, 대종회장, 영남지회장 등의 내방과 축하생화등이 식장을 한층 빛나게 하였다. 뜰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가슴에 와 닿는 감회는 바로 영겁으로 이곳이 陽宅이구나 할 정도로 산자수명하고 청운의 아지랑이도 단장한 영봉이 동으로 팔공산의 가산산성이 북으로 유학산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소야현 生居鶴山 死居所也로 묵묵부답으로 이를 말해주고 있다. 산천도 몇 번이나 변하고 역사는 면면히 이어 왔지만 그간의 분묘는 허물고 지석도 인멸되니 우리 雲仍으로 애통이 여겨져 소야현 산록에 있는 고분이 公의 봉분, 그래서 破誌石을 얻었으나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관혁 등 모든 기록이 적설하여 또다시 94年 10月 28日(음 9月 24日) 諱: 山立, 遜立, 謹立, 3兄弟 3位分의 碑碣立石除幕式을 갖추었다.

그리고 본 사업추진에 공로자이시고 준공을 눈앞에 두고 별세하신 諱光聖, 號 石泉, 忌當 週年을 맞아 政巖(秉權)先生께서 다음과 같이 추모시를 撰하셨습니다.

宗有一善人 祖訓銘諸已
石泉諱友淳 家箴付子孫

恒壞敦宗誼 躬行爲先事
常念繼世親 董役永慕齋

齋成在眼前 黃泉無心處
壽何七七居 乘彼白雲遊

存以千宗睦 戒直人性綱
去而一門悲 唯傳家世彰

丙貴 忌當 一週年 族姪政巖 撰

그리고 落成을 기념하기 위하여 遷
建詩集 全卷 232首를 刊行하였으며,

그중 한수를 다음과 같이 소해한다.

海觀公께서 入鄉하신지 數百年에
永慕齋를 세웠으니, 東에서 밝아오
는 遊鶴, 黃鶴, 小鶴山, 先峰이래 흡
족하고 단장된 모습으로 세웠으니
초생달 같이 크게 빛이날 懸板, 흐르
는 낙동강 물결처럼 생기가 돌아 화
기애애하니 所也峴 多富院 고개에는
새바람일고 저녁연기가 일어 품는듯
정성과 힘을 다하였으니 落成式날
各地貴賓여러 종친들이 만장연회장
이어지는 자리 되었으리.

海州崔氏宗親會

嶺南支會

崔文憲과 「華海師全」

康 勳

(현감공파 三十七世孫)

首陽世稿와 海崔庚午譜에서 [原州 雉岳山 元耘谷岩壇 箕子前壇配薛弘儒 崔文憲···]과 [原州 雉岳山 岩壇 配位 崔文憲公位前配 申弘尙 申晟 申勁 崔惟善 崔惟吉 崔思諒 崔思諷 崔敏鏞 韓子純 金行瓊···]이라는 대목을 보고 순간 강원도 치악산에 가면 文憲公의 史蹟을 내손으로 더듬어 볼 것 같은 충동을 느꼈다.

망서릴 겨를도 없이 치악산 주변의 탐방에 나섰다. 元耘谷의 묘소와 자손, 고찰의 스님과 요로를 두루 찾아 보던중 향토 사학자 한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과도 함께 나서게 되었다. 그결과 重讚理事는 사학자의 지침에 따라 元처사의 암굴을 비로봉 높은곳 풀섬에서 지난 6월 13일에 찾아냈다. 물론 산길에 익숙하지 않

고서는 해내기 어려운 일이었다. 찾아낸 암굴에는 기대했던 사연이 없었다. 일시 실망스러웠으나 계속 사학자의 도움을 받았다. 결국 그분이 지시했던 자료중 [華海師全]에 그 내용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華海師全은 華海師(명나라와 고려의 스승이라는 뜻)인 不諛齋(불훤재) 文貞 申賢의 사적이 강제로 소각당하게 되자 제자인 鄭夢周가 그의 학문과 언행을 수집하여 은밀히 元耘谷(운곡)에게 보낸 것을 元耘谷이 총단하고 伏厓 范世東이 편집하여 한권씩 소장했다는 저서이다. (半江 古典研究所) 이것이 비장되어 오다가 李朝末에 발견되어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이 저서는 현재 1920년에 목판 인쇄본으로 발간된 것과 1931년 활자

본으로 발간된 것이 있는데 한편 平山申氏 太宗中에서는 이 둘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불훤재 신현의 계보에 문제가 있으며 또 正史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석연치 않다.

최근 발간된 “儒學史上崔冲의 位相”에 柳承國선생(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전 정신문화 연구원장)과 劉明鍾선생(한·중 철학회장)이 기고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화해사전중 [東方淵源錄] 등은 분명히 학계의 관심사가 되어 있고 특히 문헌공 최충의 유학사상의 공적을 재조명하는 훌륭한 史料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저서가 확실하게 인정받고 널리 보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중 일부를 인용하면.

1. 東方淵源錄

元耘谷은 箕子가 東方에 온 후 弘儒 설충이 처음으로 儒學統을 세웠고 그후에 崔文憲이 中興大創하였다고 말하고 유학의 道通을 다음과 같이 꼽았다.

弘儒 薛聰→文憲 崔冲→文安 金良鑑→文成 安珣→易東·禹倬

文貞 申賢→포은 鄭夢周→穆隱 李穡

2. 元耘谷居義편(海崔庚午譜 관련)

原州 雉岳山 岩壇에서 있었던 일을 伏厓가 이곳에 전하고 있는데 太宗 李芳遠의 스승이었던 元耘谷과 그를 추종하는 선비 陰村 金若時등 二, 三十人(대부분 杜門洞 七十二賢)이 해마다 봄, 가을에 元處士의 거처인 雉岳山 암단에 모여 바위에 위치하여 단을 만들고 제사를 올렸다고 적혀있다. 그 바위가 弁岩(꼬갈바위)이라는 이름으로 비로봉 정상 바로 아래에 실재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들의 配祀 내용은 列聖 즉 단군, 기자, 왕건 태조로부터 나라를 망친 驪興(우왕), 江華(창왕), 杆城後王(공양왕)까지를 모시고 다른 한편 有道之士와 殺身死義한 仁者들을 모두 배사하였는데 그중 有道之士는 다음과 같다.

箕子 전단에 弘儒(설충), 文憲(최충), 文安(김양감), 晦軒 文成(안향), 易東(우탁), 不諛(신현), 簡齋(신용회)이며,

薛聰 앞에는 申守忠,

崔冲 앞에는 申氏三世(弘尙, 晟, 勁), 冲의 二子(惟善, 惟吉), 二孫(思諒, 思諫), 崔敏鏞, 韓子純, 金行

瓊이며

金良鑑 앞에는 없음.

安珮 앞에는 白諱正父子, 崔有關 등
二十여명으로 文成의 학문을 따른
선비들이며 文成몰후 이들은 易東을
따랐고 역동 몰후에는 文貞으로 이
어졌다.

끝으로 이 일을 위하여 현지에서
처음부터 도와 주신 죽마지고우 康斗
和 의원과 史實확인을 위하여 시간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 향토사학자 半江
金鎬吉선생, 漢學者 松汀 金教熙선생
에게 감사한다.

축

해주최씨 종지 제3집 발간

해주최씨 대종회

임원일동

監察公派 후손 世居地 晉州

貳 洙

諱·華·公은 조선 세종조에 監察御使 12世孫 諱·仲濕의 配位 礪山宋氏 간에서 일곱분중 끝으로 誕生하시었다. 初諱는 銀達이요, 字는 自河이시다. 父兄 밑에서 童蒙先習과 孝經 등 학문의 영역을 넓였다. 公께서는 文科에 入門하여 52歲 工曹叅議(正三品) 通政大夫 堂上官으로 昇職하였으며, 이곳 晉陽 擇溪부락에 土着姓氏가 되시었으며 우리 海州崔氏에 이어 晉陽鄭氏 居昌劉氏 順으로 三姓氏가 擇里하게 된 緣由이다. 그후 擇溪를 德溪로 變更되기도 하였다. 元來이 고을은 山川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蓮花山 玉泉寺의 물맛이 좋기로 이름나, 詩人, 墨客, 옛 賢士들이 많이 모여들어 詩書, 詩感을 교환하고 貴族階級을 배경으로 한 尊賢思想

基本精神으로 愛國忠臣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한다. 竹谷村 입구 南岳寺와 上里面 鳥頭山 文殊庵은 박문수가 修行하여 暗行御史로 出世하였다는 곳이기도 하다.

壬辰倭亂 당시 三大捷의 하나인 晉州城에서 약 4km쯤 되는 汶山邑을 거쳐 金谷面 소재지 두문에 이르면 固城, 泗川등지로 갈라지는 東西南北 네거리에 다다른다. 여기서 남쪽으로 약 2km쯤 進入하면 省山里 마을입구에 마치 한폭의 묵화의 병풍처럼 대나무 숲이 울창하게 둘러있고 樹齡이 수백년이나 되는듯한 古木들이 감싸워주고 있는 마을이 한눈에 볼 수 있다. 大可面 永縣面 汶山邑을 거쳐 南江으로 흐르는 潁川江의 비옥한 문전 옥답은 어떠한 平原廣野도 부럽지 않

다. 上流時點이 鳳臺山下, 先代祖 墓域이다. 文憲公 千周年 誕生紀念 大同譜 8권 341쪽에 監察公派 晉陽系로 수보수록 되었으며 이를 追慕하기 위해 思源齋가 創建되어 매년 陰 10월 15일 各地에서 살고 있는 많은 후손들이 參與하기도 하다. 公께서는 享年61歲로 別世하시어 鳳臺山 狗頭嶺 乾坐에 安墓하시다. 傳說에 依하면 天地開闢時에 鳳 一雙이 이산에 생존하였다는 說로 진위여부를 떠나서 鳳臺山으로 명명되어 名地이기도 한다. 지금은 自治行政으로 晉陽郡이 晉州市로 統合되었으며 그 유명한 城地 晉州城은 壬亂義兵活動史 일부를 略記해 보면 南門에는 矗石樓와 朱論介祠堂과 南江邊에 危岩이 아닌 義岩과 義岩祠西章臺 北章臺내 彰烈祠,

孝國寺 등이 歷史的 召命을 말해주고 있다. “축석루 최후의 그날” 金千鎰, 高從厚, 三壯士와 忠毅公 崔慶會 장군은 피맺힌 목소리로 誓死詩(죽음의 맹세)를 읊고 殉節한 文獻記錄과 碑文이 있다. 축석루 가운데 세 장사는 한잔 술잔을 들어 웃으며 저 강물을 가리키노라. 저 긴 강물은 도도히 흘러가노니 저 물이 흐르고 있는한, 내 혼 역시 죽지 않으리하고 북향 4배하고 慶尙右道 兵馬節度使 印을 가슴에 안고 강물에 뛰어 최후의 날을 마쳤다 한다. 이때가 癸巳年(1593) 6월 2차戰鬪 9晝夜 義兵團과 率官 7萬 抗戰이 崇高한 精神으로 이겨내었을 것이다. 本資料에 關한 도움말과 協力 해주신 嶺南支會 幹事長 泰峯宗親께 深甚한 感謝를 드립니다.

在北先祖 設壇碑設立 除幕式

倣 鉉

(佐郎公派 參判公 後孫 宗中 會長)



參判公宗會 設壇碑 준공사진

좌랑공과 참판공 후손 종중에서는 6.25전쟁으로 인하여 국토가 분단되어 재복선조님에 대한 時祭를 闕祭하는 不敬을 금할 수 없어 1999年 12月 7日 서울 종로3가 종묘식당에서 대의원총회를 소집 대의원 과반수 이

상 참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17世 諱 璿 參判公의 두 아드님 휘:汝灌. 휘:汝漑의 設壇碑 建立에 대한 취지와 계획서 및 비석 규격과 설치도면을 설명하고 찬반토의를 한 결과 洛系의 冕植 종친이 조상을 모시는 일

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찬성 발언에 참석자 전원이 동의발언으로 만장일치 찬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에 允植 고문을 선출하였으며 위원에 회장단 4명(倣鉉, 得珠, 光日, 光國)과 各 6個系譜에서 6名(大植, 冕植, 忠順, 長植, 炳一)을 선출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0年 1月 18日 서울 종묘식당에서 설단비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설단비 건립 비용은 협찬금으로 충당키로 결의하고 비의 전 후면과 좌·우측의 문안을 설명하고 小碑 4개 문안도 설명한 후 문안조정에 대한 논의에서 涑系의 炳一종친이 문안을 간편하게 수정할 것을 제의하자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문안을 재조정해서 사업에 착수하였다.

石材商 4개소를 방문, 견적서를 제출받아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품질과 기술 가격의 적정한 기준에 따라 충남 보령시 해명석재와 계약한 후 2000年 5月 7日 비제작이 완성되어 오산시 내삼미동 휘 선(璿) 참판공 묘역하에 설단공사를 마치고 祭日을 5月 19日로 택일하여 전국 각 지역의 많은 후손들의 참석리에 성대하고 경건하게 設壇祭祀를 奉享하고 建立 經過報告와 結算보고를 마친 후 추진위원회 해단을 선언한 후 음복주와 증식을 들며 50여년간의 恨을 풀고 후손에게 崇祖 정신을 심어주었으며 門中和습에 크게 기여하였다.

치악산 원운곡(元耘谷) 암단 탐방기

重 讚

(35世)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이기 시작하는 2000년 6월 13일 아침 9시, 원주 치악산 비로봉 부근에 있다는 변암(弁岩)을 찾기 위하여 치악산 동쪽의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치악산 자락의 가래골 계곡 입구에 도착하였다.

오늘 찾아 가야할 변암 5km, 비로봉 6km라 써여 있는 풋말을 지나 다리를 건너자마자 우측으로 나 있는 시멘트 포장 길을 따라 가다보니 착하고 순하게 생긴 어미소 한 마리가 긴 줄을 늘어뜨린채 나를 반긴다. 무언가 통할 것 같은 시선을 뒤로한채 잠시 멈추었던 발길을 재촉하고 먼 발치에서 뒤돌아 보니 아직도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서있는 모습에 마음이 찡하였다.

그러나 오늘 나는 가야할 길이 멀다. 그 혼한 강아지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호젓한 어떤 집 마당을 가로질러 등산로 입구에 접어들었다. 이제 오늘 찾아가야할 변암은 어떤 곳이고 왜 그곳을 찾게 되었는지를 이야기 하여야겠다.

초여름이 시작되는 6월 초순 본종회(김포종회) 부회장이신 종손(康勳)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며 함께 원주 치악산을 답사하자고 하셨다. 말씀인즉

1990년 발간된 海州崔氏 大同譜(庚午譜)(해주최씨 대동보(경오보)) 1권 277쪽에 원주 치악산 원운곡(元耘谷)의 巖檀(암단)이란 제하의 내용을 보면 원추 치악산 耘谷 元天錫(운곡 원천석)선생이 隱居(은거)했던 암

단에 해주 최씨 시조이신 文憲公 崔冲(문헌공 최충)의 神位(신위) 앞에 崔惟善(최유선), 崔惟吉(최유길), 崔思諒(최사량), 崔思諷(최사추), 崔敏庸 先祖(최민용 선조)와 禹易東(우역동)의 신위 앞에 忠憲公 崔有滄(충헌공 최유엄) 선조 등, 뛰어난 도덕심과 학문적 역량으로 추앙받던 선조들이 配享(배향)되어 있으니 그곳을 답사하여 보자고 하셨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원주 치악산 元耘谷(원운곡)의 巖檀(암단)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먼저 耘谷 元天錫先生(운곡 원천석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운곡 원천석은 조선왕조 태조 이성계의 친구이자 태종 이방원의 스승이었으며 이성계와 이방원 부자에 의하여 고려가 망하게 되자

興亡(흥망)이 유수(流水)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로다.
五百年 王業(오백년 왕업)이 牧笛(목적)에 부쳤으니
夕陽(석양)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겨워 하노라.

라는 時調(시조)를 남기고 개성을 떠나 원주 치악산 속으로 들어가 隱居

(은거)하였다 한다. 때로는 覺林寺(각림사) 등에서 강론(講論)을 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각림사는 지금 남아 있지 않으며 그 절터에는 講林面事務所(강림면사무소)와 郵遞局(우체국)이 자리잡고 있다. 일부는 밭으로 남아 있는데 행정 구역 상으로는 江原道 橫城郡 講林面 講林里(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이다.

지명이 講林里(강림리)인 까닭은 운곡 선생이 강론을 할 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하여 講林(강림)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말과 覺林寺(각림사)의 覺林(깨달음) 이 발음이 불편하여 강림으로 되었다는 말이 있다.

이방원이 조선의 3대째 임금으로 즉위하니 이가 곧 태종이다. 태종은 스승인 운곡선생을 도성으로 모셔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치악산으로 스승을 찾아 오지만 운곡선생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버리고 만다. 태종이 수레를 타고 넘은 고개(현 치악산 드림랜드 쪽 다리골에서 강림리와 사이 고개)를 '수레넘이재' 라하고 그 수레가 머물렀던 곳 '車留'(차유)는 현 강림 4리의 자연 부락 이름이다.

태종이 운곡 선생을 찾아가다 길을 두 갈래로 갈리는 곳에 이르러 빨래는 하고 있는 한 老嫗(노구)를 만나

게 되어 혹 운곡 선생이 지나가지 않았는지를 물어 노구가 가리킨 길을 따라 찾아보았으나 운곡을 찾지 못하였다. 운곡 선생이 지나갈 때에도 노구는 빨래를 하고 있어 “누가 와서 내 행방을 묻거든 저쪽으로 갔다고 전해 주게.”라고 노구에게 말하고 다른 길로 갔던 것이다.

노구는 태종이 운곡을 찾아 떠난 다음에야 임금인 줄을 알게되어 그 죄책감과 송구스러움에 스스로 깊은 물에 몸을 던져 자진하였다 한다. 지금도 노군가 빨래를 했던 바위에 ‘嫗淵’(구연)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있고 이 곳을 ‘老姑沼’(노고소)라 하며 노군가 가리킨 곳을 ‘橫指岩’(횡지암)이라고 한다.

운곡 선생을 찾아 헤메다 태종이 잠시 머무른 곳에 ‘駐蹕臺’(주필대)라는 돌비석이 서있고 그 밑 커다란 바위에는 ‘太宗臺’(태종대)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 그때의 일을 짐작케 한다. 며칠을 머무르며 운곡 선생을 찾던 태종은 끝내 스승을 찾지 못하자 스승이 있는 산을 향하여 존경과 작별의 아쉬움을 담아 절을 하고 도성으로 어가를 돌렸다고 한다. 그때 태종이 절을 했던 산은 ‘拜向山’(배향산)이라고 불린다. 지금 운곡 원천

석 선생을 절개를 지킨 지조있는 선비의 표상으로 숭앙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일 것이다.

이러한 운곡 선생이 은거하던 변암에 우리의 선조이신 文憲公 崔沖(문헌공 최충) 선조외에 앞에서 열거한 분들이 운곡 선생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인물로서 배향되어 있다면 우리 문중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그 실체를 찾아 확인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유로 6월 9일 종손어른과 함께 원주의 향토 사학자 김호길 씨를 대동하고 운곡 원천석 선생의 유적지 여러 곳을 답사하고 그 날의 일정상 가보지 못했던 변암을 내가 먼저 답사하여 보고자 하여 이 산행을 시작한 것이다.

일제 치하 베어낸 나무를 나르기 위하여 닦아 놓았다는 계곡 옆의 길을 따라 10분 정도 올라가다가 가던 길을 버리고 우측 좁은 길을 들어서니 길은 좁지만 이 길도 역시 일제가 나무를 실어나르기 위하여 닦은 것 같다. 길은 좁으나 갈대와 잡초가 나 있는 형태가 수레이상의 교통 수단이 다니던 흔적이 역력하다. 잡초가 우거진 곳을 지나면 옛 집터 같은 곳이 간간히 보이고 그 곳을 지나면 산은

약간의 경사를 이루면서 어디서나 그렇듯이 굽지 않은 소나무가 많은 좁은 등산로가 깊은 계곡을 끼고 시작된다.

매표소 직원이 일러준 길로 제대로 찾아온 것 같다. 숲은 울창하고 흐르는 계곡물은 더욱 소리를 높이는데 등산 표시기는 보이지를 않는다. 자연보호 차원에서 모든 표시기를 제거했다는 매표원의 말이 맞는 것 같다.

등산의 묘미는 또 이렇게 아무 표시가 없는 곳을 지도 한 장에 의지한 채 찾아가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가래골 입구에서 변암을 가는 등산로 표시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지도는 물론 다른 지도 상에도 없다. 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면 바로 길 옆에 변암이 있으니 걱정 말라던 매표원의 말을 떠올리며 길을 재촉했다. 좀 불안하지만 계곡을 건널 때마다 어김없이 겪어야 하는 희미한 길 찾기는 또 그런대로 묘미가 있다. 계속 계곡 물을 옆에 끼고 오르는 길 이기에 산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변암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그 옛날, 지금부터 거의 600여 년 전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혜택도 없이 어떻게 이런 높고 깊은 산 중에서 그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었을까?

더구나 강원도 추위에 거의 해발 1300m가 되는 산 속에서 아무리 성품이 강직하고 육신이 강골이라 하여도 과연 운곡 선생은 어떤 분이기에…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운곡 선생이 먼저 걸었을까도 모르는 길이 아닌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구슬땀을 흘려가며 길을 재촉하는데 저만큼 앞에서 인기척이 난다. 산을 오르기 시작한지 1시간 여만의 일이다. 좀 높은 바위에서 시원스레 떨어지는 계곡물에 땀을 식히며 나이 지긋한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산에서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인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 분들은 나에게 일요일도 아닌데 혼자서 이 깊은 산속에 어떻게 왔느냐며 의아한 표정이다. 전후 사정이야기를 하였더니 세상에 이런 기연이 또 어디에 있을까?

그 분들은 산 아래 끝은 치골 부곡리에 사시는 원우규씨와 차인표씨인데 두 분다 60을 훨씬 넘으셨고 원우규씨는 운곡 원척석 선생의 18대(?) 손이고 차인표씨는 어려서부터 한문에 관심이 있어 한문에 능통한 분이다. 그 분들은 변암에 썩여있는 한문을 해독하고 태종의 군사들이 운곡 선생을 찾기 위하여 산속을 뒤지고

있을 때 운곡선생이 변암을 떠나 더 으스스한 곳으로 몸을 숨기고 있었던 곳도 가 볼 것이라 하였다. 그 곳은 원우규씨 이외에는 아는 이가 별로 없다고 한다. 이곳에서 그분들과 나와서의 만남은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넘겨 버리기에는 그 만남이 너무나도 숙명적이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일는지...

그 분들과의 만남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은 훗날 그 분들과의 교우에서 느끼게 된다. 이렇듯 세 사람의 뜻과 목적도 같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니 숨을 가쁘게 하는 가파른 산길도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디딜 수 있게 된 것같아 마음이 흡족하다.

처음 만난 사람, 더군다나 만난 지 얼마되지도 않은 사람들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마치 백년지기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다정한 마음이 두 분 말씀 곳곳에 배어 있었다. 나 역시 진솔한 마음으로 그 분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성껏 답해드리고 30여분쯤을 더 가니 이제 계곡을 버리고 우측 능선으로 길을 잡아 사면길을 오르게 되었다. 곳곳에 산죽이 널려져 있고 20여분을 더 걸

어갔을 때 여기쯤인데 하며 원우규씨가 사면 길을 버리고 우측 동쪽 방향으로 사오십 미터쯤 가자 물이 없는 계곡이 있고 계곡 좌측에 돌로 쌓은 움막같은 것이 있었다. 높이는 약 두 자 정도이고 가로세로 지름은 열자와 일곱 자 정도의 타원형이다. 지붕은 없지만 아마도 산죽을 엮어서 씌웠을 것이다. 물이 없는 계곡을 건너니 가파른 능선이 있다. 비스듬히 능선을 올라가니 또 하나의 움막이 있는데 (첫번째 움막에서 약 200m의 거리) 크기는 첫 번째 움막의 절반 정도이다. 耘谷 先生(운곡 선생)의 16대손이 세운 비석이 서 있는데 ‘耘谷 元先生 遺址’(운곡 원선생 유지)라 쓰여있다. 오랜 비바람에 시달린 듯 글씨가 선명하지 않아 원우규씨가 막걸리를 입으로 비석에 대고 뿌리니 그나마 글씨가 조금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곳이 바로 운곡 선생이 변암에 은거하다 태종의 군사들을 피해 있었던 곳이라 했다.

먼저 본 움막은 그 제자들이 행여 운곡이 들킬 세라 망을 보았던 곳이라고 한다. 숙연한 마음에 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운곡 선생이 고려 조에서 대관의 자리에 있었으면 不事二君(불사이군)의 처사는 당연한 것이었

겠으나 운곡 선생의 그 때 벼슬은 進士(진사) 정도였다 한다. 태종의 부름에 나아갔으면 높은 벼슬에도 올랐고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을 것인데….

경외감과 흥미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고 주위에 잡초를 정성스럽게 뽑아 주고 잡목들도 깨끗이 제거하였다. 사진 촬영도 하고 간식으로 허기를 달랜 후 사면길 등산로로 다시 나와 그 곳을 보니 망을 보던 곳과 은거지 모두 그 지형 자체가 아예 보이지 않는 정말 은둔하기에 알맞는 곳임을 알 수 있었다.

급경사에 오르막길이 시작된다. 험 험거리며 한 30여 분을 오르니 꽤 널찍하게 터를 잡은 묘 두기가 보인다. 묘를 지나도 역시 가파른 길의 연속이다. 묘에서 한 20분쯤 땀을 흠뻑 흘리며 비탈진 바윗길을 지나니 길이 좌측으로 꺾이면서 변암인 듯한 바위가 보인다. 시계를 보니 12시 30분이다. 원우규씨가 '변암'이라고 했다. 삿갓 모양의 바위가 지붕을 만들어 하늘을 가려주고 그 밑에는 20여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약간 경사진 바위가 마루처럼 펼쳐져 있는데 그 위에는 검게 그을린 넓적한 구들장 같은 바위들과 자갈, 흙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유인즉, 백일 기도를

하는 이들이 이 곳에 비닐로 임시 거처를 만들어 기거하고 있는 것을 치악산 국립공원 관리소에서 이를 제거하고 다시 기거를 할 수 없도록 바위 위에 흙과 자갈을 쌓아 놓고 평평한 곳을 마구 헤쳐 놓은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들이 운곡선생에 대하여 좀더 알고 있었다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것인데… 구들 같이 넓적한 검게 그을린 바위는 실제로 구들장이었다 한다. 추운 겨울이면 제자들이 불을 지피 온돌로 사용했다 하니 아까 올라오면서 품었던 의문이 비로소 풀렸다.

널찍한 바위 좌측에 식수가 끊이지 않고 샘솟고 있어 기거하기가 가능했었던 것 같다. 마치 지붕과 같은 바위를 우측으로 돌아가 뒤편으로 가보니 10여명은 족히 잠잘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이 바위로 둘러싸여 있는데 비를 피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바닥은 검게 그을린 흔적이 역력한 것으로 보아 변암 밑에서 불을 지피면 이곳에 까지 따뜻한 온기로 채워져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이 원우규씨의 설명이다. 변암 안쪽 바위에 '弃岩'이라는 두 글자는 붉은 색으로 새겨져 있는데 글자의 붉은 색을 칠한지 그리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지가 않아 마음

이 씩씩하다.

주위를 잠시 둘러 본 후 오늘의 가장 소중한 일을 하기 위하여 원우규씨는 막걸리 두 통을 꺼냈다. 돌에 새겨 놓은 지 오랜 세월이 되어 식별이 곤란한 글자나 모양에 막걸리를 뿌리면 좀 더 선명한 모습이 된다고 하여 이곳에까지 막걸리 몇 병을 지고 올라온 것이다. 막걸리는 원우규씨가 뿌리고 판독은 차 선생님이 하신다. 그러나 워낙 글씨가 희미하여 형체를 알 수 없는 글자가 여러 개 있어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돌 틈에서 샘솟는 石井(석정)위 바위에 써 있는 글자는 돌우물에 관한 이야기인 듯 하고, 우물 왼쪽 커다란 바위 하단 평평한 곳에는 수십 자가 새겨 있는데 운곡 원천석 선생이 고려 말 이곳에 은거하며 태종이 불렀으나 나가지 않고 피했다라는 내용의 글이라고 차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사실이 이러하니 어찌 실망이 크지 않겠는가? 사실을 규명하려는 답사였지만 내심은 대동보의 내용처럼 그렇게 새겨 있기를 바랐던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실망하는 것을 눈치채셨는지 두 분은 이제 문헌 쪽으로 관심을 가져 보라 하시며 구체적인 책자도 소개해 주시고 두 분 집안에 소

장된 문헌을 한 번 주의 깊게 살펴 보겠노라 약속까지 하시니 여간 고마운 분들이 아니다.

답사를 끝내고 점심을 같이 하며 나에게 하신 두 분의 말씀이 지금도 나의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다.

지금 이 순간, 김포의 최 선생을 만나 함께 점심을 먹고 있는 사실이 한 순간의 일일런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오래 기억되길 바라며, 지금의 이런 순간이 영원히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 하자시며 전화 번호와 주소를 적어 주셨다.

이제 같이 하산을 하였으면 좋으련만 그 분들은 약초를 캐야할 일이 있어 변암 좌측 능선쪽으로 간다고 하시고 이별을 청하는데 마주 잡은 손이 식별의 정이 아쉬운지 한참을 서로 잡고 있었다. 다시 꼭 만나자는 말과 함께...

두 분과 헤어진 뒤, 비로봉을 향하여 올라갔다.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頂上(정상)을 밟아보고 가야하지 않겠는가? 변암에서 서쪽으로 가파른 길을 잠시 오르면 능선에 닿는다. 능선을 따라 20여분을 오르면 비로봉이다. 그러니까 변암은 비로봉 정상에서 동남쪽으로 한 30여분 거리에 있는 셈이다.

혹 산을 좋아하여 치악산 비로봉을 찾는 이가 있으면 한 번쯤 변암을 들러 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역사의 현장에서 고려에 대한 충절과 선비로서의 지조와 절개를 지킨 운곡 선생의 일생을 한 번쯤 음미해보는 것도 좋은 일이 된 듯 싶다.

비로봉 정상에 천지봉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뜻말이 있다. 그 뜻말에서 얼마 안가 천지봉 가는 길을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다. 자연 휴식년제 구간이기 때문이다. 철조망을 우회하여 천지봉을 향해 조금가다 첫 번째 갈림길에서 우측 등산로를 택하여 20여분을 천천히 내려가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곧바로 가는 길은 능선을 타고 내려가는 길인데 아주 희미하게 나있어 일반등산로는 아닌 것 같다. 좌측으로 떨어지는 선명한 길을 택하여 급경사를 내려서면 좌측에 변암이 있다. 변암에서는 가래골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다. 길고 수려한 장관을 자랑하는 계곡도 일품이지만 가래골을 지나서 있는 주필대, 태종대, 노고소, 횡지암 등 유서깊은 곳을 들러 볼 것을 권하고 싶다.

몇 번 높은 산을 올랐던 경험이 있다면 길 찾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힘들여 내려오는 곳도 거의 없다.

비로봉에서 다시 발길을 돌려 변암을 지나며 두 분이 약초를 캐러 간 능선이 가까운 곳에 이르러 두 분을 불러 보았다. “원 선생님…, 차 선생님…” 하고 부르자 멀지 않은 산 속에서 대답이 들려온다. “최 선생 잘 가시오. 우리 꼭 다시 만납시다.” 가슴이 뭉클하다. 나도 모르게 코 끝이 찡해온다. 오늘 처음 보았는데 꼭 다시 만나자는 말이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때 묻지 않은 깨끗한 산하에서 살아온 순박한 두 분의 진솔함이 치악산 자락을 타고 내 가슴에 전해졌다. 비록 오늘 내심 기대하던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이 착하고 아름다운 두 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 생각하며 가래골 입구에 도착하니 오후 4시 20분이다.

山… 나는 산을 자주 찾는다. 옛부터 우리의 삶은 세 칸 초가를 지어도 양지바른 산기슭에 터를 잡아 흐르는 물소리 들으며 잠을 이루고 또 거기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는가?

거칠고 험난한 세상의 비바람에 시달리다가도 산을 찾으면, 웅대하고도 포근한 산자락은 늘 그 자리에서 조용히 나를 맞는다. 내 마음이 노엽거

나, 마음 속의 평정을 잃을 때에도 산에 들어서면 그 초입길에서부터 신기할 정도로 차분해지고 무언지 모를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곤 한다.

어지러운 마음을 정화시켜 주기라도 할 듯, 가슴 깊이까지 밀려드는 정갈한 공기에 감사하게 되고, 한해 한해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왠지 모를 허전함이 들다가도 아직은 젊은 사람 못지 않게 고된 산행을 버텨주는 튼튼한 두 다리가 고맙다.

혼잡한 도심 속 거리의 짜증섞인 표정의 사람들을 대하다가 생면 부지의 얼굴임에도 같은 산자락을 밟는다는 이유만으로 유쾌하게 인사를 건네는 산 사람들의 넉넉한 마음 역시 산을 찾았을 때 느끼는 신선함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수 년 전

부터 산을 찾게 되었고 지금 나에게 있어서 山은 단순한 산 이상의 의미를 가진 삶의 의미와 기쁨,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 무엇이 되어 있다.

이렇게 즐거운 산행에 곁들여 비록 기대하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지나간 역사 속에 고즈넉하게 자리잡고 있는 운곡 선생의 거처를 탐방하는 일까지 무사히 마쳤으니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되고 즐거웠던 산행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겠다. 더불어 두 분과의 아름다운 인연까지 맺게 되었으니...

바쁜 생활 속에서 무작정 산을 향해 떠나라고는 말할 수 없겠으나 한 번 쯤 일상에 찌들고 시달린 몸과 마음을 청정한 자연 속으로 던져 보는 건 어떨까? 그 山에서 어떤 선물을 가지고 돌아 올지는 여러분의 몫이다.



우리나라 성(姓)씨에 대한 고찰

愚

(대종회총지위원장)

1. 성씨의 유래

우리나라에서 성씨를 처음 사용하게 된 유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중국의 성씨제도의 영향을 받아 고조선 시대에 왕족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고대 씨족사회로 들어가면서 그 집단을 통솔하는 지배자가 통솔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로 각기 다른 씨족과 구분하기 위하여, 호칭이 다른 성(姓)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 그 연원(淵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씨의 사용 초기에는 왕실이나 귀족들에게만 국한되었으나 차츰 국가에 공(功)을 세운 공신들에게 세거(世居)지역의 명칭이나, 가까운 산이나 강의 명칭에 따라 사성(賜

姓)을 하였고 이것이 여러 개의 성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성씨를 사용하게 된 것은 과거제가 발달하기 시작한 고려 문종(B.C 1047년) 이후이며 상민(常民)고 노비들까지 성씨를 가지게 된 것은 조선조에 와서 개혁정치가 시행되면서 부터이다.

한 기록(삼국사기 제13권, 고구려본기 1에 의거하면 고구려 시조 주몽은 고구려를 세운 뒤 자기의 성을 高씨라하고 건국 공신인 재사(再思)에게는 주씨를, 목거에게는 산실(山室)씨를, 무골에게는 중실(仲室)씨를 내려 주었다고 한다. 같은 삼국사기 23권 백제본기 1에는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이 부여 땅에서 나왔다 하여 부여씨로 하였으며 신라 시조 혁거세는

양산 기슭 나정(羅井) 옆의 숲속에서 표주박같은 커다란 알에서 탄생하였다고 해서 박(朴)씨라는 성을 갖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김(金)씨의 시조인 김알지는 탈해왕 9년에 금성 서쪽 숲속에서 금합으로부터 나왔다고 하여 김씨가 되었고, 가야국의 시조 수로왕도 신라 유리왕 17년에 금관국 북쪽 구지봉에 떨어진 여섯 개의 황금알에서 나왔다고 하여 김씨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 삼국사기 제 1권 신라 본기에는 신라 제 3대 왕인 유리왕 9년(서기 32년)에 6부를 개정하여 알천 양산촌장 알평에게는 이(李)씨성을, 돌산 고허촌장 소벌도리에게는 최(崔)씨 성을, 취산 진지촌장 지백호에게는 정(鄭)씨 성을, 무산 대수촌장 구례(禮)마에게는 손(孫)씨 성을, 금산 가리촌장 지타에게는 배(裴)씨 성을, 명활산 고야촌장 호진에게는 설(薛)씨를 사성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북사의 백제열전에 보면 사(沙), 연(燕), 해(解), 직(直), 국(國), 묘(苗)씨 등 8대 성이 기록되어 있다. 김 수로왕의 아들이 어머니 아유타국 공주 허왕옥의 성씨를 따서 허(許)씨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김 수로왕의 후손인 김해김씨는 김해 許씨와 동성

동본으로 삼고 있다. 고려 왕건은 고려 건국 개국 공신인 홍술에게 홍(洪)씨를, 백옥에게 배(裴)씨를, 삼능에게 신(申)씨를, 복사귀에게는 복(卜)씨를 사성하여, 각각 홍유(洪儒), 배현경(裴玄慶), 신승겸(申崇兼), 복지겸(卜知兼)으로 개명했다. 흥미있는 일화로 충주 어(魚)씨의 시조인 어중익은 원래 지씨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체모가 기이하고 겨드랑 밑에 비늘 셋이 있어서 고려 태조가 친히 불러 보고 난 다음에, 어(魚)씨로 사성했다 한다. 동국여지승람의 목천현(木川縣) 성씨조(姓氏條)에 보면 태조가 고려를 건국한 후, 목천사람들이 자주 반란을 일으키자, 태조의 미움을 사서 각기 우(牛, 소) 마(馬, 말) 상(象 코끼리) 장(獐 노루) 돈(豚 돼지)씨 등으로 번성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2. 관향(본관)

성씨에는 관향 또는 본관이라는 것이 있다. 역사의 흐름에 성씨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같은 성씨라고 하여도 서로 계통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근본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고 이에 동족(同族) 여부를 가리

기 위한 것이 본관이다. 본관이란 본관향(本貫鄉) 또는 관(貫) 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관(貫)은 돈을 말하는 것으로 돈을 한 줄에 꿰어 묶어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이, 친족이란 서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관장견지관(貫藏見之貫)이며, 여기에서 한발짝 더 나가면 본적이라는 말이 생기는데 본적이란 본관향(本貫鄉)이라는 뜻이다. 본관은 시조(始祖)나 중시조(中始祖)의 출신지 혹은 정착세거지(定着世居地)를 근거로 호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봉군(封君) 즉, 고려시대 정 1품과 조선시대의 정 2품 이상의 공로자에게 주는 작위 칭호에 따라 정하는 경우, 그리고 성씨와 같이 임금이 공신에게 특별히 하사하는 경우는 사관(賜貫)이라고 한다. 따라서 성씨가 같다고 전부 같은 혈족이 아니며 본관까지 같아야 같은 혈족으로 볼 수 있다.

3. 해주 최씨

관향 즉 본관이란 그 성씨 시조의 정착세거지를 근거로 호칭하기 때문에 우리 해주 최씨는 온(溫) 시조의 세거지 해주를 본관으로 칭한다. 그런데 한 두 종인이 해주 최씨는 경주 최

씨와 뿌리가 같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한 일이 있다. 물론 관향은 다르지만 같은 성의 같은 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동족이본동성(同族異本同姓)이다. 그것이 바탕과 성은 같으나 본관은 다른 경우이다. 예를 들면 강농(江濃) 김씨와 광주(光州) 김씨는 시조와 본은 다르지만, 같은 김알지 계통이며 고부(古阜) 최씨도 마찬가지로 시조와 본은 달리 하지만 같은 최치원 계통이다. 그리고 동족동본이성(同族同本二姓)이 있다. 이는 조상과 본을 같이 하면서도 성씨만을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김해김씨와 김해허씨의 경우이다. 같은 김수로왕의 후손으로서 성만 달리하므로 혼인이 금지되고 있다. 경주최씨와 해주최씨가 같은 뿌리라는 근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몇해전 경주최씨 이면서 정계에서 널리 알려졌던 모 인사가 관향을 떠나 전국의 최씨를 한 조직체로 묶는 일을 계획하고 전국의 각 관향별 최씨의 대표를 한자리에 소집한 일이 있었다. 이때 경주최씨 대종회가 초안한 회칙(정관)안에 “전국의 각 최씨는 경주최씨의 득성조(得姓祖)인 소별도리 선조의 후손들로서”(이하생략)이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을 가지고 여러 문중이 이의를

제기했었다. 특히 전주최씨등 최씨중 대성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1; 무슨 근거로 전국의 최씨가 소벌도리의 후손들이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신라의 6촌장에게 사성한 성씨 이외의 많은 성씨의 조상은 누구란 말인가? 2; 경주최씨 자체의 내력도 몇백년의 공백이 있지 않는가? 3; 만약 회칙초안대로 “득성조 소벌도리 선조의 후손들” 운운하는 조항을 그대로 둔다면, 이 모임에 불참하겠다고 까지 항의를 하여 마침내 이 조항은 삭제되기에 이르렀던 일이 있었다. 한편 고려사를 전공하는 학자 K씨도 경주최씨와 해주최씨에 대하여 논급한 일이 있는데 “경주최씨는 처음부터 이름자가 두 자로 시작했는데 반해, 해주최씨는 그 초기에 이름자가 외자(한 자)인 것으로 보아 계통이 전혀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일이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동성동본인 최씨 가운데도 토최(土崔)니 당최(唐崔)니 하여 그 계통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릉최씨와 화순최씨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4. 성씨의 의미

성씨는 씨족끼리의 일체감 속에 자기를 귀속시키고 확인시켜 심적 안정

감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적 유대를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되게 한다. 특히 과거에는 어느 특정 성씨의 사회적 성공이나 출세가 그 성씨가문의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이나 정신적 신분을 격상시켜 주는 그런 계기도 된 바가 있었다. 즉 조상이 높은 벼슬을 한, 성씨 문중은 대대손손이 양반 행세를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특정 성씨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성씨 집단의 각성과 자극을 주기도 했다. 결국 문중의 어떤 개인의 업적이나 명예가 성씨에 부착되고, 성씨를 통해 계승되는 그런 불합리한 사회제도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그 자취를 감추고 있지만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속담대로 혈연관계는 아무리 사회가 현대화 되더라도 무시될 수 없는 뿌리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강한 씨족 관념은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 파벌의 근거가 되어 폐쇄적인 족벌주의의 병폐가 되기도 하고 협애한 배타주의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과 같이 민족국가에서 거대국가로, 다시 지구촌을 하나로 묶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한 성씨 집단의 이기적 사고는 있을 수가 없을 것이며, 친화의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믿어진다.

5. 성씨의 수

성씨의 수와 종류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처음에는 265개의 성이 기록되어 내려 오다가 조선조 영조 때 이의현이라는 사람이 지은 “도곡총설”에는 298개의 성이 기록되었고, 조선조 정조 때 이덕무가 쓴 “양엽기”에는 486개의 성이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조사에 따라 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성명씨족에 관한 연구”에서는 326개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1985년에 경제기획원

에서 조사한 성씨분포도를 살펴보면, 김씨가 전체 인구의 21.9%, 이씨가 14.9%, 박씨가 8.5%, 최씨가 4.8%로 이 4대성을 가진 사람이 전체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순위 20안에 드는 성은 우리나라 성씨 249개 중에 90여개가 되고, 전체 인구의 90%를 점하고 있다. 결국 160여개의 성씨는 전체 인구의 1%도 안되며 심지어 몇 개의 희성(비씨, 선씨, 간씨, 응씨, 포씨, 은씨) 등은 수 가구씩만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崔氏 姓을 가려 본다



梁 根

(校理公派, 30世)

1. 韓國의 姓氏

우리 나라에는 생각 밖으로 많은 姓氏가 있다. 우리 한반도 땅에는 古代의 中원 秦나라가 멸망하고 그 유민들이 한반도에 일부 들어와 姓氏를 가진 者가 간혹 있기는 하였으나 우리 民族에게 姓氏를 갖게 된 것은 統一新羅 이후이고 그것도 上流 계급층에만 더러 있었고, 一般人들은 이름만 가졌었다. 처음에는 공로가 많은 高官에게 임금으로부터 사관사姓(賜貫賜姓) 되어 그 民族에게 姓氏가 붙여졌으나 中世이후 몽고, 여진 등의 韓民族과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外國文化를 모방한 姓氏가 많이 생겨났다. 옛 기록에는 486종이라는 많은 數의 姓氏가 있다 하였으나 그 중간에 없

어진 것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새로 나타난 것도 있고 하여 오늘날 韓國의 姓氏는 약 297종이라 한다. 이것을 나누어 보면 수효도 대체로 많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저성(著姓)과 저성 다음으로 흔히 있는 희성(稀姓), 극히 드문 벽성(僻姓) 그리고 두자姓의 복성(復姓)으로 구분된다.

저성(著姓)-李, 金, 朴, 崔, 鄭, 尹,

洪, 申, 趙, 沈……………등 53종

희성(稀姓)-全, 玄, 文, 河, 池, 朱,

吉, 陳, 奇, 蘇……………등 59종

벽성(僻姓)-印, 昔, 龍, 杜, 智, 甄,

秋, 貢, 片, 葛……………등 174종

복성(復姓)-南宮, 皇甫, 司空, 司

馬, 石株, 東方, 西門, 扶餘, 獨

孤, 令孤, 鮮于……………11종

합계 297종

2. 崔氏 姓을 가려본다.

崔氏 姓은 李, 金, 朴, 崔 등 널리 알려지고 數的으로 많은 四大 姓의 하나이다. 三國時代만 해도 사람들은 姓氏가 없이 돌쇠니, 무쇠니, 간난이니, 개동이니 등으로 이름만을 불렀었는데 新羅말 내지 高麗時代로 들어서면서부터 名人들에게는 같은 姓氏가 붙여 姓名으로 호칭하고 그 氏族들에게도 같은 姓氏가 붙여지기에 이르렀다한다.

一說에 의하면 新羅가 한나라의 完全한 國家의 형태를 이룩하는데 주축 役割을 한 六部村長 中의 한 사람인 突山 高墟材長 蘇我都和公에게 新羅 第三代 儒理王이 崔氏라는 성씨를 사성(賜姓)

하였다고하는데 오늘의 모든 崔氏가 그 分의 孫이라고 斷定할 수는 없다.

崔氏는 참으로 많다. 그 많은 數의 崔氏를 本 別로 가려보면 世系를 뚜렷이 밝히는 數가 놀랍게도 37本이나 된다. 勿論, 이 中에는 主 本에서 分派되어 本을 달리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가 5000年의 悠久한 歷史를 누려오는 동안 歷代를 통하여 崔氏 姓 中에서 큰 人物이 많이 나와 나라의 危機를 건지고 國泰民安의 功을 이루었다. 이제 始祖를 내세우고 있는 崔氏 姓의 本을 추려보고 歷史的인 人物 中의 大概를 本別로 찾아서 가려보고자 한다.

3. 崔氏 姓의 本과 始祖

本貫	始祖	名 人	備 考
海州	溫(고려)	海東孔子 冲(고려) 惟善(고려) 思諷(고려) 永址(고려) 奎瑞(조선)	
慶州	致遠(신라)	致遠(신라) 承老(고려) 濟遇(조선)	鷄林崔氏도 포함
全州	均(고려)	均(고려) 西山大師(休靜) 錫鼎鳴吉(조선)	完山崔氏도 포함
江陵	必達(고려)	致雲(이조) 圭夏(대한) 崔怡(고려)	
朔寧	兪嘉(고려)	東立(조선)	
通川	錄(고려)	潤德(조선) 雲海	
東州	俊巢(고려)	崔瑩장군(고려)	昌原崔氏도 포함
永川		崔武宜장군(조선)	

本貫	始祖	名人	備考
牛峰	元浩(고려)	忠獻(고려)	(고려)
大寧	子廉(고려)	大寧은	海州의 別稱
孤竹	峙		
水原	尙翥(고려)	屢伯	
和順	堰		
江華	益厚	永慶	
忠州	遇淸(고려)		
靈岩	江儀(고려)		
陽川	灌(고려)		
川寧	興		驪州로도 別稱
昌原	惟淸		
耽津	思全(고려)	涇	
開城	佑達		
珍山	慨(조선)		
櫻山	弘宰(고려)		
新豐	萬江		
龍州	光	本來 大寧崔氏였으나 龜州로 移籍하여 龍州가 됨	
陽州	井安(조선)		
興海	湖	本來 全州崔氏九世孫이라함	
泰仁	仁吉(조선)		
祥原	武哲(조선)		
安東	光胤(고려)		
貞州	仁祖(조선)		貞州는 豊德의 別稱
漢南	江珩		
永興	天甫(조선)		
登州	基烈(조선)		
河陰	自暢(조선)		
竹州	(조선)		本來 海州崔氏
槐山	正潑(조선)		
豊川	彦英(조선)		

4. 崔氏 姓의 名人들

名 人	時 代	本 貫	功 績
冲	高麗	海州	海東孔子로 추앙되고 九齋를 설립. 私學의 기틀을 잡음. 高麗의 大學者 이시며 大宰相
惟善	高麗	海州	守太師 中書令을 지낸 大宰相
思諷	高麗	海州	守太師 中書令을 지낸 高麗의 名宰相
永址	高麗	海州	高麗 武臣으로 西北面 都巡問察理使 兼 平壤 尹을 지내고 平壤 城을 築造
奎瑞	李朝	海州	領議政을 지내고 李隣佐, 鄭希亮등이 謀叛하려는 것을 80 老齡에 막아
慶會	李朝	海州	壬辰亂때 義兵將으로 赫赫한 功을 세우고 晉州城 싸움에서 殉死한 名將
致遠	新羅	慶州	大學者이며 阿浪을 지낸 宰相
濟愚	李朝	慶州	東學의 創始者
承老	高麗	慶州	高麗朝의 軍制改編, 官服制定, 中央集權體制를 갖추게 한 名宰相
時亨	李朝	慶州	東學의 二代 敎主로 全奉準과 같이 東學亂을 주도
雲海	高麗	通川	高麗때 侵入한 倭寇를 격퇴시킨 名將
惟淸	高麗	昌原	고려의 守司空太學士로 經史에 밝고 佛經에도 조예가 깊음
潤德	李朝	通川	李朝世宗때 武官으로 三軍 都統使를 지내고 李從茂와 함께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涇	李朝	耽津	유명한 山水畫, 人物畫를 잘 그려 昭憲王后, 世祖, 예종, 德宗의 御眞을 그려 堂上官에 오름
均	高麗	全州	鄭仲夫亂때 東北路 都揮使가 되어 싸움
瑩	高麗	東州	高麗 末의 大將軍이며 정치가
竇伯	高麗	耽津	父親이 호랑이에게 물려죽자 15세대 父親의 원수를 갚고자 도끼를 들고 山에 숨어 호랑이가 잠든 것을 목격하고 호랑이를 죽여 뱃속에서 父親의 시신을 꺼내 장사 지내고 후에 文科에 及第하여 翰林學士가 됨
東立	李朝	朔寧	光海君때 世子侍講院 直講을 올렸고 黃海道 觀察使가 되어 吏道를 바로 잡는데 크게 공헌함.
休廷	李朝	全州	壬辰亂때 僧兵을 이끌어 큰 功을 세운 大僧 (西山大師)
淸	高麗	慶州	高麗 末에 辛旽등 奸臣들이 政權을 뒤흔들자 벼슬을 버리고 草野에 들어 두문불출하여 後에 李太祖가 3次 親히 찾아갔으나 뜻을 굽히지 않고 만나 주지 않았다.

名 人	時 代	本 貫	功 績
鳴吉	李朝	全州	仁祖反正을 주도했고 丙子胡亂때 講和를 주도했고 領議政을 지냈다.
茂宣	李朝	永川	朝鮮開國功臣으로 번번히 쳐들어오는 倭寇를 쳐 물리치고 여러 가지 新武器를 개발하여 크게 功을 세웠다.
錫鼎	李朝	全州	老論, 少論의 黨爭속에서 少論의 領袖로서 領議政을 여덟 번이나 歷任
世珍	李朝	槐山	李朝 中宗때 文臣으로 京城誌, 女孝經등 많은 책을 지어냈고 한글에 子母音을 정하고 그 順序와 받침 등을 정리하여 國語學 發展에 큰 功을 이룩
忠獻	高麗	牛峰	蒙古亂때 江華로 遷都한 후 武官政治로 政權을 마음대로 휘두름
瑀	高麗	牛峰	忠의 아들로 私兵을 두어 高麗 政權을 마음대로 휘둘러 行悖가 컸다.
益鉉	李朝	慶州	抗日運動家
崔麟	李朝	海州	獨立宣言書 33人의 한사람이며 天道敎 도령이며 獨立運動家

以上の 敘述한 名人들의 업적과 공훈에 대하여 紙面관계로 보다 구체사항을 서술하지 못함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著者の 研究 不足으로 혹시나

차고나 있지 않을까? 송구스러우며 또한 本 稿에 수록한 名人들 外에도 崔氏 姓에 名人이 많으나 더 收錄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중회 임원연수와 집성촌 탐방기



鄭 植

(大宗會 事務局長 · 大寧君派31世)

一. 대중회발전과 임원연수

훌륭한 선조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해도 후손들이 그 유지(遺志)를 받들지 못하면 근원(根源)은 있으나 흐름이 없고 뿌리는 있으나 잎이 실(實)하지 못한 것과 다를바 없다하겠으니 명문거족(名門巨族)으로 천년의 뿌리를 내린 해주최씨가 앞으로 자손만대(子孫萬代) 더 큰 번영과 명성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장학(獎學), 육영(育英)에 힘쓰고 전통윤리 도덕을 함양하여 선조의 훈업(勳業)을 선양(宣揚)하는 것이 오늘에 사는 후손들이 할 일이기에 이 중요한 일을 담당할 조직이 바로 대중회라 생각한다.

현대중회는 이와 같은 사명감(使命感)과 목적달성(目的達成)을 위하여

1982년에 창립되어 역대(歷代) 회장단을 비롯하여 임원, 운영위원(運營委員)의 끊임없는 노력과 전국종친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 문헌공탄신 천주년기념으로 추진한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획기적(劃期的)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여기에 집행부임원이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헌신적 봉사와 낭비없는 효율적 운영으로 대외적 신임을 얻음으로써 참여(參與)와 협조도(協助度)가 높아졌고 지방문중과의 유대를 넓히고 친목을 다져온 노력이 대중회발전의 활력소(活力素)가 되어 금년(2001년)으로 창립20년이 된 대중회가 해주최씨 천년사(海州崔氏千年史)에 기록될만한 업적을 이룩하였기에 간추려 기록한다.

1. 최충연구논총(崔冲研究論叢) 발간

문헌공탄신 천주년기념 사업으로 사회각계 저명인사가 참여한 “문헌공 최충선생기념사업회”가 설립되어 대학교 석학(碩學)들의 논문을 편집한 [최충연구논총]을 발간하고 제1차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여 현대학계의 높은 평가와 제2, 제3의 사업으로 최충 선조에 대하여 연구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2. 경오대동보(庚午大同譜) 발간

문헌공탄신 천주년기념 사업으로 대동보를 발간하여 획기적인 대중회 발전에 초석(礎石)이 되었다.

3. 문헌서원(文憲書院) 건립

선조의 얼이 담기고 애환(哀歡)이 서린 해주문헌서원을 왕래 못하는 후손들의 숙원(宿願)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오산에 제2문헌서원을 창건하여 매년4월 제3 일요일에 오산시 기관장과 전국 종친이 운집(雲集)한 가운데 문헌대제(文憲大祭)가 성대회 봉행(奉行)되고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효자, 효부에게 표창하고 축하패와 공로패를 수여하는 등 해주최씨

의 축제일(祝祭日)로 경축되어 오고 있다.

4. 대중회 사무실 매입(買入)

해주최씨유사 이래 처음으로 대중회 사무실을 서울 여의도에 동북빌딩 607호(건평 30평)를 매입 대중회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

5. 시조위패봉안(始祖位牌奉安)

해주최씨를 처음 열으신 시조(諱: 濫)의 위패를 처음으로 해동사(海東祠)에 봉안하고 1993년부터 매년4월 제3토요일에 봉향(奉享)하여 그간 불합리(不合理)하였던 송조사업(崇祖事業)이 원만하게 되었고 후손의 도리(道理)를 천년이 흐른 이 시대에 이루게 되었다.

6. 회보(會報) 및 종지(宗誌) 발간

대중회와 각 문증의 연간 활동상황을 전국 종친에게 알리는 회보를 대중회 창립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1회 발행해오고 있으며 해주최씨의 중요한 역사자료가 될 종지를 1986년에 창간호, 92년에 제2집을 발행하였고, 금년에 제3집이 발행된다.

7. 표창(表彰) 및 포상(褒賞) 제도화

전통윤리도덕(傳統倫理道德)을 함양(涵養)하기 위하여 선발된 효자 효부에게 표창장(패)과 부상(副賞)을 수여하고 인재(人材)양성을 위하여 고시(考試)합격자와 박사학위취득자에게 축하패를 수여하며 사기진작(士氣振作)을 위하여 대종회 발전에 공이 많은 종친에게 매년 정기총회에서 공로패를 수여한다.

8. [유학사상 최충의 위상] 논문집 발간

조선조 유학사관(儒學史觀)의 잘못으로 올바른 평가(評價)를 받지 못하는 문헌공 선조의 위상(位相)을 재정립(再定立)하기 위하여 문헌공최충 선생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해주최씨대종회 후원으로 저명한 석학(碩學)들이 집필한 논문으로 제2차 학술 발표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치고 그 내용을 단행본(單行本)으로 [儒學史上 崔冲의 位相] 논총을 발간하여 전국 종친에게 배포하였다.

9. 경오보추보(庚午譜追譜) 발간

문헌공 탄신 천주년기념으로 발행

된 경오대동보에 누보(漏譜)된 후손과 상계미상자를 위하여 경오보추보를 금년에 발행하며, 경오대동보를 모시지 못한분을 위하여 신청분에 한하여 재판할 계획이다.

10. 종묘배향공신(宗廟配享功臣) 위패봉안

고려조 종묘에 배향되었던 선조4위와 충신1위, 문화인1위를 고려송의회 통일대전의 공신각과 충신각에 배향하기로 결의한 바에 따라 배향금납입분에 한하여 고려송의회 주관으로 2001년부터 봉향하게 된다.

그리고 이외에도 대종회 현안인 장학회 설립문제도 머지않아 실현될 전망이다이며, 1993년과 94년에 개최되어 좋은 반응을 보였던 후세교육인 청년수련회도 금년(2001년)부터 다시 개최하기로 하였으니, 해동공자의 후예로서 선조의 유지를 받드는데 여러방면으로 매진(邁進)하고 있는 대종회가 믿음직하고 자랑스럽기만 하다.

앞에서 언급한 집행부임원이 지방문중과의 유대를 넓히는 일이 곧 임원연수회이니 집행부 임원은 자기수련과 대종회 활성화를 위하여 1988년부터 연례행사로 연수검 단합대회를 실시하여 전국의 각 서원 영당을

비롯하여 선조의 유적지(遺蹟地)와 집성촌 지역종친회 농촌, 어촌, 산간 벽지와 외딴섬까지 종친들의 삶의 현장을 탐방(探訪)하면서 송조상문(崇祖尙門)정신과 긍지(矜持)를 심어주고 친목을 다져왔으며 집행부임원으로 시작한 연수회가 이제는 고문, 회장단, 운영위원 등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대중회연수회로 확대되어 99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되었고, 2천년 제13회 연수는 48세대(世帶) 해주 최씨가 거주하는 울릉도를 방문하여 그곳 종친들과 2일간 호흡을 같이 하면서 많은 대화를 했고 105년 전(1895)에 이곳으로 이주한 칠곡계 좌랑공과 31世 諱:在應 入鄉祖 묘소도 참배했는데 이 묘가 3代와 4代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대중회고문으로 활약하다 타계(他界)한 휘:秉權 전 고문의 증조부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천년해취 뿌리가 이곳 울릉도에도 깊이 내린 것에 크게 감동하였다.

이렇게 방문하는 곳마다 종친들의 삶의 양상은 다르지만 선조님들의 위업(偉業)을 기리고 海東孔子의 후손이라는 자부와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한결같았으니 선조님의 음덕(蔭德)이 하늘과 같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는 그간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직적인 계획을 세워 보다 성숙된 연수회로 발전하여 천년뿌리들이 살아가는 소식 등 전국 종친이 호응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1994년 제7회 연수회 때 영남지회 안내로 경북 영천의 대동영당과 칠곡의 좌랑공과 입향조(入鄉祖)인 해관공(海觀公: 諱 是南)의 묘소와 영모재(永慕齋)를 참배하고 문경시 영순면 포내리의 진사공파 집성촌을 탐방하였는데 당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포내리 탐방을 기록한다.

二. 집성촌 포내리 탐방기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을 믿지 않는 사람도 경관(景觀) 좋은 마을을 보면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게되고 방향 좋고 전망 좋은 묘소를 보면 그곳의 영혼은 고이 잠들어 자손에게 복을 내리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보통사람들이 마음이라 할 수 있으니 포내마을에 도착하면서 느낀 소감이 바로 이것이었다.

마을뒤에는 기산(箕山)이 둘러 싸

있고 앞에는 넓은 평야에 마을을 감싸 구비쳐 흐르는 맑은 강물이 마치 중국고사에 나오는 기산영수(箕山潁水)를 연상케하는 그림같은 아늑한 마을로 자손만대 기리순성하라고 영순포내리라 이름한 최씨마을이었다.

부지깁이도 바쁘다는 가을걷이의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많은 종친들이 연로한 어른들은 두루마기로 의관을 갖추고 청장년들은 정장을 하고 동구 밖까지 마중나와 정중히 맞아주었고 접대장소인 마을회관에 당도한 일행은 전통예의(傳統禮儀)로 상면인사를 나눈 후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덕담과 문중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 부인들은 정성들여 음식을 마련하여 극진히 대접하였다.

감동어린 대접을 받은 일행은 안내를 맡은 당시 중학교장인 병식(炳植) 종친으로부터 각종사료를 통하여 유적과 관련된 조상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지금으로부터 4백여년전 문헌공후손 19世 휘:業(업)공은 진사공(은)파조의 5世손으로 경북 영주에서 이곳으로 이거하여 입향조가 되었다.

마을 뒷산 언덕에 세워진 아담한 추원재(追遠齋)는 수호신처럼 마을

전체를 굽어 내려다 보고있는데 이 추원재는 22세(世). 계산공(諱:宗璧. 號:桂山)의 유덕을 기리고 자손들에게 숭조사상을 심어주며 또한 그들의 화합의 장으로 삼게 하기 위하여 1922년 후손 基鎬氏 烈鎬氏 高溥氏 등이 동네자손들의 뜻을 모아 건립하여 지금까지 문중의 대소행사와 친목의 화합자리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고 하였다.

계산공(1649~1719)은 성품이 온후하며 학덕을 겸비한 인물로 특히 덕을 많이 쌓았는데 그 유덕을 높이 평가하여 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로 증직된 포내 문중의 훌륭한 조상으로 묘비문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추원재옆 서북간 산 언덕위에는 앙소정(仰巢亭)이란 정자(亭子)가 있어 마을 경관과 위풍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데 基鎬(道植부간사장의 조부)종친이 생존시 1964년 3월에 선친(휘:瓚. 號:春海)의 유덕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진 이 앙소정은 중국고사에 나오는 요(堯)임금시대에 기산영수의 그 유명한 은사소부(隱士巢父)와 허유(許由)의 청렴함을 비유한 즉 소부를 높이 우러러본다는 뜻을 담아 선친을 추모하며 이

름 붙였다고 한다.

또한 양소정 앞뜰에는 28世 춘해공의 애국지사 추모비가 우뚝 서서 일행의 옷깃을 여미게하는 숙연한 마음을 갖게 했는데 이 비로 말미암아 포내리 종인들은 보다 긍지를 갖고 참된 삶을 영위하리라 믿어졌고 과거 암울했던 듯한 고난의 민족사를 이 추모비에서도 말해주고 있다.

사료(史料)에 의하면 춘해(春海)공은 조선조말 의병대장인 이운강(李雲岡) 휘하에서 왜병과 수 많은 접전을 겪으며 많은 전공을 세웠고 운강의 병대장이 순국후에는 의병들이 분산되자 재기를 기약하고 이곳 향리로 돌아와서 기회를 엿보며 은거 두문불출하고 서당훈장으로 전전하며 궁핍한 생활속에서도 초지일관 항일투사로 일생을 마쳤는데 광복 후에 정부로부터 사증손(嗣曾孫) 道植氏에게 공의 건국훈장애족장(建國勳章愛族章)이 수여되고 추모비건립에 국가보조금이 지원되었다고 한다.

애국지사 춘해공의 증손인 道植종친은 일찍이 조부모의 송조애족(崇祖

愛族)정신을 이어 받아 대중회 창립 당시부터 공직의 몸으로 종사에 참여하여 현재 대중회 임원인 부간사장과 진사공파 상임고문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이곳 포내리 출신인 운영위원 학구(鶴九)종친도 영남지회 부회장이며 문경종친회장으로 종사에 선조대를 이어 열의를 갖고 활동하고 있으니 훌륭한 조상이 있기에 그 유지를 받드는 후손이 있고 그 후손이 많을수록 가문은 계속 번영하게 된다는 것을 이 포내리를 통하여 알 수 있었고 포내마을을 중심으로 150여 세대가 집성촌을 이루고 화목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니 입향조의 유덕을 가히 짐작할 만 하였다.

짧은 시간에 종친간 만남이었지만 관포지교(管鮑之交)와 같이 헤어지기 아쉬웠으니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진리와 억겁(億劫)의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한 핏줄의 인연(因緣)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작별인사를 나눈 뒤 1박2일간의 연수를 마치고 귀가하였다.

영열공 휘 윤의 선조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인쇄

崔 一 齋

(31세 교리공파)

금속활자인쇄는 이미 10여년전에 완전히 소멸(消滅)이 되고 말았지만, 활자인쇄는 그래도 수백년 동안 인쇄의 왕도(王道)라고 일컬어져 왔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하는 문화재 가운데 그 으뜸은 세계 최초로 고려시대에 발명된 금속활자이다. 널리 알려지고 있는 바대로 우리나라의 금속활자 발명은 근대 인쇄술의 발명자인 서양의 구텐베르크 보다 200년이나 앞섰으며, 이것은 “고금상정예문”(古今詳定禮文)의 인행(印行)년대를 기준해서 말하는 것이다.

“고금상정예문”은 고금 예의제도(禮儀制度)의 같고 다른 점을 참작 절충하여 만든 50권으로 된 예서(禮書)인데 이것을 금속활자로 인쇄하였다는 기록은 문필가이자 명재상(宰

相)이었던 이규보(李奎報) 문집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고금상정예문”을 만들고 인쇄를 한 이가 고려 의종때의 영열공 휘 윤의(英烈公 諱 允儀) 선조이다. 휘 윤의 선조는 우리 해주최씨의 6세로서 숙종 임오년에 태어나서서 문과에 급제하시고 문하시랑 평장사(門下侍郎 平章事), 판리부사(判吏部事) 등을 역임하시고 의종 임오년에 61세로 졸하셨는데 의종묘정에 배향되었다.

고려사에 의하면 공은 사리가 명백하고 박학(博學)하고 문장에 능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고금상정예문”을 인행한 기록도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 해주최씨보서 휘 윤의 선조의 방주에

는 “麗史云公論事明白慷慨典銓選任用賢能再掌貢舉時稱得人博學能文章嘗奉詔選古今詳定禮五十卷行于世”라고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고금상정예문”이 금속활자로 인쇄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이규보의 문집인 “동국이상국후집”(東國李相國後集)에 진양공 최 이를 대신하여 지은 “신인상정예문발미”(新印詳定禮文跋尾)라는 글에는 이 사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글에 따르면 “상정예문 50권이 이미 출간되었는데 천도(遷都)할 때에 한 질만을 가져오게 됨에 따라 최이가 금속활자로 25부를 찍어서 여러 관서에 두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어서 50권이 되는 많은 분량을 금속활자로 찍어 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이 책은 몽고군의 침입이 있는 뒤 강화도로 옮기는 과정에서 소실(燒失)될 위기에 처하자 금속활자로 25부를 더 인쇄를 해서 여러곳에 나누어 소장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규보가 지은 글 끝에는 이 글을 지은 연대나 날짜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책에는 대부분 고려 고종 21년(1234)에 인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정확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고려조가 강화도로 옮겨갔던 고종 19년(1232)부터 금속활자본의 발문을 쓴 이규보가 세상을 떠난 고종 28년(1241) 사이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란(戰亂)의 소용돌이 속에서 금속활자를 발명하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조판술(組版術)을 고안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슬기를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욱이 우리 해주최씨의 선조가 이 역사적인 일의 책임을 맡았다는 사실은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긍지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한가지 부연할 것은 우리보다 200년이나 뒤진 서양의 금속활자 발명과 이에 의한 인쇄술의 발전은 르네상스 운동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에 반해 우리의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기술의 발명은 세계인류 문화사에 있어서 이렇다 할만한 공헌을 못했음은 크게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시의 편협했던 관리나 학자들이 위대한 발명을 대중화 시키지 못했고, 인행(印行)된 서책도 일부 사관(仕官) 계급의 수요(需要)에만 응하게 하는 등 협애(狹隘)한 문화정

책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인쇄된 “고금상정예문”이나 당시의 금속활

자가 전란을 겪는 과정에서 소실 또는 분실이 되어 그 원본이나 실물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해 주 최 씨 교 리 공 파

문 헌 복 지 장 학 회

회 장 만 기 외

임 원 일 동

大宗會와 家族 共同體



문 기

(감찰공파 · 서원대학교 윤리교육과)

1. 가족 공동체란 무엇인가?

지난 8월 15일 서울 워커히호텔과 평양 고려호텔에서 분단 50년 동안 생사도 모른 채 흩어져 살아왔던 이산가족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을 상봉하였다. 90이 넘는 노모와 70이 넘는 아들 딸이 서로 부둥켜 안은 채 통곡하는 장면들이 보도될 때마다,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그 애처로운 삶의 현장에 동참하였다. 이번 8·15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지닌 의미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는 데 있다고 하겠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도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잊지 못하고, 부모형제와 친인척들을 그토록 그리워하는 것

일까? 그 이유는 우선 피를 함께 나눈 가족 공동체의 본질적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족 공동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동일한 지리적 공간 속에서(地緣), 동일한 조상들의 피를 같이 나눈(血緣) 성원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가족 공동체는 하나의 가정, 하나의 집성촌, 하나의 대중회를 모두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하겠다.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주거 이동이 빈번한 현대사회에서 과거처럼 같은 동네 또는 같은 고향이라는 지리적 동질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지만, 혈연적 계보만큼은 여전히 그 동질성이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이나 세계의 어느 곳에 살더라도, 海州 崔

氏 후예로서의 혈통은 결코 바뀌질 수 없고, 혈연에 의해 맺어진 동질성은 자자손손 영원히 지속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국적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있어도, 가족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자격은 결코 버릴 수 없다. 가족 공동체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롭지 않은, 결속의 강도가 가장 강한 운명 공동체인 것이다.

2. 가족 공동체의 변화와 문제점

그러나 이처럼 강력한 동질성을 지닌 가족 공동체도 지난 1세기동안의 근대화 과정속에서 전례없는 변화를 경험해 왔다. 우리 나라는 19세기말 개화 이후 서구의 문물을 부단히 수용하였고, 서구식 근대화를 국가정책의 근간으로 채택하여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서구에서 300여년 동안 형성되었던 자유민주의 정치이념과 체제, 시장경제 원리와 제도, 다원적인 사회·문화의 구조와 기능을 불과 몇 십년 만에 갖추게 되었다.

각 영역에서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생활방식을 송두리째 바

꾸어 놓았다. 이는 역사의 진보라는 미명 아래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통과의 단절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수반하는 이중성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에는 가족 공동체의 변질 및 해체 현상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우리는 ‘~세대’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젊은 층은 ‘새롭다(New)’는 뜻에서 자신들을 ‘N세대 또는 X세대’라고 부르기도 하며, 컴퓨터 전자우편(e-mail)에 익숙한 젊은 층은 ‘e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30대의 나이에 80년대 학번이고 60년대 출생인 장년층은 ‘386세대’라고 구분하기도 하며, 나이가 더 든 기성세대는 ‘6·3세대’, ‘4·19세대’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60대 이후의 노년층은 우리 나라 근대화의 발전에 초석을 다진 ‘위대한(great)’ 주역들이라는 차원에서 ‘G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머리가 ‘회색(grey)’ 또는 ‘은빛(silver)’이라는 점에서 ‘G세대’나 ‘S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표피적인 문화현상 속에는 ‘세대간의 단절’이라는 음울한 생활세계가 자리잡고 있다. 각 세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향유하는

이러한 언어들의 유희 속에는 '세대 간의 차별화'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고, 이는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간의 단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를 자꾸만 무시하고 회피하다 보면, 한 가정에서의 인간관계는 극도로 소원해지고 변질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문중에서 윗 세대와 아래 세대들간의 단절이 심화될 경우, 그 공동체에서의 인간관계도 변질될 수 밖에 없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공동체 의식은 예전의 그것과 판이하게 다르다. 학교나 이웃과 같은 사회공동체에서의 개인주의적 생활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 질서의식이나 책임감 부재등을 낳았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에서의 핵가족화로 말미암아 친척들간의 교류가 뜸해지고, 어른들을 공경할 기회가 줄어들어 따라, 가족 공동체를 지탱해 왔던 '뿌리 의식'마저 희박해지고 있다. 초·중·고교학생은 말할 나위가 없고, 심지어 대학생마저도 살아 계신 직계 조부모님의 성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이 속한 가문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집안 어른들의 말

씀을 경청하려 하기 보다는, 만화영화나 컴퓨터 게임을 통해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더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만일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을 기성세대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기들만의 배타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려 하거나, 개인주의적 의식성향이나 생활방식이 마치 전통적인 권위로부터의 탈피 또는 민주화의 산물 그리고 자신들만의 고유한 특권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가족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과거와 현재간의 단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속화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직면해 있는 가족 공동체내에서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진단해 보고 그 해결책을 찾아 나설 필요가 있다.

3. 개인과 공동체간의 조화

내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대규모의 가족 공동체인 대중회의 발전을 위해서 개별적인 종친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이는 곧 개인과 가족 공동체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양자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밝히기 위

해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를 그 이론적 배경으로 원용할 수 있다. 최근 두 이론간의 논쟁이 제반 학문분야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을 상정할 때, 두 이론은 적어도 海州崔氏大宗會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안목을 넓혀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회의 발전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도출하는 데 상당한 적실성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 권리가 무엇보다도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달성하고, 외부로부터 어떤 제약이나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상충할 때, 개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정당화된다. 이러한 사조는 서구의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서구인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고 있다. 근대화 이후 이러한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신념은 우리 민족의 생활 주변에도 깊숙이 침투해 들어갔다.

이에 반해, 공동체주의는 개인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의 공동체 맥락 안에서 공동체 성

원으로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공동체 내에서 개인은 가족과 친구에게 애정을 느끼고,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며, 연장자나 사회적 관행이나 전통을 존중하고, 사회적 연대감이나 공동체 의식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며, 공동선의 실현에 참여한다.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이 상충할 때, '大를 위해 小를 희생한다'는 대의명분 하에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이러한 사조는 예로부터 우리 사회에서 이어져 내려온 역사적 산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두 사조는 각각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닌다. 자유주의 내지 개인주의는 개인의 합리성, 자율성, 주체성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적인 삶을 진전시키는 데 이바지했지만, 지나칠 경우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여기에서는 공동선의 실현이나 공동체 내의 결속을 기대하기 힘들다. 반대로 공동체주의는 공동선의 실현이나 공동체 내의 결속을 위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지만, 지나칠 경우 혈연이나 지연에 의한 비합리적이고 前-근대적인 정실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자유주의의 단점은 공동체주의의 장점에 의해 극복될 수 있고, 공동체

주의의 단점은 자유주의의 장점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두 사조는 상반관계보다는 상보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두 사조의 장점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서 개인과 공동체간의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4. 大宗會의 발전을 위한 宗親들의 역할

우리는 흔히 '먹고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자기가 속해 있는 집안이나 대종회의 일들에 무관심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수 백년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가족 공동체의 전통과 유대는 불과 20여년 전부터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부모 없는 자식이 있을 수 없듯이, 윗 조상들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우리들 각자의 개별적인 삶을 말할 수 없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들의 '개별적 자아'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의 맥락에 뿌리를 둔 '공동체적 자아'이고, 주변의 상황들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상황적 자아'이다. 현대의 삶이 주로 몇 명의 개인들 또는 한 가정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지만, 그럴수록 나와 관련된 크고 작은 공동체들과의 관계를 성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는

이제 너무나 익숙해져버린 개인주의적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나의 '원 뿌리'를 추적해 보고, 나와 연결된 무수히 많은 가족 공동체 망의 낱실과 씨실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海州 崔氏 大宗會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1982년 10월 대종회 창립을 시작으로, 누대에 길이 빛날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文憲書院을 정비하여 매년 전국적인 규모의 享祀를 모셔왔고, 大同譜를 발간하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종친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으며, 宗誌와 학술논문집을 발간하여 국내외적으로 大宗會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해주 최씨 청년 수련회를 개최하여 후손들에게 생생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였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남한의 종친들을 체계적으로 전산화함은 물론, 통일이 되면 북한에 거주하는 종친들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고, 海州에다 제2의 대종회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뒷 선에 물러앉아 있던 종친들 모두가 이러한 일들에 배전의 관심을 갖고, 가족 공동체 일원으로서 역할을 명실상부하게 수행해 나간다면, 21세기 해주 최씨 대종회의 앞 날은 훨씬 밝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송조상문(崇祖尙門)하는 것이 생활의 전부인 在新종친

愚



누구나 在新종친을 대할때 느끼는 첫 인상은 “소박(素朴)하고, 순수하고 정겹다”는 것일 것이다. 올바른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천(布)으로 말한다면, 그 흔한 나이론, 데드롱, 폴리에스텔등 화학 섬유가 씨줄 날줄에 단 한올도 혼합안된 순수한 무명(不綿)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에게선 색다른 빛이 드러난다.

몇해전, 대종회의 연례행사의 하나인 임원들의 조상님 유적지나 서원, 영당등을 탐방 참배하는 임원 연수회 때의 일이다. 재신 종친의 향리인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용소(신기)리의 「명곡서원」을 참배하고 난뒤 재신

종친택에서 만찬을 베풀어줬는데, 이때 재신종친 내외는 그야말로 지극정성을 다해 대종회 임원들을 접대함으로써 정애주린 도시(都市)출신 임원들에게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였고, 이 사실은 오래동안 대종회 임원들 사이에서 회자(膾炙)되기도 했다.

그리고 대종회 창립초부터 현재까지 운영위원으로 20년간 봉사해온 재신 종친은 인간적 성실성과 함께 투철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다. 한가지 실례로 대종회 각종회의가 있을 때마다 천리길을 멀다 하지않고 거의 개근을 하고 있어 많은 종친들의 감탄을 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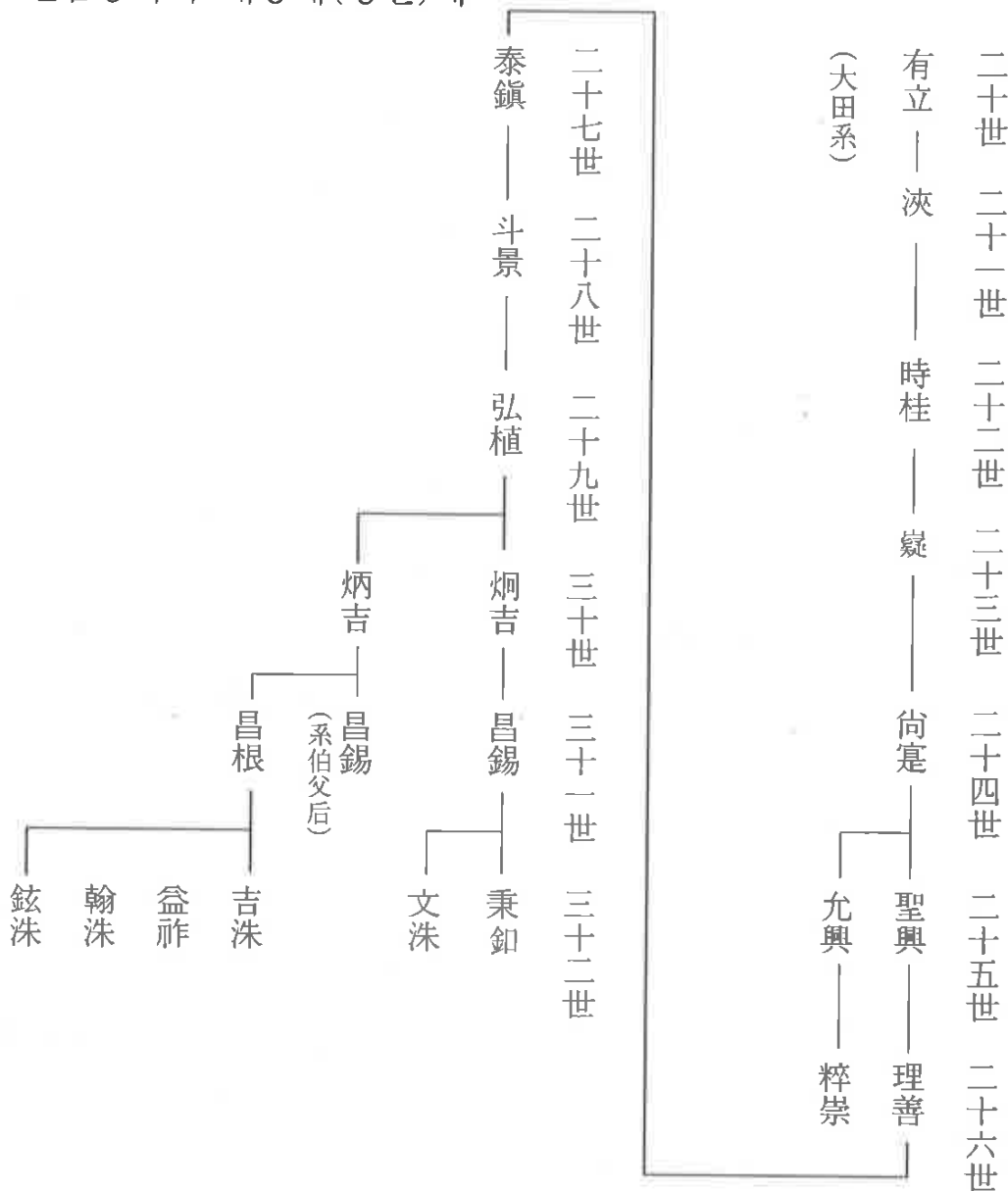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재신 종친의 진면목(眞面目)은 조상님을 숭배하고 문중을 위하는 일(崇祖尙門)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다는데서 들

어난다. 이것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
드라도 문중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재신 종친이 상문
사업에 있어서 필생의 자랑이요 보람
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은 1990년에
있을 해주최씨 대동보(경오보) 편찬
시 편찬위원의 한사람으로 활약하면
서, 오랜숙원이던 같은 萬理公(副提
學公) 후손이면서 250년전에 연락이
두절됐던 족친들을 찾게 되었다는 사
실이다. 현감공파의 내동계(강진)에

서는 새로 연결이 된 집안을 대전계
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계통도는 아
래와 같다.

재신종친은 인생에서 가장 충실을
깨달을 수 있는 60대 중반으로서 일
찌기 조선대학교를 마치고 한때(주)
미원의 광업부 전남광주지역 보급담
당관으로 회사 생활을 하다 농촌으로
귀향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슬하에
2남1녀를 둔 다복한 가정이다.

(愚)



나의 아버지

형 성

(집의공파 34세 대학강사)

시집까지 간, 다 큰 딸아이가 친정 아버지를 아직도 아빠라고 부른다고 어른들은 야단을 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게는 아버지라는 말보다 아빠라는 말이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하면 아직도 어리광을 부릴 수 있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려 합니다. 그만큼 이 딸이 컸다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이제는 부모님을 보다 잘 모셔야겠다는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참으로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디에 가서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 법대를 졸업하시고 중견관리로서 출발하여 관계(官界)에서 장래를 보장받고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관계보다도 학계(學界)가 더 적성에 맞는다고 학계에 들어가셔서 대학교수(大學教授)로서 일생을 교육에 바치시고, 65세로 정년 퇴임한 후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전국 어디를 아니 가시는 곳 없이 뛰어다니시며 연구발표와 실무자교육에 몸과 마음을 불태우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어떠한 일을 하시든 나중에 하시는 일을 처음에 하시는 일과 같게 하시고, 항상 하시는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시며, 매사에 정열이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학계와 행정실무계에서는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존경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저희 식구는 대가족(大家族)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릴적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항상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공경(恭敬)하시는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서 절로 아버지의 효심(孝心)에 머리를 숙이곤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공경의 마음은 비단 할아버지, 할머니께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친척이나 친구분, 제자분들을 대하심에도 항상 공대(恭待)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대의 마음은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릴적 저희의 자랑거리중 하나는 우리 부모님 두분의 금실이 참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부모님이 큰 소리로 다투시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는 두분의 성품이 좋으신 것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사랑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 아버지처럼 자상한 남편을 만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자상하고 사려 깊은 남편을 만난다면 일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자상하신 마음은 저희들

에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가르치시는 방법은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칭찬(稱讚)과 격려(激勵)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국민학교 저학년시절 학교에서 글짓기 숙제가 있을 때면 숙제를 하고 나서는 꼭 아버지께 검사를 받고 싶어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이 쓴 글을 보시고 항상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니 그것이 좋았던가 봅니다. 제가 사범대학을 다니면서 교육학을 배우고 나서야 안 일입니다만, 아버지의 이러한 교육방침은 교육학적으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교육방법(教育方法)이라는 것입니다. 저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제까지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강요(強要)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성적이 떨어졌다고 야단을 치신 적도 없습니다. 성적표를 보여드릴 때 성적이 떨어지면 저희들의 기(氣)가 죽을까봐 성적보다 건강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위로해 주셨고, 성적이 오르더라도 공부 때문에 건강을 해치면 안된다고 오히려 걱정을

해 주셨지요. 또한 저희들이 고등학교 시절, 대학을 선택할 때도 아버지의 바람을 강요하시기 보다는 저희들의 적성에 맞게, 저희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배려하셨었지요. 그래서 저희 모두 4남매입니다만 아무도 재수(再修)를 하지 않고, 가고자 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언제나 울타리요, 안식처이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저는 아버지곁에서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곤합니다.

아버지께 항상 효도를 다하지 못한 죄스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한가지 소망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10분의 1이라도 보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께서 벌써 65세 정년퇴임을 하시고 이제 70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제게 있어 아버지는 노인이신 할아버지가 아니라 언제나 인자하신, 젊으시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아버지께서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5세 정년을 넘기신 아버지께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 말을 꺼내기란 참으로 속스럽기 그지없어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너무도 가슴저리게 느끼면서, 용기를 내어 그 동안 가슴에만 담아두고 표현하지 못한 그 말을 이제 하렵니다. 가슴 벅차오르는 기쁜 마음으로 하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생활속의 磁石(자석)



석 봉

집의공파, 34세, KAIST연구원, 이학박사

1. 글머리

자석은 우리 생활의 무수히 많은 분야에서 매우 유용하게 응용되고 있으며, 이제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물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누구나, 어린 시절 자석을 가지고 그것을 철조각에 붙이며 놀았던 기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자석의 원리를 응용하는 자기 매체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본 기고를 통하여, 자석에 관한 역사와, 현재의 활발한 응용분야 그리고 미래의 활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2. 자석 활용의 역사

자석이라는 물질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소개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4000여년 전 그리스의 마그네시아 지방에서 자철광이 발견되면서부터이고, 현재의 자석의 영문이름(magnet)은 그 지방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그 이후, 자석은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문명의 핵심 물질로서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석이 인간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최초의 기구로서 지금도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구는, 자석의 양극이 지구의 남과 북을 항상 가리키는 원리를 이용하여 방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나침반이다. 나침반이 방위를

가리킬 수 있는 원리는 지구가 거대한 자석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사실은 지구뿐만이 아니고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별, 행성 등이 모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이다. 나침반에 대한 인류 최초의 기록으로서 중국고대 삼황오제 시대에 그것이 전쟁에서 응용되었던 기록이 남아있다. 나침반은 후대에 유럽으로 전해져 원거리 항해술의 발달을 촉진시켰으며, 신대륙의 발견으로 이어지는 인류사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기구이다. 현대에 있어서는, 보다 정교하게 방위 및 이동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이로미터에 역시 나침반 및 자석의 원리가 응용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막대자석과 같이 자화상태가 항상 유지되는 영구자석 또한 생활의 많은 곳에서 오래 전부터 응용되고 있다. 고대에는 자기력을 신비한 힘으로 여겨, 주로 주술사 등이 자석을 무속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다. 자석이 인류의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시작한 것은, 대체로 서구 사회의 르네상스를 즈음해서부터이다. 초등학교 자연학습시간에 철막대를 마찰시켜 만들어내는 막대자석이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영구자석으로

서, 철막대자석은 대략 지구자기장의 수십배 정도의 세기를 갖는다. 그 이후에 개발되어 아직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영구자석은 페라이트 자석으로서, 이는 돌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검은색 덩어리로 일반 가정에서도 냉장고에 붙이는 병따개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자석은 철을 산화시켜 만들고 막대자석보다 대략 10배 가량 센 자기력을 낸다. 더 강력한 자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개발된 알리코 자석은, 여러 종류의 자석원소를 혼합하여 만들어지며 막대자석보다 대략 100배 가량 센 자기력을 낸다. 이는 일반인들도 한두 번쯤은 접해보았을만한 은색의 금속성 표면을 가지고 있는 자석으로서, 전기모터나 스피커 등을 분해하였을 때 발견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지울 수 있는 강력한 자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다루어야 한다.

자성체가 응용되는 또 하나의 고전적인 분야는 바로 변압기로서, 가정용 전압 220 볼트를 110볼트로 바꾸어주는 변압기는 물론, 전신주 등에 달려있는 고전압 변압기도 모두 같은 원리의 기구들이다. 변압기는, 자성이 전기를 간접적으로 매개할 수 있

는 원리를 이용한다. 그 이외에, 음파를 매개하는 전화기의 마이크나 스피커 등에도 역시 자석의 유도기전력이 사용되고 있으며, 같은 원리가 전기모터 등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 자석 활용의 현재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급속한 산업기술의 발달로 인해, 자석의 응용 또한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자석 또는 자성체의 원리로부터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전위적인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 등에 응용되는 분야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석응용은, 누구나 한두개쯤 지갑에 넣고 다니는 신용카드나 전화카드 등에 사용되고 있는 마그네틱테이프이다. 마그네틱 테이프는 자석의 극성이 남극과 북극으로 외형적으로 동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그 극성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원리를 이용하여, 북극과

남극을 각각 0과 1의 숫자에 대응시켜 정보를 기록하는 원리를 응용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원리를 이용하는 분야가, 컴퓨터 등에서 사용하는 플로피 디스켓 또는 하드 디스켓이다. 이 경우에는, 축음기의 레코드판과 같은 원판위에 자석가루를 뿌리고 각 부분 자석가루의 남극과 북극의 상태를 제어함으로써, 0과 1의 정보를 간직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 재생할 수 있는 원리이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응용하는 정보 기록 소자는 최근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1990년대 초 하드디스크 하나가 수십 Mbytes(=10⁶ bytes)의 정보 기록 용량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0년대 초 수십 Gbytes(=10⁹ bytes)로 10년간 1,000배의 용량으로 급속히 증대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향후 수십년 이내에 일반 가정의 컴퓨터의 기억용량이 인간의 기억용량을 넘어 서리라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기록 원리와는 별도로,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는 비닐 테이프에 자석가루를 뿌리고 자석가루의 상태를 아날로그로 기록하여, 음향을 기록 또는 재생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자석의 원리를 응용하는 또 하나의 가장 성공적인 분야는 바로 의료분야

이다. 나무통 안에 자석이 들어있을 때, 반드시 나무통을 부수고 꺼내볼 필요없이 나무통 밖에서 다른 자석을 이용하면, 나무통 안에 들어있는 자석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석의 원리를 이용하면, 관찰대상을 절개하거나 파괴하지 않고 외부에서 그 성질을 관찰할 수 있다. 핵자기공명 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장비는 인간의 외부에서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여, 인간 내부의 구성요소 각각의 자기적 성질을 원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3차원의 인간내부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장비이다. 이는 생체를 절개하거나 파괴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인체 내부를 관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학적 치료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인체에 존재하는 생체단백질과 혈액 속에도 역시 자석 알갱이가 생체 대사를 완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확인되었다. 최근 자석으로 구성되는 목걸이나 팔지 등이 이러한 인체의 생체대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응용하는 많은 종류의 제품이 개발되었다. 식물의 성장에 있어서도 자기력의 영향이 매우 두드러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와 관련하여, 토마토가 자기장 환경에서 왕성하게 배양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보고되었다. 또한 식물이 자기장 환경 속에서 더 싱싱하게 오래 저장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그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제품들이 특색을 갖추어 수년 전부터 시판되고 있다.

4. 자석 활용의 미래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나아가게 되면, 자기력의 영향이 더욱 커진다. 지구의 외부는 바로 플라즈마로 이루어진 물질층으로 둘러싸여 있다. 플라즈마는 물질의 상태 중에 하나로서, 쉽게 설명하자면, 딱딱한 고체인 얼음이 섭씨 0도에서 녹아 흐르는 액체인 물 되고 다시 섭씨 100도에서 기체인 수증기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온도를 수천 도까지 올려주면, 기체 상태를 벗어나 플라즈마 상태가 된다. 이러한 플라즈마는 자기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지구의 자기장 권역에 예속되어 있고, 남극이나 북극에서 관찰되는 오로라 현상은 이러한 지구외부 플라즈마가 지구로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발생되었던 태양폭풍 등

의 우주현상도 플라즈마와 자기력 등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이, 자석 및 자기력의 원리는, 지구는 물론 우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또한 인류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가오는 미래에 있어서, 자석의 역할은 더욱 증폭되리라 예상된다. 현대의 전자혁명을 주도하였던 전자

공학(electronics)의 한계가 서서히 다가오는 요즈음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실마리가 자기공학(spintronic)에 의해 활발하게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대용량 정보기록 매체 등에 있어 이미 10억분의 1 미터 영역에서의 자기성질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머지않은 시기에 새로운 기술혁명의 시대가 오리라 예고되고 있다.

補化院 孝行賞받은 孝婦 朴一仙女史

(嶺南支會)

어렸을 때부터 溫厚勤勉한 性品을 지녀 어른들에게 謙遜하고 尊敬할 줄 아는 閨秀가 있었으니, 그는 21歲에 海州崔氏 門中으로 出嫁하여 親庭老母 奉養과 烈行의 孝誠을 다한 훌륭한 孝婦 朴一仙女史이다.

朴女史(當年 61歲)는 名門인 密陽 朴氏 家門에서 1957年 陰曆 11月 6日에 國家有功者 韓國戰爭 參戰勇士 崔泰峯氏(大邱廣域市 西區 飛山洞 44-15)家로 華婚하였다. 시집온 후 8男妹의 맡여느리로 어린媳同生, 媿누이 등을 보살피 大家族의 規範있고 和睦 단란한 家庭을 이루어 왔다.

女史自身도 61歲 回甲老人인데도 達城郡 求知面 道洞里에 居住하는 盧二分(95歲 1902年生) 獨居老人의 無男獨女로서 열악한 住居環境에서

生活하고 계시는 親庭홀어머니를 33年前부터 奉養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5年 12月 양 눈마저 失明狀態에 杜門不出한 어머니를 病看護하기 위하여 大邱에서 200里길을 嚴冬雪寒을 무릅쓰고 한달에 몇번씩이나 往來하면서 남달리 極盡히 애쓴 精誠을 쏟아 96年 3月 大邱東山基督病院에 入院 手術 結果 多幸히도 밝은 빛을 보게하였다. 그러나 雪上加霜으로 3年前에 男便마저 糖尿成人合病으로 死境에 達하고 生活能力을 喪失하자 男便의 病治療費와 뒷바라지, 百壽老人의 奉養費등 生活維持를 充當하기 위해 그 어려움이란 말할 수 없었지만 강한 意志로 男便과 어머니를 올바르게 看護하고 養育해 내리라는 初志一貫 굳은 理念으로 남의집 家庭

婦, 食堂 廚房
일·路商등을 억
척같이 하여 女
家長의 노릇을
하면서 勤儉節約
한 生活을 해왔
다.

특히 男便이
宗事일에 專念할
때 그 內助의 힘
이 天性的으로

타고난 當然한 義務로 生覺하고 奇特
한 마음씨와 行動은 보기도문 장한
朴女史로 稱頌하고 온 洞里에서 異口
同聲으로 烈行과 孝心은 萬人의 龜鑑
이 되어 1996年 4월에 海州崔氏 大
門中에서 孝行表彰을 受賞한 바도 있
다.

비록 男便病은 完快되지는 않았지
만 웃음이 깃든 幸福한 家庭을 만들



기에 努力하고 있다한다.

위 行蹟 등이 世人들에 口傳되니
全國坊坊曲曲에 퍼지자 大邱廣域市
議會議長 崔栢永, 西區議會 洪正喜,
洪達植위원, 達城郡守 楊始榮氏 등이
薦舉하여 1997年 4月 21日 大邱文
化藝術會館에서 財團法人 補化院 孝
行賞을 受賞한 바 있다.



내 삶의 시지프스

승 욱

(제41회 사법고시 합격)

아주 오래전 전설의 하나.

고대 그리스에서 신에 대한 불경죄로 처벌을 받게된 한 현명한 인간인 시지프스가 받은 형벌은 산 위 정상에 커다란 바위를 굴러서 올려놓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산 정상을 향하여 바위를 굴러 정상 가까이 이르렀을 경우 어김없이 바위가 굴러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으로부터 이러한 형벌을 받은 시지프스는 평생을 계속하여 산위로 바위를 굴러야만 하고, 다시 원점으로 굴러 돌아온 바위를 보고는 산 정상에 또 다시 바위를 굴러야만 하는 것이었다.

가끔씩 등산을 하면서 떠오르는 옛 전설이지만, 이 이야기가 떠오를때면 우리들의 삶, 이 자체가 시지프스가 산위로 바위를 굴러야만 하는 숙명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며 처절하게 몸부림을 쳐보지만 우리의 노력이, 몸부림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 온다면 우리는 좌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포기 할 수 없는것 역시 우리의

삶이므로 시지프스처럼 다시 산 정상을 향해 또 다시 바위를 굴러야만 하고....

그렇지만 한가지 위안 되는점.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삶의 형벌은 신이 시지프스에게 내린 바위를 산 정상에 굴리는 것이 아닌, 내 자신이 세운 삶의 목표와 희망이란 산의 정상에 바위를 굴러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몇번의 좌절은 있을지라도 끝내는 산위의 정상에 바위를 굴러 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나를 위안하고 또 희망을 갖게한다.

내가 삶을 선택한것은 비록 아니지만, 이미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면 그 속에서 자신이 세운 도덕적, 윤리적, 현실적 목표 아래 이상과 꿈을 위해 성실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겸손히 살아감으로 삶을 즐기는 여유를 갖고 싶다.

“삶은 무거우나 죽음은 깃털처럼 가볍다”라는 어느 영화속의 대사가 떠오르는 아침이다.

내 삶의 작은 공간을 차지하게될 오늘 하루도 성실한 노력과 신의 은총이 충만한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望 鄉



熙 燮

(海陵君派 宗親會)

文憲先師의 聖地巡禮를 念願하며

비 조 발 상 황 해 도
鼻 祖 發 祥 黃 海 道

비조의 발상은 황해도 해주요

세 칭 공 성 최 충 문
世 稱 孔 聖 崔 冲 門

세칭 해동공성은 최충선생이로다.

덕 행 문 장 계 이 자
德 行 文 章 戒 二 子

문헌공 계이사시 가훈에 덕행문장을
분부하셨나니

규 장 금 수 수 신 존
珪 璋 錦 繡 修 身 存

규장과 금수는 덕과 학문의 절차탁
마 한자에 있느니라

조 개 아 상 경 학 극
肇 開 我 庠 經 學 極

동방에 최초의 학당을 개설하여 경
학의 극치를 이루었나니

혈 식 향 화 천 수 존
血 食 香 火 千 秋 尊

천만년 끊임없는 혈식향화는 참으
로 존귀하여라.

유 적 순 례 망 향 몽
遺 蹟 巡 禮 望 鄉 夢

조상님의 유적지 순례참배하려는
간절한 심정, 꿈속에도 그리움이여

홍 구 불 통 철 마 원
鴻 溝 不 通 鐵 馬 怨

저 북녘 해주로 달려가지 못하는
휴전선 철마가 원수로다.

大宗會報 總覽

創立以後 現在까지 重要事項

제 1호 1983년 6월 10일 발행

문중 기대리에 대종회 발족 초대회장에 재형씨(1982. 10. 23.)

운영위원회 구성 집행부 임원 선임

종지발간하기로 편찬위원회 구성 편찬요강 결정

봉제사일정 제정키로 : 불지 영당 보수

재형회장 신임 인사 : 소임에 微衷 다할 터

문헌 장학금 지급 - 교리공파 문중에서 1983. 3.

대종회 사무실 개관 : 만기 부회장 제공(서울 동대문구 상봉동)

제1회 운영위원회 개최 : 운영위원 의무부담금 책정(1983. 1. 26.)

문헌공 선조에 대한 심층연구 : 학계에 위촉하기로

영남지회 결성(1982. 11. 21.)

교리공파 총회 : 6월 12일 개최

제2회 운영위원회 개최 : 수지 예산안 통과(83. 3. 29.)

제 2호 1983년 10월 28일 발행

문헌공연구 정식으로 위촉 : 사학계서 권위 학자를 망라 사학의 원조

해동공자 최충 연구 논문집으로 펴내기로 결정

문헌영당 제사 11월 10일 봉행키로 결정

宗中三大사업의 의의 : 대종회 부회장 길준

1. 종지 발간사업 2. 영당관리 제사 봉행 3. 문헌공 학술연구 세미나 개최

종지수록 내용 결정 : 편찬 위원회에서 집필자 선정

제3회 운영위원회 개최 : 추경 예산등 심의
 제4회 운영위원회 개최 : 회칙 개정(83. 10. 29.)
 찬조금 일백만원 龍九 종친이 기탁

제 3호 1984년 4월 13일 발행

문헌공 기념사업회 곧 발족 : 회칙제정등 준비 구체화
 회장에 이승녕박사 취임 내약 : 유학정신 연구선양
 83년 문헌영당 제사 업수. 대종회 창립후 처음 봉행
 84년도 정기총회 및 문헌영당 제사 봉행 4월 15일
 최충 연구 교수 간담회 : 연구 방향 완료 시기 논의
 집행부 중요 회의 : 84. 1. 26. 문헌공 기념 사업회의 설립 문제 등을
 주관하고 있는 경희대 박성봉 교수를 참석시킨 가운데 기념사업회 설
 립 문제와 회칙초안, 기본사업계획 등을 협의
 84년 2월 23일 - 회장단 간사장단회의 개최 기념사업회 회칙안을 심
 의, 원식 운영위원을 부회장으로 선임할 것을 협의
 84년 3월 3일 - 집행부 임원 및 종지편찬 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
 제5회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할 안건을 심의
 전남지회 창립 : 회장에 洙東 宗親(83. 11. 5.)
 제5회 운영위원회 개최(83. 3. 27.) : 원식 종친을 부회장으로 선임
 원식 부회장 백만원 찬조
 해동영당 향사 봉행(84. 4. 3.)

제 4호 1985년 3월 10일

문헌공 탄신 천주년 학술 세미나 대성황
 아울러 최충 연구 논총 출판기념회 개최
 1985년 12월 1일 서울 엠버서더호텔에서 전국종친 7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경희대학교부설 전통문화연구소가 주최하고 문헌공최충선
 생 기념사업회가 협찬한 문헌공 탄신 천주년 학술회의를 우리나라 사
 학계의 최고 권위자인 이병도 박사의 기념강연과 석학 8인의 논문발

표와 약정토론 교수 7인의 진지한 토론으로 文憲公 先祖의 位相이 바로 잡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았다.

문헌공 최충 선생 기념사업회개최 : 회장단 및 이사 선임

집행부 중요 회의 : 문헌공 기념 사업회와 연석회의를 다섯 차례(85. 5. 24, 6. 25, 9. 17, 11. 1, 11. 7.)에 걸쳐 개최하고 최충 연구 논총 발행 등에 관하여 협의 결정하다.

다산영당 향사봉행 : 문헌공 문화공의 영정과 문청공의 위패를 봉안한 전남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다산 영당 향사가 84년 12월 22일 종친주관으로 봉행

魯東書院 享祀 奉行 : 강원도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소재 노동서원 향사가 유림주관으로 84년 9월 30일(陰 9月 初丁日)에 봉행 되었다.

辛卯譜 錫根宗親이 寄贈

禮山支會 創立 : 84. 4. 29.

제 5호 1986년 8월 10일

문헌공 기념사업의 영속화

법인체 설립을 추진, 학계저명인사들도 적극 호응

文憲書院 建立 計劃

화성군 오산읍 내삼미리에

85년 문헌영당 향사 및 정기총회 盛了

대동보 발간하기로 : 87년부터 수단업무 개시

제 7회 운영위원회 : 85. 3. 30.

任員 補任. 會則改正. 會期別로 운영위 개최

會長 : 在衡(留). 副會長: 翼列(留). 天溥(留). 萬基(留). 元植(留). 吉堉(留). 奉燮(留). 洙東(新). 龍根(新). 龍九(新). 秉倫(新). 監事: 在焜(留). 玉燮(新)

제 6호 1987년 7월 13일

문헌공탄신 천주년기념보 발간 구체화

보서 편찬위원장에 吉埭 부회장

기념보 편찬위원회 규약, 기념보 편찬세칙 제정

제12회 운영위원회 개최(87. 3. 7.)

회장단 전원유임

※ 문헌서원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제11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원식 부회장

문헌서원 건립 규약

※ 종지편찬위원 개편 : 제11회 운영위원회서 종지편찬위 규약 제정 통과

위원장 : 준기. 부위원장 : 우. 위원 : 강현. 영철, 승만, 이섭, 광식, 창섭, 기호, 운식, 한수.

※ 台鎬 顧問 別世 : 87. 7. 9(향년 73세)

※ 제13회 운영위원회 개최 87. 5. 30.

※ 문헌영당향사 및 정기총회 : 다수 종친 참석으로 성황

※ 전남지회 정기총회 87. 6. 27.

※ 禮山支會 定期總會 87. 3. 26.

※ 대종회 사무실 이전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5 서린빌딩 12호

제 7호 1989년 2월 15일

※ 대동보 편찬 예정대로 진척

보서 예약 참조 계속 접수중

※ 문중을 빛낸 종친에게 축하패 증정하고 치하

노동부장관 明憲 종친, 국회의원 薰 종친, 국회의원 昌潤 종친. 국회의원 箕善 종친, 사시합격 一淑양, 장애인올림픽 은메달 庚喆 종친.

※ 청와대 정무수석에 창윤(국회의원) 종친 임명

※ 明憲고문 대한무역진흥공사 이사장에 임명

제 8호 1989년 7월 20일

- ※ 대종회장에 元植氏 선임, 재형 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 89년 3월 25일 제17회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부회장은 모두 유임되고 明煥(新)부회장, 감사 : 光敏(新), 東植(新)
- ※ 신입회장 인사 : 대종회 발전에 최선
- ※ 보서 인쇄계약 체결 : 6월 26일 대전 회상사와 정식 계약
- ※ 대종회 집행부임원 제2회 연수겸 단합대회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2박3일로 개최 : 집행부 임원의 자질향상과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문중과의 유대를 넓혀 대종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88년부터 집행부 연수회를 실시하고 있다.

제 9호 1990년 12월 20일

- ※ 경오 대동보 드디어 頒布시작
추가보서구입 신청은 계속 접수중
- ※ 대종회 사무실 매입 : 여의도 동북빌딩 607호(건평 29.33평)
- ※ 서원 본당 기공식 : 90. 11. 30.
임원 및 종친 다수 참석리 거행
- ※ 제18회 운영위원회 개최(89. 9. 23.)
- ※ 제19회 운영위원회 개최(90. 3. 10.)
- ※ 제20회 운영위원회 개최(90. 9. 22.)
- ※ 공보처 장관에 창윤 종친 임명
- ※ 在北先祖 설단 향사 : 교리공파에서 거행
- ※ 종지 2집 원고 종친들의 투고 요망

제 10호 1991년 12월 1일

- ※ 문헌서원내 영정각 준공 : 대망의 문헌서원 건립공사가 예정대로 진척되어 토목공사 조경공사에 이어 본당인 영정각이 준공되어 해주 최씨 천년사에 중흥기가 열렸다.
영정은 전통양식으로 다시 모사, 문장공(諱 : 惟吉) 영정도 봉안키로

- ※ 대동보 발간 기념품 증정
- ※ 대중회 간사단 제4회 연수회
- ※ 제21회 운영위원회 개최(91. 3. 30.)
- 새로 선출된 임원진
- 會長 : 원식(留)
- 副會長 : 길준(留), 익렬(留), 천보(留), 수동(留), 용근(留), 만기(留), 병윤(留), 동식(新),秉完(新), 광운(新)
- 監事 : 광민(留), 대선(新), 總務部長 : 형식(新)
- ※ 대중회 사무실 이전 : 매입한 동북빌딩 607호로 이전
- ※ 在衡명예회장 他界
- 대중회 창립이래 초대, 2대, 3대에 걸쳐 대중회 회장직을 수행, 지대한 공훈을 남긴 재형 명예회장이 91년 7월 14일 持病으로 別世
- ※ 靈岩의 東溪祠 重建(지역 종친 주관으로)
- ※ 崔冲 研究論叢 再版
- ※ 萬秀 종친에게 感謝牌 授與 : 강원지역 종친인 萬秀氏가 홍천 노동서원의 보수 경비조로 巨金 1억원과 위토용으로 주변토지 2,000여평을 기탁한 바 있어 그 높은 뜻을 찬양하기 위하여 91年 10月 14日 노동서원 향사때 대중회장 명의로 감사패를 수여하다.
- ※ 大田 忠淸支會 創立(1991. 4. 20.)

제 11호 1992년 9월 20일

- ※ 書院 竣工式, 記念碑除幕, 影幀奉安式 및 奉安祭 嚴修
- 祖孫間의 強한 紐帶를 再確認
- ※ 文憲書院 享祀 및 定期總會(10월 11일)
- 오산의 새 문헌서원에서 개최
- 남한 20萬 宗人 宿願 이룬다.
- ※ 昌潤종친 顧問으로 推戴
- ※ 제23회 운영위원회 개최(1992년 3월 14일)
- ※ 종지 제 2輯 出刊

※ 有功子 表彰

제 12호 1992년 12월 5일

※ 文憲書院 竣工紀念祭 및 定期總會

海崔千年初有의 大盛典, 전국종인 3千余 雲集

※ 得全 先祖 時享 奉行

元植 대중회장 참석리에

※ 書院建立 - 收支 정산보고

제25회 운영위원회 개최(1992년 12월 13일)

※ 대중회 임원 연수회(제4회) 개최

전남 강진의 명곡서원, 화순 다산영당등 탐방

※ 尊屬없는 他界종친 합동위령제 奉行 : 교리공파 在北先祖設壇 享祀(11. 15.)

※ 元植 대중회장 古稀 自祝宴(11. 26.)

제 13호 1994년 3월 10일

※ 被訴事件 다룬 28회 運營委員會

홍분, 분노의 3時間 半

좌랑공파 참판공후손 종중의 몇몇 종인들이 元植 대중회장을 상대로 告訴를 두차례나 제기해 海崔千年史에 恥部를 남기고 결과는 무혐의로 처리되었는데 告訴內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 대동보 편찬에 있어 수십명의 성명 미상자로부터 청탁을 받아 이를 날조 입보시키고 그 代價로 상당한 巨額의 금액을 수수 착복하였다.
- 2) 보존가치가 전혀없는 대동보를 편찬하는데 전종인으로부터 각출한 10억원상당을 낭비하였다.
- 3)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문헌공 문화공의 영정을 임의로 날조하여 봉안함으로써 20만 종인과 사회적인 명예를 실추시켰다.
- 4) 문헌서원을 건립함에 있어 임야 약 300평의 산림훼손허가를 받고

허가면적을 초과한 5천평을 불법으로 훼손하여 종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등 황당무계하고 어불성설인 내용에 대하여 대종회에서는 관계당국에 하나하나 반증을 들어 정연하게 釋明을 하고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전기 고소인들을 任職에서 해임시키고 명예훼손으로 사직당국에 맞고소한 바 있음.

“해명”

1) 보서건 : 성명미상자를 입보시키고 대가를 착복했다 운운하다.

김씨 이씨 박씨인지조차 분명치 않은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해최족보에 들어 입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무용지물인 대동보를 편찬하는데 10억상당을 낭비했다고 하는데 무용 유용을 思慮의 심스런 몇 사람이 결정하는것도 아니고 더욱이 대동보 편찬경비의 지출 내역 등은 告訴人中 한 사람인 光敏씨가 대종회 감사로서 감사하고 이상이 없다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임.

2) 영정제작문제 : 대종회 의결기관과 자문기관 등에서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제작된 것으로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문구는 마구잡이 용어를 나열하여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다.

3) 山林훼손 云云 : 서원전체 영역이 3,700평인데 5천평훼손 운운하고 또 산림은 극히 일부분인 영적각 주변이고 그 밖의 영역은 山林이 아닐 뿐 아니라 서원부지는 정식으로 변경허가와 준공 허가를 받은 것임.

※ 大宗會 10年史 發刊

운영위원회에서 확정, 편찬위원 구성

고문 : 元植 회장

위원장 : 우 부회장

위원 : 만기 준기 창호 남규 성윤부회장, 승군간사장, 원보 제훈위원, 병필자문위원

※ 문헌서원 향사 및 정기총회(1994년 4월 18일)

※ 청년 수련회 개최

MBC방송국이 姓氏의 故鄉이라는 프로에 해주최씨편을 제작하게됨

을 계기로 1993년 7월 10일 문헌서원에서 뿌리 교육의 하나인 청년수련회 개최

※ 忠毅公 慶會將軍 遺蹟淨化事業 推進

위치 - 전남 화순군 동면 백용리 신원도

규모 - 사당 기념관등 6동(경역 6천평)

사업비 - 25억7천6백만원

기간 - 1991년~1995년(5개년)

● 生家復元, 義兵廳址 淨化, 墓域淨化

제 14호 1994년 7월 10일

※ 대중회 피소 사건 화해로 매듭

일시적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 제기되었던 문제 一切 없었던 일로

※ 合議書 對策委서 追認

※ 對策委員들의 노고를 치하(원식 대중회장이)

※ 제3회 문헌서원 향사 성황리

1,500여 종친 참석

※ 지방종친들 문헌서원 방문 영정각에 참배

지난 94년 4월 25일 전남 보성종인 50여명과 6월 7일 삼천포종인 20여명 서원 방문

※ 제2기 청년수련회 개최결의(1994. 9. 24.~25.)

※ 문헌공 탄신 천주년기념 대동보 정오표 게재

제 15호 1996년 2월 1일

※ 제31회 운영위원회(95. 3. 18.)

회장단 개선

會長 : 俊基(新)

首席副會長 : 愚(新)

副會長 : 光勳(留), 東植(留), 南奎(留), 廣洙(留), 昌浩(留), 秉倫(留), 宗植(新), 仁植(新), 大善(新)

監事：理燮(留), 炳集(新)

- ※ 孝子 孝婦賞을 제정키로 제32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1995. 12. 10.)
- ※ 大衆회 10年史 發行(95. 2. 15.)
- ※ 大衆會 仁川支會創立(95. 5. 28.)
- ※ 제7회 大衆회 임원 연수회 개최(1994. 10. 29~30) 경북지역
- ※ 제8회 大衆회 임원 연수회 개최(1995. 10. 28~29) 충남지역
- ※ 天溥 고문 別世(1995. 12. 11.)
- ※ 箕善종친 仁川市長에 當選(96. 6. 27.)
- ※ 불우이웃 돕기 성금 大衆회명의로 6백5십만원 조선일보사에 기탁
出捐：元植회장, 宗植부회장
- ※ 제2기 청년수련회 개최(1994. 9. 24~25)
- ※ 吉垞 고문 서원경내에 朱木 2그루 獻樹

제 16호 1997년 1월 30일

※ 大동보 추록을 발간키로 결의

1996. 12. 8. 서울 P호텔에서 열린 제34회 大衆회 운영위원회에서
首席副會長 愚氏를 편찬위원장으로 선출

※ 96年度 文憲書院 大祭 및 定期總會(96. 4. 21.)

1,400여 종친이 참석

※ 大衆회 旗 제작

1996. 3. 30.결의에 따라 제정위원회를 결의하고 仁川支會長겸 大衆회 부회장인 종식씨가 圖案한 原案을 일부 다듬어서 제작, 월계관 원안에 文憲이라고 글씨를 넣고 청 황 홍의 바탕색에 백색으로 해주최씨대衆회라고 쓰다.

※ 祝賀牌수여(箕善. 인천시장당선) (辰榮. 사법고시합격) (豪垞. 공학박사학위) (承皓. 이학박사학위) (晋宇. 정치학박사학위) (朴英蘭. 사회복지학박사학위) 晋宇夫人

※ 孝行賞 수여

孝 婦：金貞愛(경수씨 모친) · 尹仁順(東晋氏 夫人) · 裴胤臣(우현씨 부

인) · 유봉오(秉攝씨 부인) · 朴一仙(泰峯씨 부인) · 이재남(洙珩씨 부인)

※ 대중회 承君 幹事長 辭任, 後任에 順炫 副幹事長을 任命

副幹事長에 光宇씨를 任命하고 당분간 總務간사직도 겸임

※ 96년 해동사 향사(96. 4. 20.)

※ 昌潤 고문 別世(96. 3. 30.)

공보처장관과 총무처장관을 역임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직에 있다 持病으로 他界

※ 炳弼 前 事務局長 別世(96. 6. 18.)

※ 96년 문헌서원 향사시 점심식사 준비소홀로 대중회 집행부 사과문

※ 仁川支會 送年會 및 總會

차기 회장에 주완 종친 선출

※ 20世諱 : 有源 先祖의 影幀을 KBS진품명품프로에 출품하여 12,000,000원의 감정가액을 평가 받았다.(영남지회 간사장인 태봉씨가 관리)

※ 잃었던 門中墓誌 日人일 돌려줌

이 墓誌는 1753년에 당시 영천군수를 지낸 崔尙觀(전한공파 : 24世)

이 他界하자 아들이 제작하여 안성군 원곡면 지문리 墓에 묻었던 것

을 日人들이 도굴해 일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양심있는 日人 한사람

이 이를 사서 후손 崔鳳燮씨에게 墓誌 5권이 전달

※ 대중회 임원 연수회 충북지방 탐방(1966. 11. 2. ~3)

※ 제33회 운영위원회 개최(96. 3. 30.)

운영위원 의무부담금 인상등 諸案件 의결

제 17호 1998년 1월 1일

※ 韓國儒學史上 崔冲先生의 位相

학술 연구 발표회를 개최기로(1998년 10월~11월경 예정)

※ 학술연구회의 주관은 문헌공 최충선생 기념사업회가

會長에 前경희대 朴性鳳교수와 前고려대학원장 金忠烈교수를 顧問으

로 하는 任員陳으로 陳容

※ 경오보 추록 수단 금년부터 접수하기로 하고 서식과 기재요령을 게재

접수기간 1998년 1월부터~

※ 제8代 大宗會 會長團 選出

제35회 운영위원회에서(1997. 3. 29.)

會長：吉埜 名譽會長：俊基(前會長)

顧問：翼烈(留), 萬基(留), 箕善(留), 元植(新), 東植(新), 昌浩(新)

首席副會長：愚(留)

副會長：光勳(留), 南奎(留), 廣洙(留), 宗植(留), 成潤(留), 仁植(留), 秉倫(留), 大善(留), 寬榮(新), 承君(新), 觀郁(新), 秉鉞(新), 柱完(新), 圭哲(新)

監事：炳集(留), 理燮(留)

※ 임원 연수회(1997년 11월 22~23일)

강원도 속초시 영북지역 종친회를 방문하여 회장(최헌성)을 비롯 많은 종친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많은 대화와 단합대회를 가졌다.

※ 문헌서원 대제봉행 및 정기총회 개최(97. 4. 20.)

※ 해동사 향사(4월 19일)

※ 제36회 운영위원회 및 송년회 개최(97. 12. 7.)

副會長補選에 吉植宗親을 選出, 在夏부간사장 作故로 缺員된 부간사장에 道植 재무간사를 임명

※ 해주최씨 노래제정은 제37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정기로

※ 柱完 副會長 別世(97. 6. 9.)

※ 在夏 副幹事長 別世(97. 9. 6.)

※ 대전 뿌리공원 開場

※ 전국종친에게 범최씨 책자 판매에 대하여 : 대중회를 사칭한 장사행위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알림

※ 대중회장 인사말에 대중회의 당면한 중요사업

- 전국종친 명단 재정비

- 운영위원의 정원 제조정

- 한국유학사상 문헌공 최종의 위상에 대한 학술 연구 발표회 개최
- 경오보 추록 발행
- 종지 3집 발행

제 18호 1999년 1월 10일

※ 학술발표회 盛了

1998년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長長 8시간에 걸쳐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

※ 한국유학사상 최종의 위상 논총을 단행본으로 發刊키로

※ 한국유학사상 문헌공의 위상에 대한 학술연구 발표회를 마치고 吉堧회장이 새해인사말씀과 중요 현안사항을 강조하였다.

- 한국유학사상 최종의 위상 연구논총을 전국종친에게 배포해서 문중의 귀중한 재산으로 각 가정에 비치할 것을 강조.

- 종지 3집 발간에 대하여

- 문중 장학회 창설에 대한 활발한 논의 진행

- 경오보 후보의 계속 접수

※ 해동사 향사(1998년 4월 18일)

※ 문헌서원 대제 및 정기총회(1998년 4월 19일)

1,300여 종친 참석한 가운데 봉행

※ 제37회 운영위원회 개최(98. 3. 20. 서울 종로 한일관)

종친회 명단 정비작업 계속 추진하기로

※ 제38회 운영위원회(98. 12. 12.)

경오보 후보 수단접수 일년 연기

해주최씨 비디오 제작에 대하여 논의

※ 전국종친에게 알림 : 범최씨 책자를 대종회 임원을 사칭한 전화 사기판매에 속지 말라는 알림

※ 임원연수회(1998년 10월 31일~11월 1일) 제주도에서

※ 吉植 副會長 別世(98. 6. 29.)

※ 진사공파 종친회 창립총회(1998. 4. 12.)

안성군 원곡면 불지 墓域에서 대종회 임원과 종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김포 현감공파 종친회 齋室(文德齋) 竣工(98. 9. 27.)

※ 箕善 顧問 仁川市長 당선 祝賀牌 授與

※ 各地 書院 影堂 享祀에 관한 내용기재

※ 교리공파 종친회에서는 98. 11. 30. 派祖(諱：璘)의 黃海道 延安 定着 500주년을 紀念하기 위하여 문헌서원 영정각 앞 광장에 느티나무 두 그루를 심고 獻樹碑를 세웠다.

제 19호 2000년 1월 10일

※ 유학사상 최충의 위상 전종인에 배포

※ 제39회 운영위원회 개최(99. 3. 27.)

대종회 회장단 및 임원 선출

顧問：元植(留), 萬基(留), 箕善(留), 東植(留), 昌浩(留), 光勳(新)

名譽會長：俊基(留)

會長：吉垞(留)

副會長：廣洙(留), 承君(留), 觀郁(留), 成潤(留), 秉倫(留) 圭哲(留), 大善(留), 秉愛(新), 尙哲(新), 仁燮(新), 良善(新), 秉旭(新), 炯一(新)

監事：炳集(留), 理燮(留)

※ 문헌서원 대제 및 정기총회(1999. 4. 18.)

1,500여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盛況裡에

※ 해동사 향사(1999. 4. 17.)

50여 종친이 참석 奉行

※ 제12회 대종회 임원 연수회(1999. 12. 18.~19)

김포 현감공파 文德齋에 참배하고 이곳 종친들과 뜨거운 정을 나누고 강화도 종친을 찾아

※ 전국종친에 알림 범최씨 책자의 대종회를 사칭한 사기판매에 관한 알림

※ 제41회 운영위원회 및 출판기념회 개최(99. 11. 26.)

운영위가 끝나고 朴性鳳 기념사업회장을 비롯 執筆教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吉埭 대종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 새로운 1000년을 여는 2000년 庚辰 새해를 맞이하면서 吉埭 대종회장이 인사말에서

- “유학사상 최충의 위상” 배포에 관하여

- 종지 3집 발간

- 문중 장학회 태동

- 고려 숭의회 사업에 관하여

고려시대의 성왕과 충신, 공신, 제현의 덕업을 선양하여 민족의 전통적인 정신문화를 육성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문화체육부 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체이다.

고려숭의회는 파주군 통일동산 중앙공원내에 12,500평을 배정받아 이곳에 고려통일대전, 공신각, 충신각, 박물관, 역사관, 강당등 관련 건물 2,151평을 총 소요예산 415억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등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통일대전의 配殿으로 우리 문중에서는 공신각에 문헌공(諱 : 卍) 문화공(諱 : 惟善) 충경공(諱 : 思諷) 영렬공(諱 : 允儀) 등 네분과 충신각에는 영랑장(諱 : 安澤)과 文化人으로 文淸公(諱 : 滋) 등 모두 여섯분을 모시기로 하였으며, 배향공신 한분당 1,000만원의 소요사업비는 각 문중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였다.

제 20호 2001년 1월 10일

※ 庚午大同譜 再版하기로 제43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 2001년 추보 발간과 병행 예정

※ 進士公(垠)派祖및 判書公(諱:淑孫)墓域復元(1998. 4. 12)

※ 大宗會 任員研修會(제13회) 울릉도에서 개최(2000. 10. 14)

※ 箕善仁川市長 - 종친초대. 인천국제공항관광(200. 11. 23)

※ 翼列 前顧問 別世(200. 11. 16)


※ 賞均 宗務幹事 別世(200. 8. 26)

大宗會任員名單

顧 問

(2001. 3. 30 현재) (年齡順)

	顧 問	崔 元 植 (佐郎公派)	1923年 4月 27日生
<p>仁川港運(株) 會長 / 前大宗會長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증산APT.1203-601 ☎ 自 : 031-976-4580 職 : 031-917-8100. 02-784-0144</p>			
	顧 問	崔 萬 基 (校理公派)	1923年 5月 25日生
<p>水踰産業社 會長 / 校理公派 獎學會長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5 동현APT 1-1002 ☎ 自 : 02-544-9445 職 :</p>			
	顧 問	崔 光 勳 (佐郎公派)	1923年 12月 3日生
<p>佐郎公派 宗親會長 서울 중랑구 신내동 475-1 중앙하이츠APT 1-1111 ☎ 自 : 02-433-1898 職 :</p>			
	顧 問	崔 東 植 (佐郎公派)	1924年 5月 12日生
<p>大同特殊工業社 會長 서울. 마포구 대흥동 세양APT 1607 ☎ 自 : 02-716-6451 職 : 02-718-6538</p>			
	顧 問	崔 昌 浩 (執義公派)	1935年 8月 6日生
<p>行政學博士 / 建國大學校 教授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42 무지개 라이프APT.703-1001 ☎ 自 : 031-718-6677 職 : 02-450-3573</p>			

	顧問	崔箕善 (縣監公派)	1945年 4月 4日生
	仁川廣域市長 / 前 國會議員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8 (인천시청) ☎ 自 : 032-463-5220 職 : 032-425-0010 (비서실)		

名 譽 會 長

	名譽會長	崔俊基 (校理公派)	1925年 4月 4日生
	文學博士 /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 前 대종회장 서울. 광진구 자양동 766 ☎ 自 : 02-444-9006 職 : 02-293-4102		

會 長 團

	會 長	崔 吉 竣 (校理公派)	1924年 11月 26日生
	協進産業(株) 代表理事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5 우성4차APT.5-206 ☎ 自 : 02-575-0360 職 : 02-525-0825		
	副 會 長	崔 秉 愛 (判司僕寺公派)	1926年 8月 3日生
	前 인천지회장 인천시 남구 관교동 477-4 (31/1) ☎ 自 : 032-433-4470 職 : H.P 011-9714-4470		
	副 會 長	崔 廣 洙 (海陵君派)	1928年 2月 24日生
	일신산업(株)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 신사동 570-4 ☎ 自 : 02-732-5180 職 : 02-540-0633		
	副 會 長	崔 承 君 (佐郎公派)	1930年 8月 20日生
	麻浦開發公社 社長 서울. 송파구 풍납2동 388-7 우성APT. 2-1105 ☎ 自 : 02-483-7775 職 :		
	副 會 長	崔 觀 郁 (承旨公派)	1932年 9月 10日生
	三佑鹽業社 社長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93-28 영풍맨션 101 ☎ 自 : 02-2213-4377 職 : 041-664-1255		

	副會長	崔成潤 (承旨公派)	1934年 11月 23日生
<p>金豊建業(株) 代表理事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58-1 ☎ 自：062-222-4577 職：062-528-8001~3</p>			
	副會長	崔尙哲 (校理公派)	1934年 12月 25日生
<p>아주화물(주) 대표이사 서울. 동작구 상도동 335-55 ☎ 自：02-813-8326 職：02-546-2041</p>			
	副會長	崔良善 (縣監公派)	1937年 11月 22日生
<p>美8軍 總監督官 / 前 縣監公派 金浦宗會長 서울. 금천구 독산동 한신APT 11-1601 ☎ 自：02-898-0144 職：02-7913-7052</p>			
	副會長	崔秉倫 (判司僕寺公派)	1938年 1月 9日生
<p>辯護士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43 미원빌라 302 ☎ 自：031-706-0896 職：02-558-2405</p>			
	副會長	崔秉旭 (典翰公派)	1938年 11月 4日生
<p>三榮製藥合資會社 代表理事 충남 천안시 원성동 555-1 우성5차APT. A-602 ☎ 自：041-551-2940 職：041-578-4300</p>			
	副會長	崔圭哲 (承旨公派)	1940年 7月 12日生
<p>전국씨름동우회 부회장 서울. 서대문구 연희3동 6-54 (16/4) ☎ 自：02-336-0875 職：02-330-1454</p>			

	副會長	崔大善 (監察公派)	1941년 9月 8日生
	韓醫學博士 / 麻浦韓醫院長 서울. 마포구 도화동 183-6 ☎ 自 : 02-324-7171 職 : 02-712-1191		
	副會長	崔炯一 (進士公派)	1944年 8月 16日生
	화인텔레콤(주) 대표이사 / 進士公派 宗親會長 서울. 강남구 포이동 211-8 화인빌라 3층 ☎ 自 : 02-572-7819 職 : 02-3461-3737		
	副會長	崔乙善 (縣監公派)	1937年 8月 20日生
	縣監公派 金浦宗會長 / 중앙대 부속중학교 교사 서울. 관악구 봉천2동 41-152 (19/6) ☎ 自 : 02-887-0905 職 : 02-815-0564		
	副會長	崔恒善 (縣監公派)	1941年 12月 20日生
	주안월드프라자 會長 / 仁川支會長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30-1 주안월드프라자 ☎ 自 : 032-882-6989 職 : H.P 011-9983-6989		

監 事

	監 事	崔炳集 (校理公派)	1927年 6月 22日生
	前 서울신탁은행 지점장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LG.APT.201-901 ☎ 自 : 031-716-8527 職 :		



監 事	崔 理 燮 (典翰公派)	1929年 1月 1日生
忠貞會 會長 / 前 進明學院 監事		
서울. 강남구 청담동 143-18 삼익APT 5-303		
☎ 自 : 02-542-9087		
職 :		

執 行 部



幹 事 長	崔 順 炫 (縣監公派)	1940年 9月 9日生
韓國學院 總聯合會 事務總長 / 行政考試 合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00-18		
☎ 自 : 02-372-3701		
職 : 02-798-8881~3		



副 幹 事 長	崔 光 宇 (佐郎公派)	1934年 10月 21日生
自營業 / 前 公務員		
서울. 중랑구 면목2동 138-3		
☎ 自 : 02-434-8048		
職 : 02-2209-3798		



副 幹 事 長	崔 道 植 (進士公派)	1933年 3月 1日生
進士公派 宗親會 顧問 / 前 警察廳 警監		
서울. 관악구 신림8동 1657-16 (8/1)		
☎ 自 : 02-855-7171		
職 : 02-3281-9677		



總 務 幹 事	崔 炳 安 (校理公派)	1932年 11月 23日生
自營業 / 校理公派 宗親會長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93 (14/1)		
☎ 自 : 02-463-7558		
職 :		

	總務副幹事	崔 在 晚 (縣監公派)	1964年 7月 21日生
法務事務室 勤務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218-1 ☎ 自 : 032-549-2998 職 : 02-596-8400			
	財務幹事	崔 鳳 燮 (海陵君派)	1935年 5月 9日生
自營業 / 前 동아일보 지국장 서울. 서초구 방배동 460-27 ☎ 自 : 02-582-8773 職 :			
	財務副幹事	崔 基 奉 (海陵君派)	1940年 11月 22日生
自營業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46-68 궁전빌라 201 ☎ 自 : 02-693-2965 職 : 02-272-1513			
	組織幹事	崔 光 勳 (佐郎公派)	1936年 8月 10日生
自營業 서울. 중랑구 면목2동 133-24 ☎ 自 : 02-434-7152 職 :			
	事業幹事	崔 昌 燮 (縣監公派)	1942年 2月 19日生
(株)利川金屬 代表理事 서울. 강남구 청담동 65 진흥APT.6-501 ☎ 自 : 02-517-4007 職 : 02-685-4445~6			
	弘報幹事	崔 鮮 植 (佐郎公派)	1939年 3月 13日生
自營業 서울. 노원구 창5동 297-1 상아APT. 1-502 ☎ 自 : 02-908-4408 職 : H.P 011-897-4408			

	弘報副幹事 崔承祚 (大寧君派) 1946年 3月 28日生
한국전력공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지구 57-2-1 신동아A. 108-502 ☎ 自 : 031-432-4088 職 : 032-880-8446	
	宗務幹事 崔明植 (文貞公派) 1948年 4月 9日生
日星堂 代表 서울. 강동구 천호3동 410-105 현대프라자 1층 ☎ 自 : 02-2216-2814 職 : 02-478-2814	
	宗務副幹事 崔炳南 (校理公派)
동남건재 대표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화대1리 ☎ 自 : 031-536-8088 職 : H.P 017-712-8388	
	青年幹事 崔根春 (佐郎公派) 1948年 12月 10日生
自營業 서울. 서초구 방배2동 432-3 ☎ 自 : 02-584-0208 職 : 02-584-0024	
	婦女幹事 崔和英 (佐郎公派) 1949年 2月 20日生
헤원플라워갤러리co 社長 서울. 중랑구 망우1동 178-1 염광APT. 1-309 ☎ 自 : 02-434-1302 職 : 02-469-6688	

事 務 局

	事務局長	崔 澄 植 (大寧君派)	1935年 5月 17日生
	前 大同譜 編纂幹事 / 總務部長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521-5 ☎ 自 : 031-375-6653 職 : 031-372-5572 H.P 011-731-5572		
	總 務	崔 芝 鎬 (執義公派)	1953年 5月 24日生
	前 組織副幹事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753-2 ☎ 自 : 031-372-5572 職 : H.P 011-660-0626		

宗 誌 編 纂 委 員

(年齡順)

	編纂委員長	崔 愚 (校理公派)	1931年 12月 1日生
	JC研究院 教授 / 前 大宗會首席副會長 서울. 종로구 무악동 45 무악현대A.107-204 ☎ 自 : 02-739-8120 職 : 011-312-8120		
	編纂委員	崔 康 賢 (縣監公派)	1936年 9月 28日生
	文學博士 / 弘益大學校 教授 서울. 마포구 서교동 331-13 ☎ 自 : 02-337-3302 職 : 031-832-7649		

	編纂委員	崔 乙 善 (縣監公派)	1937年 8月 20日生
縣監公派 金浦宗親會長 / 大宗會副會長 / 중앙대 부속중학교 교사 서울. 관악구 봉천2동 41-152 (19/6) ☎ 自 : 02-887-0905 職 : 02-815-0564			
	編纂委員	崔 順 炫 (縣監公派)	1940年 9月 9日生
大宗會幹事長 / 韓國學院 總聯合會 事務總長 / 行政考試 合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00-18 ☎ 自 : 02-372-3701 職 : 02-798-8881~3			
	編纂委員	崔 昌 燮 (佐郎公派)	1942年 3月 13日生
신문학 박사 /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장 서울. 양천구 목1동 913 목동APT.522-403 ☎ 自 : 02-2647-2113 職 : 02-705-8382			
	編纂委員	崔 起 鎬 (典翰公派)	1942年 4月 25日生
문학박사 / 상명대학교 교수 서울. 종로구 홍지동 7 상명대학교 ☎ 自 : 02-3486-1655 職 : 02-2287-5095			
	編纂委員	崔 雲 植 (佐郎公派)	1942年 10月 28日生
문학박사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633 벽산APT 105-1703 ☎ 自 : 02-6215-4909 職 : 043-230-3509			

諮 問 委 員

(年齡順)

	諮問委員	崔 永 哲 (校理公派)	1923年 12月 31日生
前 初等學校長 인천시 부평구 산곡4동 137-3 한신APT.104-507 ☎ 自 : 032-516-2698 職 :			
	諮問委員	崔 元 溥 (典翰公派)	1924年 10月 18日生
天安鄉校 總務首席掌議 / 敎職42年停年退任 충남 천안시 사직동 263-16 ☎ 自 : 041-551-5056 職 : 041-551-8050			
	諮問委員	崔 宗 植 (進士公派)	1934年 9月 2日生
동인건설(주) 常任顧問 / 前 大宗會副會長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한성APT. B-1309 ☎ 自 : 02-783-1052 職 :			
	諮問委員	崔 奉 燮 (典翰公派)	1935年 2月 9日生
醫學博士 / 齒科醫院長 / 前 大宗會 副會長 서울. 용산구 용문동 23-1 최치과의원 ☎ 自 : 02-576-0001 職 : 02-712-7019			
	諮問委員	崔 惇 正 (承旨公派)	1940年 12月 3日生
우신버스(주)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649 경남APT. 8-1009 ☎ 自 : 02-571-3806 職 : 011-475-3806			

	諮問委員	崔 漢 秀 (文貞公派)	1947年 6月 25日生
	政治學博士 / 건국대학교 교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웨밀리APT.103-404 ☎ 自 : 02-404-6656 職 : 02-450-3564		

運 營 委 員

가.나.다. 年齡順

	運營委員	崔 公 在 (進士公派)	1938年 6月 8日生
	農業 / 農村指導所長 停年退任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벽산APT.103-701 ☎ 自 : 041-353-8330 職 :		
	運營委員	崔 光 星 (佐郎公派)	1931年 3月 28日生
	農業 / 廣川宗親會長 충남 홍성군 광천읍 용암리 455 ☎ 自 : 041-641-2362 職 :		
	運營委員	崔 光 宙 (佐郎公派)	1934年 2月 6日生
	農業 / 公務員 停年退任 충남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378 ☎ 自 : 041-642-8028 職 :		
	運營委員	崔 光 溥 (文貞公派)	1936年 1月 26日生
	自營業 / 文貞公派副會長 대전시 동구 인동 259-6 (11/4) ☎ 自 : 042-283-3817 職 :		

	運營委員	崔 光 茂 (佐郎公派)	1937年 6月 17日生
<p>自營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25-18 ☎ 自 : 031-563-6266 職 : 031-563-2318</p>			
	運營委員	崔 光 烈 (典翰公派)	1949年 12月 15日生
<p>美術文化院長 서울. 마포구 용강동 149-31 ☎ 自 : 02-719-5586 職 : 02-730-5960</p>			
	運營委員	崔 圭 鉉 (海陵君派)	1939年 3月 30日生
<p>수원전화국장 정년퇴임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82-7 ☎ 自 : 031-243-4242 職 : H.P 016-315-8119</p>			
	運營委員	崔 根 壽 (佐郎公派)	1938年 11月 7日生
<p>自營業 / 前 홍성초대 4H지도위원장 경기도 안산시 일동 610-6 ☎ 自 : 031-407-4129 職 : 032-751-0682</p>			
	運營委員	崔 奇 淳 (佐郎公派)	1936年 6月 14日生
<p>農業 / 大田支會副會長 충남 금산군 부리면 관천리 370 ☎ 自 : 041-751-0957 職 :</p>			
	運營委員	崔 基 炳 (佐郎公派)	1938年 3月 26日生
<p>建築業 인천시 남구 주안1동 586-1 동원빌라 202 ☎ 自 : 032-873-3372 職 : 017-331-3374</p>			

	運營委員	崔 琦 壽 (佐郎公派)	1958年 4月 30日生
區議會議員 / 自營業 서울. 중랑구 중화동 20 ☎ 自 : 02-2209-0444 職 : 02-2209-6402			
	運營委員	崔 光 植 (佐郎公派)	1953年 1月 30日生
自營業 충남 홍성군 은하면 목현리 118 ☎ 自 : 041-642-4297 職 :			
	運營委員	崔 老 植 (典翰公派)	1952年 7月 3日生
신한운수 관리부장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시가지APT 1219-408 ☎ 自 : 02-2649-1556 職 : 02-717-9862			
	運營委員	崔 東 烈 (典書公派)	1929年 3月 1日生
農業 / 瑞山地域 宗親會長 충남 서산시 음암면 성암리 216 ☎ 自 : 041-663-5265 職 :			
	運營委員	崔 銅 沂 (監察公派)	1936年 2月 18日生
前 광산구 의회의원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729 ☎ 自 : 062-951-2843 職 :			
	運營委員	崔 東 明 (校理公派)	1934年 8月 17日生
前 國家報勳處 報勳局長 경기도 군포시 당동 쌍용APT 107-1903 ☎ 自 : 031-397-6175 職 :			

	運營委員 崔 東 烈 (縣監公派) 1941年 11月 21日生
	法務士 / 前 法務部 檢察廳 勤務 서울. 서초구 방배동 913-6 ☎ 自 : 02-581-4447 職 : 02-596-8400
	運營委員 崔 斗 鉉 (典翰公派) 1934年 2月 3日生
	新陽通産(주) 代表理事 서울. 노원구 상계1동 1055 현대1차A. 102-102 ☎ 自 : 02-930-6168 職 : 02-238-4090
	運營委員 崔 得 珠 (佐郎公派) 1927年 11月 20日生
	光明市 諮問委員 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 177-3 ☎ 自 : 02-802-9343 職 :
	運營委員 崔 明 根 (佐郎公派) 1937年 3月 25日生
	城南市 로타리클럽 회장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한신APT.5-602 ☎ 自 : 031-743-5722 職 : 031-732-4455
	運營委員 崔 文 燮 (典翰公派) 1940年 8月 27日生
	會社員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 4433 ☎ 自 : 031-745-9830 職 :
	運營委員 崔 文 植 (佐郎公派) 1946年 11月 8日生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부장 서울. 양천구 신정7동 337 목동2차 우성A. 202-903 ☎ 自 : 02-652-5104 職 : 02-634-0034~6 053-743-7164

	運營委員	崔秉熙 (監察公派)	1916年 11月 13日生
<p>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114번지 한라비발디106-2101 ☎ 自 : 031-464-1141 職 :</p>			
	運營委員	崔秉模 (典翰公派)	1926年 1月 21日生
<p>홍동 종친회장 충남 홍성군 홍동면 대영리 434 ☎ 自 : 041-634-2326 職 :</p>			
	運營委員	崔秉夏 (典翰公派)	1930年 3月 5日生
<p>典翰公派 宗親會長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원암리 248 ☎ 自 : 031-332-6592 職 :</p>			
	運營委員	崔秉權 (進士公派)	1934年 1月 20日生
<p>지산문화사 대표 / 詩人 서울. 성북구 석관2동 332-671 (2층10호) ☎ 自 : 02-966-5199 職 : 02-928-1661 019-320-7474</p>			
	運營委員	崔炳一 (佐郎公派)	1934年 10月 2日生
<p>성남운수(주) 대표이사 서울. 은평구 갈현동 327-43 ☎ 自 : 02-387-4211 職 : 02-777-6877</p>			
	運營委員	崔秉仁 (文貞公派)	1946年 11月 1日生
<p>대우 종합기계(주)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364 ☎ 自 : 041-634-1132 職 : 041-574-5621~3</p>			

	運營委員	崔秉允 (典翰公派)	1939年 3月 28日生
<p>自營業 대전시 동구 가오동 371-1 ☎ 自 : 042-271-5137 職 : 011-403-6729</p>			
	運營委員	崔秉優 (判司僕寺公派)	1940年 12月 11日生
<p>辯護士. 停年退任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148 ☎ 自 : 032-442-8326 職 :</p>			
	運營委員	崔炳休 (承旨公派)	1946年 10月 5日生
<p>삼부토건(주) 총무부장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탐마을 벽산APT. 607-701 ☎ 自 : 031-706-1862 職 : 011-264-1862</p>			
	運營委員	崔寶圭 (司正公派)	1934年 7月 21日生
<p>自營業 / 城南宗親會長 성남시 중원구 중동 140 ☎ 自 : 031-734-2937 職 : 017-322-6308</p>			
	運營委員	崔秉豪 (文貞公派)	1956年 7月 25日生
<p>自營業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1-19 성원빌라 나-201 ☎ 自 : 032-341-9100 職 : 032-343-2072</p>			
	運營委員	崔商在 (進士公派)	1930年 7月 1日生
<p>前 唐津進士公派 宗親會長 충남 당진군 고대면 용두리 644-27 ☎ 自 : 041-353-8711 職 :</p>			

	運營委員	崔相顯 (佐郎公派)	1931年 12月 24日生
학원 원장 서울. 동작구 상도4동 210-386 ☎ 自 : 02-822-4274 職 : 02-814-0480			
	運營委員	崔碩 (佐郎公派)	1926年 12月 3日生
大東影堂 代表 경북 영천시 금호읍 대미1리 520 ☎ 自 : 054-334-0684 職 :			
	運營委員	崔錫天 (書雲副正公派)	1929年 3月 2日生
古邑宗親會長 中等教師 停年退任 서울. 동작구 사당4동 266-9 ☎ 自 : 02-583-3043 職 :			
	運營委員	崔壽敬 (佐郎公派)	1925年 10月 26日生
前 철도청 검수계장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 우성APT.220-1102 ☎ 自 : 031-702-3121 職 :			
	運營委員	崔秀英 (縣監公派)	1946年 1月 2日生
언어학박사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탄리 교수APT. 다-204 ☎ 自 : 043-232-1696 職 : 043-230-3512			
	運營委員	崔順模 (典翰公派)	1937年 12月 17日生
天一化學(株) 會長 서울. 구로구 오류동 14-99 동부골드APT. 205-902 ☎ 自 : 02-2614-6828 職 : 02-684-1226 011-229-4919			

	運營委員	崔承福 (佐郎公派)	1927年 10月 29日生
建築業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7-19 ☎ 自 : 02-878-4331 職 :			
	運營委員	崔承綬 (大寧君派)	1930年 4月 12日生
강원지역 중친회장 / 초등학교장 정년퇴임 강원도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183 ☎ 自 : 033-434-2819 職 :			
	運營委員	崔承大 (海陵君派)	1933年 6月 10日生
고양시 재향군인회 회장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금호APT. 609-1002 ☎ 自 : 031-913-2330 職 :			
	運營委員	崔承德 (佐郎公派)	1933年 5月 20日生
楊州宗親會長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 45 ☎ 自 : 031-847-0776 職 :			
	運營委員	崔承錄 (佐郎公派)	1943年 12月 18日生
세종로 새마을협의회 회장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APT. 1501 ☎ 自 : 02-738-7800 職 : 02-737-7710			
	運營委員	崔勝憲 (監察公派)	1953年 2月 28日生
의학박사 / 경원대학교 교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현대 APT. 101-1101 (叔父.기호) ☎ 自 : 032-435-8838 職 : 032-460-3514(비서실)			

	運營委員	崔承晚 (佐郎公派)	1958年 9月 5日生
<p>서울 방배동 우체국장 서울 서초구 방배동 773-11 ☎ 自 : 02-594-0210 職 : 02-593-0004</p>			
	運營委員	崔陽炫 (縣監公派)	1935年 5月 20日生
<p>農業 / 郡東面長 停年退任 전남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216 ☎ 自 : 061-433-5262 職 :</p>			
	運營委員	崔連壽 (生員公派)	1935年 6月 29日生
<p>農業 / 生員公派 醴泉宗親會長 경북 예천군 지보면 수월2동 494 ☎ 自 : 054-653-2587 職 :</p>			
	運營委員	崔連守 (監察公派)	1934年 3月 22日生
<p>農業 / 監察公派 咸平門中代表 전남 함평군 한평읍 석성리 24 ☎ 自 : 061-322-9271 職 :</p>			
	運營委員	崔永哲 (佐郎公派)	1932年 4月 3日生
<p>龍仁專門大 理事長, 국일제지(주) 會長 서울. 성동구 옥수동 230-1 한남하이츠A.1-905 ☎ 自 : 02-297-3391 職 : 02-2267-4252, 031-337-1981</p>			
	運營委員	崔永哲 (書雲副正公派)	1935年 1月 6日生
<p>貸貸業 서울 양천구 목동 523-1 ☎ 自 : 02-2648-1009 職 : 02-2651-2254</p>			

	運營委員 崔榮琪 (佐郎公派) 1937年 1月 5日生
	運營委員 崔英勳 (佐郎公派) 1941年 11月 17日生 公認會計士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7가 117-4 ☎ 自 : 02-923-2626 職 : 02-735-0241
	運營委員 崔玉燮 (海陵君派) 1929年 11月 15日生 前 大宗會 監事 / 前 教育社 專務 서울 양천구 신정2동 대림A. 101-702 ☎ 自 : 02-651-1110 職 :
	運營委員 崔溫根 (校理公派) 1942年 6月 1日生 (주)평화 전기 감리단 기술고문, 전.한전 제1시설부장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1동 693-5 ☎ 自 : 032-656-1971 職 : 011-509-2627
	運營委員 崔龍得 (佐郎公派) 1939年 2月 11日生 시민주차장 대표 부천시 원미구 중동 898 ☎ 自 : 032-662-8172 職 : 032-667-8172
	運營委員 崔元溥 (進士公派) 1933年 12月 29日生 前 美8軍 文官 대구시 수성구 파동 110-89 ☎ 自 : 053-766-8832 職 :

	運營委員	崔元永 (佐郎公派)	1932年 12月 30日生
속초지방 행정동우회 회장 강원도 속초시 교동618-10 현대 A.104-1307 ☎ 自 : 033-631-3522 職 : 033-633-2196			
	運營委員	崔圓鍾 (承旨公派)	1940年 2月 27日生
農業 보성중친회장 전남 보성군 북내면 계산리2구 286 ☎ 自 : 061-852-6291 職 :			
	運營委員	崔偉根 (校理公派)	1933年 3月 18日生
自營業 校理公派 壯年會長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 ☎ 自 : 02-543-7592 職 :			
	運營委員	崔有燮 (佐郎公派)	1947年 12月 15日生
유원산업(주) 회장 서울 종로구 홍지동 20-7 ☎ 自 : 02-3216-0500 職 : 031-862-3322			
	運營委員	崔義先 (司正公派)	1929年 12月 6日生
두원정밀공업사 대표 인천시 남동구 만수1동 977-1 (18/1) 4층B호 ☎ 自 : 032-463-0628 職 : 032-462-6764			
	運營委員	崔義光 (典翰公派)	1941年 9月 20日生
광근철물 대표 인천시 남동구 구월4동 1272-1 ☎ 自 : 032-465-0300 職 : 032-465-0300			

	運營委員	崔履福 (佐郎公派)	1927年 2月 25日生
<p>선아유치원 이사장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 우성A.단지내 선아유치원 ☎ 自 : 032-817-4467 職 : 032-815-1437</p>			
	運營委員	崔仁求 (佐郎公派)	1937年 5月 6日生
<p>세명염직(주) 대표이사 / 自明宗親會長 경북 경산시 정평동 207-1 청호그린코아 ☎ 自 : 053-811-5700 職 : 053-355-1441</p>			
	運營委員	崔仁範 (僕射公派)	1949年 1月 14日生
<p>友田메디칼 대표이사 / 僕射公派 宗親會代表 서울 송파구 문정동 휘밀리A.218-506 ☎ 自 : 02-408-4901 職 : 02-555-9997</p>			
	運營委員	崔仁燮 (縣監公派)	1942年 4月 2日生
<p>합동수산 대표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1 (5층) ☎ 自 : 02-418-5537 職 : H.P 011-780-5537</p>			
	運營委員	崔仁植 (進士公派)	1947年 3月 19日生
<p>부광건설 / 휴게소대표 경북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 622-1 ☎ 自 : 054-552-3273 職 : 054-553-0845</p>			
	運營委員	崔仁秉 (文貞公派)	1950年 3月 18日生
<p>自營業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81-18 ☎ 自 : 032-656-5342 職 : 032-655-7708</p>			

	運營委員	崔長善 (將仕郎公派)	1931年 4月 20日生
羅州鄉校掌議 전남 나주시 석현동 12-6 ☎ 自 : 061-334-4578 職 : 061-334-2369			
	運營委員	崔長秀 (典翰公派)	1929年 11月 18日生
自營業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320-2 풍림아파트 101동 610호 ☎ 自 : 032-467-6258 職 :			
	運營委員	崔長春 (佐郎公派)	1939年 4月 18日生
동아파크모텔 대표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5리6반 ☎ 自 : 033-373-2563 職 : 019-274-4248			
	運營委員	崔將燮 (佐郎公派)	1944年 6月 14日生
自營業 / 華川宗親會長 서울 은평구 구산동 176 소라슈퍼 ☎ 自 : 02-389-8730 職 : 02-358-1454			
	運營委員	崔在龜 (生員公派)	1931年 7月 23日生
農業 / 保寧宗親會長 충남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산23-1 ☎ 自 : 041-935-8387 職 :			
	運營委員	崔在榮 (典翰公派)	1932年 7月 29日生
전한공파 내장문중대표 / 公務員 退任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707 현대A.102-109 ☎ 自 : 02-846-9486 職 :			

	運營委員	崔 在 殷 (典翰公派)	1933年 5月 16日生
<p>會社員 / 前 城南市 宗親會長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산21 보광A.3-109 ☎ 自 : 031-745-5517 職 :</p>			
	運營委員	崔 載 赫 (監察公派)	1934年 6月 18日生
<p>法務士 경기도 안성시 안성읍 봉담리 30 ☎ 自 : 031-675-2450 職 : 031-675-2400</p>			
	運營委員	崔 在 新 (縣監公派)	1935年 2月 8日生
<p>農業 강진중친회장 전남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700 ☎ 自 : 061-433-5248 職 :</p>			
	運營委員	崔 載 弘 (監察公派)	1937年 5月 7日生
<p>삼광섬유(주) 전무이사 서울 송파구 방이동 225 한양3차A.2-709 ☎ 自 : 02-422-2316 職 : 02-587-3091</p>			
	運營委員	崔 在 源 (佐郎公派)	1938年 3月 7日生
<p>自營業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35-12 (101호) ☎ 自 : 031-713-7557 職 :</p>			
	運營委員	崔 載 豊 (海陵君派)	1945年 9月 1日生
<p>유진건설(주) 대표이사 대전시 서구 월평동 한아름A.109-201 ☎ 自 : 042-483-1996. 483-1967 職 :</p>			

	運營委員	崔 在 南 (縣監公派)	1947年 2月 20日生
동서공인중개사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73-4 남양연립 102 ☎ 自 : 031-567-7765 職 : 031-566-6508			
	運營委員	崔 在 哲 (佐郎公派)	1952年 2月 8日生
동일다이아몬드사 사장 부천시 오정구 원종2동 영화A.102-301 ☎ 自 : 032-671-6505 職 : 032-677-4305			
	運營委員	崔 占 澤 (縣監公派)	1944年 8月 18日生
오리엔탈케터링(주) 대표이사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968-1 ☎ 自 : 031-985-1558 職 : 02-589-0292			
	運營委員	崔 正 彦 (典翰公派)	1939年 12月 20日生
自營業 인천시 남구 관교동 13-7 쌍용APT 6동 703호 ☎ 自 : 032-429-8050 職 :			
	運營委員	崔 正 休 (承旨公派)	1940年 2月 28日生
會社員 / 公務員 停年退職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89 신광맨션 401 ☎ 自 : 031-451-2562 職 :			
	運營委員	崔 鍾 千 (大寧君派)	1931年 3月 2日生
松山宗親會長 / 海東影堂代表 충남 당진군 송산면 유곡리 ☎ 自 : 041-353-7968 職 :			

	運營委員	崔 琮 炫 (監察公派)	1933年 12月 27日生
<p>農業 / 監察公派 咸平門中 代表 전남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302 ☎ 自 : 061-322-2130 職 :</p>			
	運營委員	崔 鍾 琬 (進士公派)	1936年 6月 10日生
<p>호서관광 대표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24-18 ☎ 自 : 041-355-4276 職 : 041-352-2001</p>			
	運營委員	崔 宗 燮 (典翰公派)	1939年 2月 19日生
<p>삼성화재보험(주) 고문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햇빛마을A.2417-1301 ☎ 自 : 031-973-2737 職 : 02-754-8577</p>			
	運營委員	崔 鍾 健 (校理公派)	1941年 9月 9日生
<p>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삼호뉴타운 13-1102 ☎ 自 : 031-387-7287 職 : 02-353-9898</p>			
	運營委員	崔 鍾 弼 (佐郎公派)	1943年 2月 5日生
<p>玉山實業 代表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북리 477-2 ☎ 自 : 031-262-3220 職 : 031-262-1775</p>			
	運營委員	崔 周 溥 (文貞公派)	1920年 7月 19日生
<p>文貞公派 宗親會長 전북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96-11 ☎ 自 : 063-451-3221 職 :</p>			

	運營委員	崔 珠 在 (進士公派)	1924年 9月 25日生
進士公派 唐津宗親會 會長 충남 당진군 고대면 옥현리 642 ☎ 自 : 041-353-8779 職 :			
	運營委員	崔 周 鎬 (典翰公派)	1934年 1月 24日生
영암구립 중증대표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312 ☎ 自 : 061-472-0139 職 :			
	運營委員	崔 俊 榮 (大寧君派)	1936年 6月 28日生
최준영외과 원장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152-28 ☎ 自 : 031-846-5416 職 : 031-856-0998			
	運營委員	崔 駿 燮 (典翰公派)	1937年 3月 25日生
성산 종친회장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 自 : 043-881-7644 職 :			
	運營委員	崔 重 泰 (縣監公派)	1940年 1月 10日生
삼문사(주) 상무 부천시 원미구 중동 883 주공A.39-405 ☎ 自 : 032-663-5364 職 : 02-776-3433			
	運營委員	崔 之 憲 (執義公派)	1938年 3月 20日生
自營業 / 執義公派 宗親會長 대전시 동구 용운동 387-14 ☎ 自 : 042-283-8241 職 :			

	運營委員	崔 鎮 成 (佐郎公派)	1940年 10月 25日生
農業 / 禮山支會 幹事長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351-1 ☎ 自 : 041-335-6454 職 :			
	運營委員	崔 珍 泰 (司正公派)	1945年 12月 18日生
自營業 인천시 남구 주안4동 303-21 (11/3) ☎ 自 : 032-468-7128 職 :			
	運營委員	崔 鎮 鎬 (書雲副正公派)	1954年 7月 13日生
公務員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창리63 ☎ 自 : 031-885-2235 職 : 031-880-1454			
	運營委員	崔 燦 玉 (校理公派)	1928年 5月 2日生
自營業 / 公務員 停年退任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92-11 ☎ 自 : 02-832-6180 職 : 02-2634-5390 018-304-1444			
	運營委員	崔 昌 鉉 (典翰公派)	1929年 7月 25日生
坡州地域 宗親會長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412 ☎ 自 : 031-947-0355 職 : 031-942-4810			
	運營委員	崔 冲 在 (進士公派)	1938年 10月 12日生
국민회의 당진지구당 부위원장 충남 당진군 고대면 옥현리 771 ☎ 自 : 041-353-8776 職 :			

	運營委員 崔 泰 辰 (文貞公派) 1928年 8月 28日生
	<p>농업개발 연구소장 / 前 전문대학교수 경기동 안성시 공도면 승두리 62(사곡2리) ☎ 自 : 031-653-2008 職 :</p>
	運營委員 崔 幸 根 (校理公派) 1948年 9月 11日生
	<p>LINKO MARINE(株) 社長 서울 강남구 삼성동 97-2 시티APT B-702 ☎ 自 : 02-511-9547 職 : 011-766-3147</p>
	運營委員 崔 鶴 九 (進士公派) 1936年 1月 18日生
	<p>농촌지도자 군회장 / 문경중친회장 경북 문경시 영순면 포내리 132 ☎ 自 : 054-555-4747 職 : 011-560-4746</p>
	運營委員 崔 憲 (書雲副正公派) 1925年 1月 13日生
	<p>도서출판 학음사 사장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171-1 학음사 ☎ 自 : 031-916-0015 職 : 02-362-1971</p>
	運營委員 崔 虎 鎮 (大寧君派) 1938年 2月 7日生
	<p>佑鎬共營(주) 代表理事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509-12 (2층) ☎ 自 : 031-719-5904 職 : 011-719-5904</p>
	運營委員 崔 桓 龍 (承旨公派) 1935年 6月 5日生
	<p>석산중친회장 전남 무안군 해제면 석용리 769 ☎ 自 : 061-454-6633 職 :</p>

	運營委員	崔 洪 燮 (佐郎公派)	1936年 4月 25日生
<p>自營業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682-8 ☎ 自 : 031-261-0538 職 : 031-281-0586</p>			
	運營委員	崔 後 根 (典翰公派)	1948年 10月 29日生
<p>대일라도 보일러 부평대리점 / 린라이보일러 부평영업소 代表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광명14차아파트 106동 704호 ☎ 自 : 032-467-9859 職 : 032-521-3651 H.P 011-729-5834</p>			
	運營委員	崔 孝 善 (縣監公派)	1943年 9月 3日生
<p>自營業 서울 동작구 상도3동 316-8 ☎ 自 : 02-823-2934 職 :</p>			
	運營委員	崔 興 善 (監察公派)	1933年 1月 15日生
<p>自營業 서울 마포구 성산동 137-3 ☎ 自 : 02-373-4602 職 :</p>			
	運營委員	崔 囍 老 (佐郎公派)	1937年 5月 9日生
<p>會社員 서울 동작구 상도3동 306-1 ☎ 自 : 02-281-4200 職 : 02-650-7561</p>			
	運營委員	崔 熙 錫 (典翰公派)	1936年 11月 13日生
<p>自營業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풍림아파트 308동 1002호 ☎ 自 : 032-469-6478 職 :</p>			



運營委員

崔熙燮 (海陵君派)

1927年 11月 20日生

海陵君派 宗親會長

전북 익산시 낭산면 호암리 257-4

☎ 自 : 063-861-5488

職 :

海州崔氏宗誌 第3輯

2001年 3月 20日 印刷

2001年 3月 30日 發行

發行者 海州崔氏大宗會
會長 崔吉峻

編者 宗誌編纂委員會
委員長 崔愚

發行處 海州崔氏大宗會
京畿道 烏山市 內三美2洞 753-2
電話 031)372-5572 · 373-3806
FAX 031)373-3806
登錄 1999. 7. 8. 第12號

印 刷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49번지 지산빌딩 413호
TEL : 02)2275-1939 FAX : 02)2265-0621

校 正 : 崔潁植 · 劉榮日

축

총지 제3집 발간

해주최씨대종회

명예회장 길 준
회 장 만 기
부 회 장 승 균(수석)

병애 · 광수 · 관욱 · 성운
상철 · 을선 · 병욱 · 규철
대선 · 형일 · 항선 · 장수
순정

校理公派在北先祖設壇享祀



해주최씨 교리공파는 6.25사변때 피난 월남한 문중으로서 선영이 북한땅인 황해도 연백군에 있기 때문에 시향을 받들어 모실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을 통감한 불초 종말은 경기도 남양주군 남면 상수리에 재북선조 선영추모비를 세우고 해마다 시제철에 문중이 참례하는 향사를 봉행하고 있다.

교리공파 32세손 만 기 근지